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2013



연구진

연구책임	서 중 균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연구원	김 윤 이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 순 주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김 준 희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장 유 선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보조원

제 출 문

성북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3년 2월

(사)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 하성규

목차

제1장서론	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4
1) 공간적 범위	4
2) 시간적 범위	4
3. 연구의 방법과 내용	5
1) 연구의 방법	5
2) 연구의 내용	7
3) 연구의 수행체계도	8
제2장 성북구의 현황과 특성	13
1. 일반 현황	13
1) 위치	13
2) 행정구역	14
3) 기후	15
4) 지리지형	15
5) 녹지율	16
2. 물리적 현황	17
1) 토지이용 현황	17
2) 주택유형	18
3) 도로 및 교통	22
4) 공원 및 녹지	23
5) 주요 공공시설	25
3. 사회·경제적 현황	26
1) 인구	26
2) 풀뿌리단체, 직능단체, 주민모임	29
3) 산업·경제	31
4) 사회적경제	35
5) 보육 및 교육	36
6) 복지	37
7) 역사·문화 및 관광	39

4. 제도적 현황	42
1) 서울시 관련 계획	42
2) 성북구 관련 계획	43
제3장 성북구의 마을 현황과 과제	51
1. 조사 개요	51
1) 조사원칙	51
2) 조사단위	51
3)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51
4) 조사결과 정리방식 및 활용방법	54
2. 성북구 마을 현황 및 자원	57
1) 성북동	57
2) 삼선동	63
3) 동선동	69
4) 돈암1동	75
5) 돈암2동	79
6) 안암동	84
7) 보문동	89
8) 정릉1동	94
9) 정릉2동	99
10) 정릉3동	105
11) 정릉4동	110
12) 길음1동	114
13) 길음2동	120
14) 종암동	126
15) 월곡1동	131
16) 월곡2동	136
17) 장위1동	142
18) 장위2동	147
19) 장위3동	151
20) 석관동	155
제4장 성북구 마을만들기 수요와 과제	163
1. 설문조사	163
1) 설문조사 개요	163
2) 설문조사 결과	164
2. 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	175

1) 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 개요	175
2) 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 결과	175
제5장 성북구 마을만들기 비전과 목표	201
1.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철학	201
1) 마을만들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마을만들기의 정의	201
2)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개념	202
3)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철학	203
2.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비전과 목표	206
1) 성북구의 비전과 목표	206
2)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비전과 목표	207
제6장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213
1.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개요	213
1)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213
2) 중장기 구상 및 방향 설정	213
2.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유형별 추진방안	216
1)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유형	216
2)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 추진방안	218
3)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추진방안	227
4) 공동주택 밀집지역 추진방안	237
5) 임대주택 밀집지역 추진방안	246
6) 전통시장 지역 추진방안	255
7) 성곽 등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 추진방안	265
8) 산과 하천 주변 지역 추진방안	272
9) 한옥밀집지역 추진방안	279
10) 개발사업지역 추진방안	287
3.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분야별 추진방안	293
1)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293
2) 경제적 여건 개선 방안	298
3) 사회적 여건 개선 방안	303
4)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 방안	307
5)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312
6)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방안	317
4.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단계별 추진방안	321
1) 단계별 주요 과제	321
2) 단계별 추진전략	322

제7장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331
1.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방안	331
1)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현황	331
2) 다른 지자체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현황	333
3)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방안	340
2.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개선 방안	346
1)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현황	346
2) 다른 지자체 마을만들기 조례 현황	348
3)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개선 방안	352
3.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개선 방안	354
1)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현황	354
2) 다른 지자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현황	357
3)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평가	364
4)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개선 방안	365
4.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개선 방안	367
1)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현황	367
2) 다른 지자체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현황	370
3)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평가	375
4)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개선 방안	377

표 목차

[표 2-1] 성북구 행정구역 현황	14
[표 2-2] 성북구 주요 행정구역 변화	15
[표 2-3] 성북구 표고 분석	16
[표 2-4] 성북구 경사 분석	16
[표 2-5] 성북구 용도지역 현황	17
[표 2-6] 성북구 연도별 용도지역 현황	17
[표 2-7] 성북구 용도지구 현황	18
[표 2-8] 성북구 주택유형별 현황	18
[표 2-9] 성북구 동별 주택유형 현황	19
[표 2-10] 성북구 공동주택 현황	20
[표 2-11] 성북구 공공임대주택 현황	21
[표 2-12] 성북구 동별 주차 공급 현황	23
[표 2-13] 성북구 공원 현황	24
[표 2-14] 성북구 녹지 현황(2011년 기준)	24
[표 2-15] 성북구 주요 공공시설 현황	25
[표 2-16] 성북구 인구 현황	26
[표 2-17] 성북구 연령별 인구 현황	27
[표 2-18] 성북구 취약계층 현황	28
[표 2-19] 성북구 동별 수급자 및 독거노인 현황	28
[표 2-20] 성북구 민간단체 현황	29
[표 2-21] 성북구 마을회의 그룹 현황	30
[표 2-22] 성북구 2010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31
[표 2-23] 성북구 연도별 사업체 현황	32
[표 2-24] 성북구 2010년 동별 산업별 사업체 현황	33
[표 2-25] 성북구 사회적기업 현황	35
[표 2-26] 성북구 보육시설 현황(2011년 기준)	36
[표 2-27] 성북구 교육시설 현황(2011년 기준)	37
[표 2-28] 성북구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중 입소시설 현황	38
[표 2-29] 성북구 지역기반 사회복지시설 현황(2011년 기준)	38
[표 2-30] 성북구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38
[표 2-31] 성북구 문화재 현황	39
[표 2-32] 성북 100경 현황	40
[표 2-33] 성북구 문화공간 현황	40
[표 2-34] 성북구 공공체육시설 현황	41

[표 2-35] 성북구 2012년 축제 현황	41
[표 2-36] 동북권 중심지체계	42
[표 2-37] 서울시 경관기본계획상 동북권역 경관계획	43
[표 2-38] 2020 뉴-그린 성북비전 공원녹지계획	44
[표 3-1] 현장조사 주요 항목	52
[표 3-2] 주민인터뷰 주요 항목	52
[표 3-3] 주민인터뷰 질문지	52
[표 3-4] 동별 주민설명회 일정 및 참여 인원	53
[표 3-5] 성북동 마을행사 현황	59
[표 3-6] 성북동 사회적기업 현황	60
[표 3-7] 성북동 마을기업 현황	60
[표 3-8] 성북동 주민인터뷰 결과	61
[표 3-9] 성북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62
[표 3-10] 성북동 마을사업 예시 1안	62
[표 3-11] 성북동 마을사업 예시 2안	63
[표 3-12] 삼선동 사회적기업 현황	66
[표 3-13] 삼선동 마을기업 현황	66
[표 3-14] 삼선동 주민인터뷰 결과	67
[표 3-15] 삼선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68
[표 3-16] 삼선동 마을사업 예시 1안	68
[표 3-17] 삼선동 마을사업 예시 2안	69
[표 3-18] 동선동 사회적기업 현황	72
[표 3-19] 동선동 주민인터뷰 결과	72
[표 3-20] 동선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73
[표 3-21] 동선동 마을사업 예시 1안	74
[표 3-22] 동선동 마을사업 예시 2안	74
[표 3-23] 돈암1동 주민인터뷰 결과	77
[표 3-24] 돈암1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78
[표 3-25] 돈암1동 마을사업 예시 1안	78
[표 3-26] 돈암1동 마을사업 예시 2안	79
[표 3-27] 돈암2동 주민인터뷰 결과	82
[표 3-28] 돈암2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83
[표 3-29] 돈암2동 마을사업 예시 1안	83
[표 3-30] 돈암2동 마을사업 예시 2안	84
[표 3-31] 안암동 주민인터뷰 결과	87
[표 3-32] 안암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88
[표 3-33] 안암동 마을사업 예시 1안	88

[표 3-34] 안암동 마을사업 예시 2안	89
[표 3-35] 보문동 사회적기업 현황	92
[표 3-36] 보문동 주민인터뷰 결과	92
[표 3-37] 보문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93
[표 3-38] 보문동 마을사업 예시 1안	94
[표 3-39] 보문동 마을사업 예시 2안	94
[표 3-40] 정릉1동 주민인터뷰 결과	97
[표 3-41] 정릉1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98
[표 3-42] 정릉1동 마을사업 예시 1안	98
[표 3-43] 정릉1동 마을사업 예시 2안	99
[표 3-44] 정릉2동 주민인터뷰 결과	102
[표 3-45] 정릉2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103
[표 3-46] 정릉2동 마을사업 예시 1안	104
[표 3-47] 정릉2동 마을사업 예시 2안	104
[표 3-48] 정릉3동 주민인터뷰 결과	108
[표 3-49] 정릉3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108
[표 3-50] 정릉3동 마을사업 예시 1안	109
[표 3-51] 정릉3동 마을사업 예시 2안	109
[표 3-52] 정릉4동 주민인터뷰 결과	113
[표 3-53] 정릉4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113
[표 7-54] 정릉4동 마을사업 예시안	114
[표 3-55] 길음1동 사회적기업 현황	117
[표 3-56] 길음1동 주민인터뷰 결과	118
[표 3-57] 길음1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119
[표 3-58] 길음1동 마을사업 예시 1안	119
[표 3-59] 길음1동 마을사업 예시 2안	120
[표 3-60] 길음2동 주민인터뷰 결과	123
[표 3-61] 길음2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124
[표 3-62] 길음2동 마을사업 예시 1안	125
[표 3-63] 길음2동 마을사업 예시 2안	125
[표 3-64] 종암동 사회적기업 현황	128
[표 3-65] 종암동 주민인터뷰 결과	129
[표 3-66] 종암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129
[표 3-67] 종암동 마을사업 예시안	130
[표 3-68] 월곡1동 사회적기업 현황	133
[표 3-69] 월곡1동 주민인터뷰 결과	134
[표 3-70] 월곡1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135
[표 3-71] 월곡1동 마을사업 예시 1안	135

[표 3-72] 월곡1동 마을사업 예시 2안	136
[표 3-73] 월곡2동 사회적기업 현황	139
[표 3-74] 월곡2동 주민인터뷰 결과	140
[표 3-75] 월곡2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140
[표 3-76] 월곡2동 마을사업 예시 1안	141
[표 3-77] 월곡2동 마을사업 예시 2안	142
[표 3-78] 장위1동 주민인터뷰 결과	145
[표 3-79] 장위1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146
[표 3-80] 장위1동 마을사업 예시안	146
[표 3-81] 장위2동 주민인터뷰 결과	149
[표 3-82] 장위2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150
[표 3-83] 장위2동 마을사업 예시안	151
[표 3-84] 장위3동 주민인터뷰 결과	154
[표 3-85] 장위3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154
[표 3-86] 장위3동 마을사업 예시 1안	155
[표 3-87] 장위3동 마을사업 예시 2안	155
[표 3-88] 석관동 주민인터뷰 결과	159
[표 3-89] 석관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159
[표 3-90] 석관동 마을사업 예시 1안	160
[표 3-91] 석관동 마을사업 예시 2안	160
[표 4-1] 설문조사 개요	163
[표 4-2] 성별, 연령 및 고용상태	164
[표 4-3] 주택유형 및 주택점유형태	164
[표 4-4] 거주기간	165
[표 4-5]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거주하는 이유	166
[표 4-6] 앞으로도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	166
[표 4-7]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인지 여부	167
[표 4-8] 성북구가 발전하는 데 마을만들기 필요성 여부	167
[표 4-9]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할 의사	168
[표 4-10]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재생의 중요도	168
[표 4-11] 물리적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내용	169
[표 4-12] 경제적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내용	170
[표 4-13] 사회적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내용	170
[표 4-14] 성북구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북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171
[표 4-15]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에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172
[표 4-16]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에서 공동체 형성 및 복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173
[표 4-17]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이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	174

[표 4-18] 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 현황	175
[표 5-1] 마을만들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마을만들기의 정의	201
[표 5-2] <2020 성북비전>의 개념	206
[표 5-3] 성북구 민선5기 생활구정 비전과 목표	207
[표 6-1]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 관련 추진전략	218
[표 6-2]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관련 추진전략	228
[표 6-3] 공동주택 밀집지역 관련 추진전략	238
[표 6-4] 임대주택 밀집지역 관련 추진전략	247
[표 6-5] 전통시장 지역 관련 추진전략	256
[표 6-6] 성곽 등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 관련 추진전략	266
[표 6-7] 산과 하천 주변 지역 관련 추진전략	273
[표 6-8] 한옥밀집지역 관련 추진전략	280
[표 6-9] 개발사업지역 관련 추진전략	288
[표 6-10]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관련 추진전략	294
[표 6-11] 경제적 여건 개선 방안 관련 추진전략	298
[표 6-12] 사회적 여건 개선 방안 관련 추진전략	304
[표 6-13]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 방안 관련 추진전략	308
[표 6-14]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관련 추진전략	312
[표 6-15]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방안 관련 추진전략	318
[표 7-1]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중점 사업	333
[표 7-2]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의 주요 추진사업	335
[표 7-3]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337
[표 7-4]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의 항목과 내용	346
[표 7-5]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의 구성	349
[표 7-6]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의 구성	350
[표 7-7]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의 구성	351
[표 7-8]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유형	354
[표 7-9]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심사항목	355
[표 7-10]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유형	357
[표 7-11]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심사기준	358
[표 7-12] 안산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유형	359
[표 7-13] 안산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심사항목	360
[표 7-14]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실적(2000년~2012년)	361
[표 7-15] 2012년도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유형	361
[표 7-16]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	367

[표 7-17]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워크숍 내용	369
[표 7-18] 성북구 2012년 하반기 찾아가는 마을학교 내용	370
[표 7-19]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마을학교 교육 내용	371
[표 7-20]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도시대학 교육 내용	371
[표 7-21] 안산시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현황	372
[표 7-22] 안산시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교육 내용	373
[표 7-23] 광주시 북구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 교육 내용	374
[표 7-24] 광주시 북구 2012년 주민자치학교 교육 내용	374

그림 목차

[그림 1-1] 공간적 범위	4
[그림 1-2] 연구방법별 조사 현황	5
[그림 1-3] 연구의 수행체계도	9
[그림 2-1] 성북구 위치도	13
[그림 2-2] 성북구 월별 강수량 및 강수일수	15
[그림 2-3] 성북구 월별 평균 최고·최저기온	15
[그림 2-4] 성북구 권역별·동별 주택유형 현황	19
[그림 2-5] 성북구 공공임대주택 분포 현황	21
[그림 2-6] 성북구 교통운영체계	22
[그림 2-7] 성북구 세대수 및 인구밀도 분포 현황	27
[그림 2-8] 2012년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현황	31
[그림 2-9] 성북구 전통시장 분포 현황	34
[그림 2-10] 성북구 백화점 및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분포 현황	34
[그림 2-11] 성북구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입지 비교	35
[그림 2-12] 성북구 사회적경제 부문 분포 현황	36
[그림 2-13] 성북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44
[그림 2-14] 성북구 권역별 색채계획	45
[그림 2-15] 성북구 자전거도로 기존 계획안	45
[그림 2-16] 2020 성북의 중심지 체계	46
[그림 2-17] 관리권역별 비전	46
[그림 2-18] 개발사업 유형별 분포현황	47
[그림 2-19] 개발사업 추진단계별 분포현황	47
[그림 3-1] 동별 주민설명회 풍경	54
[그림 3-2] 동별 마을 현황 및 자원조사 결과 정리형식	55
[그림 3-3] 성북동의 물리적 현황	58
[그림 3-4] 삼선동의 물리적 현황	65
[그림 3-5] 동선동의 물리적 현황	71
[그림 3-6] 돈암동의 물리적 현황	76
[그림 3-7] 돈암2동의 물리적 현황	81
[그림 3-8] 안암동의 물리적 현황	86
[그림 3-9] 보문동의 물리적 현황	91

[그림 3-10] 정릉1동의 물리적 현황	96
[그림 3-11] 정릉2동의 물리적 현황	101
[그림 3-12] 정릉3동의 물리적 현황	106
[그림 3-13] 정릉4동의 물리적 현황	111
[그림 3-14] 길음1동의 물리적 현황	116
[그림 3-15] 길음2동의 물리적 현황	122
[그림 3-16] 종암동의 물리적 현황	127
[그림 3-17] 월곡1동의 물리적 현황	132
[그림 3-18] 월곡2동의 물리적 현황	138
[그림 3-19] 장위1동의 물리적 현황	144
[그림 3-20] 장위2동의 물리적 현황	148
[그림 3-21] 장위3동의 물리적 현황	153
[그림 3-22] 석관동의 물리적 현황	157
[그림 5-1]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개념	202
[그림 5-2] 성북구 주민이 생각하는 마을만들기 개념	203
[그림 5-3]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철학	205
[그림 5-4]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철학과 비전, 목표	209
[그림 6-1]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215
[그림 6-2] 성북구 마을만들기 유형화의 기준	216
[그림 6-3] 유형화에 따른 공간적 범위	217
[그림 6-4]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단계별 주요 과제	321
[그림 6-5]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단계별 추진전략	327
[그림 7-1]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요	331
[그림 7-2]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334
[그림 7-3] 안산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336
[그림 7-4] 광주시 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338
[그림 7-5]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방안	342
[그림 7-6] 2012년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현황	356
[그림 7-7] 2012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현황	356
[그림 7-8]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추진절차 개선 방안	366
[그림 7-9]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사업 개선 방안	377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성북구는 노후 주거지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주된 개발수법으로 적용해왔음. 하지만 최근에는 물리적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와 '사회·경제적 개선'을 포함하는 마을재생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
- 특히 전면철거 위주의 주택재개발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따라서 성북구가 추구하는 '주민이 주인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북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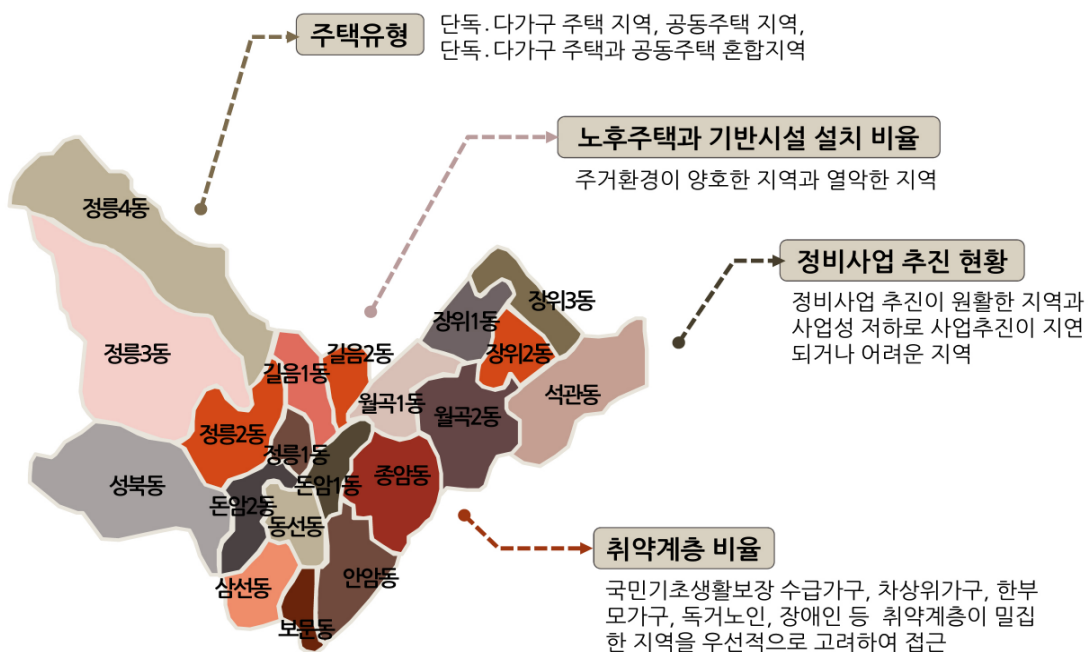
2) 연구의 목적

- 첫째, 성북구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동별 마을 현황과 자원을 조사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수요와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둘째, 성북구 및 마을 현황과 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 성북구 내 지역단체 활동가와 주민이 직접 조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마을만들기 활동의 주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셋째, 다양한 연구방법과 주민참여수법을 바탕으로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성북구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함
- 주택유형의 비율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 지역, 공동주택 지역, 단독·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 혼합지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함
- 노후된 주택과 기반시설 설치 비율에 따라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열악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함
-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한 지역과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지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비율에 따라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함



[그림 1-1] 공간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단기와 중기, 장기로 구분함
- 단기 : 2013년(1년)
- 중기 : 2014~2015년(2년)
- 장기 : 2016~2020년(5년)

3.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주민이 주인되는 마을만들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구방법은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수요와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조사가 함께 병행되며,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연구 진행과정에 성북구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활용함
- 특히, 마을 현황 및 자원 조사에 지역단체 활동가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주체의 마을만들기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행정동별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 과제를 도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하였음
- 연구방법별 조사현황은 다음과 같음



[그림 1-2] 연구방법별 조사 현황

(1) 문헌조사

- 성북구 일반 현황과 행정동별 마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성북구가 발간한 각종 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함
-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방법론에 대한 연구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함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구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함

(2) 통계분석

-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체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성북구 및 동별로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함

(3) 동별 현장조사

- 동일한 축척의 지도를 갖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방문자가 아닌 마을과 관련된 주체의 입장에서 마을현황에 대해 다각적으로 파악함
- 현장조사는 물리적 측면과 비물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음. 물리적 측면에서는 도로 및 교통, 주택유형, 관련 계획, 주요 시설(공공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공원 및 녹지), 지역 경계를 파악하였고, 비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사회적경제 자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등을 파악함

(4) 주민인터뷰

- 현장조사를 할 때, 현황조사 이외에도 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마을의 변화, 자랑거리, 개선할 점, 주민모임공간, 공동체 특성, 주민 갈등, 희망하는 마을상,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등을 파악함
- 주민인터뷰는 동장을 비롯하여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부녀회원, 새마을문고 등을 대상으로 함

(5) 동별 주민설명회

- 성북구 현황 및 특성, 마을 현황 및 자원 조사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행정동별로 정리·분석하여 기초 자료를 작성함
- 행정동별로 마을만들기 수요를 파악하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하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형태로 진행함
- 동별 주민설명회를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대의 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마을만들기의 과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도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함

(6) 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

- 지역사회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마을만들기 수요 파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다양한 계층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아동,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등을 포함함

(7) 설문조사

- 성북구 주민의 특성,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참여의사, 마을만들기 활동내용과 활성화 방안, 마을만들기 과제와 희망하는 마을상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지역단체 활동가와 주민으로 구성된 조사원이 동주민센터에 2일 동안 상주하면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2) 연구의 내용

(1) 성북구 현황 및 특성 조사

- 성북구 전체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크게 일반 현황, 물리적 현황, 사회·경제적 현황, 제도적 현황으로 구분하여 주요 특성을 파악함
- 일반현황 : 위치, 행정구역, 기후, 지리지형, 녹지율
- 물리적 현황 : 토지이용 현황, 주택유형,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주요 공공시설
- 사회·경제적 현황 : 인구, 풀뿌리단체, 직능단체, 주민모임, 산업·경제, 사회적경제, 보육 및 교육, 복지, 역사·문화 및 관광
- 제도적 현황 : 서울시 관련 계획, 성북구 관련 계획

(2) 성북구 마을 현황 및 자원 조사

- 마을 현황 및 자원 조사 단위를 행정동으로 설정하고, 20개동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인터뷰를 진행함. 이를 바탕으로 동별 마을만들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마을 현황 및 자원을 공유하고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인함
- 20개동별로 지역현황 및 자원, 주민인터뷰 결과, 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사업 예시안을 제시함

(3) 성북구 마을만들기 수요 및 과제 도출

-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과제를 도출함

(4) 성북구 마을만들기 목표 및 비전 설정

- 성북구의 특성에 맞는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철학을 제시함
-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성북구 마을만들기가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을 설정함

(5)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 성북구 마을만들기 목표 및 비전을 바탕으로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목적을 도출함
-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위한 중장기 구상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함
- 동단위별 마을만들기 수요와 과제를 바탕으로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유형별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뒤, 유형별 추진방안을 제시함
- 성북구 마을만들기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개선, 경제적 여건 개선, 사회적 여건 개선,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 분야별 추진방안을 제시함
- 성북구 마을만들기 목표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 등 단계별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함

(6)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성북구 마을만들기가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성북구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성북구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마을만들기 주민역량 강화 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함

3) 연구의 수행체계도

- 본 연구의 수행체계도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1-3] 연구의 수행체계도

제2장

성북구의 현황과 특성

1. 일반 현황
2. 물리적 현황
3. 사회·경제적 현황
4. 제도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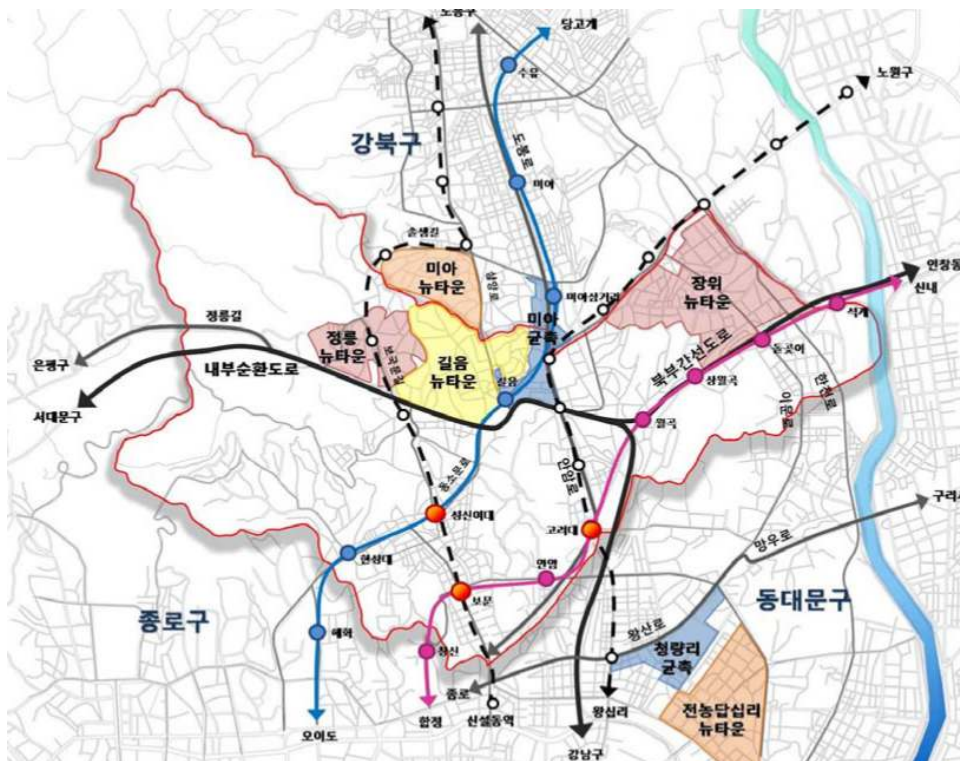
제2장

성북구의 현황과 특성

1. 일반 현황

1) 위치

- 성북구는 서울 동북권(동북2생활권)에 속하며 위치상 의정부 등 서울 북부 외곽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부도심권으로서 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함
- 도심 지역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가 관통하고 지하철 4, 6호선 및 경전철(개통 예정)이 지나는 교통의 결절지역임



[그림 2-1] 성북구 위치도

자료 : 2020 성북비전(2011)

2) 행정구역

- 성북구는 2010년 기준으로 20개 행정동과 39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6년까지는 행정동이 30개로 구성되었으나 2007년 행정동 통폐합을 통해 20개로 감소하였음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465통 3,769반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동면적이 가장 작은 정릉1동이 14개 통으로 가장 적고 석관동이 43개통으로 가장 많음. 정릉3동과 정릉4동, 성북동은 동면적은 넓지만 녹지 및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평균 규모인 20개 내외의 통으로 이뤄짐

[표 2-1] 성북구 행정구역 현황

단위 : km², %, 개

구분	면적		동		통	반
			행정	법정		
2005	24.57	(100.0)	30	39	572	3,981
2006	24.56	(100.0)	30	39	583	4,049
2007	24.57	(100.0)	20	39	562	4,011
2008	24.57	(100.0)	20	39	453	3,693
2009	24.57	(100.0)	20	39	453	3,693
2010	24.57	(100.0)	20	39	465	3,769
성북동	2.86	(11.6)	1	4	21	177
삼선동	0.92	(3.7)	1	8	26	188
동선동	0.73	(3.0)	1	9	19	130
돈암동	0.49	(2.0)	1	1	18	146
돈암2동	0.48	(2.0)	1	2	19	140
안암동	1.33	(5.4)	1	5	22	155
보문동	0.56	(2.3)	1	7	21	143
정릉1동	0.44	(1.8)	1	1	14	113
정릉2동	1.17	(4.8)	1	2	22	170
정릉3동	3.71	(15.1)	1	1	24	169
정릉4동	3.13	(12.7)	1	1	24	216
길음1동	0.79	(3.2)	1	1	23	205
길음2동	0.58	(2.4)	1	2	20	172
종암동	1.46	(5.9)	1	1	34	267
월곡1동	0.81	(3.3)	1	1	22	231
월곡2동	1.36	(5.5)	1	2	19	157
장위동	0.70	(2.8)	1	1	29	246
장위2동	0.67	(2.7)	1	1	23	199
장위3동	0.65	(2.6)	1	1	22	188
석관동	1.73	(7.0)	1	1	43	357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 성북구의 주요 행정구역 변화를 살펴보면, 성북구는 1949년 8월 13일 설치되었으며(동대문구 일부 지역과 고양군 송인면 일부 지역 포함), 1988년 5월 1일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를 시행하여 자치구로 승격되었음
- 1963년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을 포함하면서 면적이 확대되었다가 1973년 일부 행정구역이 새로 설치된 도봉구로 분리되면서 축소됨
- 현재는 20개 행정동과 39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행정구역 변화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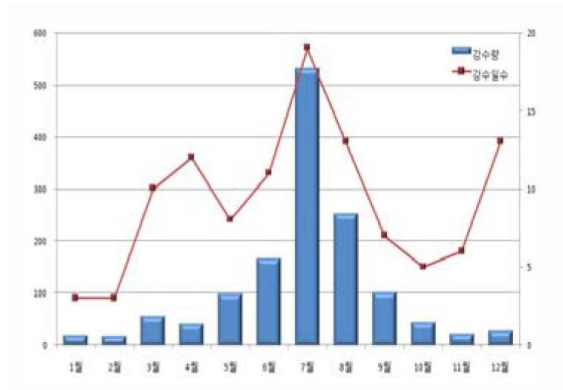
[표 2-2] 성북구 주요 행정구역 변화

시기	주요 역사
1940년~ 195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3년 4월 1일 : 경성부제 개편으로 동대문구의 일부로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를 실시하였는데, 종전의 4개(용산, 동부, 서부, 영등포) 출장소를 폐지, 동부출장소 관내를 동대문구와 성동구로 그 외를 각각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로 하였으며 도성 내에 종로구와 중구를 신설하여 모두 7개구로 실시함 • 1949년 8월 13일 :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해 성북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문구 돈암동, 안암동1·2·3·4·5가 성북구에 편입 - 동대문구 성북동 및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석관리, 장이리, 번리, 우이리, 수유리, 상하월곡리, 미아리, 정릉1리 성북구에 편입 • 1951년 3월 27일 : 성북구청 복귀 개청함
196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년 11월 21일 : 서울시의 행정구역을 확장하여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전역을 성북구에 편입하고 동군 구리면 중 5개리를 동대문구에 편입. 성북구의 면적은 종전까지의 45.79km² 에서 배가 넘는 106.49km² 로 확장됨
197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3년 3월 12일 : 7월 1일부터 도봉구가 새로이 탄생, 성북구의 관할구역이 축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봉구가 창설됨으로서 성북구의 면적은 종전의 106.49km²에서 23.37km²로 축소됨
1980년~ 19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5월 : 30개 행정동(39개 법정동)으로 관할됨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0월 20일 : 20개의 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으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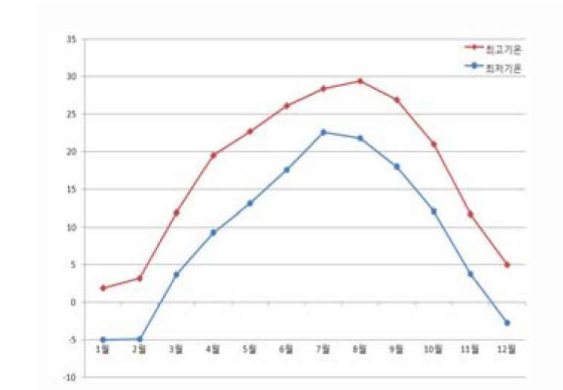
자료 : 성북구청 홈페이지

3) 기후

- 전체 강수량의 69.8%가 여름철(6~8월경)에 집중되어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겨울철(12~2월)은 전체 강수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계절별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



[그림 2-2] 성북구 월별 강수량 및 강수일수



[그림 2-3] 성북구 월별 평균 최고·최저기온

자료 : 2020 성북비전(2011)

4) 지리지형

- 시가지의 대부분이 표고 50m 내외의 평탄지로 구성되어 있음. 개발이 용이한 표고 50m 미만 지역이 전체 면적의 38.5%를 차지함
- 시가지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개발 가능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개발이 용이한 경사 10° 미만 지역이 전체 면적의 56.5%를 차지함

- 성북구 전역에 구릉지가 발달하여 기존 자연지형에 의한 자연발생적 시가지 형성으로 도시공간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기존 시가지가 입지한 지역은 구릉지의 평탄한 지형을 나타내며, 중랑천과 연결한 장위동과 석관동 일대는 저지대 형성으로 침수위험이 상존함

[표 2-3] 성북구 표고 분석

단위 : km ² , %						
구분	계	50m 미만	50~100m	100~150m	150~200m	200m 이상
면적	24.57	9.46	6.49	3.14	1.72	3.73
비율	100.0	38.5	26.4	12.8	7.0	15.2

자료 : 2020 성북비전(2011)

[표 2-4] 성북구 경사 분석

단위 : km ² , %						
구분	계	10° 미만	10~20°	20~30°	30~40°	40° 이상
면적	24.57	13.88	6.83	3.05	0.71	0.10
비율	100.0	56.5	27.8	12.4	2.9	0.4

자료 : 2020 성북비전(2011)

5) 녹지율

- 성북구 내 녹지율 5% 미만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개발밀도가 높은 시가지화 지역으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북한산 국립공원 및 성북구 내 근린공원 주변 지역이 녹지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며, 자연성이 높고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계 보전대책이 필요함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는 전체 면적의 35.1%인데, 이 중 산림면적이 31.4%임. 산림은 성북구 서측의 북한산, 북악산 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음

2. 물리적 현황

1) 토지이용 현황

- 성북구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주거지역이 17,084,539㎡로 전체의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녹지지역이 6,564,308㎡(26.7%), 상업지역이 901,153㎡(3.7%)으로 나타남. 공업지역은 존재하지 않음
-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7.1%로 가장 많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19.5%), 제3종 일반주거지역(16.4%), 전용주거지역(4.4%), 준주거지역(2.2%)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 성북구 용도지역 현황

단위 : ㎡, %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소계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24,550,000 (100.0)	17,084,539 (69.6)	1,074,890 (4.4)	15,457,823 (63.0)	4,775,977 (19.5)	6,653,726 (27.1)	4,028,121 (16.4)	551,826 (2.2)	901,153 (3.7)	-	6,564,308 (26.7)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 연도별로 용도지역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 녹지지역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음
- 하지만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 주거지정비사업의 결과이며, 단독주택이 공동주택 단지로 변경되면서 종 상향이 이뤄졌기 때문임

[표 2-6] 성북구 연도별 용도지역 현황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24,554,321	24,550,000	24,550,000	24,550,000	24,550,000	24,550,000	24,550,000
소계	16,898,579	17,087,987	17,087,987	17,084,539	17,084,539	17,084,539	17,084,539
전용주거지역	930,000	1,075,546	1,075,546	1,074,890	1,074,890	1,074,890	1,074,890
일반주거지역	15,455,479	15,499,341	15,499,341	15,484,853	15,484,853	15,478,462	15,457,823
제1종 일반	4,781,962	4,948,138	4,938,652	4,804,261	4,803,778	4,801,148	4,775,977
제2종 일반	6,722,498	6,600,184	6,611,891	6,722,824	6,730,542	6,728,321	6,653,726
제3종 일반	3,951,019	3,951,019	3,948,798	3,957,768	3,950,533	3,948,993	4,028,121
준주거지역	513,100	513,100	513,100	524,796	524,796	531,187	551,826
상업지역	901,153	901,153	901,153	901,153	901,153	901,153	901,153
공업지역	-	-	-	-	-	-	-
녹지지역	6,754,590	6,560,860	6,560,860	6,564,308	6,564,308	6,564,308	6,564,308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 성북구의 용도지구 현황을 보면, 총 24개소, 3,804,073㎡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구로 지정

되어 있음. 세부적으로는 자연경관지구가 2개소, 중심지미관지구가 5개소, 역사문화미관지구가 2개소, 일반미관지구 6개소, 방화지구 8개소, 취락지구 1개소임.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83.0%)이 자연경관지구에 포함됨

[표 2-7] 성북구 용도지구 현황

			단위 : 개, m ²
구분	개소	면적	
합계	24	3,804,073	
경관지구	소계	2	3,157,247
	자연경관지구	2	3,157,247
미관지구	소계	13	592,080
	중심지미관지구	5	217,680
	역사문화미관지구	2	116,700
	일반미관지구	6	257,700
방화지구	8	50,000	
취락지구	1	4,746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2) 주택유형

- 성북구의 주택보급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98.9%이며, 2005년 104,918호에 비해 2010년에는 1.5배 이상 늘어난 161,090호임. 주택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이 4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파트(40.9%), 다세대주택(11.8%)의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보면 단독주택은 2005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반면에 다가구주택은 6배 이상, 아파트는 1.5배 이상 증가하였음. 노후한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주거지를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규 공급하였기 때문에 주택유형의 비율이 크게 달라졌음. 앞으로도 뉴타운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단독주택 감소 및 아파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여겨짐

[표 2-8] 성북구 주택유형별 현황

구분	일반 가구수	주택유형별 주택수								주택 보급률
		합계	단독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 보급률	
			소계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2005	110,162	104,918	42,958	34,350	8,608	41,983	5,931	14,046	-	95.2
2006	116,985	108,925	33,864	24,083	9,781	49,243	7,666	16,573	1,579	93.1
2007	117,382	110,926	32,391	22,712	9,679	53,399	7,551	16,006	1,579	94.5
2008	148,350	143,231	61,660	21,806	39,854	56,222	7,497	16,273	1,579	96.5
2009	148,789	145,281	61,046	21,350	39,696	58,651	7,497	16,508	1,579	97.6
2010	162,896	161,090 (100.0)	68,962 (42.8)	16,358 (10.1)	52,604 (32.7)	65,889 (40.9)	6,074 (3.8)	18,938 (11.8)	1,227 (0.8)	98.9

주 : 1) 통계청 「2010 주택총조사」 통계를 기반으로,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2)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함(비혈연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및 외국인은 제외
 3) 영업경용 단독주택 포함. 영업용 단독주택이란 주거용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부분이 50%이상인 주택을 말함
 4) 산정기준 변경 : 기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1등으로 집계되었으나,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거주호수별로 집계
 5) 영업용 목적의 건물 내에 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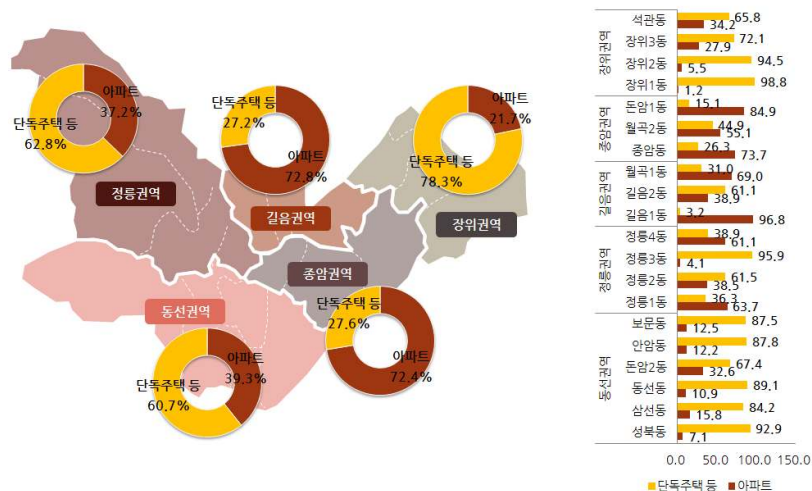
- 주택유형을 단순화하여 아파트와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행정동별로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남
-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의 비율은 장위1동이 98.8%로 가장 높고, 정릉3동(95.9%), 장위2동(94.5%), 성북동(91.8%)의 순으로 나타남. 20개 행정동 중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는 9개동임. 반대로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뉴타운사업이 거의 완료된 길음1동으로 아파트 비율이 96.8%임. 이외에도 기존의 달동네들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돈암2동(93.8%), 돈암1동(84.9%), 종암동(73.7%)이 아파트 비율이 높은 편임

[표 2-9] 성북구 동별 주택유형 현황

단위 : 호, %

구분	주택유형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 비율
	합계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합계	131,288	64,138	43,009	24,141	51.1
성북동	4,760	391	3,759	610	91.8
삼선동	4,677	1,082	2,565	1,030	76.9
동선동	2,846	399	1,606	841	86.0
돈암1동	5,213	4,424	364	425	15.1
돈암2동	7,413	6,952	169	292	6.2
안암동	3,375	629	2,694	52	81.4
보문동	4,192	698	1,848	1,646	83.3
정릉1동	5,298	3,373	1,213	712	36.3
정릉2동	7,109	2,739	1,850	2,520	61.5
정릉3동	8,570	350	5,470	2,750	95.9
정릉4동	8,118	4,964	1,123	2,031	38.9
길음1동	8,318	8,050	115	153	3.2
길음2동	5,039	1,962	1,846	1,231	61.1
종암동	20,446	15,078	2,718	2,650	26.3
월곡1동	7,339	5,061	1,465	813	31.0
월곡2동	5,337	2,939	1,942	456	44.9
장위1동	4,725	57	2,911	1,757	98.8
장위2동	3,694	202	2,669	823	94.5
장위3동	4,471	1,248	2,257	966	72.1
석관동	10,348	3,540	4,425	2,383	65.8

자료 : 각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그림 2-4] 성북구 권역별·동별 주택유형 현황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관리대상과 임의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아파트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고, 5층 이상이며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임의관리대상에 포함됨
- 성북구에는 총 159개 공동주택 단지가 위치하며, 966개동으로 구성되며 세대수는 67,425세대임. 이중 111개 단지가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고, 나머지 48개 단지가 임의관리대상에 포함됨

[표 2-10] 성북구 공동주택 현황

		단위 : 개, 세대		
구분	공동주택 유형	단지수	동수	세대수
	합계	159	966	67,425
의무관리대상	소계	111	831	64,204
	아파트(분양)	82	782	56,473
	아파트(임대)	23	36	6,249
	주상복합	6	13	1,482
	소계	48	135	3,221
임의관리대상	아파트(분양)	21	33	1,637
	연립	25	100	1,404
	주상복합	2	2	180

자료 : 성북구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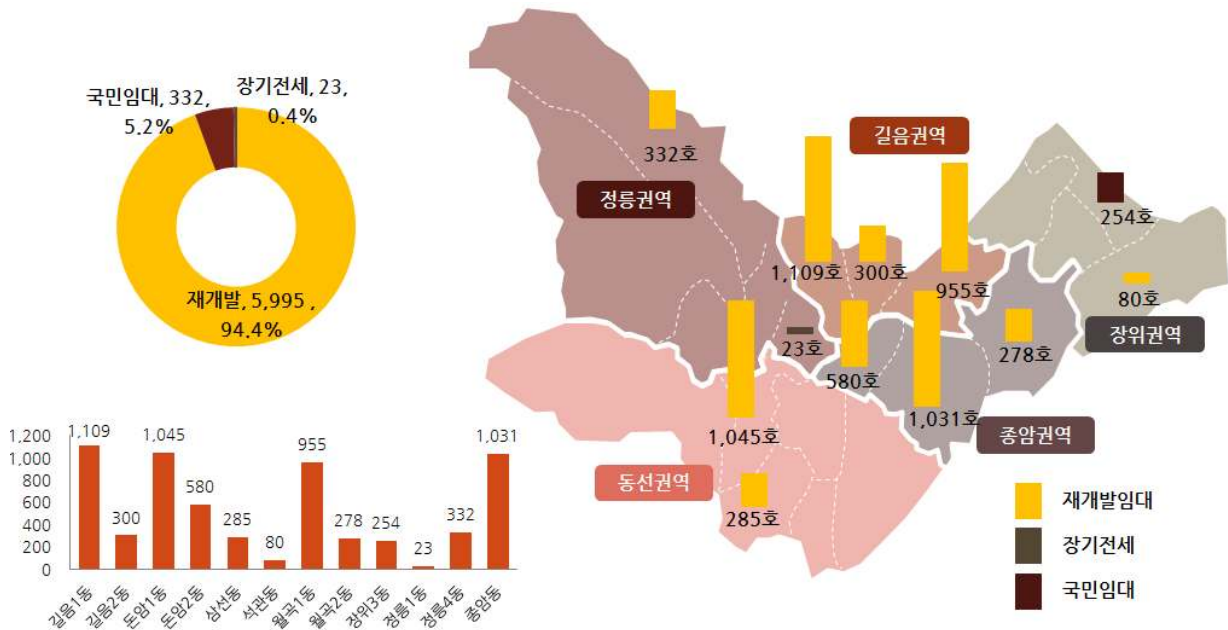
- 성북구 내 공공임대주택¹⁾은 24개 단지, 6,272세대임. 이 중 재개발임대주택이 5,995세대로 거의 대부분(94.4%)을 차지하고 있음.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이 각각 1개 단지가 있으며, 세대수는 254세대, 23세대에 불과함
- 행정동별로 보면, 길음1동, 돈암1동, 월곡1동, 종암동 등 4개동에 1,000세대 내외로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4개동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기 때문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의 17% 이상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를 당하는 세입자를 위한 재개발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입주자의 소득수준이 낮고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으므로, 취약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1) 단독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은 제외하고,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만 포함하였음

[표 2-11] 성북구 공공임대주택 현황

구분	유형	아파트명	주소	세대수	준공일
길음1동	재개발임대주택	길음SH-ville	성북구 길음로 74	90	2007
	재개발임대주택	길음뉴타운3단지	성북구 길음로13길 39	282	2005
	재개발임대주택	길음뉴타운4단지	성북구 길음로 118	276	2005
	재개발임대주택	길음뉴타운7단지	성북구 길음로 13길 22	99	2010
	재개발임대주택	길음뉴타운8단지	성북구 길음로 33	120	2010
길음2동	재개발임대주택	길음뉴타운9	성북구 길음로9길 50	242	2010
	재개발임대주택	길음동부	성북구 송인로2길 61	300	2002
돈암1동	재개발임대주택	돈암삼성	성북구 동소문로34길 24	736	1999
	재개발임대주택	돈암풍림	성북구 북악산로 898	309	1999
돈암2동	재개발임대주택	동소문한진	성북구 성북로4길 52	580	1998
삼선동	재개발임대주택	삼선1 SH-Ville	성북구 보문로29다길 25-9	285	2008
석관동	재개발임대주택	래미안 석관	성북구 화랑로 214	80	2009
	재개발임대주택	월곡2 SH-Ville	성북구 회기로5길 142	209	2008
	재개발임대주택	월곡3 SH VILLE	성북구 오패산로 90	288	2008
월곡1동	재개발임대주택	월곡두산	성북구 오패산로 46	458	2003
	재개발임대주택	상월곡동아	성북구 장월로1길 28	278	2002
장위3동	국민임대주택	장월1단지	성북구 한천로101길 54	254	2006
정릉1동	장기전세주택	정릉라운유	성북구 정릉로 307	23	2008
정릉4동	재개발임대주택	정릉풍림아이원	성북구 솔샘로25길 11-14	332	2003
	재개발임대주택	래미안종암2차	성북구 종암로23길 35	206	2009
종암동	재개발임대주택	래미안종암3차	성북구 종암로 24길 80	188	2010
	재개발임대주택	종암2차SK뷰	성북구 종암로 24길 35	68	2010
	재개발임대주택	종암SH-ville	성북구 종암로9길 71	104	2007
	재개발임대주택	종암SK	성북구 종암로24가길 53	465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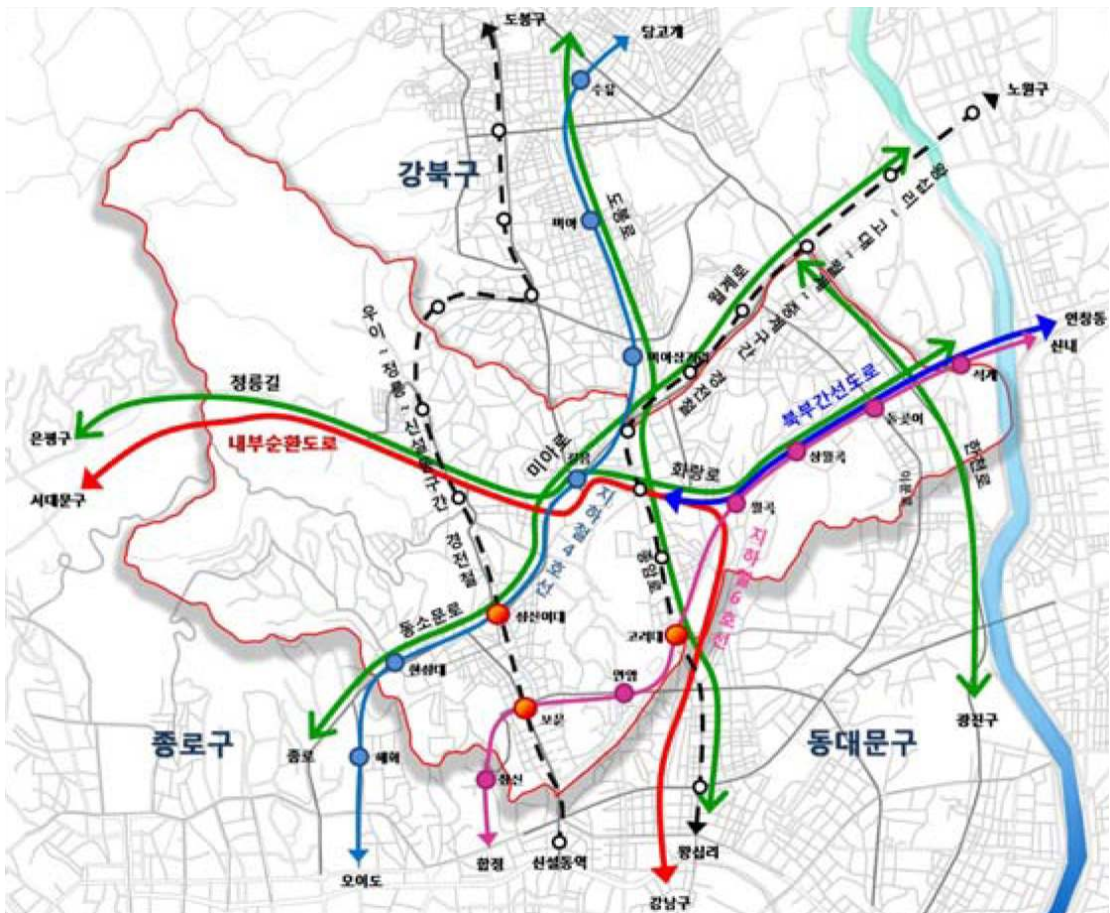
자료 : SH공사 홈페이지



[그림 2-5] 성북구 공공임대주택 분포 현황

3) 도로 및 교통

- 성북구는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등 2개의 주요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주요 교통체계로 남북방향으로 동소문로/미아로, 종암로, 한천로가 통과하고 동서방향으로 정릉길, 화랑로가 주요 도로망을 형성함
-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을 중심으로 도심, 동남생활권, 동북생활권을 연결하고 있으며, 우이~정릉~신설동 구간과 왕십리~고대~월계~중계 구간을 연결하는 경전철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지하철 접근성은 높은 편임



[그림 2-6] 성북구 교통운영체계

자료 : 2020 성북비전(2011)

- 성북구 주차장 현황을 보면, 2010년 기준 총 16,679개소, 121,078면으로, 등록차량 112,821대와 비교하면 107.3%의 주차공급률을 보이고 있음. 주차장 유형별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전체 주차면수의 89.7%에 해당하는 108,656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영 노외주차장은 1,061면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함. 삼선동, 돈암1동, 보문동, 길음1동, 월곡1동의 경우 공영주차장이 없음
- 동별로 살펴보면 주차공급률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성북동이 214.4%로 가장 높은 주차공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릉3동(192.8%), 돈암1동(192.5%), 장위3동(172.9%), 동선동(158.8%)은

- 150% 이상의 주차공급률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종암동은 주차공급률이 38.0%에 불과하고, 월곡1동(48.7%), 돈암2동(70.5%), 정릉2동(77.6%)은 주차공급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성북구는 단독주택지 등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그린파킹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지역 등 전면철거가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하면 담장, 대문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주택은 모두 지원대상이 됨. 지원범위는 주차장 1면의 경우 700만원, 2면 850만원, 3면 이상 1면당 100만원씩 추가하여 최대 1,6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아파트의 경우는 주차장이 부족한 아파트 17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를 지원함. 그린파킹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까지 총 132개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4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음

[표 2-12] 성북구 동별 주차 공급 현황

단위 : 대, %, 개, 면

구분	등록차량	주차공급률	주차장									
			합계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공영		민영		개소	면수
2010	112,821	107.3	16,679	121,078	6,909	7,101	33	1,061	138	4,260	9,599	108,656
성북동	4,778	214.4	688	10,246	319	411	1	34	6	233	161	9,568
삼선동	5,784	108.5	1,035	6,277	650	650	-	-	11	345	374	5,282
동선동	3,202	158.8	664	5,085	604	604	3	19	13	260	68	4,202
돈암1동	4,245	192.5	1,056	8,173	137	137	-	-	2	45	37	7,991
돈암2동	6,799	70.5	1,312	4,790	-	-	1	100	3	163	660	4,527
안암동	3,573	93.4	1,056	3,337	560	560	1	3	6	113	489	2,661
보문동	3,657	143.8	1,312	5,259	573	573	-	-	4	144	735	4,542
정릉1동	5,146	141.5	1,070	7,282	257	257	1	7	3	72	809	6,946
정릉2동	6,243	77.6	1,039	4,847	246	246	1	12	6	91	786	4,498
정릉3동	4,073	192.8	568	7,852	172	172	3	45	4	104	662	7,531
정릉4동	7,955	90.6	972	7,210	161	161	1	70	-	-	266	6,979
길음1동	7,396	60.6	1,022	4,480	73	73	-	-	5	40	490	4,367
길음2동	4,231	110.4	576	4,670	214	214	2	171	12	1,446	744	2,839
종암동	8,983	38.0	1,022	3,416	466	466	3	118	9	223	544	2,609
월곡1동	6,756	48.7	926	3,288	220	220	-	-	4	74	352	2,994
월곡2동	5,351	113.0	775	6,048	449	449	2	79	4	30	286	5,490
장위1동	5,622	103.3	955	5,805	462	462	4	122	4	29	456	5,192
장위2동	5,031	88.3	1,348	4,442	341	341	5	106	14	280	415	3,715
장위3동	5,045	172.9	-	8,725	547	547	3	170	12	276	393	7,732
석관동	8,951	110.0	1,348	9,846	458	558	2	5	16	292	872	8,991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4) 공원 및 녹지

- 성북구에는 다른 구 지역에 포함된 공원을 포함하여 2010년 기준 자연공원(국립) 1개소, 도시공원 74개소, 기타 공원 53개소로 총 127개의 공원이 분포하고 있음. 면적으로 보면, 공원 전체 면적은 8,164천㎡인데, 이 중 1개의 자연공원(3,643천㎡)과 1개의 도시자연공원(2,276천㎡)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로 보면 2008년 전체 공원 수가 2007년(88개소)에 비해 크게 늘어난 118개로 나타났는

- 데, 이는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과 같은 소공원 등 생활권 단위의 소규모 공원을 확충한 결과임
- 생활권 단위의 소규모 공원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지만,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경우가 많아 아파트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한 행정동의 경우에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 여전히 부족함

[표 2-13] 성북구 공원 현황

단위 : 개, 천㎡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개소	78(5)	81(5)	88(5)	118(5)	124(4)	127(5)
	면적	7,616	7,619	8,009	7,716	8,115	8,164
자연공원(국립)	개소	-(1)	-(1)	-(1)	-(1)	-(1)	-(1)
	면적	3,643	3,643	3,643	3,643	3,638	3,643
소계	개소	28(4)	29(4)	33(4)	65(4)	71(3)	74(4)
	면적	3,914	3,915	4,302	4,015	4,419	4,462
어린이공원	개소	23	23	24	33	35	36
	면적	48	48	51	90	93	99
도시공원	개소	-	-	3	21	23	23
	면적	-	-	2	25	28	28
근린공원	개소	4(3)	1(1)	5(3)	9(3)	11(2)	13(3)
	면적	1,439	1,439	1,822	1,622	2,021	2,057
도시자연공원	개소	1(1)	1(1)	1(1)	1(1)	1(1)	1(1)
	면적	2,427	2,427	2,427	2,276	2,276	2,276
수변공원	개소	-	-	-	1	1	1
	면적	-	-	-	2	2	2
기타공원	개소	50	52	55	53	53	53
	면적	59	61	64	58	58	58

주 : 1) 유원지, 한강시민공원, 마을마당 포함
 2) 조성기준이며, 공원수의 ()내는 타구지역에 포함된 숫자임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 성북구 녹지현황을 보면 총 234개소, 300,683㎡임. 개소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녹지(59개소), 간이휴게소(57개소), 아파트 및 학교(44개소), 건물주변(33개소)의 순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시설녹지(79,090㎡), 일반녹지(77,095㎡), 아파트 및 학교(38,525㎡), 간이휴게소(33,103㎡)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4] 성북구 녹지 현황(2011년 기준)

단위 : 개, ㎡, %

구분	개소	면적
합계	234(100.0)	300,683(100.0)
시설녹지	21(9.0)	79,090(26.3)
일반녹지	59(25.2)	77,095(25.6)
분리대	1(0.4)	1,000(0.3)
수벽	2(0.9)	12,800(4.3)
수림대	4(1.7)	19,983(6.6)
하천변조경	3(1.3)	17,003(5.7)
간이휴게소	57(24.4)	33,103(11.0)
지하철환기구주변	8(3.4)	2,080(0.7)
건물주변	33(14.1)	14,104(4.7)
아파트 및 학교	44(18.8)	38,525(12.8)
친수공간조성	1(0.4)	5,600(1.9)
기타	1(0.4)	300(0.1)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5) 주요 공공시설

- 성북구 주요 공공시설은 2010년 기준 77개소임. 구청과 구의회, 소방서, 등기소, 세무서가 1개씩 설치되어 있고, 경찰서가 2개, 119안전센터가 4개, 전화국이 2개 설치되어 있음. 이외에 행정동을 기준으로 설치되는 동주민센터와 지구대, 치안센터, 우편취급소 등이 있음. 동주민센터의 경우 2007년 행정동 통폐합 조치로 30개에서 20개로 감소함

[표 2-15] 성북구 주요 공공시설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지방행정관서			경찰·소방관서			등기소	우체국 관서	세무서	전화국	
		구	동	직속 기관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소방서					119안전 센터
2005	85	1	30	1	2	23	1	4	1	18	1	3
2006	87	1	30	1	2	25	1	4	1	18	1	3
2007	77	1	20	1	2	25	1	4	1	18	1	3
2008	76	1	20	1	2	24	1	4	1	19	1	2
2009	68	1	20	1	2	19	1	3	1	17	1	2
2010	77	1	20	1	2	25	1	4	1	19	1	2

주 : 119안전센터는 순환 및 일일구조대 포함하고, 우체국 관서는 우편취급소를 포함함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3. 사회·경제적 현황

1) 인구

- 성북구 인구는 2010년 현재 201,489세대, 497,692명(65세 이상 고령자 53,243명)으로 세대당 인구수는 2.43명이었고, 인구 밀도는 20,256명/km²으로 나타남.
-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세대수는 종암동(17,412세대)과 석관동(16,012세대)이 가장 많고, 돈암1동(6,529세대)과 보문동(7,428세대)이 가장 적음. 세대당 인구수는 동선동과 안암동이 각각 1.96명과 1.94명으로 가장 낮는데, 청년층과 대학생 등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 인구 밀도는 길음1동(49,516명/km²)이 가장 높고, 돈암2동(44,595명/km²), 정릉1동(44,585명/km²)의 순으로 높음.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정릉3동(5,282명/km²)이고, 성북동(7,001명/km²)과 정릉4동(8,947명/km²)의 순으로 낮음. 인구 밀도가 낮은 동의 경우 동 전체 면적에서 주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편이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동의 경우에는 고밀도 주거형태인 아파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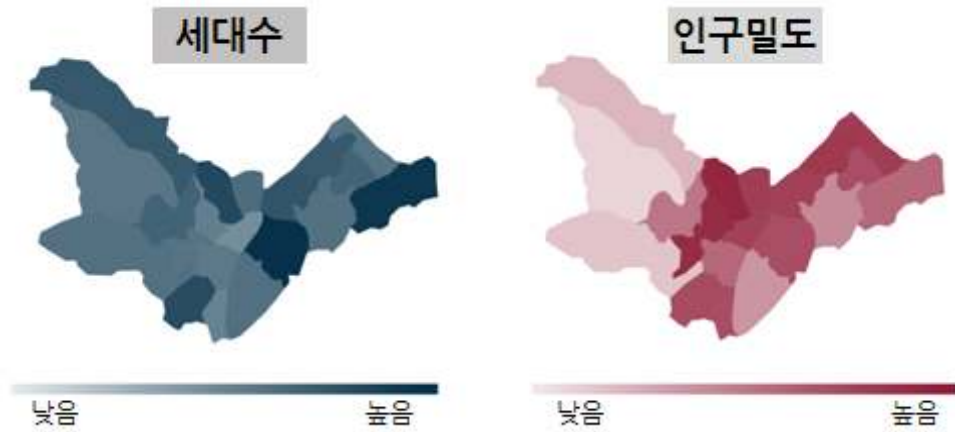
[표 2-16] 성북구 인구 현황

단위 : 세대, 명, 명/km², km²

구분	세대수	인구수			세대당 인구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밀도	면적
		합계	남	여				
2004	169,704	455,041	226,983	228,058	2.68	36,159	18,523	24.57
2005	177,456	467,308	232,338	234,970	2.63	38,788	19,024	24.56
2006	185,805	478,511	237,494	241,017	2.58	41,573	19,475	24.57
2007	187,024	477,358	236,767	240,591	2.51	44,604	19,428	24.57
2008	190,413	481,419	238,344	243,075	2.48	47,242	19,594	24.57
2009	192,990	484,457	239,463	244,994	2.47	49,417	19,717	24.57
2010	201,489	497,692	245,659	252,033	2.43	53,243	20,256	24.57
성북동	8,656	19,953	9,586	10,367	2.23	2,619	7,001	2.85
삼선동	12,242	27,999	13,637	14,362	2.23	3,142	31,460	0.89
동선동	8,107	16,299	7,447	8,852	1.96	1,870	22,638	0.72
돈암1동	6,529	17,240	8,336	8,904	2.61	1,907	35,184	0.49
돈암2동	8,442	24,527	11,920	12,607	2.89	2,296	44,595	0.55
안암동	8,811	18,591	9,402	9,189	1.94	1,787	14,084	1.32
보문동	7,428	16,487	8,234	8,253	2.17	1,851	29,976	0.55
정릉1동	7,720	21,401	10,228	11,173	2.67	2,251	44,585	0.48
정릉2동	9,821	25,131	12,457	12,674	2.55	2,859	20,432	1.23
정릉3동	8,232	18,909	9,455	9,454	2.26	2,367	5,282	3.58
정릉4동	11,069	28,451	14,009	14,442	2.55	3,102	8,947	3.18
길음1동	12,934	36,642	17,868	18,774	2.81	3,034	49,516	0.74
길음2동	9,065	20,628	10,152	10,476	2.25	2,347	35,566	0.58
종암동	17,412	43,371	21,620	21,751	2.45	4,342	29,706	1.46
월곡1동	11,224	29,368	14,626	14,742	2.58	2,991	35,383	0.83
월곡2동	8,698	21,799	10,747	11,052	2.48	2,416	16,268	1.34
장위1동	10,844	27,593	13,774	13,819	2.5	2,839	38,324	0.72
장위2동	9,863	24,159	12,208	11,951	2.43	2,769	29,462	0.82
장위3동	8,380	20,283	10,398	9,885	2.4	2,323	36,220	0.56
석관동	16,012	38,861	19,555	19,306	2.38	4,131	23,132	1.68

주 : 1) 외국인 세대수 제외
2) 65세 이상 고령자는 외국인 포함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그림 2-7] 성북구 세대수 및 인구밀도 분포 현황

- 연령별로 살펴보면, 성북동, 정릉3동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2%가 넘어 다른 동에 비해 높은 편이고, 길음1동과 돈암2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고령층 비율이 낮은 길음1동과 돈암2동은 영유아 비율과 초등학생이 높은 편인데, 두 지역 모두 아파트 비율이 높으며, 교통이 편리하여 젊은 세대의 주거선호도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음. 동선동과 안암동은 대학교 입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청년층 비율이 40%를 초과함

[표 2-17] 성북구 연령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초고령층
합계	488,932 (100.0)	35,054 (7.2)	29,628 (6.1)	33,990 (7.0)	163,255 (33.4)	173,892 (35.6)	44,818 (9.2)	8,295 (1.7)
성북동	19,260 (100.0)	1,041 (5.4)	1,066 (5.5)	1,315 (6.8)	6,380 (33.1)	6,853 (35.6)	2,107 (10.9)	498 (2.6)
삼선동	27,300 (100.0)	1,632 (6.0)	1,611 (5.9)	1,917 (7.0)	9,526 (34.9)	9,478 (34.7)	2,616 (9.6)	520 (1.9)
동선동	15,858 (100.0)	813 (5.1)	809 (5.1)	968 (6.1)	6,391 (40.3)	5,029 (31.7)	1,543 (9.7)	305 (1.9)
돈암1동	17,062 (100.0)	1,101 (6.5)	1,131 (6.6)	1,237 (7.3)	5,236 (30.7)	6,452 (37.8)	1,600 (9.4)	305 (1.8)
돈암2동	24,408 (100.0)	2,185 (9.0)	2,078 (8.5)	1,877 (7.7)	7,225 (29.6)	8,749 (35.8)	1,899 (7.8)	395 (1.6)
안암동	17,070 (100.0)	741 (4.3)	846 (5.0)	1,174 (6.9)	7,305 (42.8)	5,223 (30.6)	1,518 (8.9)	263 (1.5)
보문동	16,090 (100.0)	796 (4.9)	817 (5.1)	1,131 (7.0)	5,576 (34.7)	5,922 (36.8)	1,565 (9.7)	283 (1.8)
정릉1동	20,617 (100.0)	1,752 (8.5)	1,291 (6.3)	1,413 (6.9)	6,785 (32.9)	7,134 (34.6)	1,867 (9.1)	375 (1.8)
정릉2동	25,029 (100.0)	1,975 (7.9)	1,491 (6.0)	1,722 (6.9)	8,079 (32.3)	8,906 (35.6)	2,398 (9.6)	458 (1.8)
정릉3동	18,615 (100.0)	1,045 (5.6)	976 (5.2)	1,308 (7.0)	6,250 (33.6)	6,673 (35.8)	1,976 (10.6)	387 (2.1)
정릉4동	28,250 (100.0)	2,490 (8.8)	1,760 (6.2)	1,845 (6.5)	9,208 (32.6)	9,853 (34.9)	2,591 (9.2)	503 (1.8)
길음1동	36,306 (100.0)	4,044 (11.1)	2,668 (7.3)	2,225 (6.1)	12,661 (34.9)	11,683 (32.2)	2,527 (7.0)	498 (1.4)
길음2동	20,440	1,326	1,083	1,316	6,689	7,683	2,000	343

	(100.0)	(6.5)	(5.3)	(6.4)	(32.7)	(37.6)	(9.8)	(1.7)
종암동	42,720 (100.0)	3,294 (7.7)	2,776 (6.5)	3,130 (7.3)	14,307 (33.5)	14,879 (34.8)	3,656 (8.6)	678 (1.6)
월곡1동	28,988 (100.0)	2,565 (8.8)	1,730 (6.0)	1,820 (6.3)	9,591 (33.1)	10,296 (35.5)	2,545 (8.8)	441 (1.5)
월곡2동	21,592 (100.0)	1,572 (7.3)	1,199 (5.6)	1,437 (6.7)	7,343 (34.0)	7,628 (35.3)	2,048 (9.5)	365 (1.7)
장위1동	27,086 (100.0)	1,653 (6.1)	1,622 (6.0)	2,181 (8.1)	8,529 (31.5)	10,267 (37.9)	2,432 (9.0)	402 (1.5)
장위2동	23,996 (100.0)	1,426 (5.9)	1,399 (5.8)	1,822 (7.6)	7,508 (31.3)	9,079 (37.8)	2,371 (9.9)	391 (1.6)
장위3동	20,098 (100.0)	1,307 (6.5)	1,221 (6.1)	1,437 (7.1)	6,095 (30.3)	7,716 (38.4)	2,011 (10.0)	311 (1.5)
석관동	38,147 (100.0)	2,296 (6.0)	2,054 (5.4)	2,715 (7.1)	12,571 (33.0)	14,389 (37.7)	3,548 (9.3)	574 (1.5)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 성북구 취약계층은 2010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6,086가구(3.0%), 독거노인가구가 7,112가구(3.5%),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1,532가구(0.8%), 장애인이 19,914명(4.0%)임
- 연도별로 보면 2005년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인 비율 모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가구는 2008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에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특히 길음1동과 길음2동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저렴한 주택이 멸실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근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라 추정됨

[표 2-18] 성북구 취약계층 현황

구분	가구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독거노인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인구 수
2005	177,456	4,091(2.3)	7,793(4.4)	1,088(0.6)	3	13,655(2.9)	467,308
2006	185,805	4,477(2.4)	7,434(4.0)	1,189(0.6)	1	15,741(3.3)	478,511
2007	187,024	4,900(2.6)	9,276(5.0)	1,247(0.7)	2	16,362(3.4)	477,358
2008	190,413	5,356(2.8)	10,319(5.4)	1,338(0.7)	-	17,631(3.7)	481,419
2009	192,990	5,936(3.1)	6,747(3.5)	1,499(0.8)	-	19,234(4.0)	484,457
2010	201,489	6,086(3.0)	7,112(3.5)	1,532(0.8)	-	19,914(4.0)	497,692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 취약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독거노인가구를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석관동이 526가구로 가장 많고, 종암동(496가구), 장위2동(480가구), 장위3동(459가구), 장위1동(456가구)의 순으로 많음. 독거노인가구는 삼선동이 607가구로 가장 많고, 종암동(575가구), 석관동(542가구), 성북동(440가구), 정릉3동(436가구)의 순으로 많음. 독거노인가구 중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5개동에서도 석관동과 정릉3동, 종암동에 집중하고 있음

[표 2-19] 성북구 동별 수급자 및 독거노인 현황

구분	전체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독거노인					
		소계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소계	수급자	저소득	일반
		가구	시설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010	201,489	6,086	7	10,153	5,987	9,763	99	120	7	270	7,112	1,157	4,667	1,288		

성북동	8,656	232	2	354	228	335	4	4	2	15	440	76	230	134
삼선동	12,242	309	2	595	304	490	5	6	2	99	607	73	425	109
동선동	8,107	193	-	326	191	324	2	2	-	-	288	63	177	48
돈암동	6,529	196	-	342	168	302	28	40	-	-	275	72	180	23
돈암2동	8,442	158	-	309	157	308	1	1	-	-	261	44	104	113
안암동	8,811	172	1	385	171	306	1	1	1	78	262	31	190	41
보문동	7,428	214	-	356	210	352	4	4	-	-	320	61	204	55
정릉1동	7,720	167	-	300	165	298	2	2	-	-	199	37	117	45
정릉2동	9,821	182	-	346	182	346	0	0	-	-	301	56	172	73
정릉3동	8,232	355	1	593	352	521	3	5	1	67	436	74	325	37
정릉4동	11,069	265	1	432	263	419	2	2	1	11	375	31	260	84
길음1동	12,934	242	-	397	240	395	2	2	-	-	277	62	105	110
길음2동	9,065	333	-	414	326	406	7	8	-	-	315	23	255	37
종암동	17,412	496	-	778	489	768	7	10	-	-	575	115	343	117
월곡1동	11,224	347	-	498	342	493	5	5	-	-	406	76	287	43
월곡2동	8,698	304	-	509	292	497	12	12	-	-	334	81	219	34
장위1동	10,844	456	-	795	451	790	5	5	-	-	358	51	234	73
장위2동	9,863	480	-	805	478	803	2	2	-	-	290	29	231	30
장위3동	8,380	459	-	792	457	789	2	3	-	-	251	56	159	36
석관동	16,012	526	-	827	521	821	5	6	-	-	542	46	450	46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2) 풀뿌리단체, 직능단체, 주민모임

- 성북구 내 민간단체는 총 152개로, 이중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는 57개임. 민간단체 특성별로 보면 민간단체가 21개, 종교 관련 22개, 사회복지 관련 16개, 문화예술 관련 6개이고,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는 30개임
- 성북구는 2012년 7월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지역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 모임인 '함께하는 성북마당(이하 함성)'을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음. 함성은 성북구 내 다양한 지역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북지역의 역량을 모으고 공동 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상생과 건전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2-20] 성북구 민간단체 현황

구분	문화예술	민간단체	사회복지	보조금 지원	종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합계
현황	6	21	16	57	22	22	4	4	152

단위 : 개
자료 : 성북구 자치행정과

- 성북구 내 직능단체 중 20개 행정동을 기반으로 한 직능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방위협의회, 녹색환경실천단,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등 12개임. 이와 함께 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는 자원봉사캠프가 동별로 설치되어 있음
- 이외에도 적십자회가 운영하는 적십자봉사단이 동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방서와 경찰서의 경우 행정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지만 각각 의용소방대와 청소년육성회를 구성하여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또한 성북구의 경우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마을반상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성북구에는 3,761개의 반이 존재하는데 이 중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88곳(2.34%)에서만 반상회가 열리고 있는 실정임. 형식적인 마을반상회가 아닌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해가는 자리로 마을반상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기존의 통·반 경계를 탈피하고 날짜, 장소, 형식 등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마을이나 아파트 동 단위, 시장, 상가지역, 공장지역, 각종 단체, 외국인 모임 등, 지역적으로 같은 생활권을 영유하거나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그룹 단위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성북구 홈페이지 내에 마을회의가 열리는 그룹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최결과도 공유하고 있음. 특히 마을회의 내에서 건의된 사항을 관련 부서에 연계하여 검토한 뒤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음
- 현재 마을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그룹은 총 348개로 통·반 등 소규모 모임인 마을단위형이 107개, 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형이 241개임. 마을단위형은 상대적으로 아파트 비율이 높은 동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음

[표 2-21] 성북구 마을회의 그룹 현황

단위 : 개

구분	마을단위형(통·반)	지역공동체형(동)	합계
정릉권역	정릉1동	-	4
	정릉2동	-	7
	정릉3동	9	11
	정릉4동	17	6
동선권역	성북동	-	12
	돈암2동	2	5
	삼선동	1	20
	보문동	17	13
	안암동	2	8
길음권역	동선동	-	19
	길음1동	23	20
	길음2동	3	16
종암권역	월곡1동	24	9
	종암동	4	13
	돈암1동	1	10
장위권역	월곡2동	2	13
	장위1동	-	15
	장위2동	-	19
	장위3동	2	9
합계	107	241	348

자료 : 성북구 홈페이지

- 한편, 성북구가 2012년에 실시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형성 및 복원, 두 가지 부문으로 실시되었는데, 관내 주민으로서 마을만들기 추진협의체, 자발적 주민모임(10~15인 서명),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풀뿌리 단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음.
- 총 33개 단체가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7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5개 단체를 제외한 22개 단체의 사업대상지는 성북동이 3개 단체로 가장 많고, 정릉4동과 정릉2동,

동선동, 삼선동, 월곡2동이 2개 단체가 선정되었음. 정릉1동, 돈암1·2동, 안암동, 종암동, 장위3동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응모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음



[그림 2-8] 2012년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현황

3) 산업 · 경제

- 2010년 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성북구에는 23,593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97,303명인 것으로 나타남
- 행정동별로 보면, 석관동이 2,179개(9.2%)로 가장 많은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종암동(1,938개, 8.2%), 동선동(1,803개, 7.6%), 삼선동(1,669개, 7.1%) 순으로 사업체 수가 많음.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돈암1동과 돈암2동임

[표 2-22] 성북구 2010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수		여성대표자	계	남	여	
서울시	729,728	(100.0)	237,172	(32.5)	4,490,081	2,629,920	1,860,161
성북구 합계	23,593	(100.0)	8,187	(34.7)	97,303	51,978	45,325
성북동	1,012	(4.3)	356	(35.2)	5,404	2,691	2,713
삼선동	1,669	(7.1)	628	(37.6)	9,186	4,873	4,313
동선동	1,803	(7.6)	713	(39.5)	7,428	3,385	4,043
돈암1동	378	(1.6)	124	(32.8)	1,682	787	895
돈암2동	394	(1.7)	154	(39.1)	1,914	765	1,149
안암동	1,215	(5.1)	383	(31.5)	10,821	6,095	4,726
보문동	1,250	(5.3)	389	(31.1)	4,420	2,559	1,861

정릉1동	771	(3,3)	245	(31,8)	1,728	875	853
정릉2동	869	(3,7)	283	(32,6)	2,577	1,566	1,011
정릉3동	709	(3,0)	243	(34,3)	3,365	2,029	1,336
정릉4동	859	(3,6)	269	(31,3)	3,919	2,554	1,365
길음1동	953	(4,0)	403	(42,3)	2,756	1,207	1,549
길음2동	956	(4,1)	390	(40,8)	4,098	1,736	2,362
종암동	1,938	(8,2)	672	(34,7)	6,794	3,797	2,997
월곡1동	1,367	(5,8)	430	(31,5)	4,732	2,638	2,094
월곡2동	1,381	(5,9)	478	(34,6)	7,110	3,731	3,379
장위1동	1,112	(4,7)	382	(34,4)	2,640	1,277	1,363
장위2동	1,632	(6,9)	548	(33,6)	5,109	2,730	2,379
장위3동	1,146	(4,9)	373	(32,5)	4,364	2,511	1,853
석관동	2,179	(9,2)	724	(33,2)	7,256	4,172	3,084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5,123개(21.7%)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18.2%), 운수업(15.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2.2%), 제조업(9.4%)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3] 성북구 연도별 사업체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24,980	24,844	24,268	24,135	23,331	23,026	23,246	24,041	23,593(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	-	-	-	-	-	-	-	1(0.0)
광업	-	-	-	-	-	-	-	-	-
제조업	2,753	2,459	2,377	2,402	2,337	2,201	2,121	2,278	2,216(9.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	6	4	4	5	5	-	2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	-	-	-	-	7	9	10	9(0.0)
건설업	466	486	513	537	486	477	493	506	493(2.1)
도매 및 소매업	6,187	6,015	5,729	5,513	5,316	5,123	5,113	5,220	5,123(21.7)
운수업	3,474	3,606	3,661	3,834	3,660	3,778	3,771	4,015	3,700(15.7)
숙박 및 음식점업	4,982	4,961	4,718	4,455	4,261	4,210	4,260	4,333	4,288(18.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9	60	59	60	59	138	134	133	136(0.6)
금융 및 보험업	163	166	166	167	171	173	174	188	184(0.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38	1,249	1,211	1,248	1,193	1,174	1,227	1,249	1,197(5.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269	296	314	331(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51	473	468	452	372	142	138	149	159(0.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9	68	66	65	62	54	53	54	55(0.2)
교육 서비스업	818	836	848	892	942	1,099	1,119	1,164	1,218(5.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88	624	656	657	697	699	777	807	862(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75	999	1,008	998	897	716	734	757	747(3.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51	2,836	2,784	2,851	2,825	2,761	2,827	2,862	2,874(12.2)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운수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
- 산업종류가 동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장위2동(19.9%), 종암동(18.6%), 월곡2동(16.1%)에서 높은 편이고, 대체로 비율이 높은 도매 및 소매업은 삼선동(26.2%), 길음2동(25.7%), 보문동(24.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운수업의 비율은 정릉2~4동과 돈암1동에서 높게 나타남.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율은 안암동에서 33.1%로 가장 높고, 동선동(28.6%), 삼선동(22.3%), 길음2동(21.3%)에서 높게 나타남. 교육 서비스업의 비율은 돈암2동

(14.0%), 돈암1동(11.9%), 성북동(7.9%)에서 높게 나타나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비율은 안암동(6.0%), 동선동(4.8%), 월곡2동(4.1%)에서 높게 나타남

[표 2-24] 성북구 2010년 동별 산업별 사업체 현황

단위 : 개, %

구분	돈암1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길음1동	길음2동	월곡1동	월곡2동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종암동	석관동
합계	378 (100.0)	394 (100.0)	1,215 (100.0)	1,250 (100.0)	771 (100.0)	889 (100.0)	709 (100.0)	859 (100.0)	953 (100.0)	966 (100.0)	1,367 (100.0)	1,381 (100.0)	1,112 (100.0)	1,632 (100.0)	1,146 (100.0)	1,012 (100.0)	1,669 (100.0)	1,803 (100.0)	1,938 (100.0)	2,179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	-	-	-	-	-	-	-	-	-	-	-	-	-	-	1 (0.1)	-	-	-	-
공업	-	-	-	-	-	-	-	-	-	-	-	-	-	-	-	-	-	-	-	-
제조업	9 (2.4)	7 (1.8)	50 (4.1)	111 (8.9)	53 (6.9)	49 (5.6)	29 (4.1)	31 (3.6)	31 (3.3)	28 (2.9)	177 (12.9)	223 (16.1)	159 (14.3)	325 (19.9)	164 (14.3)	44 (4.3)	77 (4.6)	51 (2.8)	360 (18.6)	238 (10.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	-	-	-	-	-	-	-	-	-	-	-	-	-	-	-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	-	-	-	1 (0.1)	-	-	-	-	-	-	1 (0.1)	-	-	1 (0.1)	-	-	1 (0.1)	-	5 (0.2)
건설업	12 (3.2)	9 (2.3)	19 (1.6)	36 (2.9)	20 (2.6)	21 (2.4)	17 (2.4)	12 (1.4)	6 (0.6)	19 (2.0)	35 (2.6)	13 (0.9)	22 (2.0)	36 (2.2)	33 (2.9)	24 (2.4)	27 (1.6)	40 (2.2)	33 (1.7)	59 (2.7)
도매 및 소매업	66 (17.5)	67 (17.0)	246 (20.2)	305 (24.4)	118 (15.3)	165 (19.0)	126 (17.8)	156 (18.2)	227 (23.8)	246 (25.7)	303 (22.2)	268 (19.4)	231 (20.8)	379 (23.2)	293 (25.6)	221 (21.8)	438 (26.2)	408 (22.6)	364 (18.8)	496 (22.8)
운수업	92 (24.3)	83 (21.1)	95 (7.8)	267 (21.4)	184 (23.9)	209 (24.1)	171 (24.1)	228 (26.5)	154 (16.2)	101 (10.6)	270 (19.8)	151 (10.9)	212 (19.1)	230 (14.1)	166 (14.5)	129 (12.7)	162 (9.7)	75 (4.2)	290 (15.0)	431 (19.8)
숙박 및 음식점업	31 (8.2)	26 (6.6)	402 (33.1)	170 (13.6)	117 (15.2)	114 (13.1)	157 (22.1)	127 (14.8)	176 (18.5)	204 (21.3)	188 (13.8)	269 (19.5)	140 (12.6)	267 (16.4)	190 (16.6)	154 (15.2)	372 (22.3)	516 (28.6)	301 (15.5)	367 (16.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 (0.8)	16 (1.3)	11 (0.9)	-	1 (0.1)	3 (0.4)	1 (0.1)	-	3 (0.3)	7 (0.5)	7 (0.5)	1 (0.1)	9 (0.6)	1 (0.1)	27 (2.7)	13 (0.8)	24 (1.3)	3 (0.2)	6 (0.3)
금융 및 보험업	2 (0.5)	8 (2.0)	10 (0.8)	11 (0.9)	4 (0.5)	4 (0.5)	2 (0.3)	9 (1.0)	13 (1.4)	11 (1.2)	10 (0.7)	10 (0.7)	5 (0.4)	7 (0.4)	3 (0.3)	16 (1.6)	21 (1.3)	12 (0.7)	13 (0.7)	13 (0.6)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 (9.3)	35 (8.9)	52 (4.3)	65 (5.2)	48 (6.2)	55 (6.3)	14 (2.0)	50 (5.8)	70 (7.3)	56 (5.9)	59 (4.3)	63 (4.6)	62 (5.6)	71 (4.4)	43 (3.8)	62 (6.1)	69 (4.1)	79 (4.4)	101 (5.2)	108 (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0.5)	3 (0.8)	30 (2.5)	24 (1.9)	4 (0.5)	5 (0.6)	7 (1.0)	6 (0.7)	9 (0.9)	13 (1.4)	10 (0.7)	28 (2.0)	5 (0.4)	17 (1.0)	8 (0.7)	39 (3.9)	57 (3.4)	36 (2.0)	13 (0.7)	15 (0.7)
사업자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 (0.3)	19 (1.6)	13 (1.0)	2 (0.3)	1 (0.1)	2 (0.3)	1 (0.1)	4 (0.4)	12 (1.3)	7 (0.5)	10 (0.7)	2 (0.2)	7 (0.4)	6 (0.5)	10 (1.0)	20 (1.2)	18 (1.0)	10 (0.5)	14 (0.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0.3)	2 (0.5)	2 (0.2)	5 (0.4)	3 (0.4)	2 (0.2)	2 (0.3)	2 (0.2)	3 (0.3)	3 (0.3)	2 (0.1)	2 (0.1)	2 (0.2)	2 (0.1)	2 (0.2)	3 (0.3)	7 (0.4)	7 (0.4)	2 (0.1)	3 (0.1)
교육 서비스업	45 (11.9)	55 (14.0)	53 (4.4)	32 (2.6)	58 (7.5)	55 (6.3)	46 (6.5)	45 (5.2)	54 (5.7)	57 (6.0)	53 (3.9)	62 (4.5)	45 (4.0)	42 (2.6)	40 (3.5)	80 (7.9)	94 (5.6)	119 (6.6)	108 (5.6)	75 (3.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 (4.5)	19 (4.8)	28 (2.3)	33 (2.6)	30 (3.9)	34 (3.9)	16 (2.3)	43 (5.0)	56 (5.9)	40 (4.2)	60 (4.4)	54 (3.9)	40 (3.6)	45 (2.8)	33 (2.9)	45 (4.4)	67 (4.0)	81 (4.5)	68 (3.5)	53 (2.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 (2.6)	9 (2.3)	73 (6.0)	25 (2.0)	24 (3.1)	34 (3.9)	23 (3.2)	25 (2.9)	29 (3.0)	23 (2.4)	28 (2.0)	56 (4.1)	30 (2.7)	41 (2.5)	28 (2.4)	23 (2.3)	60 (3.6)	86 (4.8)	57 (2.9)	63 (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6 (14.8)	67 (17.0)	120 (9.9)	142 (11.4)	105 (13.6)	120 (13.8)	94 (13.3)	123 (14.3)	121 (12.7)	140 (14.6)	158 (11.6)	164 (11.9)	156 (14.0)	154 (9.4)	135 (11.8)	134 (13.2)	185 (11.1)	255 (14.1)	212 (10.9)	233 (10.7)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 성북구의 경우 아직까지 전통시장이 주요 상권을 형성하고 있음. 전통시장은 등록, 인가, 비인가 모두 포함하여 15개인데, 골목형 전통시장이 11개이고, 4개는 상가형 전통시장(시장정비사업 등)임. 성북동, 정릉4동, 돈암1·2동, 동선동, 안암동, 길음2동, 장위1동에는 전통시장이 위치하지 않음



[그림 2-9] 성북구 전통시장 분포 현황

- 전통시장 이외의 대형 유통업체는 크게 백화점 1개소, 할인마트 3개소,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 13개소가 입지하고 있음. 기업형 슈퍼마켓은 롯데슈퍼가 5개소로 가장 많고, GS 슈퍼마켓이 4개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3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1개소임. 특히 길음뉴타운의 추진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길음1동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4개소나 입지하고 있음



[그림 2-10] 성북구 백화점 및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분포 현황

- 성북구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의 입지를 비교하면, 대형 유통업체,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이 전통 시장과 인접한 곳에 설치됨에 따라 전통시장은 상권 쇠퇴 및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림 2-11] 성북구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입지 비교

4)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북구의 경우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22개, 마을기업 4개, 협동조합 4개 등 총 30개의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을 유형별로 보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6개,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이 6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10개임. 분야별로 보면, 문화 관련 사회적기업이 7개로 가장 많고, 교육, 복지, 환경 관련 사회적기업이 3개씩, 요양 관련 사회적기업이 1개, 기타 5개임

[표 2-25] 성북구 사회적기업 현황

구분	단위 : 개						합계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요양	기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	2	-	1	1	1	6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1	4	2	-	-	-	7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1	1	1	2	-	4	9
합계	3	7	3	3	1	5	22

자료 : 성북구청 홈페이지

- 권역별로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분포를 살펴보면, 동선권역이 사회적기업 12개, 마을기업 4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음권역이 사회적기업 5개, 협동조합 2개로 많음. 장위권역은 사회적기업만 1개 존재하고, 정릉권역은 협동조합이 1개 존재하나 대학교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 정릉1·2·4동, 돈암1·2동, 안암동, 장위1·2·3동은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가 전혀 없음



[그림 2-12] 성북구 사회적경제 부문 분포 현황

5) 보육 및 교육

- 성북구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총 319개의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유형별로는 가정 보육시설이 144개(45.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간 보육시설이 142개(44.5%)를 차지하고 있음.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28개로 전체 보육시설의 8.8%에 머무르고 있으며, 돈암1동과 장위2동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 동별로 보면, 길음1동과 종암동이 각각 39개소와 38개소로 가장 많고, 성북동, 안암동, 보문동, 돈암2동, 정릉3동, 동선동은 보육시설의 수가 10개 미만임

[표 2-26] 성북구 보육시설 현황(2011년 기준)

단위 : 개, %

구분	합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직장	가정
				소계	개인	단체법인 외			
소계	319 (100.0)	28 (8.8)	2 (0.6)	142 (44.5)	117 (36.7)	25 (7.8)	1 (0.3)	2 (0.6)	144 (45.1)
돈암1동	10	-	-	6	5	1	-	-	4
돈암2동	9	1	-	1	1	-	-	-	7
안암동	7	1	-	2	2	-	-	1	3
보문동	7	1	-	6	5	1	-	-	-
정릉1동	12	1	-	6	6	-	-	-	5
정릉2동	13	2	-	3	2	1	1	-	7
정릉3동	9	2	-	7	1	6	-	-	-
정릉4동	19	1	-	8	6	2	-	-	10
길음1동	39	3	-	8	8	-	-	-	28
길음2동	10	1	-	3	3	-	-	-	6
월곡1동	24	1	1	11	8	3	-	-	11

월곡2동	18	3	-	7	6	1	-	-	8
장위1동	22	1	-	17	15	2	-	-	4
장위2동	16	-	-	13	11	2	-	-	3
장위3동	18	1	1	7	6	1	-	-	9
성북동	5	2	-	1	1	-	-	-	2
삼선동	11	2	-	4	4	-	-	1	4
동선동	9	2	-	7	4	3	-	-	-
종암동	38	1	-	15	13	2	-	-	22
석관동	23	2	-	10	10	-	-	-	11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 성북구에는 총 178개의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 유치원이 55개소, 초등학교 29개소, 중학교 16개소, 고등학교 13개소, 대학교 7개소, 대학원 56개소, 기타학교 2개소임

[표 2-27] 성북구 교육시설 현황(2011년 기준)

구분	학교수	학급(과)수	학생 수	교직원 수		
				소계	교원	사무직원
합계	178	2,781	152,911	7,783	6,265	1,518
유치원	55	217	4,773	420	316	104
초등학교	소계	29	998	27,639	1,600	1,443
	국립	24	905	24,929	1,458	1,334
	사립	5	93	2,710	142	109
중학교	소계	16	426	14,109	844	775
	국립	1	25	884	54	53
	공립	7	206	6,667	414	381
사립	8	195	6,558	376	341	
일반계 고등학교	소계	9	319	11,486	721	667
	국립	1	27	984	66	61
	공립	8	81	2,976	192	179
사립	6	204	7,526	463	427	
전문계 고등학교	소계	4	119	3,120	301	270
	공립	1	42	1,112	121	106
	사립	3	77	2,008	180	164
대학교	7	427	89,388	3,651	2,580	1,071
대학원	56	669	17,580	165	149	16
기타학교	2	36	1,033	81	65	16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6) 복지

- 성북구 내에 취약계층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2010년 기준 총 25개로 888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는 노인복지시설이 16개소로 가장 많고, 아동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이 각각 5개소씩 운영되고 있음

[표 2-28] 성북구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중 입소시설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합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시설 수	생활인원	시설 수	생활인원	시설 수	생활인원	시설 수	생활인원	시설 수	생활인원
2005	8	344	1	43	2	115	1	86	4	100
2006	8	365	1	51	2	115	1	88	4	111
2007	9	313	1	16	2	117	1	79	5	101
2008	20	633	5	28	9	413	1	79	5	113
2009	15	444	5	39	4	216	1	76	5	113
2010	25	888	5	66	16	895	1	72	5	114

주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만 포함,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미포함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 이외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등 복지관이 총 8개소 설치되어 있고, 방문요양서비스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2개소 운영 중임.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이 4개소, 저소득 밀집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인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 운영 중임. 이외에도 저소득층 고용 촉진 및 자활 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와 청소년자활지원기관이 1개소씩 운영되고 있음

[표 2-29] 성북구 지역기반 사회복지시설 현황(2011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청소년독서실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자활지원기관
시설 수	5	2	1	12	4	23	1	1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총 15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143개)이 경로당임. 그런데, 기존 노후주택지들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로 변경되면서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설치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총 143개 경로당의 63.6%에 해당하는 91개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의 경우 복리시설로 규정되어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단지 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음. 특히 정릉1동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6.3%나 되지만 10개의 경로당 모두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어 단독주택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전혀 없는 실정임. 정릉1동 이외에도 단독주택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경로당이 설치된 경우가 많음

[표 2-30] 성북구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2006	129	1	118	10
2007	136	1	126	9
2008	142	1	132	9
2009	151	1	141	9
2010	151	1	143(91)	7
성북동	6	-	5(-)	1

삼선동	7	-	7(4)	-
동선동	5	-	4(1)	1
돈암동	7	-	7(7)	-
돈암2동	8	-	8(7)	-
안암동	6	-	5(1)	1
보문동	5	-	5(2)	-
정릉1동	10	-	10(10)	-
정릉2동	12	-	12(7)	-
정릉3동	4	-	4(1)	-
정릉4동	14	-	12(8)	2
길음1동	12	-	12(9)	-
길음2동	5	-	5(3)	-
종암동	14	1	12(9)	1
월곡1동	9	-	9(7)	-
월곡2동	9	-	9(6)	-
장위동	3	-	3(-)	-
장위2동	2	-	2(1)	-
장위3동	6	-	5(3)	1
석관동	7	-	7(5)	-

주. ()의 숫자는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경로당의 숫자를 의미함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7) 역사·문화 및 관광

- 성북구는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에 비해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우선 문화재 보유 현황을 보면 2010년 기준 총 115점의 문화재가 존재함. 이 중 국가지정문화재가 53점, 지방지정문화재가 48점, 문화재자료가 3점, 등록문화재가 11점임

[표 2-31] 성북구 문화재 현황

		단위 : 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69	79	81	92	115	115
소계		48	54	50	53	53	53
국보		17	17	17	17	17	17
보물		21	23	23	26	26	26
사적 및 명승		6	6	6	6	6	6
천연기념물		-	-	-	-	-	-
중요민속자료		2	2	2	2	2	2
중요무형문화재		2	2	2	2	2	2
소계		18	25	24	32	48	48
유형문화재		12	17	19	24	40	40
기념물		1	1	1	1	1	1
민속자료		4	4	4	4	4	4
무형문화재		1	3	-	3	3	3
문화재자료		-	-	3	3	3	3
등록문화재		3	4	4	4	11	11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 성북구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북의 공간적 명소로서 성북동 일원과 아리랑 고개, 미아리 고개, 하나로 거리 및 의릉, 정릉과 혜화문 등 유적지와 경국사, 봉국사 등의

전통사찰, 북한산을 비롯한 개운산, 북악산, 성북천, 정릉천 등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포함하여 성북구 내 명소를 7가지 테마로 정리하여 성북 100경을 만들었고 성북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및 외부 사람들이 성북구를 다녀갈 수 있도록 성북 100경 책자 및 지도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

[표 2-32] 성북 100경 현황

주제	장소
Theme1 선조의 숨결이 배어 있는 문화유적	1. 정릉 2. 의릉 3. 이태준 가옥 4. 이종석 별장 5. 한용운 심우장 6. 방생선원 7. 최순우 옛집 8. 박목월 시비 9. 윤동주 시비 10. 김소월 시비 11. 박재삼 시비 12. 한규설 가옥 13. 한옥단지 14. 성락원 15. 김진흥 가옥 16. 한국가구박물관 17. 삼군부 총무당
Theme2 발길 닿는 곳마다 퍼지는 문화의 향기	18. 성북구민회관 19. 하나로거리 20. 영화의 거리 21. 아리랑 시네센터 22. 은행나무길 23. 전나무길 24. 성북정보도서관 25. 플라타너스길 26. 삼청각 27. 선잠단지 28. 물의 거리 29. 북한산 산신제 30. 간송미술관 31. 아리랑아트홀 32. 권진규아뜰리에 33. 성북구립미술관 34. 성북전시관
Theme3 삶을 일깨우는 인생 교과서 사찰	35. 길상사 36. 길상사내 보호수 37. 개운사 38. 대원암 39. 정법사 40. 경국사 41. 흥천사 42. 심곡암 43. 봉국사 44. 보타사 45. 영취사 46. 적조사 47. 삼곡사 48. 보문사 49. 영불사 50. 내원사 51. 송보살터거북바위 52. 미타사 53. 대한불교 진각종
Theme4 젊은 인재들의 교육의 산실, 대학 캠퍼스	54. 고려대학교 55. 국민대학교 56. 서경대학교 57. 동덕여자대학교 58. 한성대학교 59. 한국예술종합학교 60. 성신여자대학교
Theme5 현대인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사랑방	61. 아리랑고개 62. 미아리고개 63. 북한산 삼림체험관 64. 북한산 65. 북한산 계곡 66. 북악스카이웨이 67. 북한산에서 본 성북 68. 성북동 저택가 69. 월곡 인조잔디구장 70. 애기능터 71. 오동공원 72. 개운산 숲속의 쉼터 73. 삼선공원 74. 아름다운 나무 75. 동망봉 쉼터 76. 길음역 어울림마당 77. 종량천 자전거도로
Theme6 세련미와 고전미, 여유미의 완벽한 조화	78. 길음뉴타운 79. 현대백화점 80. 장위 골목시장 81. 보문 전통시장 82. 길음 현대화시장 83. 홀리데이 인 서울
Theme7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성북구의 명소	84. 북한산 성곽 85. 서울성곽 86. 숙정문 87. 칼바위 능선 88. 대성문 89. 보국문 90. 미아리 점성촌 91. 외국인 대사관촌 92. 성북천 93. 정릉천 94. (구)중앙정보부강당 95. 개운산 체육시설 96. 덕수교회 97. 돈암동성당 98. 들꽃이 야경 99. 돈암동로타리 야경 100. 성북구청 신청사

자료 : 성북구청 홈페이지

- 성북구 내 문화공간은 총 20개이며 이 중 공연장이 5개, 영화관 2개, 전시시설 8개, 지역문화복지시설 4개, 문화보급전수시설 1개임

[표 2-33] 성북구 문화공간 현황

		단위 : 개
구분	현황	
공연장	일반공연장	2
	소공연장	3
영화관		2(스크린 8개, 좌석 1,417개)
전시시설	박물관	6
	미술관	2
	구민회관	1
지역문화복지시설	구민(다목적)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1
문화보급전수시설	문화원	1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 성북구에는 공공체육시설이 총 153개소가 존재하는데, 대부분(141개)이 동네체육시설인 간이운동장임

[표 2-34] 성북구 공공체육시설 현황

구분	개소	면적
합계	153	125,512
축구장	2	26,530
간이운동장(동네체육시설)	141	37,375
생활체육관	5	15,633
수영장	3	7,985
골프연습장	2	37,989

단위 : 개, m²
 자료 : 성북구 통계연보(2011)

○ 2012년에는 많은 문화예술 공연 및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가 많음. 이 중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개최한 마을축제도 상당함

[표 2-35] 성북구 2012년 축제 현황

구분	행사명	행사내용	개최장소	주최/주관
1월	해맞이 행사	소원풍선 날리기, 희망의 복치기 등	종암동	성북구
5월	2012년 아리랑축제	-	월곡1동	성북구
	제20회 선잠제향	선잠제향 봉행	성북동	성북구
	제5회 성북 다문화 음식축제	세계 각국 다양한 음식, 전통 민속공연	성북동	성북구
6월	제2회 성북 라틴아메리카 축제	라틴아메리카 전통 풍물판매, 라틴댄스 공연	삼선동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9월	'책 읽는 성북' 2012 북페스티벌	전시·체험부스주제관, 휴먼라이브러리, 북콘서트	삼선동	성북구 /책읽는성북추진협의회, 성북문화재단,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찾아가는 우리동네 행복콘서트 "뜨락 예술무대"	퓨전음악, 댄스, 동춘서커스 등	성북구 내 18개 동별 지정장소	성북구
	제1회 장위부마축제	궁중혼례재현 각종 행사	장위동	장위부마축제추진위원회
	제1회 나눔과 화합의 길음문화축제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악연주, 자치회관 민요팀 공연 등	길음1동	길음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제1회 북바위 주민 노래자랑	자치회관 프로그램 공연, 장학금 수여 등	종암동	북바위 주민 노래자랑 추진위원회
10월	제2회 삼선동 선녀축제	퍼레이드, 선녀맛이 한바탕 마당공연 등	삼선동	삼선동 선녀축제추진위원회
	제5회 은행나무 축제	풍물패 및 안암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주민노래자랑 및 공연	안암동	안암동 은행나무축제 추진위원회
	2012 성북진경 페스티벌	도성을 거닐다, 예술가의 초대 등	성북동	성북구 /성북문화재단
	이슬람 문화축제	이슬람 음식 체험, 이슬람 민속 공연	삼선동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자료 : 성북구청 홈페이지

4. 제도적 현황

1) 서울시 관련 계획

(1)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생활권 및 중심지체계를 크게 서남생활권, 서북생활권, 동남생활권, 도심생활권, 동북생활권으로 구분함. 성북구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와 함께 동북2생활권에 포함됨. 동북권 중심지체계는 부도심으로 청량리와 왕십리, 지역중심으로 망우동, 미아동, 상계동을, 성북구 지구중심으로 종암동, 동선동, 석관동으로 구성됨

[표 2-36] 동북권 중심지체계

구분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성북구 지구중심
동북권	-	청량리, 왕십리	망우, 미아, 상계	종암, 동선, 석관

- 성북구가 포함된 동북권 부문별 계획을 보면 ① 지역균형발전 : 도심(청량리·왕십리)과 지역중심 기능의 강화, ② 교통 : 교통기반시설 확충 및 상습정체구간 개선, 신교통수단 도입 및 대중교통 우선정책 확대 실시, ③ 주거환경 :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정비 추진, ④ 산업 : 산업기능 고도화 및 고용기반 확충, ⑤ 문화 : 문화복지체육시설의 확충, ⑥ 공원·녹지 : 생태공원 및 녹지 공간 지속적 확충, 자연특성을 강화하는 경관계획 수립임

(2)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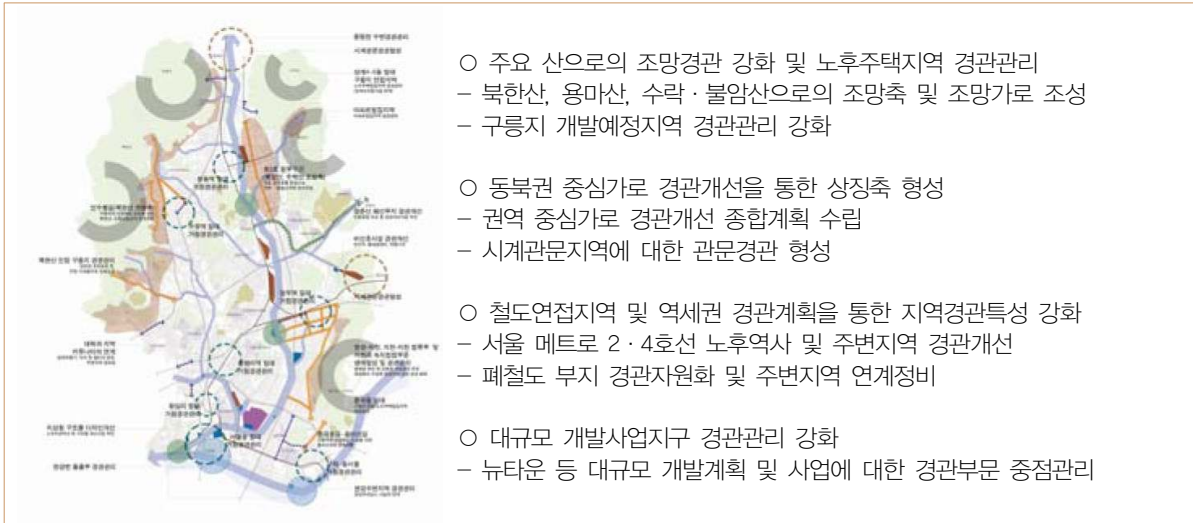
- 서울시는 사회·문화 등을 고려한 사람·장소 중심의 생활권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 추진 중인 서남권 주거지종합관리계획도 생활권계획으로 전환하였음
- 생활권별 주거환경지표와 정비지수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임.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지표'와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 지를 나타내는 '정비지구'를 새롭게 도입해서 정비대상 선정 및 정비계획 수립 기준으로 활용하여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막고, 생활권단위로 주거지 정비·보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이는 가구구조 변화, 저성장·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사람·장소 중심의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생활권별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3) 서울시 경관기본계획

- 서울시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2020 도시기본계획의 경관계획 및 기타 경관계획의 실천계획임. 권역별 계획을 통해 지역별로 경관과 관련한 시책 및 계획 수립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성북구가 포함된 동북권역을 보면 양호한 산, 수변 경관을 보존하고 권역 중심가로 경관 개선을 통한 동북권 상징축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 2-37] 서울시 경관기본계획상 동북권역 경관계획



2) 성북구 관련 계획

(1) 성북구 지역사회복지계획

- 성북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저소득층복지, 장애인복지, 문화복지·자원봉사·NGO, 보건·복지 연계 분야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해 부문별 복지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성북구 주민들의 복지 선호항목은 의료서비스(19.7%), 자녀교육비지원(15.8%), 취·부업 상담 및 알선(14.4%), 평생교육프로그램(12.0%) 순으로 조사됨
- 성북구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시설(30.9%), 아동복지시설(20.4%), 종합사회복지관(17.0%), 청소년복지시설(14.8%), 여성복지시설(9.4%), 장애인 복지시설(6.1%) 순으로 조사됨
- 성북구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 관련 의견으로 복지시설(센터) 및 의료시설의 확충(20.1%), 문화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확충(17.8%), 교통(도로)시설 정비 및 확충(12.9%), 공원(놀이터 등) 등 녹지시설 및 편의시설(10.6%) 순으로 높음

(2) 2020 뉴-그린 성북비전 공원녹지계획

- 2020 뉴-그린 성북비전 공원녹지계획은 2010 뉴-그린 성북비전과 연계하여 공원녹지 중장기 계획 방향을 제시함
- 계획수립을 위한 부문별 추진계획(세부계획요소·추진방안)을 제시함

[표 2-38] 2020 뉴-그린 성북비전 공원녹지계획

계획목표	걷고 싶은 자연문화도시 성북조성	
계획목표년도	2020년	
계획지표	- 1인당 공원면적: 16.78㎡ → 20㎡ - 1인당 녹지면적: 20.6㎡ → 25㎡	- 1인당 생육 수목주수: 6.1주 → 12주 - 걷고 싶은 길: 4.7km → 130km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속을 걷는다 (Natural Walking City) ○ 물길을 따라 걷는다 (Water Friendly Walking City) ○ 역사문화를 느끼며 걷는다 (Cultural Walking City) ○ 아름다운 공원을 걷는다 (Beautiful Walking City) ○ 쾌적한 도심을 걷는다 (Fresh Walking City) 	

(3) 성북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 성북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비전은 '길, 도시, 자연이 하나 되는 성북구 Human be-ing 성북구'로, ① 풍부한 녹지와 하천, 그리고 구릉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자연도시, ② 편리한 Business 활동이 가능한 활력 넘치는 Campus 중심상업도시, ③ 성북구의 Community 공간으로서의 쾌적한 주거중심도시를 기본목표로 설정함
- 성북구 도시디자인 실천계획으로 ① 성북길 둘러보기 사업(루트조성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② Green Network 조성사업(성북동 I, 성북동 II, 삼선동, 정릉1동), ③ 대학가 활성화 사업(담장 Green Wall 조성사업, 대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④ 한옥밀집지역(Guest House 및 주민 센터로 활용계획, Green Hub 조성사업), ⑤ 옹벽 경관 개선사업, ⑥ 고가도로 하부 개선사업, ⑦ 디자인 거리 연장조성사업(디자인 서울거리: 동소문로, 종암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보문로)을 제시함



[그림 2-13] 성북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4) 성북 색채가이드라인

- 성북구는 도시의 환경을 동일성 속에서 다양성과 개성이 공존하는 이미지로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표준색채계획을 수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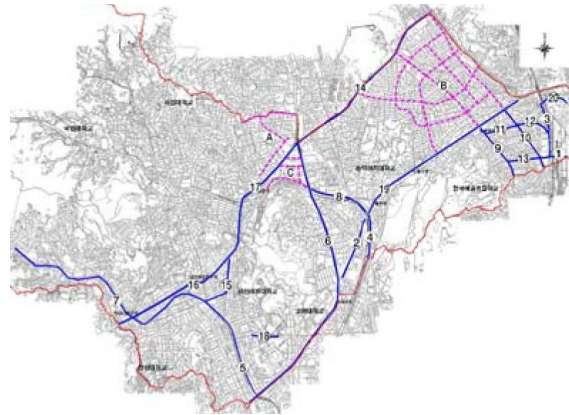
- 적용대상은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이 포함됨
- 권역별 색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정릉·길음권역은 '자연', 성북권역은 '문화', 동선·보문·안암권역은 '자연', 종암·월곡권역은 '미래', 장위·석관권역은 '소통'을 주제로 함



[그림 2-14] 성북구 권역별 색채계획

(5) 자전거도로 계획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및 상위계획 반영을 위해 관련 계획들을 검토한 결과, 성북구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5개의 설치 계획이 있음
-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과 성북구 자전거도로 중장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 길음·월곡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자전거도로를 계획에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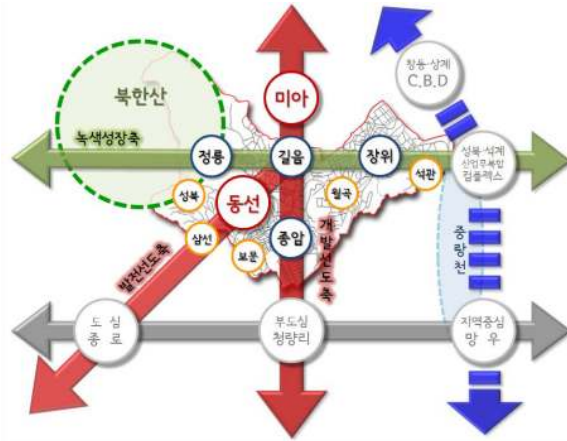


[그림 2-15] 성북구 자전거도로 기존 계획안

(6) 2020 성북비전

- 2020년 성북의 위상 변화와 지역 내 여건변화 및 장래역할에 대비하여 성북의 중심지 체계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며, 지역중심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 관리권역별 도시여건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성북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이 필요함. 중심지체계는 인구구조의 변화, 장래발전 잠재력, 대중교통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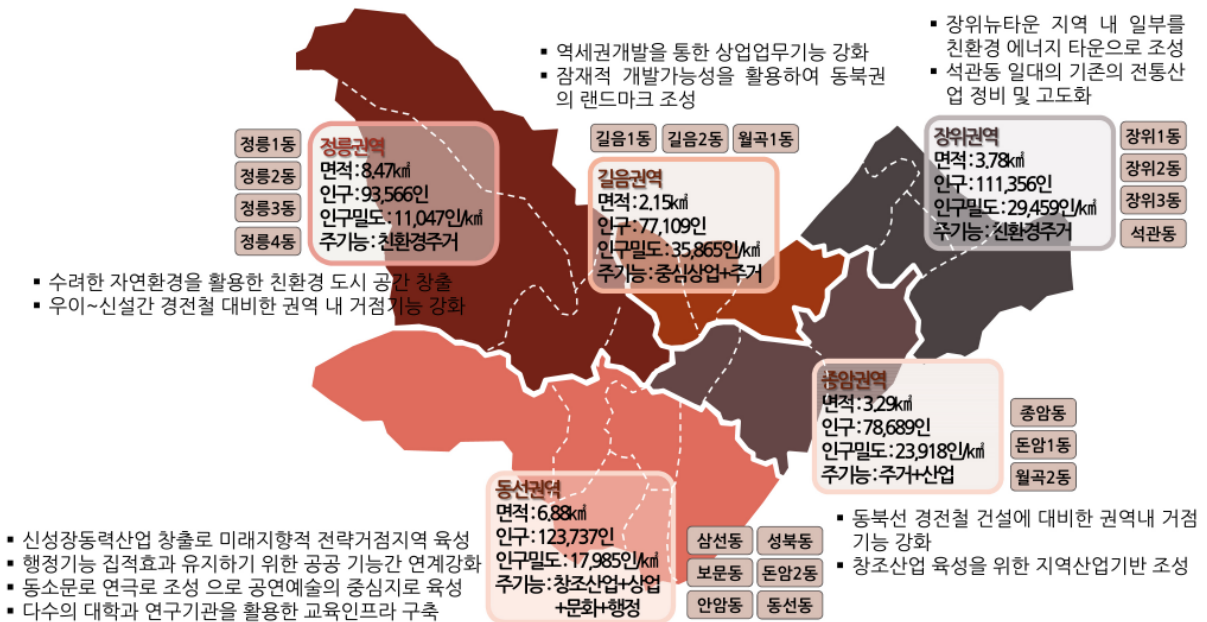
한 접근성, 생활권 간 형평성, 타 중심지와와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고, 도시관리 권역은 성북구 연접 지역과의 기능적 네트워크체계 구축을 통해 권역별 기능을 강화하였음



[그림 2-16] 2020 성북의 중심지 체계

자료 : 2020 성북비전(2011)

○ 또한 공간적 입지여건을 통합한 공간 개념에서 지역이 지닌 인구구조, 개발여건, 동북권 내 장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사람 중심의 5개 관리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그림 2-17] 관리권역별 비전

자료 : 2020 성북비전(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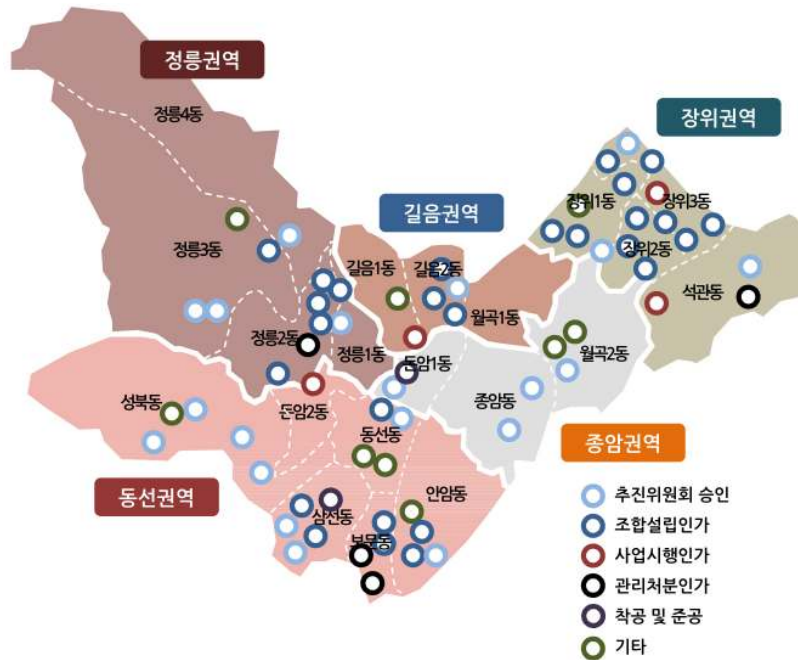
○ 2020 부문별 전략 과제로는 ① 행복한 복지보건, ② 눈높이 교육·문화, ③ 건강한 녹색환경, 참여하는 생활환경, ④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성북경제로 설정함

(7) 개발사업 추진현황

- 성북구 내에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월곡균형촉진지구 등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 많이 존재함
- 유형별로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이 대부분(47개)이고, 주택재건축사업(11개), 도시환경정비사업(2개), 지구단위계획(7개)임. 단계별로 보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등 초기단계가 많고, 개발사업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심각한 지역이 다수 존재함



[그림 2-18] 개발사업 유형별 분포현황



[그림 2-19] 개발사업 추진단계별 분포현황

제3장

성북구의 마을 현황과 과제

1. 조사 개요
2. 성북구 마을 현황 및 자원



성북구의 마을 현황과 과제

1. 조사 개요

1) 조사원칙

- 연구수행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사과정에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도록 함
- 이를 통해 향후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지역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2) 조사단위

- 통계자료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본 조사단위를 행정동으로 함
- 성북구는 20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20개동에 대해 동일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마을 현황 및 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3)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1) 현장조사

- 현장조사는 성북구 20개동에 대해 동별 담당자를 정해, 동별로 직접 모든 골목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사전에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통계자료와 지도 등을 통해 정확하게 인식한 뒤에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수행기관과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먼저 시범동을 종암동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조사를 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음. 동별 담당자가 동별 현황기록지에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다시 연구수행기관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음

- 조사 완료 이후에는 조사원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사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동별 특성과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음
-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1] 현장조사 주요 항목

구분		주요 항목
물리적 현황	도로 및 교통	도로체계, 대중교통 종류 및 접근성, 이면도로 및 골목 등
	주택유형	주택유형별 비율 및 분포, 노후주택밀집지역 등
	관련 계획	개발사업 유형 및 추진단계, 개발사업 관련 갈등 등
	주요 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공원 및 녹지, 문화체육시설 등
사회 경제적 현황	지역경제	주요 상권 및 산업, 전통시장 접근성 등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성별,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 위탁, 결식, 차상위 등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마을축제 등
	사회경제적 자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2012년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주체 및 내용

(2) 주민인터뷰

- 주민인터뷰는 동별로 동장을 포함하여 통장,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 등 지역 실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주민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동별 5명씩 20개동, 동장을 포함하여 전체 1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함
-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민인터뷰 항목과 질문지는 다음과 같음

[표 3-2] 주민인터뷰 주요 항목

구분	주요 항목
마을	변화, 자랑거리, 개선할 점
공간	생활편의시설, 모임공간
공동체	공동체 특성, 주민갈등, 자발적 모임
마을만들기	희망하는 마을상,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표 3-3] 주민인터뷰 질문지

1. 00동에 언제부터 살고 있나요?
2. 00동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 00동이 변하고 걸 느끼고 있나요?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3. 본인은 00동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며,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4.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 외에 해 보고 싶은 모임이나 활동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00동에서 살면서 00동 주민들 혹은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 00동의 자랑거리와 살기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7. 00동의 살기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8. 00동에 있는 공공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알고 계신 시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시설들은 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9. 동주민센터 행사 외에 일상으로 마을주민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이나 골목 등은 어디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10. 00동에 직능단체 외 자발적인 주민모임이나 동호회를 알고 있으신가요? 알고 있다면 어떤 곳이며, 주로 누가 참여하고 있으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관련한 대표나 회원님의 성함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11. 최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00동이 어떤 마을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13. 마을만들기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나요?
14. 본인이 생각하는 마을만들기?
15. 본인이 마을만들기에 참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고 싶은가요?
16. 마을만들기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17.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동별 주민설명회

-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성북구 현황과 현장조사 및 주민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된 동별 현황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20개동을 대상으로 동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음
- 동별 주민설명회는 2012년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20개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동별로 15~64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총 654명이 동별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였음

[표 3-4] 동별 주민설명회 일정 및 참여 인원

회차	일시	동	참여인원
1회	9월 5일(수) 오후 2시	정릉1동	23명
2회	9월 7일(금) 오전 11시	정릉2동	23명
3회	9월 7일(금) 오후 2시	정릉3동	64명
4회	9월 10일(월) 오후 5시	돈암동	55명
5회	9월 12일(수) 오후 2시	안암동	41명
6회	9월 12일(수) 오후 5시	동선동	47명
7회	9월 13일(목) 오후 5시	길음2동	38명
8회	9월 14일(금) 오후 2시	월곡2동	31명
9회	9월 14일(금) 오후 5시	월곡1동	52명
10회	9월 17일(월) 오후 2시	종암동	26명
11회	9월 17일(월) 오후 5시	돈암2동	15명
12회	9월 18일(화) 오후 2시	정릉4동	32명
13회	9월 18일(화) 오후 5시	길음1동	26명
14회	9월 20일(목) 오후 2시	장위1동	28명
15회	9월 20일(목) 오후 5시	장위2동	23명
16회	9월 21일(금) 오후 2시	장위3동	17명
17회	9월 21일(금) 오후 5시	석관동	26명
18회	9월 24일(월) 오후 4시 30분	성북동	30명
19회	9월 25일(화) 오후 2시	삼선동	36명
20회	9월 25일(화) 오후 5시	보문동	21명
합계			654명

- 동별 주민설명회는 크게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우선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해 홍보하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였음.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2012년 말 설치되었지만 아직까지 성북구 주민의 상당수가 지원센터의 존재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임. 마을만들기 지원체계에 대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음. 둘째, 통계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주민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된 성북구 전체와 동별 현황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보완하기 위한 자리였음. 셋째,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해 조별 워크숍 형태로 마을의 자랑거리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였음

- 이를 위해 동별 주민설명회 발표 자료는 ① 마을만들기란?, ②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소개, ③ 우리가 사는 곳 넓게 보기(성북구 현황), ④ 우리 동네 자세히 보기(○○동 현황), ⑤ 우리 동네 이야기하기(○○동 문제점과 자원)로 진행하였음. ①과 ②는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진행하였고, ③과 ④는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도시연구소에서 진행하였으며, ⑤는 조별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였음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워크숍 형태로 진행한 우리 동네 이야기하기는 먼저 주택유형과 위치를 고려하여 1조 5~8인 규모로 조를 나눈 뒤에 1인당 포스트잇 5장에 문제점(불편한 점), 좋은 점을 각각 작성하도록 하였음.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내용을 작성하는 동안에는 서로 공유하지 않도록 하였고, 작성이 끝나면 돌아가면서 각자가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였음. 진행보조원이 유사한 주제별로 구분하여 보드판에 정리한 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3가지를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 거수자가 많은 순으로 선정하였음. 동별 상황에 따라 문제점(불편한 점)과 좋은 점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고, 우선과제를 선정한 뒤 해당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계까지 진행한 경우도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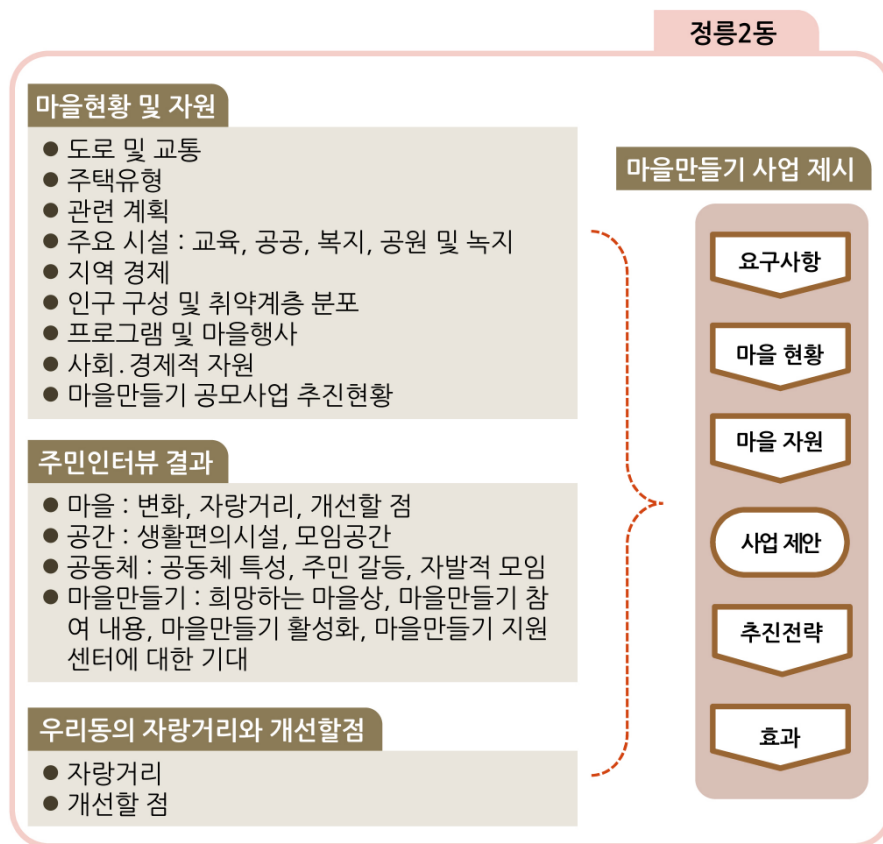
[그림 3-1] 동별 주민설명회 풍경

4) 조사결과 정리방식 및 활용방법

(1) 조사결과 정리방식

- 동별 조사결과는 ① 마을 현황 및 자원, ② 주민인터뷰 결과, ③ 우리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④ 마을만들기 사업 제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세부 정리항목은 다음 그림과 같음
- 마을 현황 및 자원의 경우 사진과 지도를 추가하여 마을의 물리적 현황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마을만들기 사업 제시에서는 현장조사, 주민인터뷰, 동별 주민워크숍을 통해 파악된 현황과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동에서 향후 실천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주제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제안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동별로 1~2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 자료에 바탕으로 적용가능한 수법의 예시를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음. 조사된 결과를 어떻게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마을만들기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음
 - 동별 마을만들기 사업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자료와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을의 미래상을 정하고, 그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그림 3-2] 동별 마을 현황 및 자원조사 결과 정리형식

(2) 조사결과 활용방법

- 동별 조사결과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동별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마을 현황 및 자원에 대해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오랫동안 동에서 거주한 주

민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공간적 범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 전체의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함. 특히 마을 안의 사회경제적 자원이나 주민모임의 경우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한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함. 따라서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는 주민모임 차원에서 마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둘째, 주민모임이 주도하여 마을조사를 진행할 때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마을만들기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주민모임은 가장 먼저 마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직접 마을 조사를 진행하기도 함. 주민모임 주도의 마을조사는 좀 더 상세하고, 해당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가 가능한데, 이를 위한 사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셋째, 마을현황 및 주민요구에 기반하여 마을의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음. 동 차원에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작업은 마을의제를 작성하는 것이고 마을의제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희망하는 마을로 발전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야 하는 활동과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을현황 및 주민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적절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넷째,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등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공모사업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음. 공모사업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마을현황 및 주민요구에 대응하여 사업목적과 사업유형, 사업방식을 정해야 함. 짧은 시간 동안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주체가 직접 조사하는 대신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참고할 수 있음

2. 성북구 마을 현황 및 자원

1) 성북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삼선교 사거리에서 성북로를 중심으로, 광화문 방향의 삼청터널, 정릉방향의 북악길과 연결되어 있음. 통행량은 많지 않은 편임
- 이면도로로 선잠로와 대사관로가 분포하며, 이 도로를 중심으로 고급단독주택지역이 위치함
- 성북1구역의 성북로 대로변 인접지역과 성북2구역, 성북4구역은 좁은 골목길의 노후한 단독주택들이 밀집하여 화재, 응급환자 수송 등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태임
- 지하철 : 성북동 남동측이 4호선 한성대입구역 5, 6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음
- 버스 : 지선버스(2112, 1111)가 성북로를 따라 운행하며 우정공원 앞이 버스 종점임
- 마을버스 : 성북03번(성북2구역 북정 경로당 앞이 종점)



■ 주택유형

- 아파트가 391호, 단독주택이 3,759호, 다세대주택이 610호로,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의 91.8%임
- 성북2구역, 성북4구역에는 달동네로 대부분 콘크리트 벽체와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주택, 비정형의 좁은 골목길이 분포함. 성북1구역, 성북3구역에는 신축 다세대주택의 비중이 많고 관리가 잘된 1960~1970년대 단층주택들이 다수 남아 있음. 일부 지역에 소규모 도시형 한옥이 남아 있음
- 대사관로와 선잠로 주변은 대규모 고급단독주택이 밀집하여 분포함
- 골목 곳곳에 텃밭, 꽃과 나무가 있어 마을 전체가 정원과 같은 느낌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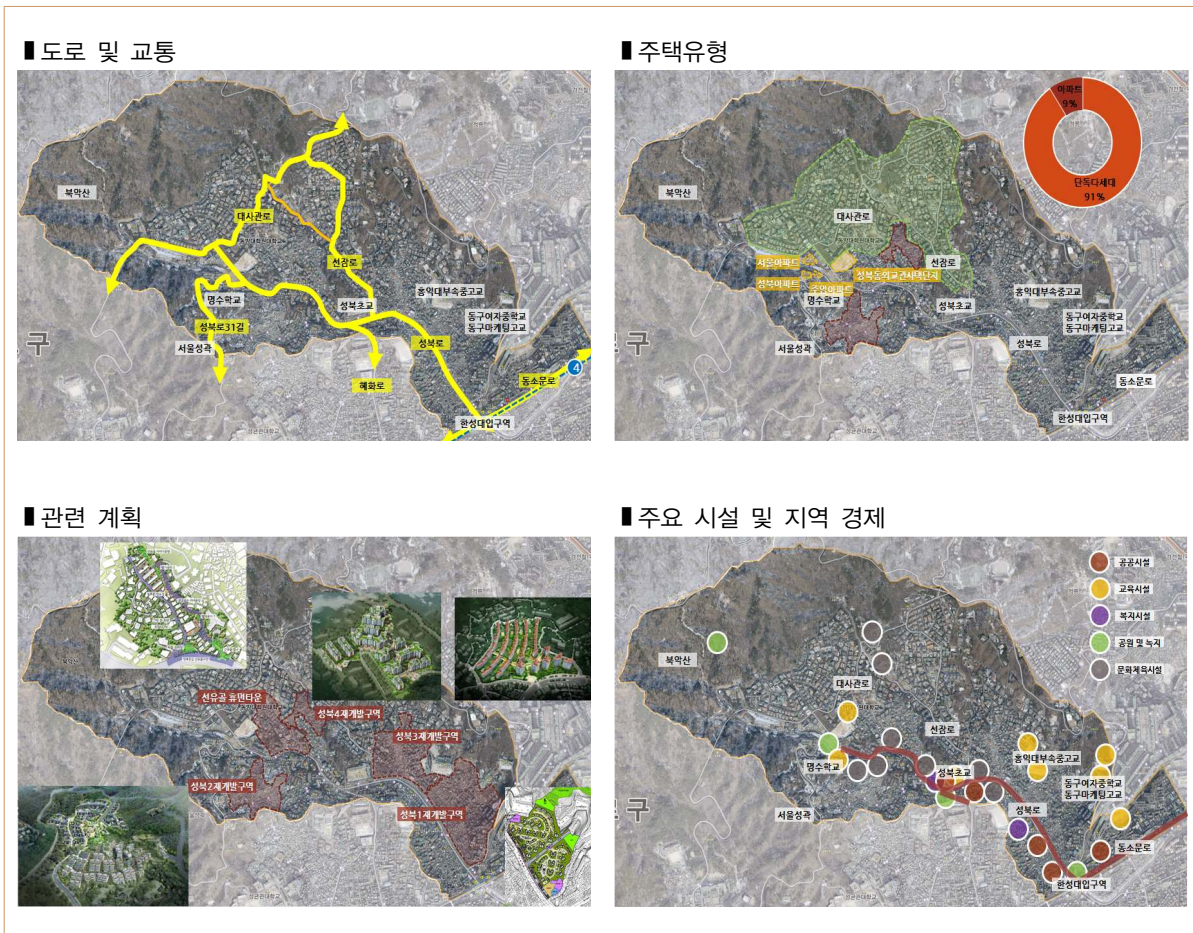


■ 관련 계획

- 대부분의 지역이 기존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음
- 성북1구역과 성북2구역, 성북4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난 상태임
- 성북2구역(북정마을)은 신월곡1구역과 결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찬반 갈등이 심함
- 성북3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가 난 상태이나, 찬반 갈등이 심함
- 선유골 휴면타운은 2008년 11월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1년 7월 공사가 준공된 상태임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성북동 주민센터, 성북1동 파출소, 성북2동 파출소, 성북우체국 출장소
- 교육시설 : 성북초등학교, 홍익대부속중·고등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 동구여중학교, 서울명수학교
- 복지시설 : 성북1동 경로당, 성북2동 경로당, 성암경로당(1층)+성북2동 공부방(2층), 북정경로당
- 공원 및 녹지 :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여 자연보전녹지(개발제한구역), 자연경관지역과 접하고 있음. 성북천의 발원지가 위치하며, 성북로 아래로 성북천이 흐르고 있음. 성북2동 습터, 우정공원, 성북근린공원(구민회관 옆)이 위치함



[그림 3-3] 성북동의 물리적 현황

■ 지역 경제

- 성북동 내부에는 흥익중고 버스정류장, 쌍다리 버스 정류장 앞에 위치한 농수산물을 포함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마트가 있음
- 그 외 성북로를 따라 작은 슈퍼마켓과 다수의 식당이 위치해 있음. 식당은 맛집으로 유명한 가게들이 많음
- 시장 상권은 한성대 입구역, 성북천변 주변의 삼선시장에 형성되어 있으며, 한성대 입구역과 성신여대역 사이의 대로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음
- 성북로를 중심으로 음식점과 카페가 분포하며, 최근 카페와 문화공간이 증가하면서 주말 방문객 수가 급증하고 있음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성북동의 인구는 19,241명으로 남성 9,275명, 여성 9,96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성북동의 취약계층은 총 371가구(538명)로 기초생활수급자 210가구(323명), 한부모 25가구(64명), 저소득장애 68가구(70명), 위탁아동 4가구(5명), 결식아동 15가구(18명), 차상위 49가구(58명)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성북동 주민센터에서는 2013년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성북동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임
- 이외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요가, 탁구, '강선영류춤' 한국무용, 서예, POP교실, 성인 댄스, 경기민요, 라인댄스 등이 있음
-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어린이 댄스와 놀토 어린이 댄스, 겨울방학동안 운영된 리코더 교실 등이 있음
- 성북동에서는 선잠왕비 공주 퍼레이드 및 선잠제향, 아리랑축제, 트라예술무대, 다문화축제, 산신제, 해맞이 달맞이, Wal 月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표 3-5] 성북동 마을행사 현황

구분	내용
선잠왕비 공주 퍼레이드 및 선잠제향	- 매년 5월쯤에 진행되며, 잠신(蠶神) 서릉씨(西陵氏)에게 양잠(養蠶)의 풍요를 기원하며 지내던 전통 제례의식을 재현한 것임
아리랑축제	- 춘사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촬영지로 알려진 아리랑길을 영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영화 "아리랑"을 모티브로 개최됨
트라예술무대	-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최되며, 뮤지컬, Jazz, B-boy, 아카펠라, 라틴음악 등 공연을 진행함
다문화축제	- U.N.이 지정한 세계 다문화의 날(5월 21일)을 기념하여, 음식을 통해 외국인과의 교류를 증대하고 인종·민족·국가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개최됨
산신제	- 매년 음력 10월 1일 각 지역의 산신제보존위원회 주관으로 산신제례가 진행됨
해맞이 달맞이	- 매년 1월 1일과 음력 정월대보름에 개운산 운동장에서 개최됨. 각종 문화공연 및 세시풍속 재현행사, 전통 민속놀이 등이 진행됨
Wal 月 축제	- 매년 가을 성북동 북정마을에서 개최됨. 다양한 문화공연이 진행됨

■ 사회적경제 자원

- 성북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대지를 위한 바느질, (사)국제시각예술교류협회, (주)모던팝스 오케스트라, (주)에듀닥터 바른배움, (주)글로벌지앤씨,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등임

[표 3-6] 성북동 사회적기업 현황

구분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
대지를 위한 바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식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하여 결혼식 본래의 의미를 살리면서 환경문제까지 고려한 성숙한 웨딩문화를 선도하고자 함 - 친환경 결혼식을 통해 탄생한 녹색가정이 지속적인 에코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친환경 제품 제공
(사)국제시각예술 교류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예술 분야의 국내 작가 지원과 현대미술의 조사·연구·수행을 바탕으로, 비영리 전시공간 운영, 미술창작스튜디오 지원 및 국제교류 사업, 창의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국내 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
(주)모던팝스 오케스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그레이드된 클래식 대중문화 추구 - 서울시 문화예술 체험투어 프로그램(미술관, 박물관 체험 및 오케스트라 음악공연 관람 등), 찾아가는 스쿨콘서트 등 진행
(주)에듀닥터 바른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탐색과 학습동기부여 강화, 학교 수업을 기본으로 한 자기주도학습, 사교육비 절감 및 수혜편차 축소 - 부모와의 교감(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한 상호이해 증가, 학습/진로에 대한 공감 및 합의 형성)
(주)글로벌지앤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소재로 제품 개발 및 판매 서비스를 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친환경 제품 제공 -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다양한 친환경제품 및 응용제품을 개발하여, 인류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생활의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 기증과 기부를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소유로 영구히 보전하고 관리하는 시민운동

- 성북동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동네국수, 성북 신나는 통합체험학습센터 등이 있음

[표 3-7] 성북동 마을기업 현황

구분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
동네국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수가게 운영 및 고용 일자리 창출 - 독거노인 반찬나눔사업을 통한 수익의 지역 환원 - 경로당 및 어르신 무료 식사 잔치 개최, 나들이 지원을 통한 어르신 문화지원사업
성북 신나는 통합 체험학습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고용 일자리 창출 - 체험학습 여행사 설립, 전문 강사 양성 등 추진 - 경제·역사·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워크북 개발 추진 - 농산물 직거래 유통 운영센터 추진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오뉴월, 신나는 문화 놀이터 이랑'은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사업으로 <2012 변화를 꿈꾸는 10만 명의 시인들, 서울>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은 시 창작, 발표, 전시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착수하였음. 주된 사업 내용은 시 창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낭송 축제 개최, 골목 설치 미술 진행 등이 있음
- '성.아.들(성북동아줌마들, 성북동아이들,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은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사업으로 <성북동에 놀러와~>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착수하였음. 주된 사업 내용은 역사문화 해설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주말 성북동 탐방 프로그램 진

행, 독거노인 결연 및 동네청소 진행 등이 있음

- '효자손'은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사업으로 <Cafe' 동네헌책방>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은 재활용과 착한소비 지향, 지역주민 소통 공간 마련, 대안적인 문화 창출, 정보 공유 및 이웃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착수하였음. 주된 사업 내용은 헌책방과 카페 운영 및 소모임 공간 제공, 강좌 및 좌담회 개최 등이 있음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8월 8일부터 9일까지 성북동장을 비롯하여 새마을 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5인의 성북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성북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8] 성북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1동과 2동 통합 및 동주민센터 신축 • 새마을금고 자리에 전시관 입점 • 쌍다리 → 4차선 도로 • 심우장, 서울성곽, 김신조 루트 정비 등으로 외부방문객 급증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 때 오히려 더 활기참 • 공기가 좋고 이웃 간 정겨움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부 격차와 부실한 주택 • 주차관리 및 주차시설 부족 • 구릉지역의 겨울철 빙판 형성 및 폭설로 인한 마을버스 운행 정지
공간	생활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부족 • 천주교 측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청소년 공부방
	모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회관, 삼거리 사각정 • 겨울에는 모임 공간이 없음
공동체	공동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 같은 분위기 • 이웃 간 관계가 돈독하고 단합이 잘 됨
	주민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정마을의 한옥마을 조성으로 인한 재개발 찬반 갈등 •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로 인한 갈등
	자발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연탄은행, 인간성회복추진위원회,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 인보회, 동민회, 북성회(북정마을 주민모임) • 친목모임, 학교모임(학부모들간의 모임)
마을만들기	희망하는 마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분위기가 지속되는 마을 •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은 지양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을 살려내고 보존 • 벼룩시장 등 마을시장 개설 • 문화재 안내판 설치
	마을만들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공간 필요 • 예산 및 조직이 필요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대한 뚜렷한 제안 필요 • 젊은 주부들의 참여 활성화

(3) 성북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24일(월) 오후 4시 30분, 30명
- 성북동의 자랑거리로는 유서 깊은 문화재가 많아 자긍심을 지님(6), 공기가 좋음(6), 정이 있는

- 마을(4), 주민 간 소통이 원활함(4)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차(10), 노후화된 주택 및 공가 방치(7), 놀이터 및 쉼터 부족(6), 개발 찬반 주민갈등 심각(6) 순으로 많음

[표 3-9] 성북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이 있는 마을 (4)/ 도시 속 시골마을 (2)/ 한 지역에서 오랜 삶을 유지함 - 주민 단합이 잘 이루어짐 (2)/ 주민 간 소통이 원활함 (4) - 주민 상호간 관계가 우호적이고 배려심이 깊어 좋음 (3) - 어른을 공경하는 젊은이가 많은 마을/ 범죄가 없는 마을 (3) - 주변 환경이 좋음/ 도심 가까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리함 - 교통이 편리함/ 거리가 깨끗함 (2)/ 자연환경이 좋음/ 교통량이 적어 소음이 없어 조용함 (3) - 공기가 좋음 (6)/ 산책로, 둘레길이 좋음 (3)/ 유흥업소가 없어 좋음 (2) - 유서 깊은 역사, 문화재가 많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음 (6) - 지금 이대로그가 좋음/ 북정성곽마을, 공기 좋고 시골분위기인 동네를 영구히 보존시키길 소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반대/ 무분별한 개발 제한, 현재 있는 나무 잘 보전하고 푸른 나무 많이 심길 - 재개발 아파트 건립논의 안 하길 소망/ 재개발 찬반으로 인한 주민갈등 -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있음 - 노후 주택이 많음(재개발 진행 된 곳은 빨리 해주길) (3)/ 오래된 한옥이 너무 많음 - 공가가 많음(산25-102 13통 6반 근처) (2) - 성북천길 위험, 포장불량으로 패인 곳이 많음(나폴레옹 제과점에서 대광고 구간) - 168번지 산 아래 동네 전체 화장실이 재래식임, 비만 오면 하수구 냄새가 엄청남 - 구릉지가 많아 오르내리기 힘들/ 성북천 복원 - 성곽로를 살리면서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서서히 개발하길 바람 - 길거리 음식점이 미관상 좋지 않음/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수거 문제 (2)/ 무단 주차 (3) - 도로가 비좁음, 확장 요망(소방도로 확보 필요) (3)/ 공영 주차장 필요 (5) - 한성대역에서 성곽 산책길 안내판 설치 필요/ 공중화장실이 없음/ 자전거 도로가 없어 불편함 - 젊은이들을 위한 놀이, 문화, 휴식 공간, 도서관이 부족함 (4) - 어린이 놀이터 부족 (4)/ 방과후 공부방 필요/ 노인들 쉼터 부족 (2)/ 편의시설 부족/ 상권이 영세함 - 공원이 없음/ 지하철 6번 출구에서 한신A 입구 도로정비/ 노점상 개선, 재정비를 통한 보행 불편요소 제거 - 골목길 가로등 정비(옛 2동 거리가 밤에 너무 어두움) (2)/ CCTV 설치 - 유기동물 해결/ 순찰시 보도순찰 요구/ 빈부격차 심화/ 교통이 불편함 - 동서문 가로공원, 노숙인·젊은이들의 음주, 냄새남 - 성북동 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구성원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소외되어 있음

(4) 마을사업 제안

- 성북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야외 북카페 조성>과 <마을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함

[표 3-10] 성북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학교 개방 도서관 또는 초등학교의 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야외 북카페 조성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도서관이 필요 - 아이들은 맘껏 뛰놀고 어른들은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쉼터 필요
마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초등학교, 홍익대부속중·고등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 동구여중학교, 서울명수학교가 위치함 - 마을 내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놀이터 등)이 별로 없음 - 성북초 재학 중인 아이들 수가 적어 예산이 적음 - 통학로 주변이 위험함 - 성북동 내 도서관이 없음
마을 자원	- 이웃들이 친절하고 서로 알고 지냄. 인정이 있고 가족 같은 분위기

	- 학교폭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음. 범죄가 없는 마을 - 엄마들이 잘 뭉침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학교 내 도서관을 개방형으로 운영하거나 교문 근처 일부를 개방하여 야외북카페 조성 - 초등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평일에는 아이들이 방과후 엄마와 만나는 장소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 가능 - 도서관 이용 계층을 확대해 다양한 지원을 끌어들이
효과	- 주민 공동체 활성화 - 교내 시설 개선
협력 부서	-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표 3-11] 성북동 마을사업 예시 2안

구분	내용
사업명	- 마을 아카이브 구축
사업유형	- 마을 아카이브
요구사항	- 소통할 수 있는 마을을 희망함 - 문화 유적들, 오래된 공동체의 홍보 및 정보축적 필요
마을 현황	- 성곽 등 역사, 문화 유적들이 많음(심우장, 간송미술관, 서울성곽, 선잠단지 등) - 문화재가 많지만 안내 부족(문화해설사 필요) - 북정마을을 보존하자는 주민과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간의 갈등 존재 - 노후한 주거지가 많고 재개발 계획으로 마을이 철거될 가능성 있음
마을 자원	- 눈에 보이는 역사문화자원도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 문화, 행사 등 존재 - 30~4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많고 성향들이 온순함 - 이웃의 사정을 험히 알고 자별 정도로 이웃 간 관계가 돈독함 - 성북예술창작센터, 해화동 등 예술인들이 많음(현재도 예술인들이 성북동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있음) - 성북마을미디어모임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민관협력을 통해 마을단위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마을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함 - 전문가, 예술인,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 - 마을기자 등 청소년들의 마을만들기 참여 활성화
효과	- 마을 단위 문화유산 발굴 및 기록, 보존 - 마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가능
협력 부서	- 문화체육과, 홍보담당관

2) 삼선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북측면으로 종로구 혜화동에서 미아삼거리로 이어지는 8차선 동소문로와 접하며, 동측면으로 동대문구 신설동과 연결되는 6차선의 보문로와 접하고 있음
- 삼선동 내 이면도로는 2차선의 삼선교로, 삼선교로4길, 보문로29길임
- 지하철 : 삼선동 북서면에 위치한 한성대입구역 1,2,3,4번 입구와 접하고 있음
- 버스 : 동소문로와 보문로 통과 간선버스가 많고, 1111번 지선버스가 통과함
- 마을버스 : 성북02번, 성북03번, 종로03번



■ 주택유형

- 아파트가 1,082호, 단독주택이 2,565호, 다세대(연립)주택이 1,030호로,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이 전체 주택의 76.9%임
- 북측에 25층 규모의 코오롱아파트, 남측에 25층 규모의 삼성푸르지오, 삼성현대힐스테이, 동측으로 25층 규모의 보문아이파크가 삼선동의 동, 남, 북 면을 둘러싸고 있음
- 장수마을을 제외하고 삼선동 전역이 3~4층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분포함
- 삼성공원 주변(장수마을을 포함한 재개발사업 구역) 외에는 모두 격자형 넓은 골목임



■ 관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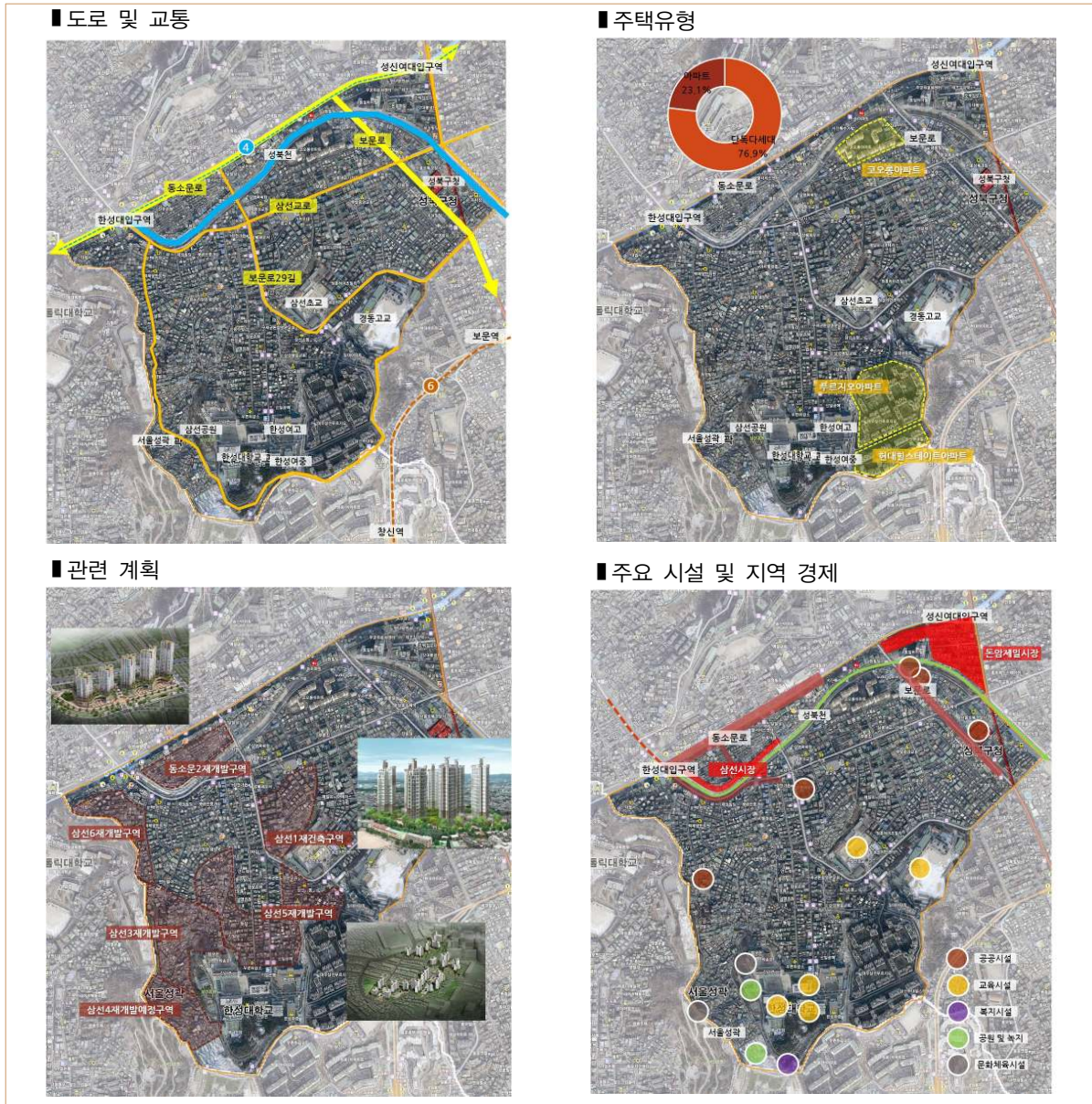
- 4개의 주택재개발구역과 1개의 주택재건축구역, 1개의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이 존재함
- 동소문2재개발구역과 삼선5재개발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상태임
- 삼선3재개발구역과 삼선6재개발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상태임
-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삼선4구역(장수마을)은 2008년부터 민간단체와 주민들이 협력하여 대안개발을 모색해왔으며, 2012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삼선1재건축구역은 준공인가가 난 상태로 입주가 예상됨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삼선동주민센터, 돈암119안전센터, 성북구청, 성북경찰서, 성북세무서, 성북정보화센터
- 교육시설 : 경동고등학교, 삼선초등학교, 한성대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 문화체육시설 : 삼군부총무당, 서울성곽
- 공원 및 녹지 : 삼성공원, 낙산근린공원, 삼성공원 내 서울상상어린이공원, 성북천

■ 지역 경제

- 돈암시장, 삼선시장(비인가)이 규모가 있음
- 삼선교로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음
- 한성대 입구 - 삼선교로10길변에 상가가 많음



[그림 3-4] 삼선동의 물리적 현황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삼선동의 인구는 27,548명으로 남성 13,486명, 여성 14,08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삼선동의 취약계층은 총 2,184가구(2,938명)로, 기초생활수급자 318가구(517명), 한부모 73가구(186명), 저소득장애 130가구(138명), 기초노령 1,417가구(1,737명), 결식아동 124가구(142명), 차상위 122가구(218명)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삼선동에서는 <상설예술무대 행복공간>, <삼선동 선녀축제>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상설예술무대 행복공간>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 2개소를 선정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임

■ 사회적경제 자원

- 삼선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한국새생명복지재단사업단 뉴라이프, 성북장애인 보장구 클린센터,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극단 아리랑 등이 있음

[표 3-12] 삼선동 사회적기업 현황

구분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
한국새생명복지재단사업단 뉴라이프	-
성북장애인 보장구 클린센터	- 보장구의 사후 수리와 관리가 원활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 보장구 수리, 세척, 배터리 충전, 대여, 상담 및 정보 제공, 사용 교육 등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장애인의 감동을 위한 고품질의 서비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장애인 마케팅,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장애인 문화 창출을 위한 - 인식개선사업, 자원봉사연계사업,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 등 - 장애인복지시설체육대회,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 장애인 결연후원사업, 기업사회공헌세미나, 우리건강지킴이 생활안마센터 등
극단 아리랑	- 극단 아리랑은 전통연희의 현대적 재창조를 기치로 건강하고 개성있는 작품을 공연 - 취약계층 고용 일자리 창출, 창작 공연활동을 통한 예술 발전, 복지 공연 순회사업

- 삼선동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동네목수, 신나는 작업실 키득키득 맘키드 등이 있음

[표 3-13] 삼선동 마을기업 현황

구분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동네목수	- 장수마을 집수리 사업 및 고용 일자리 창출 - 독거노인, 취약계층의 노후·위험 주택 긴급 보수 - 공가 보수 리모델링, 마을 쉼터 등 조성 - 마을학교 집수리교실 운영
신나는 작업실 키득키득 맘키드	- 지역 내 돌봄과 교육기능 역량 확보, 어르신·아동·학부모의 상호 연대 네트워크 형성, 자원재생과 생산을 통한 지역 내 경제·문화 활동으로 돌봄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협동조합형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여 - 토요일업일 도시농부 체험교실 - 폐현수막을 이용한 아이들과 생활에 필요한 앞치마, 다이어리 등의 다양한 미술체험을 진행 - 친환경 먹을거리를 이용한 베이킹, 부침개, 화전 만들기 등의 다양한 요리체험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삼선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사업으로 <삼선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친화형 성북천 만들기>사업을 진행하였음. 주된 사업 내용은 주민참여 악기연주 공연 운영과 삼선동 및 삼선시장 해설판 설치, 성북천변 삼선시장 경관이미지 개선, 성북천 추억만들기 코너 운영, 상인학교 운영 및 정기연주회 등이 있음
- (주)놀이나무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시끌벅적, 시장의 재발견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은 사라져가는 전통시장의 전통적인 나눔과 소통이라는 가치를 재발견하고 다양한 지역

민들과 소통·융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통시장의 문화적 가치 효과를 확대하고자 진행됨. 주된 사업 내용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협조체계 구축, 신나는 전통 시장 문화놀이터 만들기(공간 벽화디자인 및 그리기, 포토존 제작 설치), 유치원생 또는 초등생 전통시장 문화와 경제활동 체험, 돈암제일시장의 판매 유통 활성화 등이 있음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삼선동장을 비롯하여 새마을문고 회장, 성북천상인협 의회 회장, 새마을부녀회 회장, 북카페 근무자 등 5인의 삼선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하였음
- 삼선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4] 삼선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 다세대, 빌라, 아파트 • 나폴레옹제과점 대지에 분수공원이 들어섬 • 낙산공원 공원으로 개조해짐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선동 장수마을 • 유흥가가 없어 조용함 • 서울성곽, 복원된 성북천과 인근 산책로, 분수대, 야경 등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가 없어 불편함 • 노후 주민센터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선시장 철거 및 성북천 복원 • 중산층 → 저소득층으로 생활수준 하락 • 교통이 좋음(한성대입구역, 보문역, 경전철 완공 예정) • 공기가 맑고 자연환경이 좋음 • 성북천의 모기 등 해충과 냄새, 녹조현상 • 주거환경이 열악함(낙후된 주택, 주차, 쓰레기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지역아동센터(분교회 부설) • 주민센터와 문고, 자치센터, 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 문화시설 거의 없음 • 행복플러스(복지재단) 모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천, 삼선동5가 정자 • 한성대 옆 분수마루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열이 강함 • 단합이 잘됨 주민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아파트 공사 소음 관련 갈등 • 직능단체 내에서 단체장들끼리 갈등이 있음 • 성북천 옆 '차없는 거리' 조성 갈등(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 • 성북천 주변 상가로 인한 음주, 노상방뇨 문제 • 삼선동, 2동 통합 후 경제수준 격차로 화합이 어려움 자발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천상인협의회 • 장수마을 대안개발연구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하는 마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마을 • 마을 중심인 단체들의 화합 •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며 함께 사랑하는 마을 • 조용하고 범죄 없어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 살기 좋고 전통이 살아있는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와서 편히 쉬고 모일 수 있는 공간(ex. 북카페) 만들기 • 문고 활성화 • 동네 어린이 대상 마을만들기 아이디어 공모 마을만들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업 • 주거환경 개선 • 마을만들기에 대한 홍보 필요 • 재정 확보 • 사업을 주도하는 리더의 희생이 필요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특히 소집단을 방문하고 모임을 가짐 • 한정된 예산을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계획 •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 및 참여프로그램 필요

(3) 삼선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25일(화) 오후 2시, 36명
- 삼선동의 자랑거리로는 인심이 좋고 주민화합이 잘 됨(8), 성북천이 좋음(7), 편리한 교통(4), 낙산공원이 좋음(3)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산과 하천 등 관리 부족(14), 쓰레기 투기 및 청소 불량(5), 보행환경 불편(5), 주민센터 공간 부족 및 노후(5) 순으로 많음

[표 3-15] 삼선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 거리	- 성북천이 있어서 좋음(작은 트락예술제, 운동할 수 있어 너무 좋음) (7)
	- 삼선교 분수대가 생겨 구경하고 쉬어가니 좋음/ 낙산공원이 좋음(성곽산책로 등) (3)
	- 마을만들기의 장수마을이 있어 항상 주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
	- 한성대 소나무 별장이 좋음/ 골목이 넓어 좋음/ 동네가 조용해서 좋음
	- 학교가 많아 좋음(초, 중, 고, 대학교) (2)/ 교통이 편리함 (5)
	- 인심이 좋음, 옛 모습 그대로가 좋음, 주민화합이 잘 됨 (8)/ 관공서가 근처에 있어 좋음 (2)
	- 편의 시설, 스포츠센터, 학원 등 문화시설이 많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좋음
	- 주민들의 봉사정신이 최고임/ 새마을금고가 있어 좋음/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가 자주 있어 좋음
	- 새마을금고 3층에서 초·중·고등생 돌봄 교육을 실시해서 참 좋음
	- 쓰레기 문제(취약지역, 단독세대 증가) (3)
개선 사항	- 주민센터를 중앙으로 이전 (2)/ 멋진 주민센터 필요/ 민원실이 동네 끝에 있어 불편함
	- 성북천 애완동물 배설물 문제 및 애완견 방치문제 (4)/ 성북천 풀 좀 베어주시길(너무 수북함) (2)
	- 성북천에 화장실 마련 (2)/ 성북천 악취/ 성북천 모기가 많음
	- 성북천 통행량이 많아 불편함, 양방향 길을 만들었으면
	- 성북천에서 늦게까지 술 마시고 노래 불러 시끄럽고 싫음
	- 성북천에 술병, 컵이 널려있어 보기 흉함/ 성북천 음식점들이 길에 의자를 내놓아 불편함 (2)
	- 방역을 자주 하길/ 가로수에 등 달지 않기/ 한성대 역 교통은 좋은데 성신여대 교통은 불편함
	- 전통시장이 없음/ 경사도가 너무 많음/ 동네가 구릉으로 형성되어 도시자족기능이 부족함
	- 소방도로가 없어 불편함(소방도로를 만들어주든지 재개발을 하길 희망함) (3)
	- 도로 및 파손 보수공사 필요(5구역)/ 인도가 좁아 불편함
- 불필요한 재개발, 불필요한 신축, 증축, 수리로 인해 불편함	
- 스포츠센터·문화센터가 없어 불편함/ 대형 목욕, 사우나 시설이 없어 불편함	
- 소음이 많아 불편함/ 전봇대 유선선 정리 필요/ 자기 집 측량이 안 됨(3구역)	
- 주차 문제(자동차가 거리를 다 점유하고 있음) (4)/ 어려운 가정이 늘어남	

(4) 마을사업 제안

- 삼선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도시락 및 밑반찬 조리실 조성>과 <삼선동 주민센터 이전 또는 리모델링>을 제안함

[표 3-16] 삼선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도시락 및 밑반찬 조리실 조성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며 함께 사랑하는 마을을 희망함
마을 현황	-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생활수준 하락
	-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노인, 한부모 가정, 학교를 가지 않고 동네를 헤매는 청소년들)
마을 자원	-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이 많음
	- 인심이 좋음, 옛 모습 그대로가 좋음, 주민화합이 잘 됨 - 도시락 배달, 밑반찬 봉사활동 단체가 활발히 활동 중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대학생, 청소년 봉사활동
	-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활용 또는 공가 매입으로 도시락, 밑반찬을 만들 수 있는 조리실 조성
	- 결식이웃에게 무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조리와 배송 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
	- 청소년, 대학생, 주부 등 봉사자의 참여 독려
	- 지역기반 봉사활동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효과	- 기업, 정부, 지자체, 지역 NGO의 다자간 협력모델 시도 가능
	- 일부 도시락, 반찬에 대해서는 유료 판매하여 지속가능한 모델 지향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도시락 봉사 가능
협력부서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취약계층 지원
	- 복지지원과, 재무과

[표 3-17] 삼선동 마을사업 예시 2안

구분	내용
사업명	- 삼선동 주민센터 이전 또는 리모델링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 주민센터를 중앙으로 이전, 민원실이 동네 끝에 있어 불편함 - 멋진 주민센터 필요, 주민센터가 오래된 신축 필요 - 스포츠센터가 없어 불편함
마을 현황	- 주민센터가 북동쪽 끝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함 -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센터, 공간이 부족 - 동네 문화시설의 거의 없음
마을 자원	- 지역에 애착심과 자부심이 많음 - 삼선동 주민센터는 지역의 자원(성곽 등)과 주민의 자긍심, 동네의 유래가 담긴 전설을 응용해 '선녀축제'를 지원하고 있음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동주민센터 동 중앙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검토 - 주민센터 신축 혹은 리모델링으로 주민참여 공간 확대 - 건물 설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 계획(문화시설, 체육시설, 다양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 - 마을기업, 자원봉사 단체를 위한 공간 마련 방안 검토
효과	- 주민 참여형 설계방식 도입 - 주민센터를 주민참여 공간으로 활용 가능
협력부서	- 자치행정과, 도시디자인과

3) 동선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돈암1동과 성북동, 삼선동으로 이어지는 동소문로(왕복 6차로)가 북동에서 서남방향으로 지나감. 차량 이동이 많고, 주요 정체구간임
-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돈암2동으로 이어지는 아리랑로(왕복 4차로)가 남북방향으로 연결. 차량 이동이 많음
- 지하철 :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 버스 : 동소문로를 따라 종로구에서 성북구 길음동, 월곡동, 장위동, 강북구로 연결되는 간선버스가 다수 통과함. 아리랑로를 따라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정릉동 길음동으로 연결되는 간선버스가 통과함



■ 주택유형

- 아파트가 399호, 단독주택이 1,606호, 다세대(연립)주택이 841호로,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이 전체 주택의 86.0%임
- 신규 빌라 및 주택 지역의 골목은 주택가 내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구 주택가의 골목 길은 좁아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보행의 어려움이 존재함
- 동소문로13나길 53~59번지 일대 한옥형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노후한 상태임
- 성골롬반외방 선교센터 뒤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진행 중임



■ 관련 계획

- 동선1주택재개발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임
- 동선2주택재개발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임
- 동선3주택재개발구역은 구역지정이 폐지(2010. 9. 24)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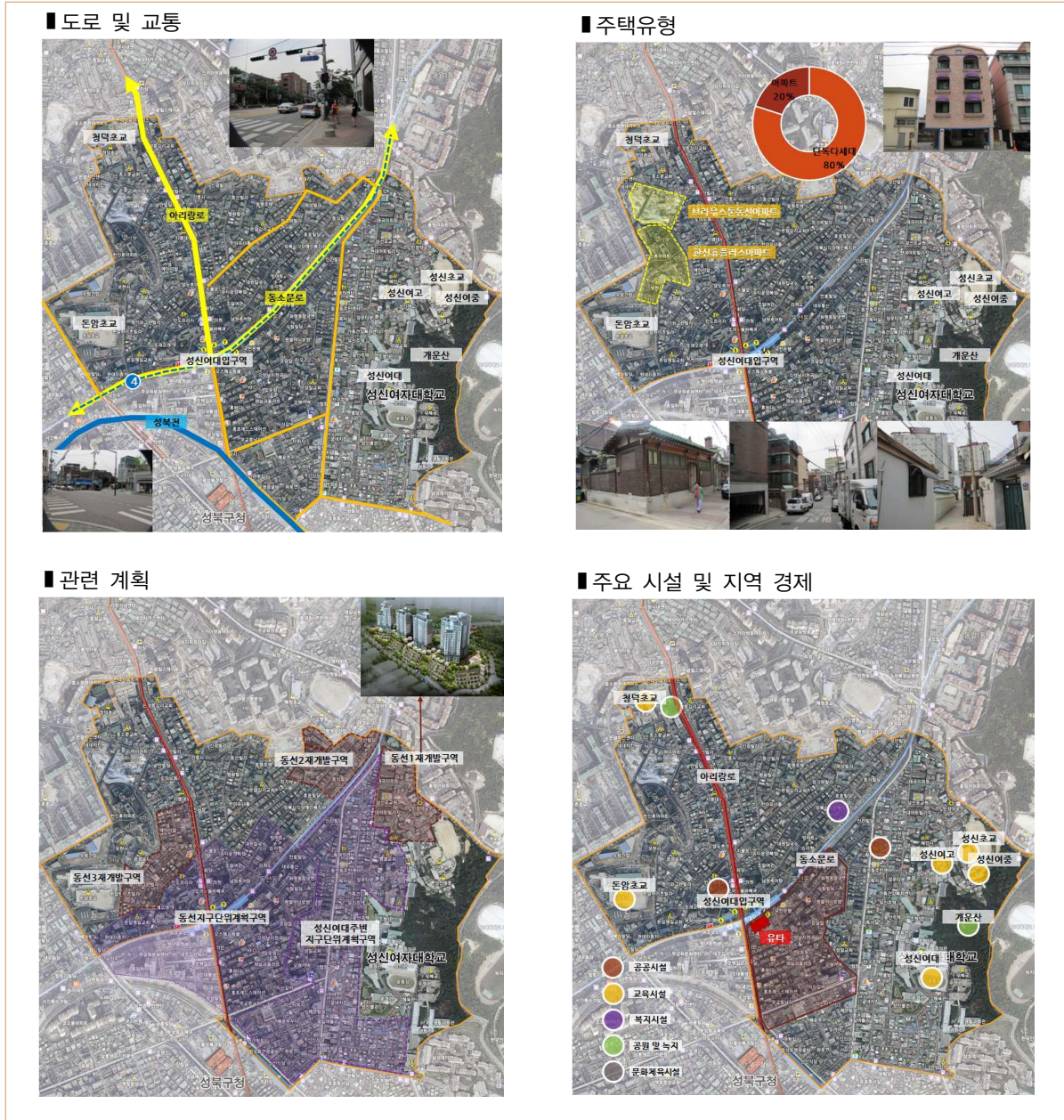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성북구보건소 동선보건분소, 동선동 주민센터,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동선동 자율방범대
- 교육시설 : 성신여자대학교, 서울정덕초등학교, 서울돈암초등학교, 성신초등학교, 성신여자중학교, 성신여자고등학교
- 복지시설 : 동선동 청소년공부방(동선동 제2경로당 내)
- 공원 및 녹지 : 개운산근린공원, 샘터공원(우이-신설도시철도 공사 현장사무소로 이용), 아리랑로 주변으로 가로수 주변 소규모 화단 및 의자 조성

■ 지역 경제

- 성신여대입구역 주변 및 동선동1가를 중심으로 한 음식·주점·의복 등 쇼핑가 형성됨
- 동소문로 양 옆 도로변을 따라 소규모 점집이 집성촌을 이루며, 주택가 곳곳에서도 위치함

- 성신여대입구역 주변에는 쇼핑 관련 빌딩이 많고, 동선동2가에는 카페와 식당이 많음
- 동선동1가는 노후상업지로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노후화가 심각함
- 아리랑로2길 주변으로 모텔촌이 형성됨
-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건물 1층에 생활소모품 상가 및 식당가가 형성됨



[그림 3-5] 동선동의 물리적 현황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동선동의 인구는 16,090명으로 남성 7,309명, 여성 8,78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선동의 취약계층은 총 1,501가구(1,696명)로 기초생활수급자 203가구(278명), 한부모 43가구(77명), 기초노령 921가구(921명), 장애수당 97가구(120명), 장애연금 41가구(48명), 보육·육아

학비 159가구(202명), 차상위 의료·자활 37가구(50명)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적경제 자원

- 동선동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한살림 북동지부'가 있음
- 동선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극단 나는 자동차'가 있음

[표 3-18] 동선동 사회적기업 현황

구분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
극단 나는 자동차	- '즐거운 하루를 선사하자'는 모토 아래 창단
	- 삶이 예술이 되는 생활을 위해 각 계층별 고민 또는 관심사를 다룬 작품을 창작하여 공연
	-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민예술교육을 통한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발전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
	- 어린이부터 청소년, 대학생, 주부 직장인, 어르신(실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에 걸쳐 각 세대별 극단을 운영
	-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학교 교육, 사회서비스, 사내 연수 프로그램 등 운영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우이현 사람들'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일상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 "하나로 골목 클럽"> 사업을 진행함. 이 사업은 상인, 주민, 이용자 공생의 마을만들기, 이웃공동체 및 주민 네트워크 활성화, 여가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세대간 소통의 장 창출을 위하여 착수하였음. 주된 사업 내용은 거리 캠페인, 거리 공연, 마을책방 설치 등이 있음
-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된 <동소문 예술마을>은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정원 가꾸기 등을 통한 주민갈등 해소 및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정원사, 마을 큐레이터 양성을 통한 마을과 공동체를 새롭게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주된 사업 내용은 마을환경 개선사업,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 마을정원사와 마을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등이 있음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8월 6일부터 9일까지 동선동장을 비롯하여 통장협의회 회장 등 5인의 동선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동선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9] 동선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 쇠퇴 • 한옥 → 다가구·다세대주택 • 역사적인 콘텐츠가 많음(아리랑고개, 미아리고개, 나운규선생의 영화)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성촌이 있음 • 교통 등의 입지여건이 좋음 • 깨끗하고 조용함 • 기후환경이 좋음 • 단합이 잘됨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편의시설로의 접근성이 떨어짐 • 쓰레기 문제(공동수거시스템 필요) • 주민들의 쉼터 공간 확보 • 혼잡한 일방통행 도로가 많음 • 하나로거리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설치
공간	생활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복지관 • 공부방, 구립어린이집 • 아리랑시네센터 • 정보도서관 • 보건분소

	모임공간	• 거의 전무함 • 주민센터, 경로당	• 동네주민 집(피터 바들로뮤씨 댁, 이천대자씨 댁) • 우이현
마을체	공동체 특성	• 오래 산 주민들이 많아 지역에 애정이 많음 • 하나로거리와 주거지의 분리(이질적인 느낌)	• 고령자 비율이 높음
	주민갈등	• 선거 때 정치적 갈등	• 재개발 갈등
	자발적 모임	• 우정회, 상인회, 부녀회	• 동선동 번영회 • 성북발전포럼
마을만들기	희망하는 마을상	• 모일 수 있는 쉼터, 소공원이 있는 마을 • 기존 건물 수리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살기 좋은 예술마을 •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지역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마을 • 이웃간에 다정다감한 마을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 하나로거리의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개선 • 마을 청소 등	• 타지역 주민들에게 마을 홍보
	마을만들기 활성화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 반상회 등의 마을 회의가 필요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 빠른 소통	• 주민교육(실질적인 교육)과 홍보

(3) 동선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12일(수) 오후5시, 43명
- 동선동의 자랑거리로는 교통이 편리함(22), 인심이 좋고 주민화합이 잘 됨(10),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 교육에 좋음(7), 시장, 마트가 많아서 편리함(4)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차(16), 쓰레기 투기 및 청소 불량(15), 공원 및 녹지 부족(13), 비효율적 교통체계(11) 순으로 많음

[표 3-20] 동선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거리	- 하나로거리 활성화, 먹자골목 활성화 (2)/ 문화의 거리/ 아리랑로 걷는 즐거움/ 풍부한 먹거리
	- 역세권/ 상가번영회/ 교통 편리(지하철 등) (22)/ 접근성 용이(관공서, 학교, 시장 등) (8)
	- 시장, 마트가 많아서 편리함 (4)/ 도심으로 출·퇴근 용이/ 브라운스톤 아파트, 한신아파트 주변 깨끗함
	- 이웃 화목, 친절, 세대 간 예절, 친밀감, 인정, 상부상조 (11)
개선사항	- 70년대식의 평온한 분위기가 좋음/ 개발이 덜 되어 고전적이고 옛스러움/ 조용함 (3)
	- 살기 편함/ 배수로 잘 됨/ 고령인구와 어린이가 많음/ 근거리 자연녹지환경이 좋음
	- 상가 일방통행이 잘 됨/ 대학·구청 뒤 공간에서 음악·문화 공연, 젊음에 활기찬 모습
	-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 교육에 좋음(초, 중, 고, 대학교 근접) (7)
개선사항	- 도로구획이 잘되어 있음(성북천 옆, 구청 옆)
	- 역사적 가치가 많아 자랑스러움/ 성북천이 있어 좋음(운동 등) (2)
	- 주차 공간 부족(이웃 간 다툼 발생) (12)/ 그린파킹 때문에 주차 문제/ 하나로거리 도로 보수관리 소홀 (3)
	- 거리가 무질서하고 지저분함 (3)/ 간판 통일화 필요 (2)/ 전단지 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7)/ 교통 불편 (3)
	- 공기가 탁함 (3)/ 상가에서 점포 밖으로 점포를 늘리는 행위/ 상가 단합이 잘 안됨 (2)
	- 마실 사랑방 운영/ 일방통행 해제 요망 (5)/ 일방통행으로 주차관계가 불편함
	- 경로당 개선 (3)/ 공원(녹지)이 없음, 썬지공원 설치 (10)/ 주민들 소통 공간, 쉼터 공간이 없음 (2)
	- 청소년 쉼터가 없음 (2)/ 부모와 아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 공간이 없음 (3)
	- 개천에서 냄새가 많이 남/ 개천에서 음주 안하길/ 애견을 밖에 데리고 나오지 않길, 배설물 처리 요망
	- 상업지역이라 교육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복지관, 초등학교, 교육시설 부족 (2)
- 미아로 주변, 아리랑로 주변 3종 및 준주거로 전환 희망/ 동선동2가 가는 차 몰림/ 상가주변 청소문제 (2)	
- 상업지역 설정 필요 (2)/ 신축은 견뎌움이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못함, 견뎌움 증가 (2)	
- CCTV 설치 (2)/ 밤에 어두움 (2)/ 골목길이 사로인 관계로 공사를 못함/ 대형마트가 없음 (2)	
- 동네 사람들 이웃 간에 소통 부족(개인주의, 인간미 없음, 벚꽃축제의 일회성) (3)	
- 젊은이들이 예의범절이 없음, 술, 담배 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음/ 소음이 심함(미아리, 아리랑 고개 등) (2)	
- 기존의 재개발 문제로 쫓겨남/ 노후 주택 개선 (3)/ 미아리고개 주변 발전/ 점집 지역에 개발이 너무 없음	

(4) 마을사업 제안

- 동선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 공간 조성>과 <경로당 개선과 어르신들을 위한 야외쉼터 조성>을 제안함

[표 3-21] 동선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 공간 조성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 하나로거리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설치 -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필요(소비를 하지 않고는 청소년들이 모일만한 공간이 없음,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것에 대한 어른들의 부정적인 시선)
마을 현황	- 단독·다세대주택 비율이 80%에 달함 - 주택가는 공원 등 쉼터가 부족하고, 골목길이 좁아 주차시 보행의 어려움이 존재 -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성신여대, 동선동 청소년공부방 등 여러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성신여대입구역 주변 및 동선동1가를 중심으로 음식/주점/의복 등 쇼핑가가 형성됨
마을 자원	- 교통 등의 입지여건이 좋음 - 하나로거리, 먹자골목이 활성화되어 있음 - 성북구 명품마을만들기 성과 발표회에서 청소년 건전문화공간 조성 '하나로 거리, 우리동 명소 만들기(동선동)가 최우수상을 수상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건물 임대를 통한 청소년 모임공간 조성, 혹은 청소년 전용 이용시간 운영으로 가게 운영의 유연성 확보(월요일 p.m. 4:00 ~ 8:00에는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이용, 청소년 할인제도 실시 등) - 지역화폐 이용을 통한 청소년 자발적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장려(청소년들의 품앗이 → 지역화폐로 이용료 지불 → 가게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
효과	- 청소년 동아리, 모임 활성화(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의제 발굴 등 청소년들 간의 논의 기회 제공) - 청소년 주도 지역화폐운동 가능성 제시
협력부서	- 문화체육과

[표 3-22] 동선동 마을사업 예시 2안

구분	내용
사업명	- 경로당 개선과 어르신들을 위한 야외쉼터 조성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 경로당 개선이 필요함 - 생활권 내 공원(녹지) 부족, 쌈지공원 설치 필요
마을 현황	- 단독·다세대주택 비율이 80%에 달함 - 주택가는 공원 등 쉼터가 부족하고, 골목길이 좁아 주차시 보행의 어려움이 존재 - 고령인구가 많음 -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야외쉼터가 없음
마을 자원	- 70년대식의 평온한 분위기가 좋음, 개발이 덜 되어 고전적이고 옛스러움 - 세대 간 예절, 상부상조정신이 있음 - 컴퓨터 교육보다는 체조, 운동, 야외활동에 대한 어르신들의 욕구 큼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가변적 공간 구성을 통한 야외쉼터 확보(저녁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낮에는 벤치, 파라솔을 돛) - 어르신들이 걷기 편한 산책길 조성을 위해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골목길의 일부를 우레탄, 잔디블록 등을 시공 - 경로당 옥상에 게이트볼장 등 간단한 운동시설 설치
효과	- 고령친화형 특화마을로 발전 가능 - 주거를 중심으로 한 도보권 내 마을쉼터 조성
협력부서	- 노령사회복지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4) 돈암1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혜화동으로 이어지는 6차로의 동소문로, 성북구 동서로 가로지는 정릉로와 내부순환로, 4호선 길음역이 모두 교차하여 차량 통행량과 환승이용객이 매우 많음
- 지하철 : 4호선 길음역
- 버스 : 동소문로를 따라 종로구에서 성북구 길음동, 월곡동, 장위동, 그리고 강북구로 연결되는 간선버스가 다수 통과함
- 재개발이 완료된 범양아파트, 동부센트레빌아파트, 현대아파트 등은 단지 내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돈암6구역 일부는 경사지의 좁은 비정형 골목길이 분포하여 비상차량 접근이 어려움



■ 주택유형

- 아파트가 4,424호, 단독주택이 364호, 다세대(연립)주택이 425호로,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84.9%임
- 돈암1동의 많은 구역이 고층아파트로 재개발이 완료되었음. 대부분 개운산 자락의 경사지에 위치하여 경관적 위압감이 매우 큼
- 재개발이 완료 되지 않은 돈암6구역에는 콘크리트 벽체와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한 단독주택, 노후한 2~3층 적벽돌 벽체의 다세대주택이 남아 있음
- 돈암3-1구역은 3층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이 10동 남아 있음



■ 관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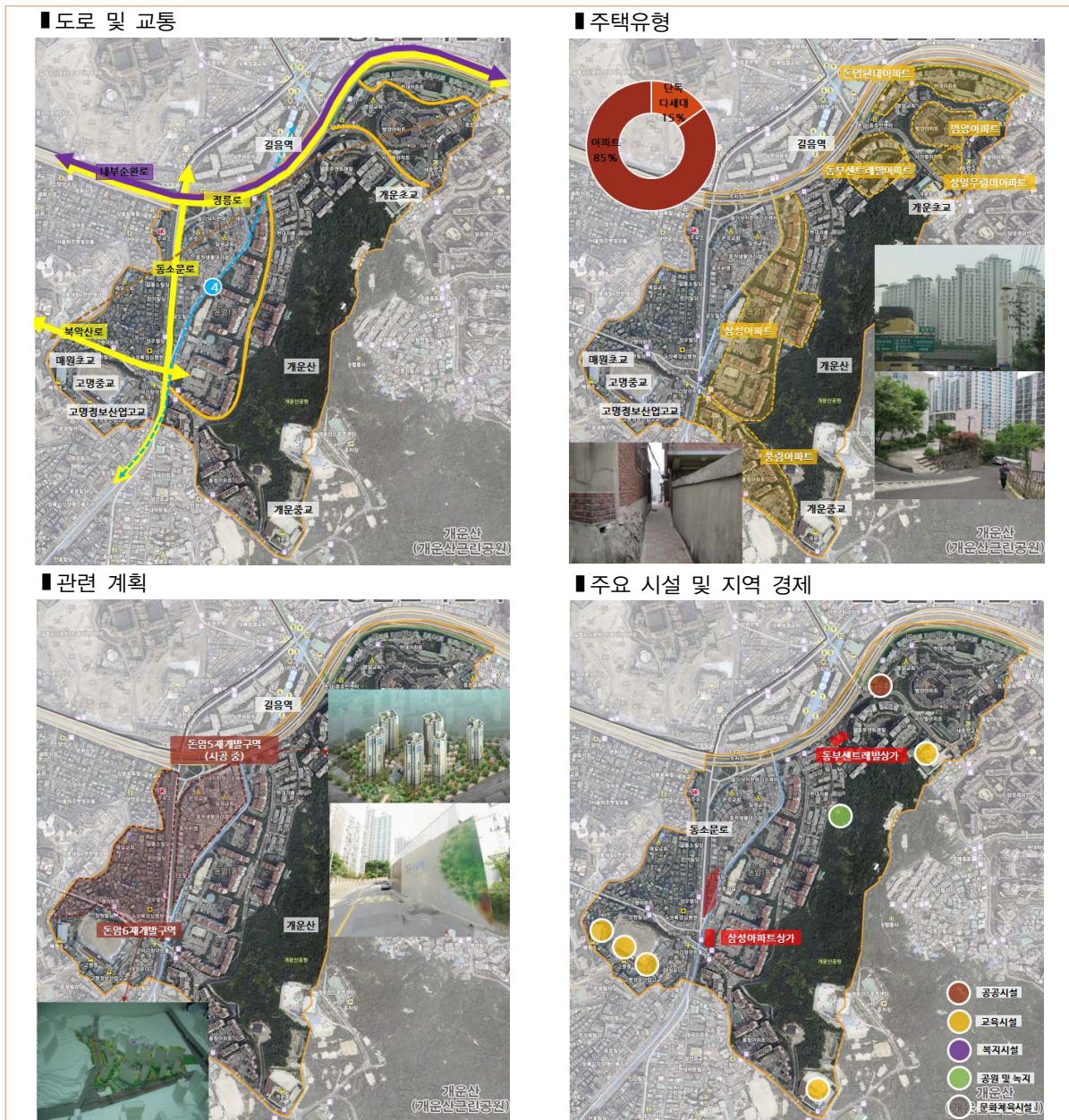
- 돈암5재개발구역은 착공단계로 현재 시공 중
- 돈암6재개발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현재 정비계획수립 용역 진행 중임
- 그 외 지역은 모두 재개발 완료됨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돈암1동 주민센터
- 교육시설 : 개운초등학교, 매원초등학교, 개운중학교, 고명중학교, 고명정보산업고등학교
- 문화체육시설 : 아리랑아트홀
- 공원 및 녹지 : 개운산근린공원, 새소리어린이공원(돈암현대아파트 옆)

■ 지역 경제

- 돈암1동에는 일반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동부센트레빌 주상복합상가와 동소문로변의 의료기관 등이 있음



[그림 3-6] 돈암동의 물리적 현황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돈암1동의 인구는 17,581명으로 남성 8,507명, 여성 9,07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돈암1동의 취약계층은 총 424가구(630명)로, 기초생활수급자 202가구(322명), 한부모 23가구(58명), 저소득장애 84가구(92명), 틈새계층 107가구(146명), 결식아동 8가구(12명)로 구성됨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돈암1동 주민센터에서는 돈암1동 어린이를 대상으로 키즈요가, 어린이 독서·논술교실, 초등가베, 겨울방학 수학특강, 기타교실, 주산암산교실 프로그램과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가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는 웰빙요가, 몸짱다이어트, 방송댄스, 기타교실, 서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돈암1동에서는 트락예술무대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트락예술무대는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최되며, 뮤지컬, Jazz, B-boy, 아카펠라, 라틴음악 등 공연을 진행함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돈암1동장을 비롯하여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5인의 돈암1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돈암1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23] 돈암1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 판자촌 → 아파트단지 • 아리랑길 등 도로의 미적 개선
	자랑거리	• 개운산 산책로, 운동하기 좋음 • 역세권이라 교통 편리 • 아파트가 많아서 깨끗하고 주차, 청소 문제가 별로 없음 • 근거리에 시장, 백화점 위치
	개선할 점	• 환승 주차장 근처 정비 필요 • 상가 필요(회의·회식할 곳, 병의원, 약국, 방앗간 등) • 돈암1동 주민센터 신축 필요 • 단독주택 재개발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 미아리 고개 환경·시설 정비
공간	생활편의시설	• 주민센터 외엔 별로 없음 • 길음복지관 • 아리랑 아트홀
	모임공간	• 특별히 모임만한 공간이 없음 • 철물점 앞 • 범양아파트 입구 •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 옥상텃밭(주민센터 옥상)
공동체	공동체 특성	• 아파트가 90%인 동네이며 단결은 잘 됨 • 온순하고 따뜻한 분들이 많아 협조가 잘 됨 •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욕구가 강함
	주민갈등	• 삼성, 범양아파트는 오래되어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이 많음 •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차 • 주민자치위원회 내의 다툼
	자발적 모임	• 걷기모임, 산악회 • 직능단체(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통장친목회)
마을만들기	희망하는 마을상	•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마을 • 깨끗하고 정이 있는 마을 • 솔선수범하며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마을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 단절된 문화를 화합하며 젊은 사람들도 참여 • 옥상 텃밭을 활용한 어린이 영농체험 • 알뜰장터·사랑나눔·경로잔치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	• 친목도모 공간 필요 • 예산확보가 필요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 민원의 빠른 처리 필요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 법, 예산, 행정적인 지원

(3) 돈암1동의 자량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10일(월) 오후 5시, 42명
- 돈암1동의 자량거리로는 편리한 교통(16), 개운산이 있어 좋음(8), 동네가 쾌적하고 유해환경이 없음(5), 인심이 좋고 주민화합이 잘 됨(3)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보행환경 불편(11), 소음 및 공해 심각(7), 공공질서의식 부족(5), 골목상권 미형성(4) 순으로 많음

[표 3-24] 돈암1동의 자량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량거리	- 교통이 편리함 (16)/ 개운산(산책로)이 있어 좋음(공기 좋고, 운동할 수 있어 좋음) (8)
	- 동네가 쾌적하고 깨끗함, 유해환경이 없음 (5)/ 사람간의 정이 좋음, 화합 (3)
	- 시장과 대형마트가 가깝고 많이 있어 물가가 싼 편임 (3)
개선사항	- 버스정류장이 좋음/ 길거리 나무가 좋음/ 지하철 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좋음
	- 곳곳에 초·중·고·대학교가 있어 학군이 좋음/ 관공서가 가까워 편리함
	- 아파트가 오래되어 공원 같음/ 삼성아파트가 10년 넘게 하자가 없음
	- 소음 해결(현대아파트 뒤 원형 방음벽 설치, 고가차도 뚜껑 설치) (6)
	- 인도가 너무 협소하고 지저분함 (4)/ 공원, 길음역 주변 노숙인 해결 (3)
	- 공동체 의식 부족 (3)/ 먼지가 많고 시장이 멀고 마트가 비쌌 (3)
	- 녹지가 협소함 (3)/ 동청사 신축 요망(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필요) (2)/ 청장님의 마을행사 참여 (2)
	- 집창촌 철거, 환경이 지저분함 (2)/ 통장 리더십 교육이 틀에 박힘, 식상함, 새로운 대안 필요 (2)
	- 개운중학교 마을버스 운행 필요 (2)/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운행시간 연장
	- 길음역 10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2)/ 지하철 10번 출구 환승주차장 도로 폭 확장, 환경미화
	- 미아리고개 가로등 설치/ 개운산 불법정유시설 철거/ 보건소, 구청이 멀다/ 학군이 나쁨
	- 퐁퐁A 진입로가 너무 높음/ 돈암동 아파트의 진입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
	- 은행업무가 불편함/ 금연 거리 조성 요망/ 거주자 주차선 제거 요망
	- 미아리 고개에서 성신여대 가는 길목바닥에 페인트가 6개월 이상 방치됨, 보기 좋지 않음
	- 삼부아파트 앞 공원에 음주자 단속 요망/ 하수구 악취/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 재건축 빨리 시행되길 요망/ 자전거 타기 불편함/ 길이 평평하지 않아 통행이 불편함	
- 근처에 마트, 편의시설 부족/ 삼성A 임대 평수가 너무 좁음	

(4) 마을사업 제안

- 돈암1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길음역 환승주차장 근처 환경미화 봉사활동>과 <미아리고개 주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제안함

[표 3-25] 돈암1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길음역 환승주차장 근처 환경미화 봉사활동 * 길음역 환승주차장은 하월곡동에 위치하나 돈암동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포함됨
사업유형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복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요구사항	- 환승주차장 근처 정비 필요 - 지하철 10번 출구 환승주차장 도로 폭 확장, 환경미화 필요 - 술선수범하며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마을을 희망함
마을 현황	- 길음역에는 9층 빌딩의 환승주차장(172대)이 설치되어 있음 - 4호선 길음역 주변은 차량통행량과 환승이용객이 매우 많음 - 돈암동 내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있음
마을 자원	- 삼성, 범양 아파트는 오래되어서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이 많음 - 아파트가 84.9%인 동네이며 단결이 잘됨 - 온순하고 따뜻한 분들이 많아 협조가 잘됨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중·고등학생 등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이 많음 - 단기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기획(길음역 환승주차장 근처 환경미화 봉사활동 등) - 정기적인 자원봉사동아리 조직 - 환경미화 활동에서 길음역 주변 시설·공간조성 사업으로 발전 가능
효과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마을만들기 - 자원봉사 동아리 조직 및 활성화 - 환경·시설 정비 효과
협력부서	- 복지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청소행정과

[표 3-26] 돈암1동 마을사업 예시 2안

구분	내용
사업명	- 미아리고개 주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유형	- 시설·공간조성(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예술 프로그램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필요
요구사항	- 미아리고개 가로등 설치 - 미아리고개, 아리랑 길 등 도로의 미적 개선 필요
마을 현황	- 미아리고개공원(돈암1동 소공원)이 위치함. 미아리고개를 내려다 볼 수 있으며, 휴게시설(아외무대 1개소, 의자 3개소), 운동시설(3종), 수목(364주)을 식재하여 미아리 고개의 성벽과 상징비를 돋보이게 하였음 - 미아리고개공원, 아리랑아트홀, 굴다리 등이 위치
마을 자원	- 아리랑 아트홀, 성북구청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협약으로 극장 운영과 관리, 기획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초·중·고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문화·예술 체험학습에 대한 충분한 수요 - 교통 편리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주민, 초·중·고학생들이 참여하여 아리랑아트홀, 굴다리, 미아리공원 등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신여대의 관련 학과 등과 주민 동아리가 함께 마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 아동, 청소년, 주부, 어르신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 마을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효과	- 관광객 유치 효과 - 주민의견 반영, 주민참여를 통한 시설·공간 개선
협력부서	- 도시디자인과, 문화체육과

5) 돈암2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아리랑로가 북남방향으로 이어지고, 북악산로가 동서방향으로 지형을 따라 성북동과 종암동으로 연결되고 있음
- 성북로4길이 북악산로와 삼선교로 연결되어 한신한진아파트의 주요 이동 동선이 되고 있음
- 아리랑로5길이 아리랑로에서 동소문동7기를 통과하여 북악산로로 이어짐
- 지하철 : 4호선 한성대 입구역(한신한진아파트 거주민 이용), 성신여대입구역(아리랑로 주변 아파트 및 일반 주택 거주민 이용)
- 버스 : 아리랑로를 통과하는 다수의 간선버스가 존재함
- 마을버스 : 성북01번(성북로4길, 한신한진아파트), 성북22번(아리랑로5길, 돈암2동 주민센터),

성북20번(아리랑로 통과)



■ 주택유형

- 아파트가 6,952호, 단독주택이 169호, 다세대(연립)주택이 292호로,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93.8%임
- 돈암2동 대부분의 구역이 고층아파트로 재개발이 완료됨.
- 아리랑로 주변 일부는 노후 상가 및 단독주택이 밀집함
- 아리랑로12길 좌우는 단독주택, 연립 및 빌라가 위치하며 상태 양호함
- 아리랑로6나길 좌우는 단독 주택 및 빌라가 위치하며 상태 양호함
- 아리랑로13길 일대 북악하이츠빌라 및 주택과 아리랑로5나길 일대 주택은 재개발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음



■ 관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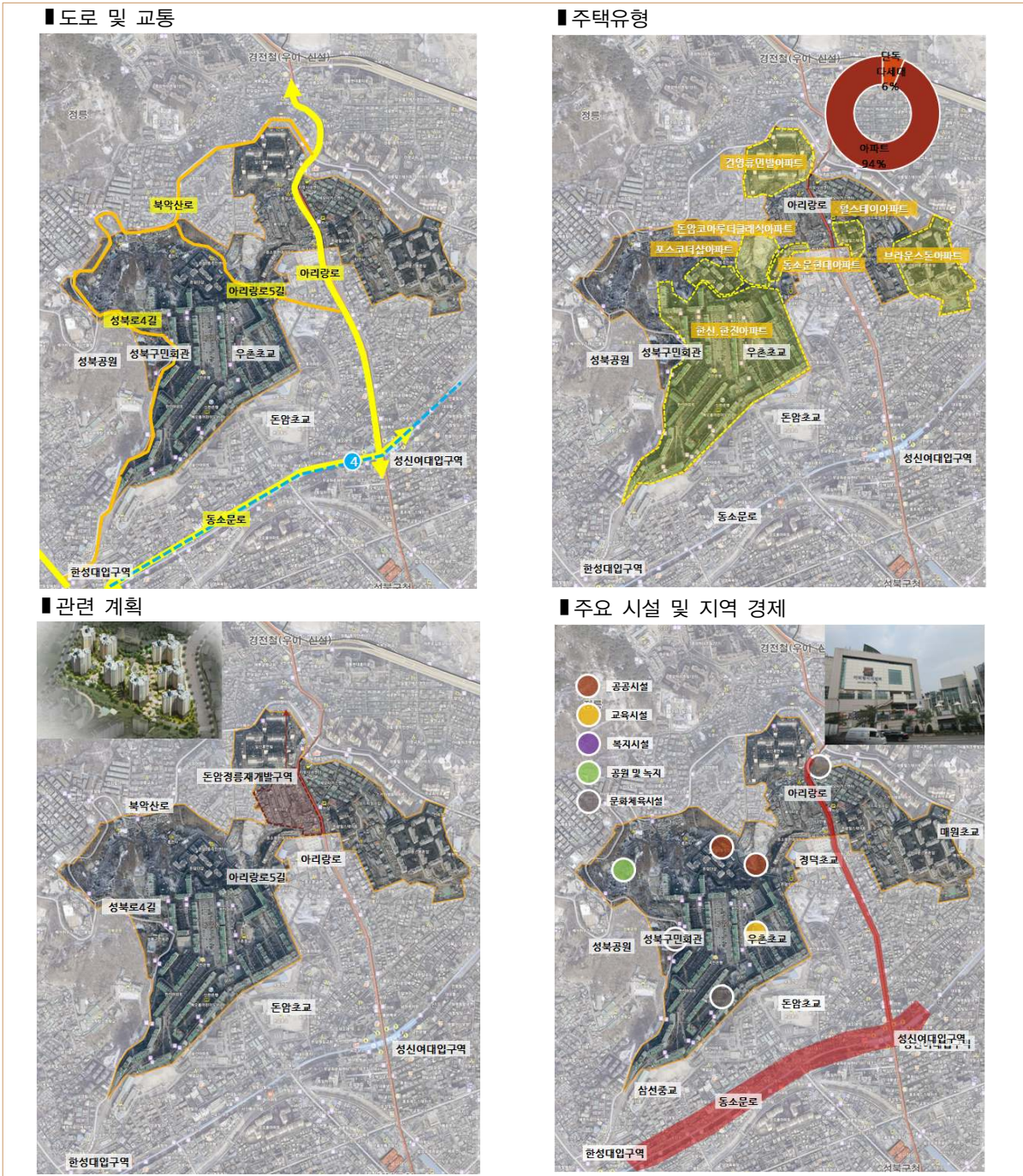
- 돈암정릉재개발정비구역은 2010년 5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으며, 현재 철거 진행 중임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돈암치안센터, 돈암지구대, 돈암2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 교육시설 : 돈암2동 내에는 우촌초등학교(한신한진아파트 내 위치)가 유일함. 인접지역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위치
- 복지시설 : 돈암2동 경로당
- 문화체육시설 : 성북구민회관, 아리랑시네센터 및 아리랑정보도서관, 해오름도서관
- 공원 및 녹지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성북근린공원

■ 지역 경제

- 4호선 한성대입구역 주변(성북동, 삼선동), 성신여대입구역 주변(동선동)
- 돈암힐스테이트아파트 앞 상가, 아리랑로 주변 생활용품 판매 상가 등 소규모 상권이 형성됨



[그림 3-7] 돈암2동의 물리적 현황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돈암2동의 인구는 24,296명으로 남성 11,810명, 여성 12,48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돈암2동의 취약계층은 총 277가구(393명)로 기초생활수급자 147가구(231명), 한부모 16가구(39명), 저소득노인 21가구(23명), 저소득장애 60가구(61명), 위탁아동 1가구(1명), 결식아동 13가구(13명), 차상위의료 19가구(25명)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돈암2동에서는 트락예술무대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트락예술무대는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최되며, 뮤지컬, Jazz, B-boy, 아카펠라, 라틴음악 등 공연을 진행함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8월 8일부터 13일까지 돈암2동장을 비롯하여 새마을부녀회장, 녹색모임 총무, 새마을문고회장, 주민자치위 총무 등 5인의 돈암2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돈암2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27] 돈암2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동네 → 아파트촌(95%가 아파트) • 곳곳에 텃밭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뒷산 산책로, 운동기구 조성 • 마을꾸리기와 독서관장사업(문화적 지원사업) 진행 중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및 주변 여건이 좋음 • 국보급인 삼각산 흥천사 • 북한산 산책로 • 구민회관, 한진한신아파트 헬스클럽이 저렴하고 시설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에 문화유적지가 많음 • 고지대라 기후 및 자연환경이 좋음 • 조용하고 평화로움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간 연계 부족 • 겨울에 제설작업이 늦어짐(마을버스 통행이 어려움) • 고지대라 계단, 경사지가 많음 • 일반 주택가에 도시가스 연결 • 도서관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확충 • 도로 정비(인도 보도블록의 부조화) • 동 내 초등학교 확충 • 동주민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짐
	생활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마당 운동시설 • 주민센터, 구민회관(여성회관 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립어린이집, 요양센터 • 해오름도서관, 정보도서관 • 아리랑 시네센터
공간	모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마당 • 아파트 동대표회의실, 관리사무실 •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카이웨이, 해오름도서관 • 부녀회실 • 한진한신아파트 단지 내 분수대, 벤치
	공동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문화가 강함, 다른 아파트와의 단절 • 끈기있는 추진능력 • 개발로 많이 바뀌었지만 가난한 동네로 정이 여전히 많음 • 공공기관에 의존된 단체나 모임만 활성화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음
공동체	주민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한신아파트의 외부차량 진입금지 • 방치된 전신주 철거문제(아파트 측 반대) • 아파트 동대표 간의 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골당 추진문제(추진계획 철회됨)
	자발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구회 등의 체육동아리 • 녹색모임, 키아니스 모임(대만교류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부녀회
마을만들기	희망하는 마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을 사랑하는 마을 • 더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가 맑고 깨끗하며 인정이 넘치는 마을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가구기(ex. 아파트 단지별로 두드림 봉사단 발족예정) • 경로당 봉사활동 및 주변 청소 • 아파트 내에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운동공간 조성 • 아이를 서로 돌봐주는 동네사랑방 같은 공간 만들기 	
	마을만들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 • 현장조사, 주민간의 만남, 정보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협의체가 필요 • 계획된 조직이 리더 역할 수행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교육(구체적인 활동사례 및 다른 지역 사례 소개) • 동주민센터에 마을만들기 이해를 돕는 안내문 제시 •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영역에 적극적인 행정·예산 지원

(3) 돈암2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17일(월) 오후 5시, 15명
- 돈암2동의 자랑거리로는 공기가 맑고 북한산이 가까워 좋음(5),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4), 교통이 편리함(3), 인심이 좋고 주민화합이 잘 됨(3)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비효율적 교통체계(4), 놀이터 및 쉼터 부족(4), 소통과 교류 부족(3), 보행환경 불편(2), 소외계층 돌봄 부족(2) 순으로 많음

[표 3-28] 돈암2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가까이 있는 지구대/ 주민센터, 문화센터, 은행 등 접근성 용이 - 포스코A 인심이 좋음/ 포스코A 공기가 좋음/ 포스코A 깨끗함 - 조용함 (2)/ 교통이 편리함 (3)/ 공기가 맑고 북한산이 가까워 좋음 (5) -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단 등 단체 내 관계가 좋음 (2) -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4)/ 벚꽃 축제/ 돌레길/ 주거환경/ 녹지공간/ 문화시설 - 주민이 서로 화목하고 단합이 잘 됨 (3) / 흥천사 노인 잔치, 청소년 회관 건립/ 정덕초교 동네잔치 - 전부 좋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음 (2)/ 하늘공원/ 구민회관 (2)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의 소통 부재, 화합이 안됨 (2)/ 세대수가 많아 합의 결정이 어려움 - 비탈길이라 겨울에 불편함, 제설작업 신속히 (2)/ 아파트 값 하락/ 청소가 잘 되지 않음 -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 아파트 단지별 봉사 활동/ 노인잔치(경로당) 적극 지원 요망 - 마을버스가 시간엄수하지 않음/ 마을만들기 운동을 통해 극복 필요 - 한신A 301동에서 포스코A 내려오는 길에 작은 계단 설치 요망 - 한신A 밤길이 어두우니 밝게 해주시길/ 한신A 301동, 주차 부족 - 새마을금고 앞 한신A 자투리 땅을 도로에 편입해 퇴근 시간 정체 해소 요망 (3) - 돈암2동 입구 도로 확보, 한진아파트 입구 도로 확보 - 하수도 냄새(흥천사에서 모당약국 내려가는 길, 아파트 단지 내) (3) -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 쉼터 조성 필요 (3)/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필요 - 413번지 도시가스 들어오길/ 53번지 내 분열이 있음/ 돈암시장 활성화

(4) 마을사업 제안

- 돈암2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비탈길 의자 배치>와 <단지별 봉사단 활성화>를 제안함

[표 3-29] 돈암2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비탈길 의자 배치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가 맑고 깨끗하며 인정이 넘치는 동네 희망 - 경사지가 많아 불편
마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암2동은 고저차가 심한 구릉지로 평지가 적고 기존 주택과 재개발에 의한 아파트 지역이 많음 - 동주민센터가 고지대라 접근성이 떨어짐 - 고지대라 계단, 경사지가 많음 - 한신A 301동에서 포스코A 내려오는 길에 작은 계단 설치 요망 - 비탈길이라 겨울에 불편함하고, 신속한 제설작업 요망
마을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대라 기후 및 자연환경이 좋음 - 하늘마당 운동시설, 구민회관, 해오름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과 모임공간 존재 - 주변에 문화유적이 많음(삼각산 흥천사 등) - 개발로 많이 바뀌었지만 가난한 동네로 정이 여전히 많음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에 의자 배치를 통해 산책 도중에 쉴 수 있는 공간 조성 - 계단 높이가 높은 곳은 조정

	- 주변 자연환경, 문화유적과 조화된 가로 꾸미기(꽃길 조성, 이야기가 있는 담장 조성 등) - 제설작업
효과	- 경사지를 오르내리는 불편 완화 - 휴식 공간 조성
협력부서	- 공원녹지과, 도로시설과

[표 3-30] 돈암2동 마을사업 예시 2안

구분	내용
사업명	- 단지별 봉사단 활성화
사업유형	-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복원
요구사항	- 아파트 가구기 - 마을만들기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 부재 극복 필요 - 아파트 단지별 봉사 활동 필요 - 더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마을을 희망함
마을 현황	- 아파트 비율이 93.87%를 차지 - 아파트 간 소통 부재와 단절 - 아파트 문화 강함 - 공공기관에 의존된 단체나 모임만 활성화되어 있음
마을 자원	- 주민이 서로 화목하고 단합이 잘 됨 - 북약스카이웨이 산책로, 벚꽃 축제, 흥천사 노인 잔치 등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아파트 단지별 봉사단 활성화 - 단지별 봉사단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 마련.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 간의 소통 기회 제공
효과	- 자발적 주민조직 형성 -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개발
협력부서	- 복지정책과, 주택관리과

6) 안암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종로구와 동대문구로 연결되는 왕복4차선 보조간선도로인 인촌로가 고대 이과대학과 고대부속병원을 가로질러 고려대 앞 사거리에서 안암로와 교차함. 안암로는 성북구 안암동을 거쳐 동대문구로 이어지는 왕복4차선 도로임
- 지하철 : 6호선 안암역이 있으며, 보문역이 안암동2가와 가까움
- 버스 : 종로구, 성북구와 동대문구로 연결되는 간선버스가 다수 통과함
- 마을버스 : 성북4번(신설동역, 안암역, 성신여대를 연결함)



■ 주택유형

- 아파트가 629호, 단독주택이 2,694호, 다세대(연립)주택이 52호로,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이 전체 주택의 81.4%임
- 안암동5가 개운사길 주변으로 신규 빌라 및 원룸텔이 집중되어 있음. 기존 단독주택의 상당수가 다세대 빌라로 개조중임
- 안암로9가길을 따라 원룸텔이 들어서 있으며, 기존 주택들도 개조중임
- 안암동2가 인촌로11, 13길 주변으로 단독주택 및 한옥,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음. 한옥 및 단독주택의 경우 노후한 주택이 혼재되어 있음
- 인촌로16길~안암로9나길, 고려대 이과대 담을 따라 형성된 주택의 노후도가 심하며, 좁은 골목을 따라 밀집되어 있음
- 안암천변 안암로5길~인촌로7~8길 주변 한옥가옥 및 상가형 빌라가 들어서 있음
- 안암동3가 50~60번지 대의 주택들은 상태가 양호한 다세대주택 및 빌라 형성



■ 관련 계획

- 주택재개발구역은 안암2재개발구역과 안암3재개발구역이 존재함
- 안암2재개발구역은 2008년 구역 지정이 되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 비중임
- 안암3재개발구역은 2007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11년 7월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상태임
- 주택재건축구역은 안암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가 난 상태이고, 안암2·3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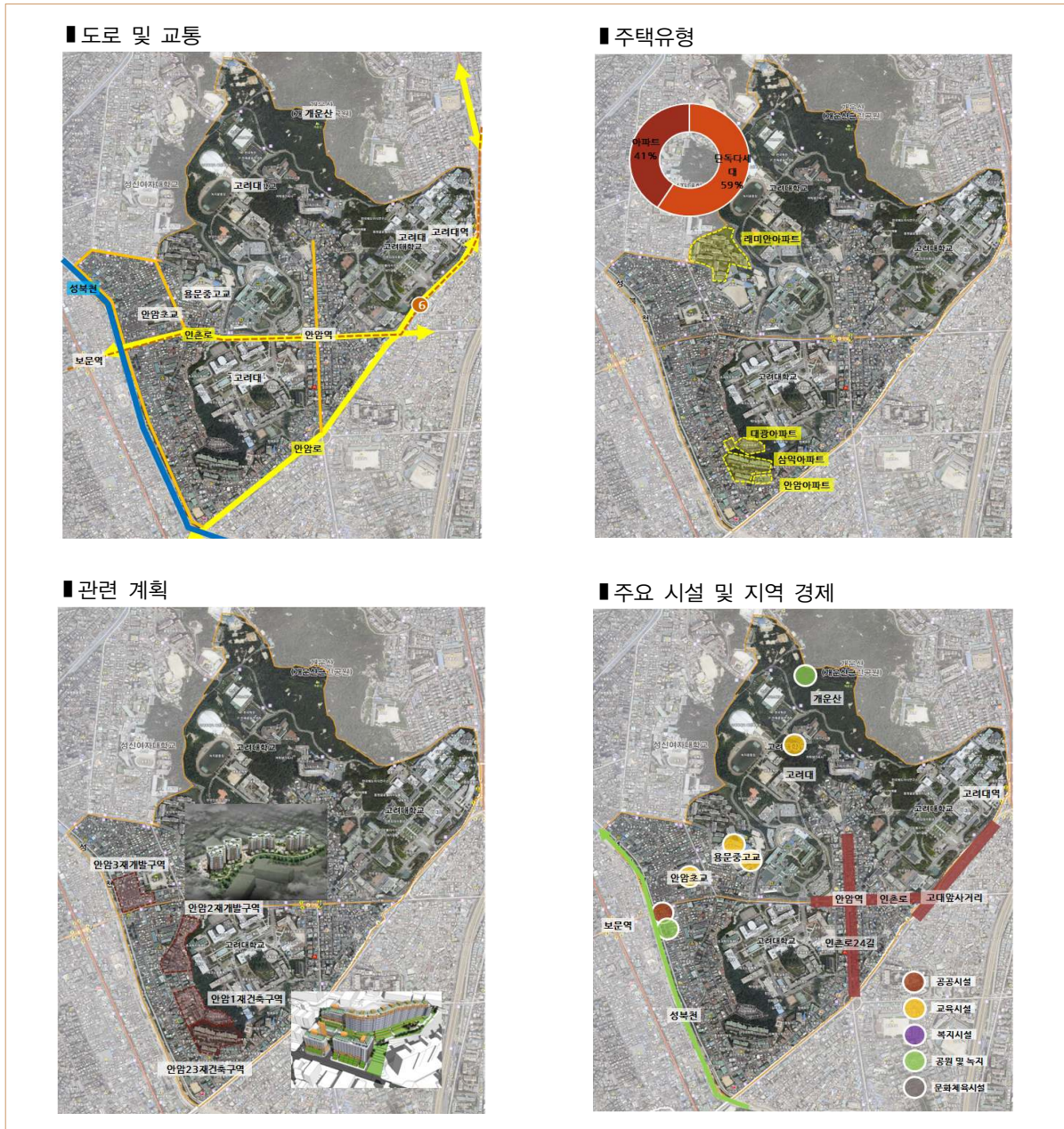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안암동주민센터, 안암동치안센터(분소)
- 교육시설 : 서울안암초등학교, 용문중고등학교, 고려대학교
- 복지시설 : 방과후 공부방(즐거운공부방, 돌봄교실, 꿈나무아동센터, 파랑새공부방)
- 공원 및 녹지 : 범바위 어린이놀이터, 개운산근린공원, 성북천

■ 지역 경제

- 고려대 주변에 하숙, 집 원룸텔, 음식점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음
- 인촌로14길, 인촌로24길 일대에 먹자골목이 형성됨

○ 인촌로 도로변, 안암역 주변, 고려대 앞 사거리 일대에 상가가 형성됨



[그림 3-8] 안암동의 물리적 현황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안암동의 인구는 17,114명으로 남성 8,703명, 여성 8,4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암동의 취약계층은 총 355가구(554명)로 기초생활수급자 175가구(284명), 한부모 49가구(119명), 저소득장애 59가구(59명), 위탁아동 1가구(2명), 결식아동 45가구(56명), 차상위 26가구(34명)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안암동 주민센터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신명난타, 남도민요, 한국무용, 주부노래교실, 벨리댄스, 왕초보영어교실, 탁구교실, 웰빙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방송댄스, 키크는 요가, 과학탐구발명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함
- 마을행사로는 안암동 은행나무축제가 있음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7월 6일 안암동장을 비롯하여 새마을문고 고문, 통친회 회장, 새마을문고 총무, 안암교회 큰나무학교 시설장 등 5인의 안암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안암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31] 안암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 → 다세대, 원룸 • 성북천 복원 및 걷는 거리 조성 • 개발로 외관 및 생활시설 향상 • 소득계층의 다양화 • 도로 정비 및 확장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하고 공기 좋음 • 도서관 등 교육환경이 좋음 • 이웃간 소통 활발 • 교통 편리 • 성북천 복원 • 개운산과 범바위공원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주차장 부족(젊은 세대 유입으로 주차장 수요 증가) • 외부 차량으로 인한 골목 혼잡 및 이중 주차 문제 심각
공간	생활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운산스포츠센터가 프로그램 다양해서 많이 이용하는 편 • 문화시설은 전무
	모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다른 골목(돗자리와 의자 활용) • 개운산 운동장 • 안암초교 운동장(개방은 아님) • 안암동2가 경로당
공동체	공동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박이가 많고 협력과 화합이 잘 되는 편 • 이웃 간 정이 약해짐 • 기존과 달리 다양한 소득계층 거주 • 젊은 세대의 신규 유입 • 토박이와 신규 주민 간 소통 부족
	주민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자발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문고(15명 자원봉사)
마을만들기	희망하는 마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는 깨끗한 마을 • 아이들이 편한 마을 • 주민들이 참여할 프로그램이 많은 마을 • 단합이 잘 되는 마을 • 주민 입장에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배려하는 마을 • 강패와 술주정이 없는 살기 좋은 마을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곳곳에 쉴 수 있는 소규모 쉼터 만들기(의자 등) • 학교와 연계한 지역아동센터 특별 프로그램(과학실험 등) 활성화 • 골목별 아파트별 만남의 자리 마련 • 주차난 해소 • 동주민센터 1층에 주민사랑방 마련 • 꽃길 조성 • 기존 주택의 개보수를 통한 환경 개선 • 아동 및 청소년 교육 • 쉼터 조성을 통한 만남의 공간과 화합의 계기 마련 • 독거노인 대상 봉사활동(책 읽어드리기, 말벗 등) • 젊은 세대의 봉사활동 참여 유도 • 복지 관련 지역 네트워크
	마을만들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공유 • 반사회 활성화 • 운동, 취미시설, 장난감 대여소 설치 • 가족단위 참여 지원 • 추상적인 것보다는 계절별 화단 조성 등 구체적인 동기 부여 필요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을 위한 정책 지원 • 직능단체 월례회의와 연계한 순회 설명과 교육 실시 •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접근 •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3) 안암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12일(수) 오후 2시, 33명
- 안암동의 자랑거리로는 조용함(10), 개운산, 성북천이 있어 좋음(8), 인정이 있고 화합이 잘됨(7), 교통이 편리함(7)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쓰레기 투기 및 청소 불량(20),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차(7), 보행환경 불편(7), 소음 및 공해 심각(5) 순으로 많음

[표 3-32] 안암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거리	- 조용하다 (10)/ 개운산이 있어 공기가 좋고 운동하기 좋다 (8)/ 교통이 편하다 (7)
	- 성북천 개발로 환경이 좋아졌다(주민 소통 공간 형성, 운동시설 등) (8)
	- 인정이 있고 화합이 잘됨(서로 인사하고 지냄, 이웃이 좋다) (7)/ 오래 거주하는 분이 많아 좋다 (2)
	- 시내·경동시장이 가깝다/ 유해시설물(유해시설)이 적다 (5)/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 (2)
	- 범죄가 없다/ 깨끗하고 살기 좋다 (4)/ 분리수거가 잘 된다/ 아침에 큰길 물청소를 잘 한다
	- 놀이터가 있어 좋다/ 학교와 병원이 가깝다 (3)/ 고려대학교가 있다/ 젊음이 있어 좋다(고대생들) (2)
개선사항	- 학교가 많아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된다/ 늘 푸른 나무, 은행나무가 있어 좋다 (2)
	- 쓰레기 (10)/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CCTV 설치 요망/ 쓰레기 대형 봉투 제공 요망
	- 동네 게시판 설치 요망(원룸 홍보 등에 필요) (6)/ 주차 공간 필요(단독주택가 등) (4)/ 골목길 청소 (3)
	- 소음(오토바이, 편의점 주변, 외국인 학생, 늦은 밤 등) (5)/ 낙서 및 담배꽂초 문제 (2)
	- 골목길 고등학생들 흡연 문제/ 인도와 차도구분이 없음, 골목정비 필요(늘푸른길 등) (3)
	- 골목이 너무 좁다 (2)/ 주택개발 필요, 낡은 집이 많아 환경이 나쁨 (3)
	- 개천에 애견 진입금지 요망 (2)/ 개천에 오리 먹이 주지 말라/ 소통 공간, 문화 공간이 없다 (2)
	- 주택 주인과 아파트 주민의 소통 결여/ 고려대학교가 주민과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방법 많이 제공해 주길
	- 주민센터 신축 (3)/ 원룸 건물주가 관리해 주길/ 노숙인이 많음/ 주변에 젊은 가족들이 없어 아이가 없다
	- 안암 5가 103-34 골목길 너무 삭막함, 페인트칠 및 그림 그려주길
- 자전거 거치대에 비를 덜 맞도록 조치 필요/ 차가 너무 많아 나쁨	

(4) 마을사업 제안

- 안암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골목별 모임 공간 설치>를 제안함

[표 3-33] 안암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학교 개방 도서관 또는 초등학교의 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야외 북카페 조성
사업유형	-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요구사항	- 주민들이 참여할 프로그램이 많은 마을을 희망함
	- 학교와 연계한 지역아동센터 특별 프로그램(과학실험 등) 활성화
	- 고려대학교가 주민과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많이 제시해 주길 바람
마을 현황	- 젊은 세대의 봉사활동 참여 유도
	- 고려대학생, 젊은 세대의 신규 유입
	- 토박이와 신규 주민간 소통 부족
마을 자원	- 고려대학교가 위치함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고려대 학생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재능기부로 '응답하라 토요일' 진행(2012)
	- 청년들의 재능기부 활성화(대학생 개인 및 동아리, 청년 사회적기업 등)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 사회적기업 독려
	- 단과별 청소년 대상 방과후 및 방학 특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청년과 지역사회를 매개해 줄 중간연결자 혹은 시스템 구축(청년들이 하고 싶은 활동이 있을 때 지원, 반대로 지역사회가 청년들을 필요로 할 때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 수요자와 공급자 연결 및 지원)
효과	-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독려
협력부서	- 사회적경제과, 교육지원과

[표 3-34] 안암동 마을사업 예시 2안

구분	내용
사업명	- 골목별 모임 공간 설치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 동네 게시판 설치 요망(원룸 홍보 등에 필요) - 문화·소통 공간 부족 - 골목별, 아파트별 만남의 자리 마련 - 쉼터 조성을 통한 만남의 공간과 화합의 계기 마련 - 반상회 활성화 필요
마을 현황	- 고려대 주변에 하숙집, 원룸텔, 음식점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음 - 인촌로 도로변, 안암역 주변, 고려대 앞 사거리 일대 상가 형성 - 골목길 청소년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 문제 심각
마을 자원	- 인정이 있고 화합이 잘 됨(서로 인사하고 지냄, 이웃이 좋음) - 오래 거주하는 분이 많아 좋음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개운사 앞, 안암역, 안암로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설치 - 마을소식 게시판 등을 설치해 각종 마을 소식, 생활정보를 부착 - 골목별 모임 공간 조성으로 골목반상회 등 마을모임을 활성화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 문제 등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
효과	- 마을 모임 활성화 - 일상적 주민소통공간 마련으로 지역 문제에 관심 유도
협력부서	- 자치행정과

7) 보문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남북으로 왕복4차선 보문로가 지나고 동서로는 왕복4차선 인촌로가 보문로와 연결되어 있음
- 지하철 : 6호선 보문역이 보문동 중심에 위치하며 보문로를 따라 경전철도 통과할 예정임
- 버스 : 종로구 송인동, 창신동과 성북구 삼선동, 동대문구 신설동으로 연결되는 간선버스가 다수 통과함
- 마을버스 : 성북03번(한성대입구역에서 경동고교를 통과)



■ 주택유형

- 아파트가 698호, 단독주택이 1,848호, 다세대(연립)주택이 1,646호로,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이 전체 주택의 83.3%임
- 지봉로21길, 지봉로20길, 보문로13다길, 보문로 사이 주택가에 다세대주택과 빌라가 다수 분포하며 도시형 한옥이 일부 혼재하여 분포함
- 인촌로1길, 인촌로2길, 안암로1길 주택가로 상가와 시장이 혼재되어 있으며, 단독주택과 도시형 한옥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밀집되어 있음



■ 관련 계획

- 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가 난 상태임
- 보문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난 상태로 현재 철거 진행 중임
- 보문4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임
- 보문5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임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동대문세무서(별관), 보문동주민센터, 보문치안센터, 안암지구대
- 교육시설 : 대광초등학교, 서울동신초등학교
- 복지시설 : 보문경로당, 다문화가정지원센터
- 문화체육시설 : 보문사는 비구니들이 거처하는 암자로, 1115년(고려 예종 10)에 담진국사(曇眞國師)가 창건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중건됨. 옛 건물로는 영조 때 건축된 대웅전이 남아 있음. 경내에 있는 보문사 석가불도(普門寺 釋迦佛圖: 서울유형문화재 98), 보문사 신중도(普門寺 神衆圖: 서울유형문화재 99), 보문사 지장시왕도(普門寺 地藏十王圖: 서울유형문화재 100)가 있음
- 공원 및 녹지 : 동망산근린공원, 꿈나라어린이공원, 보문사, 미타사 내 녹지, 성북천

■ 지역 경제

- 보문시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소품·식재료 상권 형성됨
- 보문로 도로변을 따라 빌딩이 많으며, 직장인과 유동인구 대상으로 하는 상가가 대부분임
- 인촌로5길과 인촌로6길을 따라 식재료 등 소규모 시장이 연결됨
- 보문역에서 인촌로2길을 따라 보문시장이 형성됨
- 지봉로24길을 따라 미용실, 수퍼, 음식점 등 주택가 상점들이 운영되고 있음

■ 도로 및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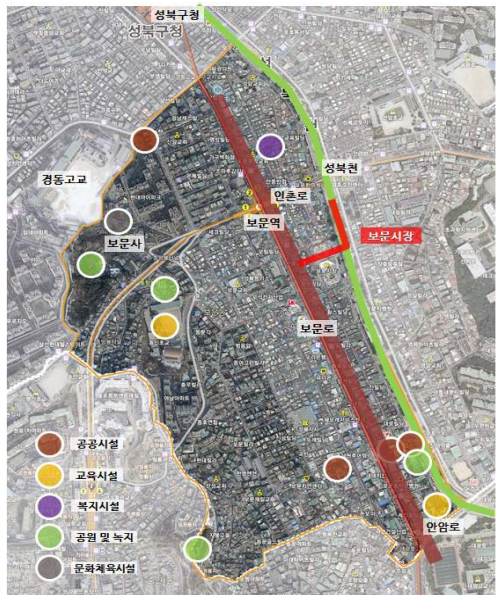
■ 주택유형



■ 관련 계획



■ 주요 시설 및 지역 경제



[그림 3-9] 보문동의 물리적 현황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보문동의 인구는 15,034명으로 남성 7,549명, 여성 7,48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문동의 취약계층은 총 499가구(645명)로 기초생활수급자 195가구(266명), 한부모 35가구(91명), 독거노인 101가구(101명), 저소득장애 121가구(127명), 결식아동 18가구(20명), 차상위의로 29가구(40명)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보문동 주민센터에서는 2013년 2월부터 성인 대상 주말 탁구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임
- 보문동에서는 트락예술무대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트락예술무대는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최되며, 뮤지컬, Jazz, B-boy, 아카펠라, 라틴음악 등 공연을 진행함

■ 사회적경제 자원

- 보문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주)나눔하우징'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극단판'이 있음

[표 3-35] 보문동 사회적기업 현황

구분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
(주)나눔하우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집수리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 가구의 거주환경 개선 - 공공형 개보수 및 시장형 인테리어 사업을 기반으로 저소득층의 고용 창출 - 건축 관련 전문가와 일반 시민을 공익집수리 자원활동에 참여시켜 주민에 의한 주민지원 체계, 참여를 통한 변화를 추구 -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가구 사례관리, 임대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장애인극단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의 전문성과 영역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간 네트워크와 정보교류 - 장애인 연극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문화예술 매뉴얼 작업 - 장애인 연극에 대한 세미나 및 심층 연구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웹진 운영 및 소식지 <노들바람> 발행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보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사업으로 <보문동 향기체험 마을만들기 공방 창업>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은 특색 있는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웰빙 천연 한방비누 만들기 및 향기체험 교실 사업을 실시하여 직접 한방비누를 만들고 체험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저소득층에 지원하여 자립기반 마련 및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7월 5일부터 9일까지 보문동장을 비롯하여 부녀회장, 걷기모임 회장 등 5인의 보문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보문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36] 보문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변화 없음 • 경전철 진행 중 • 단체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 → 양옥 • 성북천 복원 후 악취가 제거됨(운동 가능) • 4개 구역에서 재개발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감소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 운동여건이 좋음 • 동망봉 산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편리 • 유흥가가 없고 조용함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설치(쓰레기 무단 투기 대응) • 아파트 경로당을 외부에도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대 청소문제 • 편의시설, 공공시설 부족 	

공간	생활편의시설	• 복지시설 부족	• 경로당	• 동주민센터(꿈나무 북카페)
	모임공간	• 꿈나라 어린이 공원	• 성북여성회관	•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체	공동체 특성	• 인심 좋음	• 이웃 간 정이 많고 시골 같은 동네	
	주민갈등	• 오래 거주한 주민이 많아 텃세가 심함, 주민화합이 어려움		
	자발적 모임	• 동대문 옷가게 종사자 등 야간 근무자가 많음		
마을만들기	희망하는 마을상	• 성북천 복원으로 자연환경이 더 좋아진 마을	• 살고 싶은 동네, 떠나고 싶지 않은 동네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 새 입주민과 기존 거주민이 화합되는 마을	• 발전이 있고 평화로운 마을	
	마을만들기 활성화	• 젊은 층도 함께 하는 활력 있는 마을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 화단 만들기		
		• 성북천변을 활용한 공연문화시설 설치		
		• 주민들의 단합	• 동에 맞는 사례를 주민과 함께 추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 폐쇄된 (구)등기소를 문화공간으로 활용		
		• 성북천 운동 환경 개선	• 자문 역할	
		• 우천 후 성북천 청소	• 등기소 문제 해결	

(3) 보문동의 자량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25일(화) 오후 5시, 19명
- 보문동의 자량거리로는 교통이 편리함(9), 성북천 복원(운동여건, 경관이 좋아짐)(5), 이웃 간의 정(인심)(4), 조용한 분위기(4)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쓰레기 투기 및 청소 불량(13), 치안 및 방범시설 부족(8), 산과 하천 등 관리 부족(8),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차(6) 순으로 많음

[표 3-37] 보문동의 자량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량거리	- 교육환경이 좋음/ 초등학교가 있어 좋음/ 교통이 편리함(6호선 전철, 시내가 가까움, 경전철) (9)
	- 통치회 친목이 잘 되고 있어 좋음(주민센터가 소통이 잘 되고 있음)
	- 이웃 간 관심이 있고 어려운 일에 관심을 가짐, 주민화합 (2)/ 이웃 간의 정(인심) (4)
	- 어르신들이 많아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됨 (2)/ 조용한 분위기가 좋음 (4)/ 동네가 깨끗해서 좋음
	- 성북천 복원(운동여건이 좋아짐, 경관이 좋아짐) (5)/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음
	-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음/ 관공서, 은행이 가까워서 좋음/ 대학교가 많고 대사관이 많아서 좋음
개선사항	- 유흥업소가 없어서 좋음/ 외진 공간이 별로 없어 좋음/ 동망제 산신제가 자랑스러움
	- 성북천에 애완견 배설물 문제 (5)/ 깨끗한 성북천을 위해 환경 위생 문제 관리 요구
	- 성북천 날벌레가 너무 많고 악취가 심함/ 들고양이가 많음/ 다리 위에 주차/ 주차 공간, 주차시설 필요 (3)
	- 노인 문화 공간이 아쉬움(복지시설)/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아쉬움/ 문화시설 부족 (3)
	- 쓰레기 시설 보완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7)/ 거리의 담배꽂초 문제/ 청소하기
	- 재개발 근처가 너무 지저분함/ 재개발 추진이 너무 미비하게 추진함/ 오토바이 통행이 너무 많음
	-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음/ 자전거 전용 도로 홍보/ 보문역 6호선 자전거 보관소 설치
	- 개천가에 가로등이 너무 많고, 주택가엔 가로등이 너무 적음 (4)/ CCTV 설치 필요/
	- 각 단체의 직위에 임기를 정해서 다음 세대로 교체될 수 있길(너무 길어 문제가 많음)

(4) 마을사업 제안

- 보문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성북천 환경정화활동과 시설·공간 조성>과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제안함

[표 3-38] 보문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성북천 환경정화활동과 시설·공간 조성
사업유형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 성북천변을 활용한 공연문화시설 설치 필요 - 성북천의 운동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비기 내린 뒤 성북천 청소 등 깨끗한 성북천을 위해 환경·위생문제 관리 요구 - 자전거 전용 도로 홍보 필요
마을 현황	- 2002년 성북천 복원 및 정비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한성대입구역~대광초등학교 2.5km구간의 복원 완료 - 성북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 날파리, 애완견 배설물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 - 성북구는 마을미술프로젝트 일환으로 생태예술 갤러리 프로젝트를 개최함(2012)
마을 자원	- 성북천 복원으로 경관, 운동여건이 좋아짐 - 자전거 동호회, 녹색환경실천단 등 자발적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음 - 이웃 간 관심이 있고 어려운 일에 관심을 가짐(주민화합) - 성북구는 방학 동안 하천보호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지원함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성북천 환경정화활동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생태하천 관리 체계 구축 - (우천시 철거할 수 있는) 조립형 무대, 쉼터, 운동시설 설치로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동호회 모임, 축제 등) -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수생식물·환경정화식물 식재 - 성북천 자전거 전용도로의 연결성 확보와 홍보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효과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독려 -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으로 교육효과, 도시열섬 완화, 자연생태계 복원 효과 등
협력부서	- 공원녹지과, 환경과

[표 3-39] 보문동 마을사업 예시 2안

구분	내용
사업명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 보문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함(경사로 설치)
마을 현황	-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극단 판 등이 있어 보문역을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많음 - 보문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야 함, 휠체어 리프트 이용 시 역무원이 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고, 고장도 잦음 - 1층 상가에 턱(단차)이 있는 경우가 많아 휠체어 이용이 어려움
마을 자원	- 경사지가 거의 없고 평평함 - 관공서, 은행이 가까워서 좋음 - 교통 편리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장애인 인권운동, 이동편의 캠페인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 변화 - 장애인과 이동 약자들의 시설물 접근권 확보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추진 - 인증제도를 통해 민간과 기업의 참여 유도, 대형 체인점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이동편의를 의무화함
효과	- 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범위 확대와 사회참여 증진
협력부서	- 노령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일자리경제과

8) 정릉1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정릉로(왕복8차로)와 북악산로가 서북에서 동남 방향으로 지나가고, 아리랑고개 입구에서 아리랑로가 돈암동 방향으로 서경로가 정릉4동 방향으로 남북으로 이어짐
- 정릉로36길, 정릉로38길, 정릉로40길, 정릉로42길, 아리랑로18길, 북악산로15길이 정릉로와 북악산로 사이의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를 연결하고 있음
- 서경로2길, 정릉로31가길, 정릉로31나길, 서경로8길, 서경로16길, 길음로15다길, 서경로18길, 서경로20길이 정릉로와 서경로에서 주택가를 연결하고 있음
- 버스 : 4호선 길음역에서 정릉3동, 정릉4동, 서경대로 연결되는 간선버스가 통과함. 지하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아리랑고개 입구를 거쳐 가는 간선버스가 통과함
- 마을버스 : 성북20번(성신여대입구역에서 아리랑고개 입구를 거쳐 아파트 단지 사이길인 북악산로를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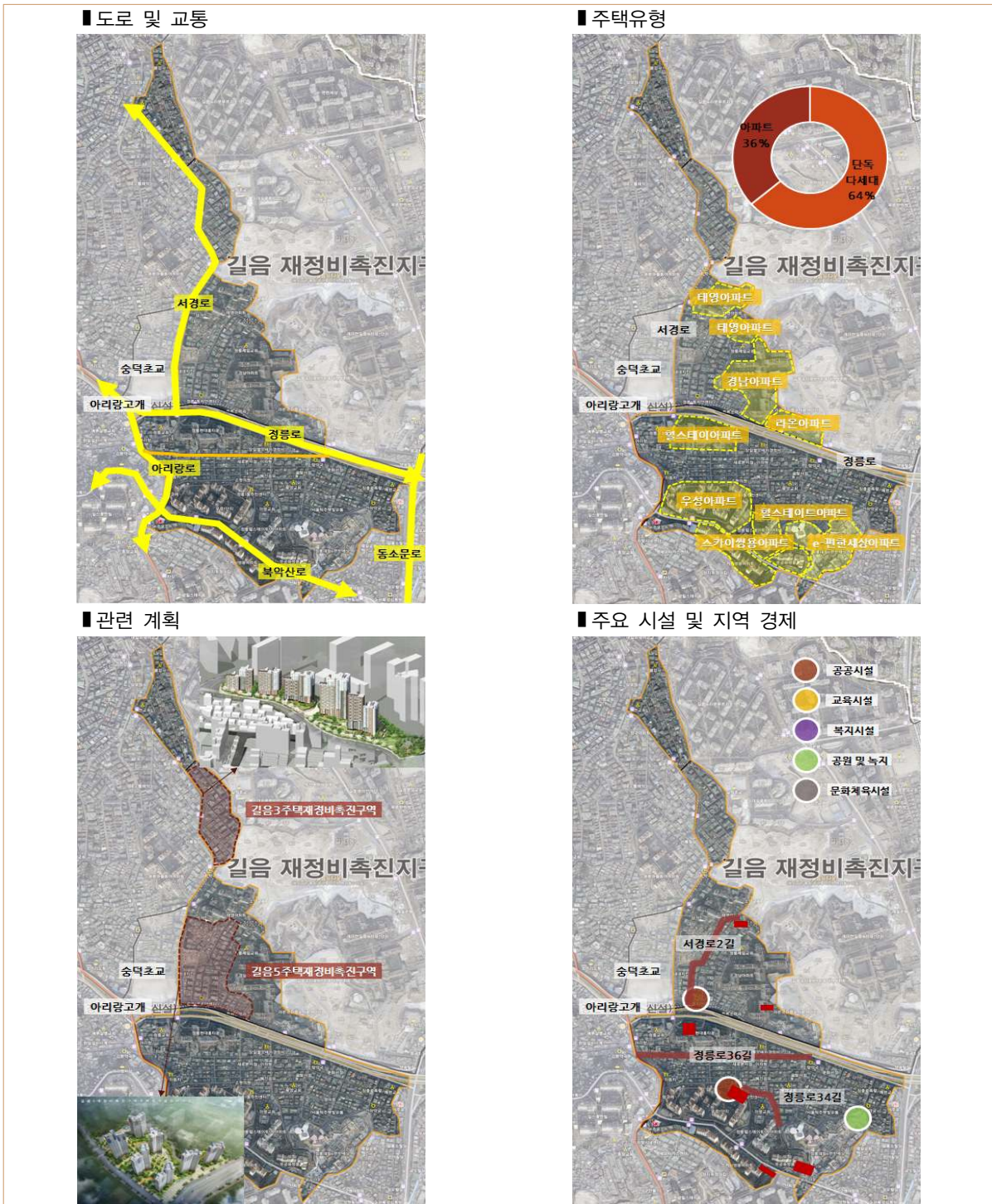
■ 주택유형

- 아파트가 3,373호, 단독주택이 1,213호, 다세대(연립)주택이 712호로,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63.7%임
- 서경로 주변으로 원룸텔(하숙)과 다세대 빌라가 자리하고 있고, 정릉1동 태영아파트 사이로 일반 단독주택이 위치하고 있음. 주택 일부에 주차 공간이 있고, 골목길 주차도 가능한 상태
- 정릉로 30~40길 사이에는 다세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2~3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면도로변으로 상가들이 들어서 있고, 특히 정릉로에 가까울수록 소규모 상가가 발달되어 있음. 골목길 주차 시 소방도로 확보가 어려운 곳이 많음
- 정릉로에서 경남아파트와 연결되는 정릉로31나길을 따라 한옥이 남아있으나 노후한 상태임



■ 관련 계획

- 길음3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가 난 상태임
- 길음5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임



[그림 3-10] 정릉1동의 물리적 현황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정릉1동주민센터, 정릉1치안센터
- 교육시설 : 초등학교가 없어서 정릉2동 송덕초교를 이용함
- 공원 및 녹지 :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서경로 주변에 소규모 공원과 녹지축이 일부 형성

되어 있음. 정릉로42길, 정릉2차e-편한세상아파트 인접지역에 소규모 공원 조성되어 있음. 단
독주택의 경우 소규모 화단, 텃밭 활용도가 높음

■ 지역 경제

-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주로 이용함
- 서경로2길을 따라 주택가에 소규모 상가가 위치함
- 정릉로36길, 정릉로34길을 따라 생활소품 및 식당이 운영됨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정릉1동의 인구는 20,707명으로 남성 9,977명, 여성 10,73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릉1동의 취약계층은 총 221가구(363명)로 기초생활수급자 168가구(271명), 한부모 21가구(589명), 차상위장애인 25가구(25명), 틈새계층 7가구(8명)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정릉1동에서는 프락예술무대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프락예술무대는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최되며, 뮤지컬, Jazz, B-boy, 아카펠라, 라틴음악 등 공연을 진행함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6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정릉1동장을 비롯하여 성북방위협의회 회장,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장 등 5인의 정릉1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정릉1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40] 정릉1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지 → 아파트촌 • 물리적 변화(우성아파트 옆 화단설치, 버스정류장 위치 변경, 어린이 통학로 인도 설치, 도로 포장, 승덕초 앞 버스정류장 대기 장소 확장)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온함 • 공기 좋고 인심 좋음 • 교통 편리 • 주민 간 친화력이 좋음 • 로터리에 있는 큰 느티나무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 은행, 학교, 문화시설이 한 곳도 없음 •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음 • 16번지에서 국민대쪽으로 좌회전이 안 됨 • 교통문제(길 막힘) • 고령자 휴식처 부족
공간	생활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랑시네&정보센터 • 구립경로당(매우 빈약함)
	모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없음 • 로터리에 있는 큰 느티나무 • 주민센터
공동체	공동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지역과 기존 주택지역의 확연한 구분, 연계성 부족 • 기존 주택지역(16번지)은 공동체 형성 • 마을 움직임이 없음, 공간이 없음 • 정감이 있고 협조가 잘됨
	주민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주민들이 주택지역에 불법주차 • 노점상에 대해 민원 제기
	자발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릉 산악회, 정릉골 청년회, 전승문화번영회 • 탁구동호회 등의 체육동아리 • 지역향우회(호남, 영남, 충남, 경기)
마을만들	희망하는 마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간 반목·질시 없고 화합하고 봉사하는 마을 • 민간의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끌어가는 마을 • 인심 좋고, 문을 활짝 열고 사는 마을 • 동네에 맞는 경로당이 세워져 노년을 위한 휴식공간이 있는 마을

기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분 설치, 통학로·정류장 변화 • 도로변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도록 단속하여 마을환경 정비 • 주차장 옆 꽃길 조성 • 경로당 건립 및 추진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적인 문패 설치 • 주차타워 등의 주차시설 설치 필요 •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
	마을만들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개선을 주민 모임이 주도 • 주민 주도형 방식 • 공간이 있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간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를 통해 주민 인식 향상 • 이웃 간 단합 및 의사소통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별 맞춤 교육 필요 • 실질적인 행정·예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 공간 조성 및 경로당 건립 • 주민들과 함께 교육

(3) 정릉1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5일(수) 오후 2시, 23명
- 정릉1동의 자랑거리로는 주거환경이 좋음(13), 인정이 많고 인심이 좋음, 단합이 잘됨(7), 국립공원이 가까워서 산책하기 좋고, 공기가 맑음(3), 교통이 편리함(2)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쓰레기 투기 및 청소 불량(5), 소음 및 공해 심각(5),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차(4), 공원 및 녹지 부족(4) 순으로 많음

[표 3-41] 정릉1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이 많고 인심이 좋음, 단합이 잘됨(4)/ 교통이 편리함(2)/ 청소를 잘해서 깨끗함 -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동네/ 전통시장이 있어서 좋음/ 국립공원이 가까워서 푸른 숲을 접할 수 있음 - 이웃이 가까워 좋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잘 됨/ 산책로가 좋음/ 마을에 정이 들어 좋음 - 동네는 좋는데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서 아쉬움, 집도 깨끗하고 도로도 깨끗함 - 주위 간섭이 없음, 조용히 개인생활하기 좋음/ 계단, 승강기 사용 안 해서 좋음/ 주거환경이 좋음 - 소음이 없어 좋음/ 평지라서 좋음/ 공기가 좋음/ 알고 지내는 이웃사촌이 많아서 좋음 - 영화관이 있어서 좋음/ 유흥가가 많지 않아 조용해서 좋음/ 교통이 편리함/ 쌍용아파트 전망이 좋음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길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함(도로 옆 청소 필요) (3)/ 소음(분리수거 시, 내부순환로 교통 소음) (3) - 공원 및 녹지 필요 (3)/ 인정이 메마른 이웃이 늘어감 (2)/ 노인정 (2) - 주차 문제(주차 길거리 보안책 필요, 주차장 필요)(2)/ 손 대야할 것이 많음/ 대림공원 쓰레기통 필요 - 주민 문화공간이 열악함(1동주민센터 건물)/ 버스 승하차 시 화단이 위험함 - 집값이 싼/ 전통시장이 죽어감/ 시장 필요/ 매연이 심한 고가도로 보안책 필요 - 주택 노후/ 어린이 놀이터 필요/ 쓰레기 무단투기/ 금융기관이 없음(제금융권) - 학생 봉사단이 없음/ 초등학교가 없음/ 주민자치 홍보 필요, 동사무소 일에 참여할 수 있게 - 주부들의 공간 필요/ 어린이집 필요/ 우성아파트 옆 길이 불편함

(4) 마을사업 제안

- 정릉1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및 마을의 상징 느티나무를 활용한 쉼터 조성>과 <정감 있는 문패 달기 및 담장 꾸미기>를 제안함

[표 3-42] 정릉1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및 마을의 상징 느티나무를 활용한 쉼터 조성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자랑거리인 로터리에 있는 큰 느티나무를 활용 - 어르신을 위한 공간 조성 필요 - 동네에 맞는 노인정이 세워져 노년을 위한 휴식공간이 있는 마을을 희망함
마을 현황	- 노인인구 휴식처가 빈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릉1동에 10개의 경로당이 있으나 모두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임(단독주택 거주자 이용 불가). 현재 경로당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함 - 아파트 지역과 기존 주택 지역의 확연한 구분, 연계성 부족
마을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터리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서 주민모임을 가짐 - 공기 좋고 인심 좋음 - 정감이 있고 협조가 잘 됨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거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 - 느티나무 주변을 가꾸어 어르신을 포함한 여러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충 - 느티나무 주변 차량 제한 및 우회 방안을 마련하여 보행전용공간으로 조성 - 단독·다세대주택 거주 어르신과 아파트 거주 어르신 교류 공간 조성, 단지 내 공간 개방 및 동네 행사 초청 등으로 발전 가능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설립 -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조성, 소통, 교류 공간 마련
협력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사회복지과, 재무과

[표 3-43] 정릉1동 마을사업 예시 2안

구분	내용
사업명	- 정감 있는 문패 달기 및 담장 꾸미기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심 좋고, 문을 활짝 열고 사는 마을을 희망함 - 디자인적인 문패 설치 -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모임 주도 필요 -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 마을을 희망함 - 집집마다 골목마다 즐거운 이야기가 담겨있는 마을을 희망함
마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다세대 비율이 36% - 반지하 주택이 많고, 가로에 접한 반지하층 창문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방범과 사생활 보호, 위생 등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저분하고 비효율적임
마을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이 가까워서 좋음, 알고 지내는 이웃사촌이 많아서 좋음 - 가족, 주민, 마을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문패달기로,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을 조성 - 벽화, 담장녹화, 이야기를 나누는 담장 등을 통해 미적으로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지하 주택의 창문과 가림막을 마을 가로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 - 마을회의를 통해 골목별 테마를 정해 다양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통일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 계획 - 마을 현황 조사를 통해 집과 가로 사이를 허물어 활용할 수 있는 자투리 공간을 찾아내어, 주민참여 방식으로 소규모 녹지 및 쉼터 조성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골목길별로 특색이 있는 마을만들기 - 골목길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복원
협력부서	-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9) 정릉2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정릉2동의 동측 끝에 아리랑고개로 넘어가는 아리랑로가 시작되고, 북측으로는 서경로가 있으며 북서측 정릉입구에서 정릉로와 보국문로가 갈라지고 있음(해당 도로는 모두 폭이 20미터 이상)
- 정릉2동의 남측 좌측에서 우측으로 북악산로가 완곡한 형태로 경사면을 이루면서 남쪽으로 휘어져 올라가고 있음

- 지하철 : 버스 환승을 통해 4호선 길음역을 이용함
- 버스 : 보국문로, 정릉로에서 성북구 타 지역이나 시내로 연결되는 노선버스가 다양해 버스 이용여건은 양호함. 하지만 도보로 5분 이상을 걸어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한 편임. 지선 버스 1162번이 교수단지, 508단지 등을 통과함



■ 주택유형

- 아파트가 2,739호, 단독주택이 1,850호, 다세대(연립)주택이 2,520호로,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이 전체 주택의 61.5%임
- 단독 및 다가구주택은 대체로 건축년도가 15~40여년을 경과한 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이고, 한옥도 다수 산재해 있음
- 동 내부의 주택연접 도로는 대체로 2~6미터 내외이고, 4미터 이하로서 차량 출입이나 교행이 불가능한 골목도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편재되어 있어 주차여건이 불량한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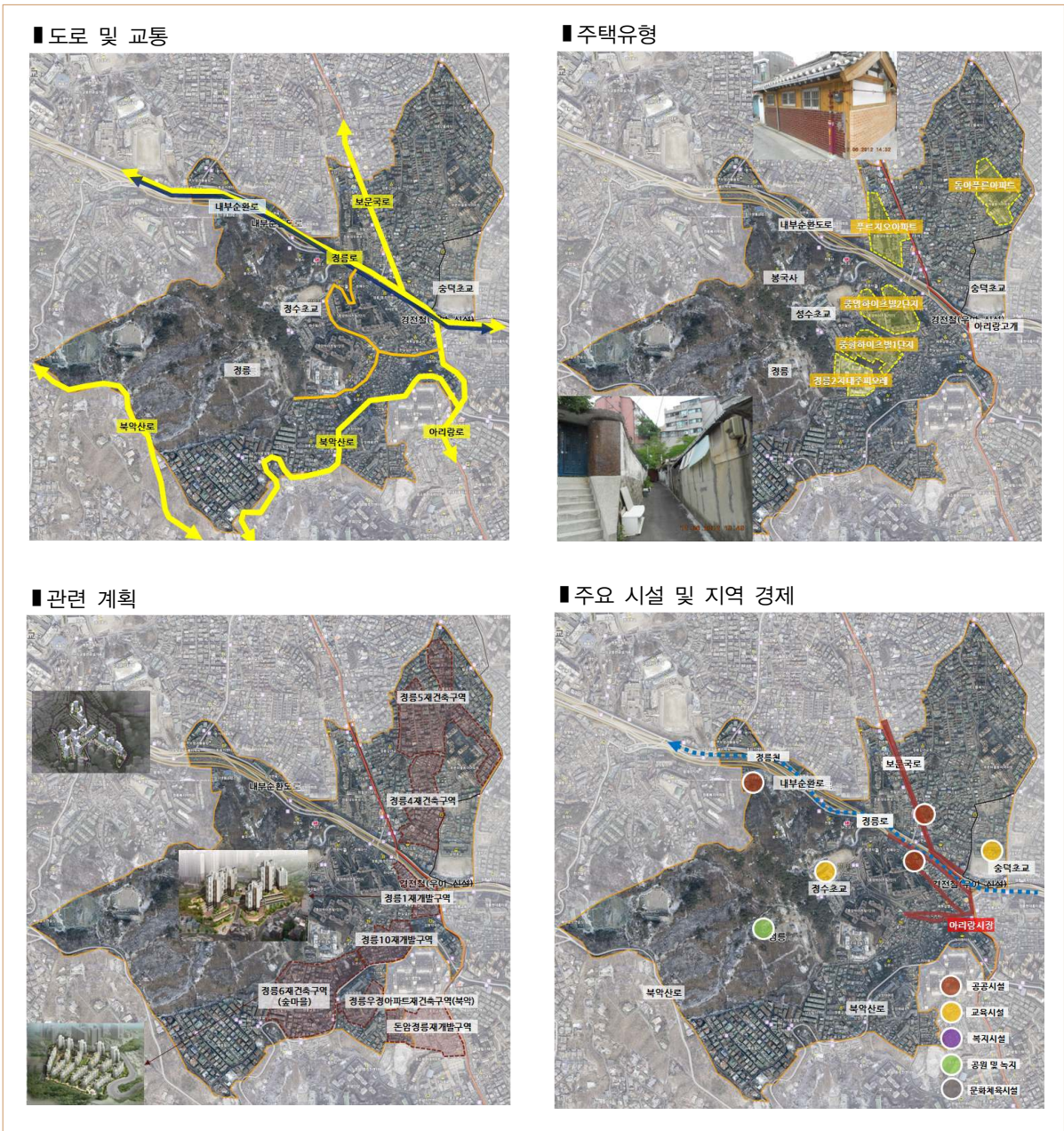


■ 관련 계획

- 정릉1구역, 정릉4구역, 정릉5구역, 정릉6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상태임
- 정릉10구역은 관리처분 인가 상태임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정릉2동 주민센터, 정릉실버복지센터, 정릉2동 파출소
- 교육시설 : 정수초등학교, 송덕초등학교
- 복지시설 : 정릉실버복지센터
- 문화체육시설 : 조선 태조의 제2비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康氏)의 능인 정릉(사적 208호)이 단지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음
- 공원 및 녹지 : 어린이공원 1개소, 정릉 배후의 녹지, 북한산에서 발원한 정릉천이 복개되어 지하로 통과하고 있음



[그림 3-11] 정릉2동의 물리적 현황

■ 지역 경제

- 보국문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확장되면서 가로 양쪽 건축물이 철거되고, 대부분 3~7층 내외의 일반상가로 신축되어 지역상권의 중심지구가 됨(업종은 외식업, 주유소, 소매 관련이 대부분임)
- 보국문로 양측 주택지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북측의 정릉시장을 주로 이용함
- 정릉로 남측은 입구에서 정릉 방향으로 가로변 시장(아리랑시장)이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 저층 주택지가 편재되어 있음
- 생활가로변으로는 특징적인 상가 밀집지역은 없고, 슈퍼마켓 등 소매점과 편의점, 소규모 음식

점이 근린주택의 1층 등에 산재되어 있음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정릉2동의 인구는 24,992명으로 남성 12,366명, 여성 12,62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릉2동의 취약계층은 총 387가구(549명)로 기초생활수급자 206가구(340명), 한부모 55가구(149명), 저소득장애 79가구(81명), 위탁아동 3가구(6명), 결식아동 15가구(15명), 차상위 44가구(54명)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정릉2동 주민센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단전호흡, 서양화교실, 노래교실, 도자기공예, 다이어트 웰빙요가, 신나는 웰빙댄스, 어르신서예교실 등을 운영함
- 어린이와 유아를 대상으로는 인기짱!방송댄스, 어린이종이접기, 영재놀이수학, 어린이 발레, 생활과학교실, 뮤지컬잉글리쉬, 꾸러기 미술교실, 어린이 미술교실 등을 운영함
- 동아리를 대상으로는 한국고전무용, 민요교실, 택견 프로그램을 운영함
- 정릉2동에서는 2012년도에 세계문화유산 정릉알리기, 2012 가을문화체험 가족한마당이라는 축제를 진행하였음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마을축제를 꿈꾸는 정릉동주민모임'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행복한 벽화골목>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은 주민 참여에 의한 낙후된 골목의 벽화 조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고양을 위해 진행됨
- '행복한 정릉 마을만들기 추진모임'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돌봄, 배움, 소통을 위한 정릉 마을 카페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은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 재능 기부자 확보 및 문화 프로그램과 축제 등의 행사 기획, 문화적 교류와 소통의 거점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회복 운동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추진됨. 주된 사업 내용은 행복한 카페 마련, 정릉 마을 골목 예술제 개최, 돌봄 품앗이 추진, 다양한 강좌 운영 등이 있음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정릉2동장을 비롯하여 새마을협의회 부회장, 주민자치위원장, 12통장 등 5인의 정릉2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정릉2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44] 정릉2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하여 풍부해짐 • 물리적 환경은 변화가 거의 없음 • 주민의 자부심과 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 추진 중 • 내부순환도로 설치 • 삼각산(북한산) • 사통팔달의 교통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덕왕후 정릉, 정릉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임이 있음 • 공기 좋고, 사람 간 관계 좋고, 순수한 사람이 많음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 문제 • 아파트가 너무 많고 정신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에 눈으로 인한 통행불편 • 정릉 내 편의시설 확충

마을 공간	생활편의시설	• 자전거 도로 및 체육시설 확충 • 파출소, 금융기관 • 주민센터 외에 문화시설은 거의 없음 • 아리랑 시네&미디어센터	• 통로가 좁고 위험함, 인도가 없음 • 경로당, 요양시설(실버센터) • 아동센터 • 서경대 꿈마루 도서관
	모임공간	• 주민센터 • 공동육아협동조합	• 공청경로당 • 능말 정자 • 정릉 • 느티나무 앞(공원화 필요)
마을 공동체	공동체 특성	• 많은 주민들이 정릉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음 • 주민들이 오래 거주하길 희망하는 함	• 소통이 쉽지 않음 • 마을 발전에 관심이 많고 실천력도 높음
	주민갈등	• 재개발로 인한 갈등(소송) • 층간 소음	• 단체장 임기로 인한 갈등 • 담배 투척
마을 만들기	자발적 모임	• 배드민턴 동호회 등의 체육동아리 • 동방번영회	• 산악회 • 정릉동을 사랑하는 모임 • 무지개 방과 후 모임
	희망하는 마을상	• 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마을 • 재개발 이후 들어설 현대적 건물이 정릉과 조화를 이루는 마을 • 안전하고 문화를 누리는 마을	• 생활하기 편한 마을 • 정릉과 조화를 이루는 마을 • 서로 도우며 가족같은 마을
마을 만들기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 정릉을 중심으로 축제 개최 • 정릉과 아리랑을 연결한 역사, 문화거리 조성 • 가족단위 마을여행 프로그램 개발	• 벽화그리기 및 규제 완화 • 마을 정비 사업 • 마을 잔치 개최
	마을만들기 활성화	• 주민 참여 + 공공 지원 • 젊은 층의 적극적 참여 필요	• 공동체 형성을 통한 상호의사 소통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 주민들에게 마을만들기 소개 •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교육 및 정보 제공 •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적 지원	• 담장허물기 시범 사업 추진 • 주민 소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정릉2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7일(금) 오전 11시, 20명
- 정릉2동의 자랑거리로는 인심이 좋고 주민화합이 잘 됨(11), 공기가 맑음(7), 정릉 등 문화유산이 있어 좋고 자긍심을 지님(6), 산이 가까워서 좋음. 산책로가 있어 좋음(3), 교통이 편리함(3)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지역자산 활용 미흡(5), 소통과 교류 부족(5), 쓰레기 투기 및 청소 불량(4), 소음 및 공해 심각(4) 순으로 많음

[표 3-45] 정릉2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 거리	- 정겨운 시골 분위기로 인심이 좋고 이웃이 좋다 걱정도 함께 나눈다 (11) - 공기가 맑다 (7)/ 정릉 등 문화유산이 있어 좋고 주민들이 자부심이 있다 (6) - 산이 가까워서 좋다 (2)/ 교통이 좋다 (2)/ 살기 좋다 (2)/ 아파트환경이 좋다 - 관리실에서 관리를 해주어 좋다/ 깨끗해서 좋다/ 중앙하이츠2 아파트 위치가 좋다/ 위치가 좋다 - 강력범죄가 적다(원주민 비율이 좀 높으므로)/ 비행청소년이 적다(지속적인 교육환경 요구함) - 주민들 간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경전철이 들어 선다/ 스카이산책로가 있어서 좋다
	- 골목 쓰레기 (3)/ 주민들 간 소통 문제(교육이 필요) (3)/ 소음(차, 오토바이, 아파트 층간 소음 등) (3) - 노인정 개선(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사용하지 못함) (2)/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 위험함 (2) - 부녀회가 없어 나뽀관리를 안 해 아파트가 지저분함) (2)/ 관리층에 있는 빈 공간을 쓰지 못한다 - 마을만들기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외부인들이 정릉 찾아오는 길이 복잡함
개선 사항	- 정릉 주변에 휴식공간(차집, 먹거리, 문화광장 등)이 없다/ 정릉에 대한 인지도 향상 필요 - 정릉 입구 거리 정비(간판 정비, 주차장 확보 필요)/ 내부순환도로 소음과 먼지/ 주차 공간이 좁음 - 도로 주차 개선 필요(중앙1차에서 2차 올라가는 곳)/ 교통 불편/ 국경일에 국기를 잘 달지 않음 - 눈이 올 때 빨리 치우지 않음/ 어려운 이웃 돌보기/ 전통시장 활성화(행정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 - 하수구 냄새가 심함/ 주민공간 부족/ 보국사 새벽 목탁소리가 시끄러움 - 정릉 10지역 공사 조속히 지어지길/ 구릉지 골목길이 많음

(4) 마을사업 제안

- 정릉2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를 제안함

[표 3-46] 정릉2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사항	- 정릉 주변 환경 개선 및 홍보 (담, 입구의 문화공간 등 조성) - 마을만들기 교육 및 커뮤니티 공간 마련 - 정릉 내 편의시설 확충 - 재개발 이후 들어설 현대적 건물이 정릉과 조화를 이루었으면 함
마을 현황	- 조선 태조의 제2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인 정릉(사적 208호)이 단지 남서쪽에 위치
마을 자원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제1호 능인 정릉이 있음 - 정릉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 높음 - 정릉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임이 있음 - 마을에 애착이 많고, 오래 거주하길 희망하는 주민이 많음 - 마을 발전에 관심이 많고 실천력도 높음 - 정릉포럼(사업: 세계문화유산 정릉, 세대를 넘어 우리들의 유산으로 거듭나기 프로젝트)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정릉 입구에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정릉 방문객과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 정릉 내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편의 도모 - 다양한 연령대의 정릉 문화해설사 양성을 통한 홍보 - 정릉 입구의 상가 업종을 정릉과 관계된 기념품이나 전통찻집으로 변경하도록 권고(기념품 제작, 전통찻집 운영 등 마을기업 활용 가능) - 정릉을 관광자원화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주민 참여를 통한 아이디어 모으기,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효과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보전 -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부서	-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사회적경제과

[표 3-47] 정릉2동 마을사업 예시 2안

구분	내용
사업명	-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유형	-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요구사항	- 골목 쓰레기 문제 심각
마을 현황	- 단독주택 및 다세대 비율이 61.5%를 차지함 - 주택연접 도로는 대체로 2~6m 내외이고, 4m 이하로서 차량 출입이나 교행이 불가능한 골목도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편재되어 있어 주차여건이 불량한 편임
마을 자원	- 마을에 애착이 많고, 오래 거주하길 희망하는 주민이 많음 - 마을 발전에 관심이 많고 실천력도 높음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캠페인, 거리 청소 등 실행 -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 마을음식쓰레기는 비료로 사용(대부분의 단독주택에 마당이나 텃밭이 있어 비료 사용 가능성 높음) - 정해진 시간에 내놓기, 종량제 봉투 사용하기, 분리수거 하기 등 마을규약 작성
효과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문제 해결 - 마을규약 작성
협력부서	- 청소행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10) 정릉3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정릉3동은 주도로는 보문국로와 정릉로임. 정릉로는 종로구 평창동에서 길음동으로 이어지는 6차선 도로이며, 도로 지상에는 내부순환로가 통과하고 있음. 성북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정릉로와 이어지는 4차선의 보국문로를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함. 보국문로는 아리랑고개길로 이어져 동소문로와 교차하여 종로, 미아로로 연결됨
- 정릉3동 내부에는 2차로의 솔샘로, 정릉로9길, 정릉로10길이 분포함
- 정릉골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릉3구역재건축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차량접근이 안 되는 좁은 골목길이 거미줄같이 분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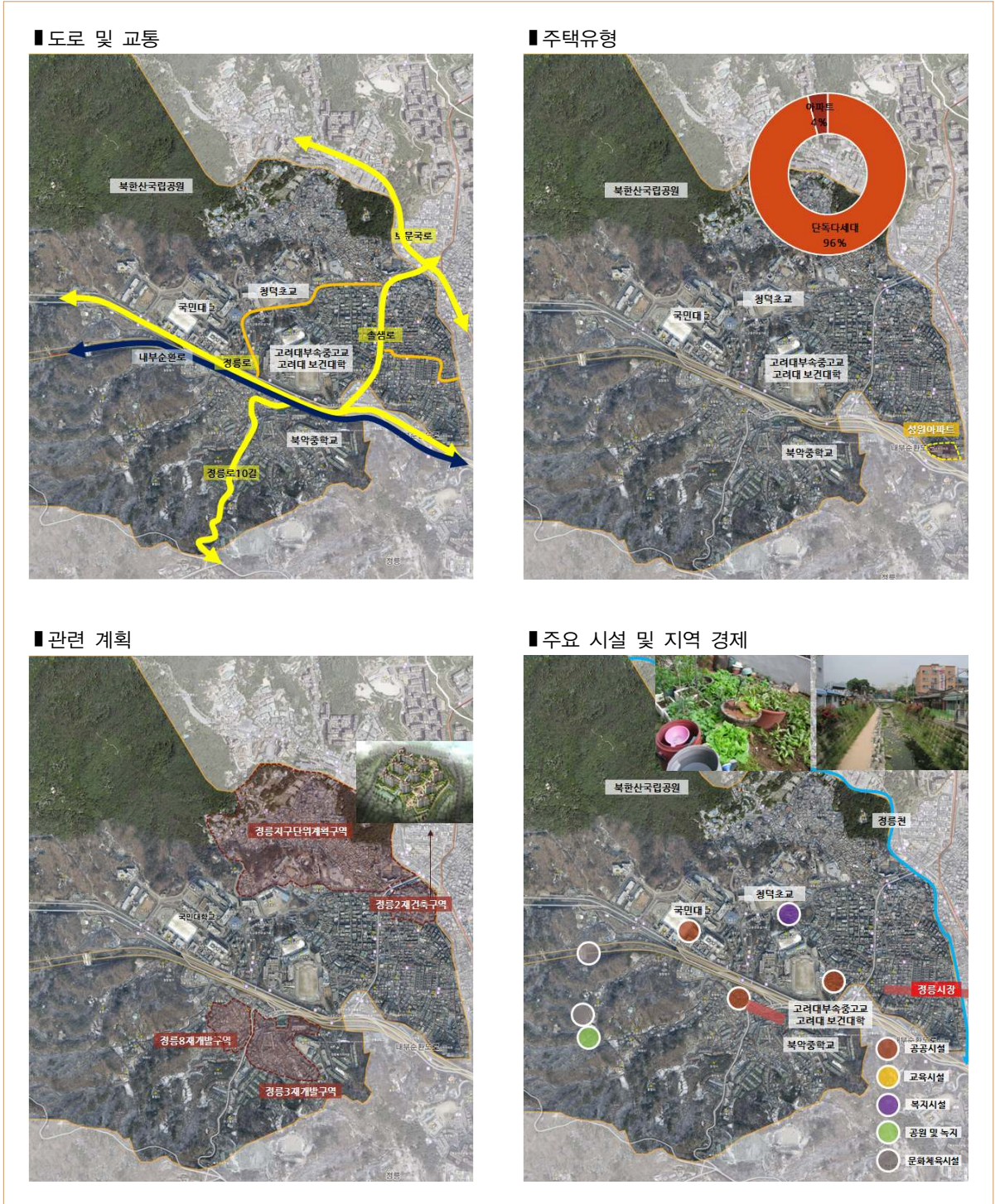
■ 주택유형

- 아파트가 350호, 단독주택이 5,470호, 다세대가 2,750호로,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이 전체 주택의 95.9%임
- 정릉시장 주변 주택가에는 1970년대 2층형 국민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분포하고, 일부지역에 도시형 한옥이 30여채 남아 있음
- 정릉골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접하는 계곡지형에 자리 잡고 있어 경사지형임. 대부분 시멘트블럭 벽체와 슬레이트지붕의 소규모 노후주택이 밀집하여 분포함. 비정형의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분포함. 비상 차량 접근이 어려운 구역이 많음
- 북한산국립공원과 접한 정릉3구역, 정릉8구역도 경사지형에 위치하며 1960~1970년대 주택들이 분포함
- 국민대 주변은 대형 원룸주택이 밀집함
- 정릉시장 주변에 도시형 한옥 20여채가 존치하고 있으며, 2012년 5월에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



■ 관련 계획

- 정릉지구단위계획구역(정릉골)은 재정비촉진지구 수립 단계임
- 정릉2(대일연립)재건축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상태임
- 정릉3재개발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2005.1, 정비구역지정 심의 중
- 정릉8구역재개발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2006.1, 구역지정 심의 중



[그림 3-12] 정릉3동의 물리적 현황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정릉3동 주민센터, 정릉3동 치안센터, 공용주차장, 정릉시장 공용주차장
- 교육시설²⁾ : 청덕초등학교, 북악중학교, 고려대사범대학부속 중·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보전과학대학, 국민대학교, 정릉골 내 성모의집 공부방
- 복지시설 : 산1경로당, 정릉복지관, 북악경로당
- 공원 및 녹지 : 북한산국립공원과 접하고 있음. 정릉천 최상류 구간으로 정릉천변에 산책로가 조성됨. 정릉 입구에 분수광장이 설치됨. 정릉골 및 정릉3동 곳곳에 텃밭 조성, 골목길 곳곳에 텃밭 상자

■ 지역 경제

- 정릉3동 보문국로11길, 솔샘로4길로 이어지는 정릉시장은 정릉3동, 정릉4동의 중심 상권임
- 보국문로, 솔샘로 도로변에 상가가 위치함
- 정릉3구역에는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상권이 분포함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정릉3동의 인구는 18,267명으로 남성 9,134명, 여성 9,13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릉3동의 취약계층은 총 1,953가구(2,544명)로 기초생활수급자 326가구(551명), 한부모 39가구(95명), 노령연금수급 1,259가구(1,528명), 저소득장애 214가구(218명), 가정위탁 11가구(22명), 결식아동 67가구(78명), 차상위 37가구(52명)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정릉3동에서는 2012년도에 마을행사로 동춘서커스공연이 있었음

■ 사회적경제 자원

- 정릉3동에 소재하고 협동조합으로는 '국민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 있음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정릉시장상인회'는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사업으로 <전통시장 토요장 및 벼룩시장 개장>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을 통해 토요장과 벼룩시장 연계를 통한 이색 볼거리 창출, 상인회 소속감 및 주인 의식 향상을 이루고자 함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6월 25일 정릉3동장을 비롯하여 통장, 국민부동산, 부녀회장 등 5인의 정릉3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정릉3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2) 정릉3동 면적의 1/4을 차지함

[표 3-48] 정릉3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변화는 없음 • 개천 복개, 고가도로 설치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자연환경(북한산)과 오래된 역사 • 선량한 주민들, 단절되지 않은 서민적인 정서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 소방도로 개설 필요 • 주차시설 미비, 노후주택 개보수 필요
공간	생활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센터 • 정릉사회교육원,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모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화사 앞 놀이터와 운동시설 • 정릉시장 골목 및 시장상인회 앞 놀이시설, 정자와 운동시설
공동체	공동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주의가 강함(이익이 있는 경우만 참여함) • 시골동네 같은 서민적인 분위기
	주민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 문제, 쓰레기 투기 • 신축공사 소음 • 심한 빈부 차로 인한 이웃 간의 관계 불편
	자발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선도위원모임 • 고려축구회 등 체육관련 동호회
마을만들기	희망하는 마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준비가 잘 된 깨끗한 마을 • 새롭게 창조되어 깨끗하고 아름다워 살기 좋은 마을 • 자연을 살리면서 새 집도 지어지는 마을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만들기 •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 정릉천을 따라 북한산 국립공원까지 산책로 설치 • 정릉골, 배밭골의 재개발추진이 현행법 범위 내에서 추진되길 요망
	마을만들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의견 통합 •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 투입 • 홍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락모자원 우리집 공동체, 십자기 쉼터, 은총의 집 • 정릉실버복지센터, 정릉노인요양원, 노인의 집 • 구 동사무소 정자 • 개천가, 노인정 • 개천주변 정화 • 교동이 불편함(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함) • 주택간 간격이 너무 가까움(소음문제) • 정릉골, 배밭골 재개발추진위원회 분열 • 시장상인회 • 새마을 문고 • 청소년들의 쉼터 같은 활기차고 젊은 마을 • 육아 프로그램 등 초보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 구에서 예산 지원 •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 • 질 높은 주민 교육을 통한 의식 전환

(3) 정릉3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7일(금) 오후 2시, 53명
- 정릉3동의 자랑거리로는 공기가 좋음(7), 교통편이 좋음(3), 산이 가까워 경치가 좋고 운동하기 좋음(3)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사업추진 지연(13), 치안 및 방범시설 부족(6), 개발 찬반 주민갈등 심각(6), 쓰레기 투기 및 청소 불량(5) 순으로 많음

[표 3-49] 정릉3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가 좋음 (7)/ 교통편이 좋음 (3)/ 경국사(사찰)가 있어 좋음/ 학군 및 학교가 많아 좋음 - 산이 가까워 운동하기 좋음 (2)/ 물이 가까이 있어 좋음/ 수도 사정이 좋음 - 인심이 좋음/ 경치가 좋음/ 달동네 풍경, 이웃 간에 서로 소통하고 지내는 것이 좋음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및 도로 부족(시에서 해 줘라) (5)/ 쓰레기 문제(빈집 쓰레기, 등산로 쓰레기) (4) - 도시가스 문제 (4)/ 치안 문제(CCTV가 한 대도 없음) (3)/ 가로등 조도, 도로가 너무 어두움 (2) - 공가 및 허물어진 집이 많아 범죄 위험, 위생 불결 (2)/ 열악한 주거환경 (2) - 시에서 재개발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음 (2)/ 재개발을 인해서 생활이 불편함 - 재개발 결정을 확실히 해주길, 주민을 무시하지 말라/ 재개발 관련 소수의 갈등을 관에서 크게 부풀림

- 정부가 동네를 무시하고 성의가 없음/ 정릉 가기가 힘들, 후문을 만들어야 함/ 자연경관 해제 요망
- 스카이 아파트 경관이 안 좋음, 빨리 철거되길 바람/ 전신주 및 케이블 난립으로 위험함
- 문화센터 미비/ 주차 문제(새동)/ 정부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 함(기부채납, 자세히 알려 달라)
-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시행되지 않고 시간만 흐름/ 교통 문제/ 아파트 건립 적극 반대
- 마을사람끼리 소통하지 못함(개발팀 공무원들은 오히려 싸움을 붙이고 있음)

(4) 마을사업 제안

- 정릉3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공원 인근 우범지대를 활용한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과 <보행자가 안전한 마을 조성>을 제안함

[표 3-50] 정릉3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공원 인근 우범지대를 활용한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마을을 희망 - 청소년들의 쉼터같은 활기차고 젊은 마을을 희망 - 우범지대 안전장치 필요 -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
마을 현황	- 상당한 경사에도 불구하고 인근 초등학교의 어린이 통행이 많음 - 공사, 노후 건물들이 가로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 - 의미 없이 설치된 담장들로 인해 보행공간이 단절되고 보행량이 감소하여 으스스한 분위기가 조성됨 - 우범지대, 청소년들의 비행(흡연 등)
마을 자원	- 교육시설 : 청덕초등학교, 북악중학교, 고려대사범대학부속 중학교, 고려대사범대학 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국민대학교, 정릉골 내 성모의집 공부방 (* 정릉3동 면적의 1/4을 차지)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활용도가 낮아 우범지역이 된 공원에 체육시설, 야간조명 등을 설치함 -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여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함 - 골목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서 활용 - 자율방범활동 조직으로 마을 내의 일자리도 만들고 마을의 안전과 청결 유지 -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유동인구 증가(커피 부스 설치, 공동 텃밭 가꾸기 등)
효과	- 범죄 예방 환경설계(셉티드 기법)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 청소년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
협력부서	-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표 3-51] 정릉3동 마을사업 예시 2안

구분	내용
사업명	- 보행자가 안전한 마을 조성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 아름답고 매력있는 가로환경을 지닌 마을을 희망 - 기반시설 정비가 잘된 깨끗한 마을
마을 현황	- 가로의 대부분이 자동차만을 고려한 구조 - 골목길 주차 문제 - 마을 주민끼리 소통하지 못함
마을 자원	- 정릉골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접하는 계곡에 위치하며, 대부분 소규모 노후주택이 밀집하여 분포 - 비정형의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분포 - 북한산국립공원과 접하고 있음
마을 자원	- 정릉 입구 분수광장 - 정릉골 및 정릉3동 곳곳에 텃밭 조성, 골목길 곳곳에 텃밭 상자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구청, 전문가, 주민 회의를 통해 보행우선구역 지정 - 보행자관련 편의시설, 보행자 휴식공간이나 안전시설 설치 - 전신주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 해결방안 모색(전신주 지중화 사업 등)

	-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추가 설치
	- 건축 신축시 건축한계선 2~3m 후퇴
효과	- 보행자 안전 도모
	- 환경정비
협력부서	- 도시계획과, 도로시설과

11) 정릉4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주 도로는 보문국로임. 정릉로는 종로구 평창동에서 길음동으로 이어지는 6차선의 도로이며, 위로는 내부순환로가 통과하고 있음. 보문문로는 아리랑개개길로 이어져 동소문로와 교차하여 미아로로 연결됨
- 정릉4동의 이면도로는 강북구 미아동으로 연결되는 2차선의 솔샘로와 정릉로로 연결되는 2차선의 서경로이며, 정릉3구역은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별로 차량 접근이 가능함
- 경전철이 공사 중 이고, 완료되면 서경대입구역이 들어설 예정임
- 버스 : 보문국로를 따라 종로구로 연결되는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다수 통과함
- 마을버스 : 성북06번, 성북07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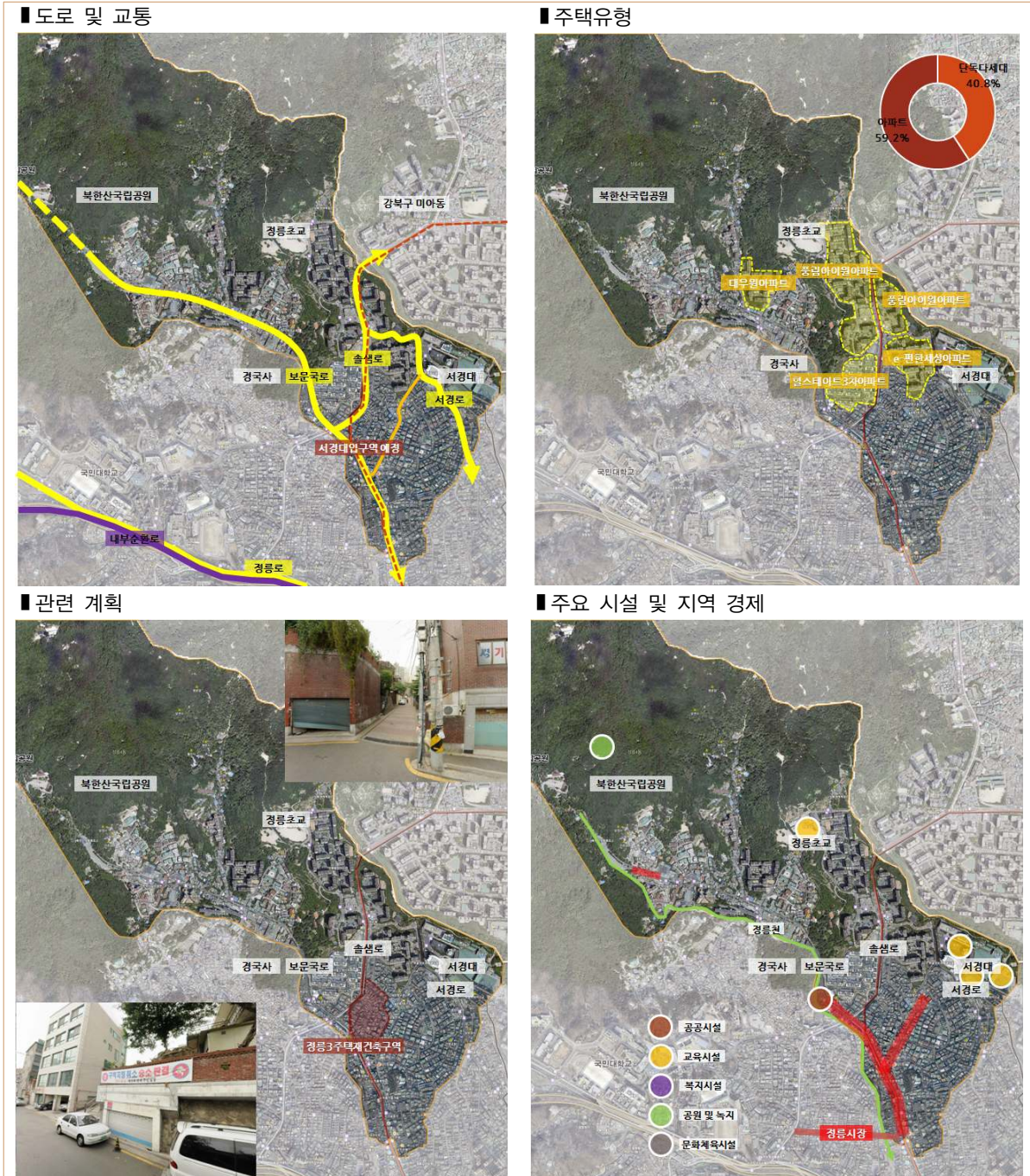
■ 주택유형

- 아파트가 4,964호, 단독주택이 1,123호, 다세대(연립)주택이 2,031호로,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61.1%임
- 북한산국립공원과 접하고 있고 정릉천의 동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가 경사지형임
- 일부 구역이 대림e편한세상, 대우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고층아파트로 재개발 완료되었음
- 대부분 주택이 1970~1980년대 단독주택과 최근 4~5층 규모로 재건축한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많음. 서경대 주변에는 원룸주택이 밀집해 있음
- 정릉3구역은 노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음



■ 관련 계획

- 정릉4, 5, 6구역은 25층 아파트로 재개발사업이 완료됨
- 3개소 재건축사업도 5층 빌라로 재건축 완료됨
- 정릉3주택재건축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이지만 구역 지정 취소 관련 소송이 진행 중



[그림 3-13] 정릉4동의 물리적 현황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정릉4동 주민센터, 정릉4치안센터, 정릉지구대, 정릉4동 공용주차장
- 교육시설 : 정릉초등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대일관광디자인고등학교, 서경대학교
- 복지시설 : 성광어린이도서관, 성광지역아동센터
- 공원 및 녹지 : 북한산국립공원과 접하고 있음. 북한산국립공원 매표소, 북한산 둘레길 입구가 있음. 정릉천과 접하고 있음

■ 지역 경제

- 정릉4동의 주요 상권은 주로 정릉시장 상권을 이용하고 있음
- 보문국로와 서경대 입구에 상가가 발달함
-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식당이 밀집함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정릉4동의 인구는 28,243명으로 남성 13,888명, 여성 14,35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릉4동의 취약계층은 총 521가구(783명)로 기초생활수급자 274가구(433명), 한부모 53가구(127명), 저소득장애 142가구(145명), 결식아동 18가구(24명), 차상위 34가구(54명)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정릉4동에서는 프락예술무대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프락예술무대는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최되며, 뮤지컬, Jazz, B-boy, 아카펠라, 라틴음악 등 공연을 진행함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정릉4동에서는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사업으로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자락길 축제 한마당> 사업을 진행하였음. 자락길 축제를 통해 지역 아동들에게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함. 사업의 주된 내용은 거북이 마라톤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자락길 바람개비 터널 조성, 녹색나눔장터 개최, 생태체험관 체험행사 개최 등이 있음
- '우리동네 능말'은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사업으로 <정·다·운 정릉이야기>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은 정릉에 대한 일상과 추억 공유를 통한 지역에 대한 애착 강화와 이웃 간 소통 도모, 마을잡지 발간을 통한 활동과정 공유 및 간접 소통을 목적으로 함. 주된 사업 내용으로는 테마별 마을모임 운영, 마을잡지 발간 등이 있음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7월 2일부터 6일까지 정릉4동장을 비롯하여 통장, 녹색단장, 자치위원장 등 5인의 정릉4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정릉4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52] 정릉4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증가 • 등산객 증가로 인한 분주한 분위기 • 달동네 → 교통이 편리한 청정지역 • 둘레길, 자락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확장 및 차고지 설치 • 정릉천 정화 • 터널 조성 및 아파트 건설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편리(버스) • 시골동네 같은 인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공기와 북한산 • 시내 중심지 접근 용이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건물 리모델링 • 문화공간 부족(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열악 • 보국문로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 북한산 입구 관광거리 특화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래된 골목길 개선 • 카페 등 거의 없음 • 버스차고지 용도 변경 • 방치된 자투리 공간 활용 • 정릉천 환경 개선
공간	생활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 주민자치센터 공간 및 프로그램이 유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시설 없어 정릉3동 이용 • 재개발 후 기부채납한 공터 방치
	모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속터나 운동기구 • 동네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이외 전무 • 아파트 단지 내 마당이나 벤치
공동체	공동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성이 높고 이웃관계가 깊음 • 인정이 많고 경로우대 의식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와 일반주택 주민간 의식 차이 존재 • 대우아파트 : 세입자 비율이 높아 참여의식 부족
	주민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와 일반주택 주민간 교류 없음 • 참여 주민과 미참여 주민간 소통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성향(지방색)에 따른 단체간 갈등
	자발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승문화 번영회 • 청수장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동아리(배드민턴, 배구, 테니스, 조기축구 등) • 아파트단지내 모임(부녀회, 헬스클럽, 탁구모임 등)
마을만들기	희망하는 마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보전이 전제가 된 개발 • 단독주택과 아파트간 유기적 관계 형성 • 청정환경 유지를 통한 친환경 마을 •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마을 • 자연환경 활용을 통한 이사 오고 싶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을 • 주민화합을 통한 갈등없는 마을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휴식공간 마련 • 정기적인 환경 보전 교육 • 자락길 동네 축제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 변화를 위한 활동 • 조경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마을만들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방 등 주민교류공간 설치 • 적극적이면서 자연스러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부여를 통한 모든 세대의 참여 유도 • 소규모 마을단위 리더 교육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의견 경청을 통한 소통 강화 • 동별 순회 설명회 개최 •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상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직접 만나고 함께 고민해야 함 • 일회성 동원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실시 • 지원센터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한 홍보 강화

(3) 정릉4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18일(화) 오후 2시, 31명
- 정릉4동의 자랑거리로는 북한산이 가까워 공기가 좋음(18), 인심이 좋고 주민화합이 잘됨(11), 편리한 교통(7), 자락길·둘레길 등이 있어 좋음(건강 증진)(7)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차(7), 보행환경 불편(6), 놀이터 및 쉼터 부족(6), 산과 하천 등 관리 부족(6), 쓰레기 투기 및 청소 불량(5), 문화체육시설 부족(5) 순으로 많음

[표 3-53] 정릉4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거리	- 북한산이 가까워 공기가 좋다 (18)/ 자락길, 둘레길 등이 있어 좋다(건강 증진) (7) - 이웃 간 정, 가족같은 분위기, 인정이 많고 인심이 순함 (11)/ 정릉천을 통해 정서가 안정됨 - 솔선수범하는 단체장의 노력/ 편리한 교통, 버스 노선이 많다 (5)/ 시내와 가깝다 (2)

	- 경로우대 정신 (2)/ 힐스테이트A 동대표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짐
	- 무허가집 개선, 개인이 소유 할 수 있도록 불하 (4)/ 운동시설이 없음 (2)/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음 (2)
	- 청소년 문화공간 부족/ 주민 편의 시설 부족/ 쉼터 공간 필요/ 복지시설 부족/ 독서실이 없음/ 공원 부족
	- 한부모 가정 자녀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공간 필요/ 골목이 울퉁불퉁 해 길이 불편함/ 노인복지 지원
	- 골목길 쓰레기 문제(쓰레기 수거 신속히) (4)/ 주차 공간 부족 (4)/ 대림 아파트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 문제
	- 돌레길 조성 후 관광객들로 인해 주위가 지저분해 짐, 산책로 쓰레기 (3)
개선 사항	- 상가에서 인도에 물건을 너무 많이 내 놓음/ 서경대 술집, 학생들의 흡연과 쓰레기 투기
	- 정릉e 편한 세상 동축사 부지 활용(스포츠센터, 녹지, 도서실, 운동공간 등) (2)
	- 정릉e 편한 세상 정문 쪽 인도 없음/ 구청의 무관심/ 정치적 갈등/ 좀도둑이 많음 (2)
	- 북한산 자원을 살리지 않고 방치하는 것/ 북한산 입구/ 북한산 관리공단의 규제가 많음
	- 주부들의 음식물 처리하는 사고방식이 개선되어야 함/ 타구역 통행 때문에 교통체증/ 매연냄새
	- 개동교회 옆 공용차고지 개선, 활용 필요(아이들 운동장 등) (3)/ 30나길 급경사, 도로 보수 요망
	- 공용차고지가 있어 복잡하고 공기가 안 좋아짐, 이전 요망 (3)/ 가로수 정비 필요

(4) 마을사업 제안

○ 정릉4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주민이 가꾸는 북한산 돌레길>을 제안함

[표 7-54] 정릉4동 마을사업 예시안

구분	내용
사업명	- 주민이 가꾸는 북한산 돌레길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 자연환경 활용을 통한 이사 오고 싶은 마을을 희망 - 청정환경 유지를 통한 친환경 마을 희망 -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마을 희망 -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휴식공간 마련 - 정기적인 환경 보전 교육 - 조경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 북한산 입구 관광거리 특화 사업 실시
마을 현황	- 북한산 국립공원과 접하고 있음 - 북한산국립공원 매표소, 북한산 돌레길 입구가 있음 - 운동시설이 부족함 - 돌레길 조성 후 관광객들로 인해 주위가 지저분해짐, 산책로 쓰레기 투기 문제 - 북한산 자원을 살리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마을 자원	- 솔선수범하는 단체장의 노력 - 이웃 간 정, 가족 같은 분위기, 인정이 많고 인심이 순함 - 경로우대 정신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주민의견과 관광객의 의견을 반영한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 사업 - 운동시설 확보, 아트평상 설치 등 이용자를 위한 시설 조성 - 북한산 돌레길 태교산책, 음악회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효과	- 주민주도 상향식 의사 결정을 통한 적절한 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협력부서	-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12) 길음1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길음1동 남쪽으로는 통행량이 많은 강북구로 이어지는 8차선의 미아로와 접하며 일부구간은 내

부순환로, 6차선 정릉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통행량이 매우 많음

- 동쪽으로는 미야동으로 이어지는 4차선 삼양로를 접하고 있으며 통행량은 많지 않음
- 길음로가 길음1동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단지 내 차량만 통행함
- 지하철 : 길음1동 남동측이 4호선 길음역 7번 출구 방향으로 이어지고, 환승이용객이 매우 많아 길음역 주변이 매우 혼잡함
- 버스 : 삼양로와 정릉로를 지나는 간선버스가 많으며, 서경로를 통과하는 지선버스도 2개 노선이 운행
- 마을버스 : 성북8번(길음역), 성북9번(길음역, 미아삼거리역)이 길음1동을 관통하는 길음로로 운행



■ 주택유형

- 아파트가 8,050호, 단독주택이 115호, 다세대(연립)주택이 153호로,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96.8%임
- 길음1동의 80~90%가 뉴타운사업으로 재개발이 완료된 상태임
- 일부 남은 단독주택지구는 1960년대 단층 국민주택과 최근 재건축한 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며, 2011년에 휴먼타운으로 지정되었음
- 길음역과 미아로와 접한 지역은 매우 노후한 슬라브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길음역세권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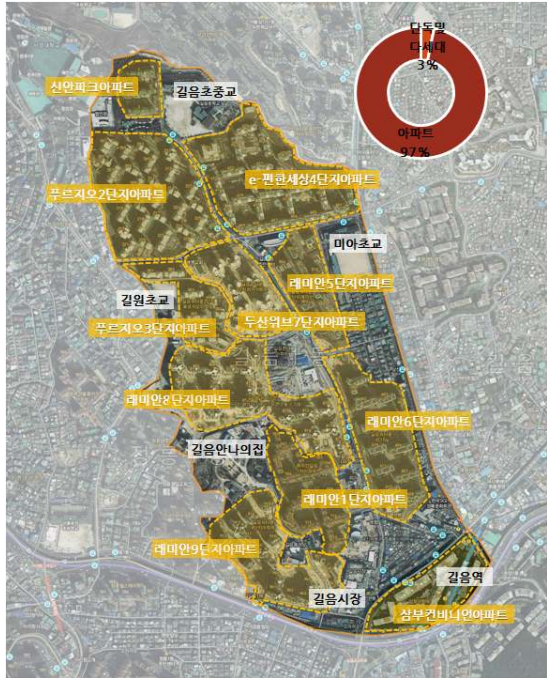
■ 관련 계획

- 길음1동 대부분의 지역이 뉴타운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되었음
- 길음동 1172번지 일대 240세대는 2011년 2월 서울휴먼타운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 2012년에 사업계획 수립 추진 중임
- 길음역 주변은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1년 7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상태임

■ 도로 및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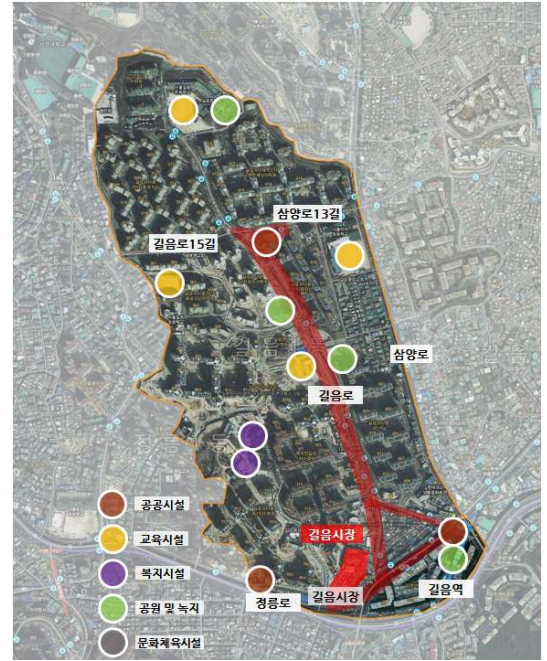
■ 주택유형



■ 관련 계획



■ 주요 시설 및 지역 경제



[그림 3-14] 길음1동의 물리적 현황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길음1동 주민센터, 길음지구대, 길음1치안센터, 길음119안전센터
- 교육시설 : 미아초등학교, 길원초등학교, 길음초등학교, 길음중학교가 위치하고, 2013년 계성고

등학교가 설치될 예정임

- 복지시설 : 성가소비녀회 길음안나의집
- 공원 및 녹지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휴먼타운 지정구역에는 별도의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이 없음. 길음역 5번 출구 방향으로 양질의 가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의 인근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음

■ 지역 경제

- 길음뉴타운을 관통하는 길음로변에 뉴타운 상가가 위치하며 식당, 마트 등이 다양하게 분포함
- 길음1동 남쪽 끝 지점에 식품 및 대형마트, 식당들이 입점한 길음시장 위치하고 있음. 현대화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길음시장과 길음역 사이의 대로변 상가가 발달해 있음
- 삼양로 도로변에 술집이 많음
-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의 도로변에 접한 가로시장에는 야채, 과일 가게가 많고, 특히 부동산 업체가 밀집되어 있음. 구역 내부에는 노후한 여관, 여인숙, 점집이 많음
- 길음시장을 중심으로 가로 상가들이 활발한 상권을 이루고 있음
- 그러나 길음뉴타운과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의 문화적, 경관적 괴리가 매우 큼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길음1동의 인구는 36,964명으로 남성 18,072명, 여성 18,89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길음1동의 취약계층은 총 291가구(2,330명)로 기초생활수급자 244가구(361명), 한부모 47가구(102명), 소득장애 85가구(85명), 위탁아동 415가구, 결식아동 25가구(25명), 차상위 43가구(43명)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는 길음1동 성인을 대상으로 주부미술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함
- 또한 트락예술무대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트락예술무대는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최되며, 뮤지컬, Jazz, B-boy, 아카펠라, 라틴음악 등 공연을 진행

■ 사회적경제 자원

- 길음1동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는 '한살림'이 있음
- 사회적기업으로는 '(주)놀이나무'가 있음

[표 3-55] 길음1동 사회적기업 현황

구분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
(주)놀이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교육에 소외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며,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박물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여성 실업자 및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된 활동 내용은 교육,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박물관 운영 지원, 체험 및 행사 기획, 체험 시설 및 교구 제작 등이 있음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길음 뉴타운3단지 임대아파트 주민자치회'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의식 변화와 화합>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의식 변화와 화합 및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함. 주된 사업 내용은 도서관 조성(책꽂이)과 도서 구입, 도서관 홍보물, 도서관 오픈 행사(2012.09. 21일), 작은 도서관(꿈터)의 영상동화 재능기부 등이 있음
- '래미안 길음뉴타운9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커뮤니티 공간조성 주민교류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미활용 공간을 활용한 주민참여, 향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주된 사업 내용은 티하우스 관리운영체계 구축 및 지속 운영, 대연회장을 활용한 강좌 운영 등이 있음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길음1동장을 비롯하여 새마을부녀 회장, 길음뉴타운3단지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길음푸르지오 도서관 관장 등 5인의 길음1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길음1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56] 길음1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변화는 없음 • 뉴타운 발표로 외부 주민 전입, 주민 의식수준 향상 • 북한산, 삼각산이 있어 공기가 맑고 등산, 운동하기 좋음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타운 형성으로 건물이 깨끗함 • 협의체 구성이 잘 되어 있음 • 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짐 • 화재나 수해 위험이 없음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회의 장소가 협소함 • 아이들 방과 후 돌봄 시설 필요 • 보건소와 우체국 설치 • 교육(학교)·의료·복지 지원 시설 필요 • 마을버스 배차시간이 길어 불편함 • 도로 확장 • 상가들의 인도 점유공간이 많아 시끄럽고 불편함
공간	생활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정 • 솔향기 공원 • 유아원 • 독서실 및 도서관 • 스포츠센터 • 길음복지관 • 주민센터 • 꿈나무키움 돌봄센터
	모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정 • 주민대표회의실 • 놀이터 • 마을회관 • 스포츠센터 • 북한산자락 공원
공동체	공동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아파트 거주민 중 저소득층, 장애인 비율이 높음 • 정이 넘치는 시골 같은 동네 • 각 단지별 역할 분배가 잘 되고 있음 • 개발 이후 타지인 유입으로 아직 친분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 뉴타운 형성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고 유동적임
	주민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회 회장선거로 인한 갈등 • 아파트 간의 갈등 • 학교가 부족하여 인근 학교 배정문제로 학부모들 고민이 많음
	자발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회, 부녀회 • 임차인 대표회의 • 길음푸르지오 도서관 • 인터넷 동호회, 노래교실모임, 미술, 친목회, 산악회 등 20여개 모임
마을만들기	희망하는 마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마을 •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마을 • 우리 삶이 녹아 있는 새로운 공동체 • 행정, 환경이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 입주민과 관련단체들이 함께 화합하여 살기좋은 마을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지원 • 문화 및 복지센터 증설 • 어린이 실외 수영장·썰매장 등 조성 • 마을축제 • 커뮤니티 공간 형성 • 방과후 어린이 돌봄/공동육아 활동 •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마을만들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소통의 관심사를 알기 위해 레크레이션 진행 • 주민 주도 방식으로 진행(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 공공기관의 행정 지원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학습 지원 전문적인 교육 및 지원 아파트 관리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세대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홍보물 제작, 설명회 활동가의 연결고리 역할(단합)
-------------	---	---

(3) 길음1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18일(화) 오후 5시, 25명
- 길음1동의 자랑거리로는 편리한 교통(5), 산이 가까이 있어 공기 좋고 운동하기 편함(6), 산책로가 잘 되어 있음(7), 인심이 좋고 주민화합이 잘 됨(6)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학교 통학 불편(5), 보행환경 불편(4), 소음 및 공해 심각(3) 순으로 많음

[표 3-57] 길음1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이 가까이 있어 공기 좋고 운동하기 편함 (3)/ 산책로가 잘 되어 있음 (7)/ 녹지공간이 많음 (3) - 인심 좋고 서로를 위함 (3)/ 마을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함 - 경로시설이 잘 되어 있음/ 문화공간이 좋음/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독서실이 있어 좋음 - 어린이 놀이터가 잘 되어 있음/ 체육(운동)시설이 잘 되어 있음 (2)/ 생활환경이 편함(상가가 근접함) (3) - 역세권(은행, 시장, 쇼핑센터가 많음) (2)/ 도로에 간이 장의자가 있어 쓸 수 있어 좋음 - 직능단체와 주민 간에 소통이 잘 됨/ 주변이 깨끗함 (4) - 교통이 편해서 좋음(마을버스 이용 용이, 지하철역이 가까움, 시내 접근성 좋음) (5)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 근처 도로변에 주차로 인해 주행이 불편함/ 늦은 밤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 (2) - 전철과 바로 연결이 안 되어 불편함/ 넓은 공간의 녹지가 없어 아쉬움 - 빈 공간을 빨리 채우길(학교부지 등)/ 커뮤니티센터 신속히 조성(수영장, 헬스장) (4) - 걷고 싶은 길 업그레이드(무궁화마을 조성, 안내판 설치, 부분적으로 폭신한 길 조성 등) - 서경대 뒷산 출입규제가 심함, 쉽게 접근하도록 완화하길/ 인도에 간이 장의자 확충 - 동네 출구가 너무 많음/ 학교 등굣길 아이들이 아파트를 가로질러 감 - 차도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 차량운행 시 불편함/ 마을버스가 단지 내로 들어오길 -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미비/ 쓰레기 배출이 많아 미관이 아름답지 않음 - 대형마트가 없음 (2)/ 문화시설 부족 (2)/ 공공시설 부족/ 학교 부족(중, 고등학교) (5) - 구립보육시설 부족/ 보도블록 걷기가 불편함/ 상가가 인접해 있어 흡연, 사람이 많아 공기가 탁함 -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독서실 부족/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음/ 도로 체계, 신호등 체계 개선 필요 - 심양로 주변 정리/ 인권상담센터 개설 요망/ 길음역 10번 출구 지역 환경개선 요망

(4) 마을사업 제안

- 길음1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학습 지원>과 <걷고 싶은 길 만들기>를 제안함

[표 3-58] 길음1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학습 지원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 프로그램 운영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원이 필요 - 아이들 방과 후 돌봄 시설 필요
마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음1동의 80~90%가 뉴타운으로 재개발 완료된 상태 -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음 - 임대아파트 거주민 중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이 많음 - 뉴타운 형성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고 유동적임 - 개발 이후 타지인 유입으로 친분관계 형성 미흡

마을 자원	- 서경대학교가 인접해 있음 - 인터넷 동호회, 노래교실모임, 미술, 친목회, 산악회 등 20여개 모임 - 부녀회, 임차인 대표회의 등 자발적 모임 존재 - 개발 사업 후 남은 빈 공터, 단지 내 상가의 빈 공간 등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마을 내 빈 공간을 활용한 공부방 및 도서관 시설 마련 -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서경대학교 및 동호회 등 자발적 모임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봉사동아리 활성화 및 활동거점 마련
효과	- 뉴타운 개발 사업 시 고려되지 않은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주민공동체 형성 기회 마련
협력부서	-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표 3-59] 길음1동 마을사업 예시 2안

구분	내용
사업명	- 걷고 싶은 길 만들기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 상가들의 인도 점유공간이 많아 시끄럽고 불편함 - 넓은 공간의 녹지가 없어 아쉬움 - 인도에 간이 장의자 확충 - 보도블럭이 불편함. 부분적으로 폭신한 길 조성 - 가로 공원 업그레이드를 통한 특색 있는 거리 조성
마을 현황	- 길음뉴타운을 관통하는 길음로 변에 뉴타운 상가가 위치하며 식당, 마트 등이 다양하게 분포함 - 길음역 5번 출구 방향으로 양질의 가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마을 자원	- 길음로 변에 비교적 넓은 화단과 소규모 공원(기부채납)이 존재 - 길음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14개 직능단체와 함께 '해바라기 꽃동산'(2011)으로 우리동네푸르게 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음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등 주민조직을 활용한 가로공원 화단 가꾸기 - 관상용 초화류 또는 텃밭으로 조성 가능(도시농업, 초화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가판대 철거 유도, 일부 상가와 연계하여 북카페, 야외카페 등 활용 가능 - 장애인, 노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가로공원 조성
효과	- 가로 공원으로서의 기능 회복 및 휴식공간 확충 -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마을로 발전
협력부서	-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13) 길음2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동소문로, 도봉로, 종암로, 정릉로 등 총 4개의 교차점 및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통행량은 매우 많음
- 길음2동 서쪽으로 4차로 삼양로, 북쪽으로 2차로 송인로 이면도로가 위치하며 송인로의 통행량은 적은 편임
- 길음2재정비구역의 대부분의 지역은 차량 접근이 매우 어려운 비정형 구조의 골목길임
- 길음1재정비구역은 대부분 차량접근이 가능함
- 지하철 : 길음역 8, 9, 10번 출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음. 미아삼거리역 3번 출구 방향

- 버스 : 미아로를 통과하는 간선버스가 많음
- 길음2동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없음



■ 주택유형

- 아파트가 1,962호, 단독주택 1,846호, 다세대(연립)주택이 1,231호로,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이 전체 주택의 61.1%임
- 길음2동의 북서면에 접한 구역만 아파트로 재개발이 완료됨
- 현대백화점 북쪽의 길음1구역의 경우에는 노후한 콘크리트 벽돌, 적벽돌 벽체와 슬레이트 지붕의 소규모 주택, 2층 다가구 주택이 혼재되어 있음. 비정형의 좁은 골목길은 거미줄처럼 분포하며 골목의 깊이가 매우 깊음(3차). 일부 지역은 경사지형임. 주택, 골목 곳곳에 텃밭을 가꾸어 있어 경관적으로 매우 양호함
- 현대백화점 서쪽의 2구역은 양호한 상태의 신축 다세대주택이 많음
- 길음·월곡균형발전촉진지구 일부 지역은 아파트와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완료되었고, 현대백화점 일대와 미아리텍사스촌 일대는 노후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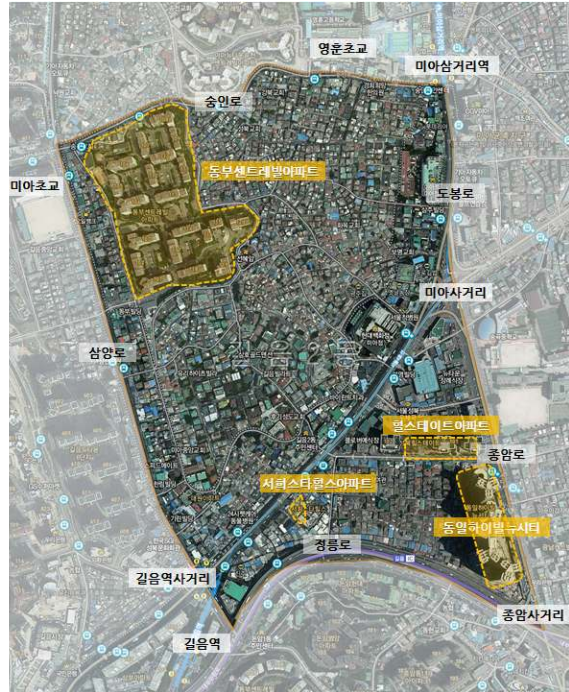
■ 관련 계획

- 길음3구역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로 재개발 완료됨
-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은 현재 건축심의 중이고,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중에 있음
-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길음2재정비촉진구역과 신축빌라가 많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모두 주민간 찬반 갈등이 매우 심함.
- 길음·월곡균형발전촉진지구(신길음구역, 신길음1구역, 신길음2구역, 신길음3구역, 신월곡1구역, 신월곡3구역, 미아시장재정비)가 지정되어 있음. 길음·월곡균형발전촉진지구의 빈 집이 곳곳에 위치함

■ 도로 및 교통



■ 주택유형



■ 관련 계획



■ 주요 시설 및 지역 경제



[그림 3-15] 길음2동의 물리적 현황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길음2동 주민센터, 길음3치안센터, 성북우체국, 성북평생학습관
- 교육시설 : 없음
- 복지시설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 공원 및 녹지 : 길음1구역 내 쌈지공원이 4개소 위치함. 1개소를 제외하면 단순 관목 식재 화단,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성북힐스테이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동부센트레빌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함. 골목길 곳곳에 텃밭이 조성되어 있음

■ 지역 경제

- 길음2동 내에는 현대백화점, 이마트미아점, 월곡이마트가 위치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상권은 길음1동의 길음시장,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의 가로시장임
- 미아로 주변에 일부 상가, 삼양로변에 식당, 유흥주점 일부 운영 중임
- 인접한 강북구에 미아동의 송인시장, 방천골목시장이 있음
- 송인로변에 식당, 마트 등 다양한 업종의 상가가 분포함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길음2동의 인구는 20,263명으로 남성 9,975명, 여성 10,28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길음2동의 취약계층은 총 1,694가구(3,003명)로 기초생활수급자 337가구(470명), 한부모 55가구(148명), 기초노령 1,105가구(1,316명), 저소득장애 129가구(982명), 결식아동 33가구(34명), 차상위 35가구(53명)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길음2동에서는 프락예술무대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프락예술무대는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최되며, 뮤지컬, Jazz, B-boy, 아카펠라, 라틴음악 등 공연을 진행함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길음2동장을 비롯하여 5인의 길음2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길음2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60] 길음2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 변화 없음
	자랑거리	• 교통 편리(길음역, 미아삼거리역) • 마을문고에 구비된 책이 많음 • 사람들이 좋음(순수함과 정이 있음) • 산이 근접하여 등산하기 좋음 • 근린생활시설(백화점, 대형할인 마트)이 편리함
	개선할 점	• 쉼터공간(공원 및 놀이터 등) 조성 필요 • 삼양로에 밀집된 집창촌 문제 • 길이 좁음 • 뉴타운 재개발 결정지연, 결정이 빨리 나갈 바람 • 학군 문제(근처에 학교가 없음) • 주거취약지역이 다수 존재함, 개선필요 • 경륜, 경정장 철거 • 길음역 7,8,9번 출구에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횡단보도 설치 필요
공간	생활편의시설	• 새마을문고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 달빛마루 도서관 • 평생학습관 • 백화점 문화센터 • 적십자 봉사관 • 경로당 • 길음뉴타운 장례시장
	모임공간	• 개인집 • 경로당, 놀이터, 소공원 • 팔각정 • 길음동부임대아파트 제2재정비구역 공터(노인들) • 십자약국 오거리 • 한양슈퍼 사거리(노인들)

마을체	공동체 특성	• 친목도모 모임이 많음 • 가족 같은 분위기	• 아파트 주민들은 조직화가 잘 되어 있으나 주택가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음
	주민갈등	• 재개발 찬반에 따른 주민간의 의견차 • 아파트 내 예산과 관련한 갈등 • 대형할인마트와 중소상인간의 갈등	• 경륜, 경정장 문제 • 아파트 내 층간 소음문제
	자발적 모임	• 산악회 • 배구회 등 체육동아리	
마을만들기	희망하는 마을상	•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마을 • 주민들의 안전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마을 • 문화욕구가 충족되는 마을	• 상부상조하는 마을 •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 • 소규모 커뮤니티들이 많은 마을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 아나바다운동을 주민센터에서 매월 개최 • 주민참여가 가능한 수다방 만들기 •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독거노인, 결혼 가정 등을 도움(김장 등)	• 친환경 EM제 만들기 • 우산 고쳐주기
	마을만들기 활성화	• 공간과 자본 확보가 필요 •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실정에 맞는 개발	•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 세대별 화합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 동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 요망 •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방향 설정	• 주민들에게 기획 및 자본 등을 지원 • 교육과 홍보

(3) 길음2동의 자량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13일(목) 오후 5시, 35명
- 길음2동의 자량거리로는 교통이 좋음(12), 산이 있어 운동하기 좋고 공기가 좋음(9), 대형마트, 백화점이 있어 좋음(6), 인심이 좋고 주민화합이 잘됨(6)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유해시설 인접(14), 쓰레기 투기 및 청소 불량(7), 소음 및 공해 심각(7),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차(6), 노후화된 주택 및 공가 방치(4) 순으로 많음

[표 3-61] 길음2동의 자량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량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이 좋음 (12)/ 접근성이 좋음(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지하철역 등) (12)/ 전통시장이 있어서 좋음 - 주택이 많아 이웃과의 관계가 밀접함, 정이 있음 (2)/ 성북구와 다른 구와의 중심지가 되어서 좋음 - 사람·이웃이 좋음 (2)/ 주민과 서로 소통함 (2)/ 단합이 잘 됨/ 남향 구릉지(햇빛, 바람길) - 아파트가 좋음/ 성북보건소가 있어 좋음(매우 친절함) (2)/ 도서관이 있어 좋음/ 문화생활이 용이함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창촌 철거 요망 (6)/ 경륜장 철거 요망(식당 및 도로 점유, 술, 노상방뇨, 노숙 문제) (6) - 재개발이 싫다/ 재개발 결정 빨리 해 달라 (2)/ 내부순환로 소음, 매연 (4)/ 층간 소음 - 길거리 상인들 때문에 소음이 심함/ 강북구에 위치한 럭키마트 소음 - 골목길 쓰레기 (3)/ 주변(거리)이 너무 지저분하고 노후함 (3)/ 공원이 멀다/ 고양이가 너무 많음 - 개발 되지 않는 곳 가옥을 수리하지 못하는 것/ 노후주택이 많아 위험해 보임 (3)/ 빈집이 너무 많음 - 급경사 도로에 방지턱 설치 요망/ 언덕길이 많아 불편함/ 영동초교 등하교시 차량 붐비 - 청소년 문화시설이 없어 나쁨/ 교육시설 부족/ 문화시설이 없어 나쁨/ 주차장 문제, 주차 공간 부족 (4) - 독거노인이 많음 (2)/ 도둑이 많음/ 영업이 안 됨, 자영업 장사 안 됨 (2)/ 주변 협조가 부족함(조사) - 소형주택 구청 허가 시 전망, 조망을 고려해 달라 (2)

(4) 마을사업 제안

- 길음2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새마을문고의 활성화>와 <대형마트 옥상공원 조성 및 개방>을 제안함

[표 3-62] 길음2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새마을문고의 활성화
사업유형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복원 (프로그램 다양화)
요구사항	-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마을을 희망함 - 소규모 커뮤니티들이 많은 마을을 희망함 - 청소년 문화시설, 교육시설이 부족함
마을 현황	- 재개발 찬반에 따른 주민간의 의견차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공동체가 해체됨 - 근처에 학교 등 교육시설 없음 - 새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 인력 부족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음(현재 상근자 없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시간이 불규칙적임)
마을 자원	- 마을문고에 구비된 책이 많음 - 달빛마루 도서관(하월곡동)이 인접해 있음 - 친목도모 모임이 많음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상근자를 두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독서 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 새마을 문고 내 학부모 및 주민 모임 공간을 마련 - 어린이 책 교환 알뜰장터(문고 소장도서와 1대 1 교환, 개인 간 물물 교환) 등 정기적 행사를 통한 문고 홍보 및 활성화 모색 - 달빛마루 도서관 등 인접 도서관과의 자료 교환 협약을 통해 소장 도서를 다양화함
효과	-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 마련 - 새마을문고를 거점으로 마을공동체 복원
협력부서	-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표 3-63] 길음2동 마을사업 예시 2안

구분	내용
사업명	- 대형마트 옥상공원 조성 및 개방
사업유형	- 공간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복원
요구사항	- 쉼터공간(공원 및 놀이터 등) 조성 필요 - 문화공간 및 시설 부족 -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필요
마을 현황	- 단독주택과 다세대 비율이 61%를 차지 - 뉴타운 재개발 결정 지연으로 마을 내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기 어려움 - 현대백화점, 신세계이마트, 월곡이마트, 총 3개의 대형마트가 입점 - 대형할인마트와 중소기업간의 갈등이 있음
마을 자원	- 길음시장(길음1동),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의 가로시장 등 길음2동에 인접한 전통시장이 일상적인 상관임 - 송인로변에 식당, 마트 등 다양한 업종의 상가가 분포함 - 백화점 내 문화센터 운영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대형마트 옥상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 - 백화점 내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축제 및 문화행사 진행 - 옥상공원에서 벼룩시장, 장터, 행사 등을 열어 지역 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때,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운영비용, 홍보비용 등 사업비용의 일부 지원
효과	- 대형마트와 중소기업과의 상생 방안 모색 -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공간 마련
협력부서	- 일자리경제과, 공원녹지과

14) 종암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종암로와 월곡로가 중심도로로 길음동, 월곡동으로 연결되어 있음
- SK뷰아파트 앞 종암전통시장 인근에는 폭 1m 내외의 좁은 도로에 노후한 단독주택들이 밀집하여 화재, 응급환자 수송 등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태임
- 지하철 : 6호선 고려대역과 월곡역에서 접근이 가능함
- 버스 : 종암로를 통과하는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다수 존재함
- 마을버스 : 성북15번, 성북21번이 소방도로가 확보된 지역을 순환하고 있음



■ 주택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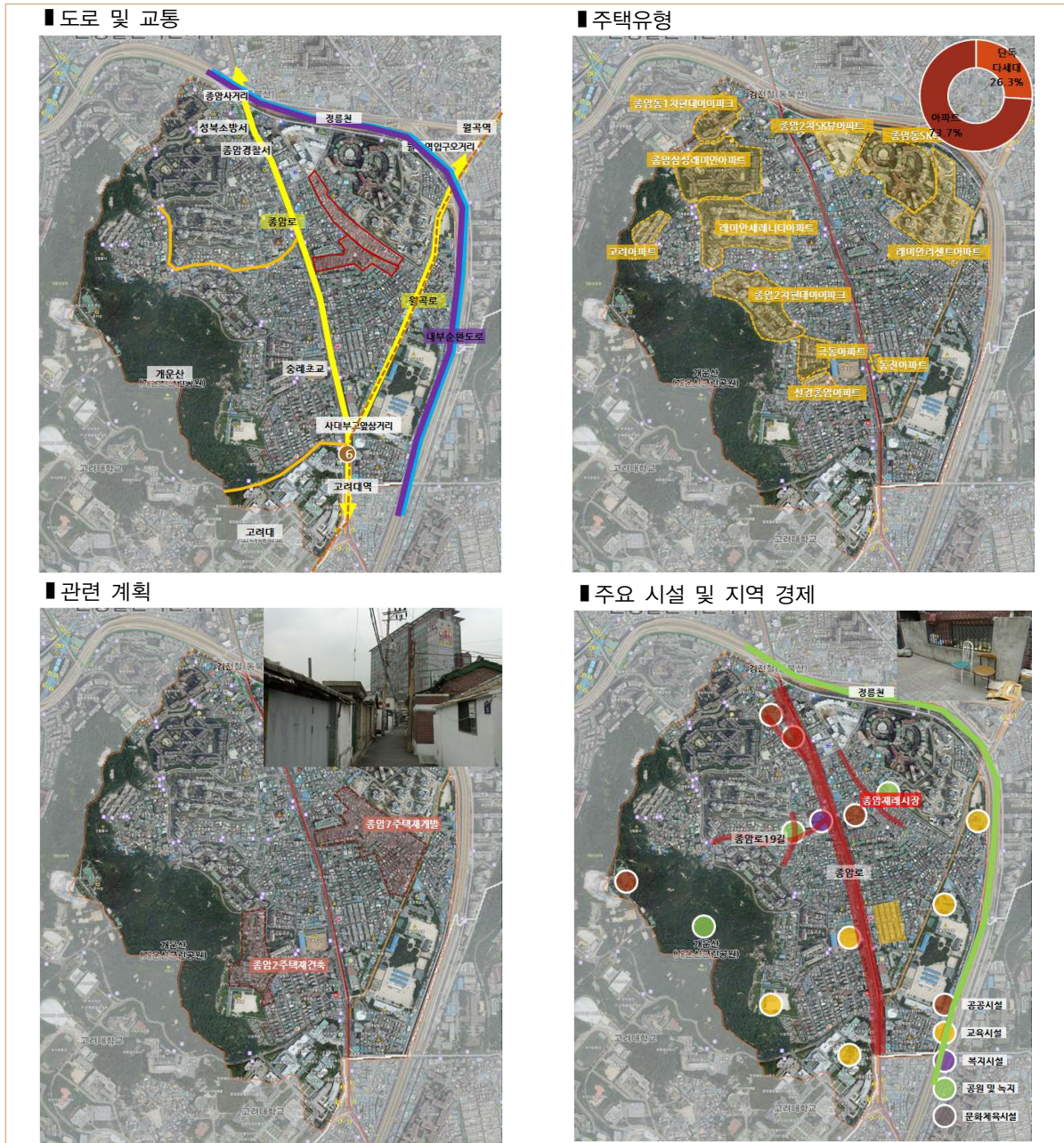
- 아파트가 15,078호, 단독주택이 2,718호, 다세대(연립)주택이 2,650호로,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73.7%임
- 지역의 상당부분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로 변화하였으며,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은 종암7주택재개발사업구역과 종암2주택재건축사업구역이 존재함
-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신규 아파트 단지 이외에 나홀로 아파트와 저층 노후 아파트도 각각 1개 단지 존재함
- 고려대학교 인근에는 학생용 원룸주택이 상당히 많고, 현재에도 단독주택을 원룸주택,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



■ 관련 계획

- 상당수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로 변화하였으며,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은 종암7주택재개발사업구역과 종암2주택재건축사업구역이 존재함
- 종암7주택재개발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2009. 8. 28)가 변경승인된 상태임

○ 종암2주택재건축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2008. 1. 17)가 승인된 상태임



[그림 3-16] 종암동의 물리적 현황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성북구의회, 성북소방서, 종암경찰서, 종암동 주민센터
- 교육시설 : 승례초등학교, 일신초등학교, 종암중학교, 서울사대부속 중학교, 서울사대부속 고등학교, 고려대학교
- 복지시설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공원 및 녹지 : 개운산과 개운산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정릉천이 가까이에 있음. 재개발

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어린이놀이터나 소규모 공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외의 지역에는 공원 및 녹지 공간이 거의 없음

■ 지역 경제

- 종암로를 따라 상가들이 들어서 있으며, 골목시장인 종암전통시장이 위치함
-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인 종암로19길 주변으로 소규모 상가와 음식점 거리가 형성되어 있음
- 종암로 남측부분에 기계, 정밀 등 공업상가가 블록으로 형성되어 있음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종암동의 인구는 43,279명으로 남성 21,572명, 여성 21,70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종암동의 취약계층은 총 1,083가구(1,549명)로 기초생활수급자 495가구(770명), 한부모 99가구(250명), 저소득장애 376가구(390명), 위탁아동 1가구(1명), 결식아동 44가구(44명), 차상위 68가구(94명)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종암동 자치회관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요가프로그램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꿈나무음악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종암동에서는 2012년도에 북바위 주민 노래자랑 행사를 개최하였음

■ 사회적경제 자원

- 종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서울북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있음
- 사회적기업으로는 '(사)여성중앙회'와 '뉴시니어라이프'가 있음

[표 3-64] 종암동 사회적기업 현황

구분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
(사)여성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전문직업훈련기관과 취업지원센터를 운영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성북구청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과 특기적성 교사 파견 - 저소득층, 중·고령자,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 -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공립 '푸른성북어린이집'을 운영
뉴 시니어라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시대에 필요한 시니어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고령시대에 적합한 사업과 시니어일자리 창출, 시니어의 자아실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 제공(시니어패션쇼 교육 및 공연, 시니어모델 일자리 사업 등) - 시니어 패션사업, 시니어 잔치 이벤트 사업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종암동장을 비롯하여 새마을부녀회장, 민족통일협의회 회장, 새마을문고 총무,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등 5인의 종암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종암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65] 종암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민들이 다 이사 감 • 한옥촌, 단독주택촌 → 원룸촌, 아파트촌 • 편의시설 입점
마 미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활동이 활발함 • 돌레길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이용객 증가 • 교육시설이 많음(어린이 도서관, 자기주도학습센터) •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의식수준 향상 • 동단위 기반시설이 많음(소방서, 경찰서, 학교, 문화시설, 금융시설 등) • 개운산, 정릉천 • 민심이 유함 • 북바위 산신제 • 교통 편리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릉천 냄새 • 종암동 7구역 재개발 필요 • 북부간선도로와 내부간선도로가 만나는 지점의 병목현상, 소음과 매연 • 여성회관 프로그램의 다양화 • 정릉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충돌 사고가 잦음 • 빌라단위 소규모 모임 활성화 필요 • 아파트 외부에도 어린이도서관, 공원 필요
공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노인복지관 • 자기주도학습관 • 새날어린이도서관 • 평생교육관 • 주민센터 • 노인정, 노인복지관 • 문화센터
모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외엔 없음 • 종암마을금고 문화센터 • 새종암문화센터 • 아트창작센터
공 동 체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끼리 잘 뭉치고 상당히 끈끈함 • 외지인이 많이 들어오면서 화합이 안 되고 이기적으로 변함 • 토박이들이 많음, 나눔이 잘됨, 상인들의 참여 증가
주 민 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골목 주차 문제 • 호남색이 강함 • 팔각정 설치 관련 인접 주민들의 반대
자 발 적 모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게 살기, 민통, 청소년육성회, 방위협의회 • 종우회, 상록회, 종암친목회, 향군청년회 • 종암청년회, 방우회, 조기축구회 등 체육동아리 • 산악회, 자치방범대, 영우회, 호남향우회
희 망 하 는 마 을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돕고 따뜻한 마을 • 단합해서 함께 어울리는 마을 • 나눔문화가 확산되며 공기 좋고 살기 편한 마을 • 상업지역이 생겨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마을
마 미 예 만 들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공예, 한지공예 작업을 통한 판매 • 5일장, 7일장(독거노인 참여) • 개운산과 정릉천 활용
참 여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확보 필요 •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함
마 미 예 만 들 기 활 성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필요 • 지역주민 기부금 및 찬조금 마련
지 원 센 터 에 대 한 기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지원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전담반이 있어야 함, 담당자와 주민의 지속적인 만남 필요

(3) 종암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17일(월) 오후 2시, 26명
- 종암동의 자랑거리로는 편리한 교통(7), 인심이 좋고 주민화합이 잘 됨(6), 개운산이 있어 공기가 좋음(6), 학교가 많음(5)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차(9), 보행환경 불편(6), 공원 및 녹지 부족(4), 소통과 교류 부족(4), 소외계층 돌봄 부족(4) 순으로 많음

[표 3-66] 종암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 랑 거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날어린이 도서관 (2)/ 학교가 많음(초, 중, 대학교) (3)/ 학교 정이 넘침/ 좋은 교육환경, 분위기 - 정이 넘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 고향 같은 느낌 (6)/ 근처에 백화점, 대형마트가 있어 좋음 (2) - 정릉천이 있어 좋음 (2)/ 복지시설이 좋음/ 자전거 도로/ 승례초교 옆 분수대/ 스포츠센터가 있어 좋음 - 개운산이 있어 공기가 좋음, 월곡 운동장이 있어 좋음 (6)/ 동덕산이 있어 좋음/ 소박함이 있음

개선 사항	- 교통 편리(간선도로, 지하철 6호선) (6)/ 버스노선이 다양해 빠르게 이동 가능
	- 주민센터가 도로변으로 내려와서 좋음
	- 봉사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며 종암동을 위해 열심히 함, 만족함
	- 개운산을 활용해 고려아파트와 행운빌라 개발을 원함/ 쓰레기 문제/ 전단지 문제
	- 골목길 주차 문제 (7)/ 동네 안 주차에 너무 간섭하지 말았으면(건인이 심함)
	- 이웃 간 대화가 필요함, 서로 인사하지 않음 (4)/ 단독주택가 CCTV 설치 요망 (2)
	- 단독주택가 거주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음, 노인정 필요/ 저소득층도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원함
	- 경전철이 속히 만들어 지길/ 주택가 녹지, 쉼터가 만들어지길 (3)/ 초, 중학교 시설이 노후됨
	- 큰 음식점이 없어 불편함/ 정릉천변 산책로 만들어 주었으면/ 폐지 좁는 노인들 복지 제공
	- 111번지에 있는 놀이터 미끄럼틀 구조 개선 요망/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음
	- 종암중 학생들의 흡연, 짧은 치마/ 중, 고생이 모이는 뒷골목(3구역) 정화 필요
	- SK 2차 아파트 후문을 막아 놓고 있다/ 자전거 도로 질서가 필요함(경찰서 등에서 교육 및 안내 표시)
	- 7구역 골목 개선 신속히 진행 요망(좁고 지저분함) (2)/ 골목이 지저분함
	- 정암교회 후문 맞은 편 작은 집들 개발 필요/ 일신학교에서 육교 밑 횡단보도 있었으면
	- 내부순환로 내려오는 곳에 공사도구, 청소도구 모아두는 곳 철거 요망
	- 래미안 라센트, 래미안 루나벨리, 내부순환로 삼거리의 육교 철거 요망
	- 종암로 24가길, 래미안 라센트, 일신초등학교, 사대부중교 앞으로 마을버스 지나갔으면 (2)
	- 종암시장 활성화 (2)/ 정릉천 냄새가 많이 남/ 정릉천에 개 안 데리고 나오길

(4) 마을사업 제안

○ 종암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친환경 마을만들기>를 제안함

[표 3-67] 종암동 마을사업 예시안

구분	내용
사업명	- 학교 개방 도서관 또는 초등학교의 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야외 북카페 조성
사업유형	-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복원
요구사항	- 개운산과 정릉천이 자랑거리인데 이것을 활용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길 원함 - 나눔문화가 확산되며 공기 좋고 살기 편한 마을 - 등공예, 한지공예 작업을 통한 판매
마을 현황	- 개운산과 개운산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정릉천이 가까이에 있음 -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어린이놀이터나 소규모 공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외의 지역에는 공원 및 녹지 공간이 거의 없음 - 정릉천에서 이따금 냄새가 남
마을 자원	- 개운산, 정릉천 - 새날어린이 도서관이 활발하게 운영 중임 - 자기주도학습관, 문화센터(새종암문화센터, 종암마을금고 문화센터), 평생교육관, 아트창작센터 등이 위치함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동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알아보고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천활동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 주민 소모임 구성 - 마을 환경교실 등 주민 주도 환경교육 실시 - 정릉천, 개운산 등 마을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축제, 초화류 심기, 나무 이름 달기 등) - 환경에 이로운 활동 기획 및 실행(EM을 활용한 친환경 마을만들기, 지렁이 퇴비), 마을기업으로 발전 가능
효과	-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이미지 구축 - '친환경'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복원
협력부서	- 공원녹지과, 환경과

15) 월곡1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미아사거리에서 장위동으로 이어지는 왕복 6차선 월계로가 서남에서 북동방향으로, 월암교사거리에서 월곡2동 및 석관동으로 이어지는 왕복6차선 화랑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고 있음
- 강북구로 연결되는 미아사거리에서 종암동으로 이어지는 왕복6차선 종암로가 북남 방향으로, 월계로와 화랑로를 이어주는 오패산로가 북남방향으로 지나고 있음
- 지하철 : 4호선 길음역이 가장 가까운 지하철임
- 버스 : 종로구와 노원구, 동대문구와 강북구를 연결하는 간선버스 다수 존재함
- 마을버스 : 성북10번(아파트)



■ 주택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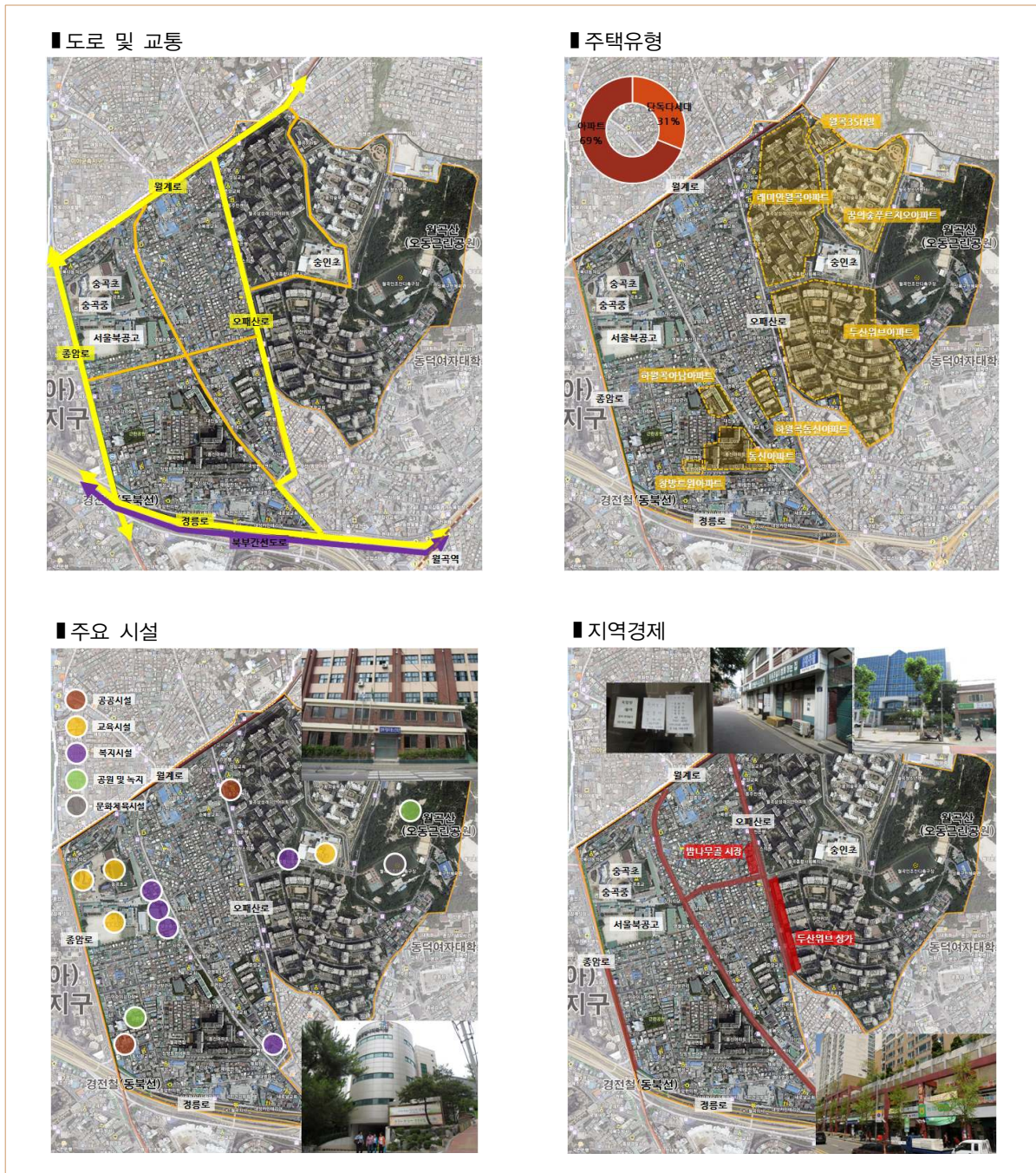
- 아파트가 5,061호, 단독주택이 1,465호, 다세대(연립)주택이 813호로,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69.0%임
- 래미안월곡아파트, 꿈의숲푸르지오아파트, 월곡두산위브아파트 등 신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함
- 전반적으로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음.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주택이 오패산로1길, 오패산로1가길 일대, 서울송곡초등학교 및 서울북공업고등학교 인접주택, 오패산로19길 주변 상가 인접 주택 등임
- 이면도로에서 주택가로 이어지는 골목길이 전체적으로 좁고, 주차 공간 확보가 미흡함
- 오패산로17길~오패산로19길 사이에 소규모 봉제공장이 주택가 곳곳에 주택 반지하에 운영되고 있음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월곡1동 주민센터, 월곡파출소, 성북쓰레기하차장, 국민건강보험성북지사

- 교육시설 : 서울승곡초등학교, 승곡중학교, 서울북공업고등학교
- 복지시설 : 월곡청소년센터,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종합복지관), 성북구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성북구지체장애인협회, 월곡1동 경로당, (구립)월곡1동 밤골경로당
- 문화체육시설 : 성북구민체육관, 월곡인조잔디구장(오동근린공원 내)
- 공원 및 녹지 : 동산어린이공원,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모랫말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 소규모공원(오패산로3길 고려빌딩 옆), 월계로길 도로변 가로수 화단 조성



[그림 3-17] 월곡1동의 물리적 현황

■ 지역 경제

- 오패산로17길과 오패산로19길 사이에 봉제산업이 형성되어 있음. 노후한 봉제공장 및 주택가 곳곳에 소규모 봉제공장이 들어서 있음
- 오패산로와 오패산로17길 인접 보행길 지하와 주택가 일부에 밤나무골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중형빌딩이 오패산로와 오패산로3길을 따라 식품, 의류 관련 업 사업장이 들어서있음
- 종암로, 오패산로, 오패산로3길 도로변을 따라 생활소모품 상가 및 식당, 공구 및 목재상가가 형성되어 있음
- 삼양식품빌딩(서울북공업고등학교 맞은편), 영원(무역)빌딩(오패산로 변) 등이 들어서 있음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월곡1동의 인구는 29,151명으로 남성 14,487명, 여성 14,66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월곡1동의 취약계층은 총 760가구(1,088명)로 기초생활수급자 216가구(327명), 한부모 80가구(194명), 저소득장애 203가구(216명), 위탁아동 2가구(2명), 결식아동 205가구(286명), 차상위 54가구(63명)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월곡1동에서는 2012년도에 동춘서커스 공연을 개최하였음

■ 사회적경제 자원

- 월곡1동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에코생협'이 있음
- 사회적기업은 '(주)온바로',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주)에코준컴퍼니' 등이 있음

[표 3-68] 월곡1동 사회적기업 현황

구분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
(주)온바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와 다문화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공정무역을 통해 제3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책임 완수 - 사회복지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복지사업 - 사업내용은 공정무역 원두커피 판매, 바리스타 교육 및 창업 컨설팅, 판매 수익금 전액으로 다문화 결혼여성 및 고령자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 등에 사용, 커피전문점 운영,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이 있음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존중의 가치를 존중하고, 하나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다양한 복지활동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희망과 행복을 전하고자 함 - 사업내용은 교육문화사업, 가족·상담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종합고령자인재은행, 행정기획사업, 성북구자살예방센터 운영 등이 있음
(주)에코준컴퍼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효과로 소비자 및 고객에게 다가갈 다음세대가 살아갈 지구환경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함 - 친환경 소재로 대처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전 과정을 그린디자인과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의 편리성까지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최고의 디자인성과 질을 추구 - 주된 사업 내용은 옥수수전분(PLA)을 원료로 한 친환경 용품제작 및 그린디자인 컨설팅, 생분해 컵, 생분해 응원막대, 생분해 피서용품(비치볼, 에어, 우의 등), 생분해 비닐 및 포장재 제작, 그린디자인 컨설팅 및 그래픽 디자인 등이 있음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성북에코공동체'는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사업으로 <알콩달콩 친환경 생활용품 같이 만들어요>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로 주민 간 소통의 장 마련, 친환경 생활용품 제작과 사용으로 환경인식 제고, 아파트 단지 간 협력으로 진정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함. 주된 사업 내용은 매주 친환경 일상생활용품 제작 강좌 운영 등이 있음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월곡1동장을 비롯하여 5인의 월곡1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월곡1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69] 월곡1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동네 → 아파트촌 • 주민들의 수준 향상 • 오통근린공원과 중랑천 • 동아리 회원 간 친목도모가 좋음 •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동네상권(전통시장)이 죽었음 • 지하 단칸방 거주자 증가(재개발 이전 주민) • 산이 가까워서 등산하기 좋음 • 백화점, 대형할인마트가 가까움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된 주택가 환경 개선 • 쓰레기 집하장 이전 • 집값이 생각보다 비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나무골 시장 지붕의 누수문제 • 교통 불편(버스노선 감소, 배차간격 증가) • 반상회 부활(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음)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학습센터 • 장애인 단체 연합회 • 자살예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 인조잔디구장 • 달빛마루도서관, 꿈틀도서관 • 평생학습관 • 구민체육관 • 미혼모 여성쉼터
공간	생활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 경로당 • 놀이터 및 정자 • 음식점 • 세탁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여성쉼터
	모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 경로당 • 놀이터 및 정자 • 음식점 • 세탁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여성쉼터
공동체	공동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상인들이 협동심이 있고 단합이 잘 됨 • 이웃 간에 서로 정이 있음 • 본토박이들이 많아 직능단체 활동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자임 • 동대표, 부녀회 임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연임규제 및 중임의 횟수를 정하길 소망 • 신규 주민의 지역 활동 참여도가 낮고 정주의식이 없음
	주민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주민과 비아파트 주민들의 견해 차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갈등(형량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 문제
	자발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회 • 걷기모임, 에코활동 • 송곡조기축구회, 배드민턴 클럽 등 체육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화합이 잘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사랑하고 가꾸는 마을
마을만들기	희망하는 마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마을 •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을 • 전통시장 활성화 • 기반시설 확보 • 독서토론편모임 • 전통시장 환경 개선(시설 개선 및 벽화그리기 등 시장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나눔과 교류가 있는 마을 •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간 확보 • 독거노인 말벗, 봉사활동 •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 전문 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대로 된 기초계획 및 예산 수립, 장기사업 연계방안 모색 •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가져야 함
	마을만들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 교육 • 전문가적 관점으로 마을만들기 지역 선정 • 전문조사, 지역설명회, 주민참여를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적 관점으로 마을만들기 지역 선정 • 전문조사, 지역설명회, 주민참여를 고취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적 관점으로 마을만들기 지역 선정 • 전문조사, 지역설명회, 주민참여를 고취

(3) 월곡1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14일(금) 오후 5시, 48명

- 월곡1동의 자랑거리로는 인심이 좋고 주민화합이 잘 됨(12), 산이 있어 운동하기 좋고 공기가 좋음(9), 편리한 교통(8),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있어 좋음(3)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쓰레기 투기 및 청소 불량(7),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차(7), 유해시설 인접(7), 공동체 의식 부족(6), 소통과 교류 부족(5) 순으로 많음

[표 3-70] 월곡1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거리	- 교통이 편리함(내부, 북부 간선도로가 가까이 있어 시내와 고속도로 진입이 빠름) (8)
	- 사는 것이 다 좋음 (2)/ 단체생활이 잘 됨/ 저렴한 전세방을 얻을 수 있음
	- 인정이 남아 있음, 달동네 같은 깊은 정이 넘침 (5)/ 친구들이 많음, 이웃들이 친함, 소통이 잘 됨 (3)
	- 공동체가 잘 됨, 주민 화합, 단합이 잘 됨 (3)/ 아파트지만 시골스러워 좋음
	- 주민편의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음(지하철역, 백화점, 은행, 주민센터, 보건소 등) (5)
	- 밤골시장이 있어 좋음/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있어 좋음 (3)/ 상권이 있어 좋음 (3)/ 장사하기 좋은 조건임
	- 동네에서 없는 사람이 장을 봐도 부담이 적음(물가가 저렴함)/ 복지시설이 좋음 (2)
	- 근린공원이 있어 좋음 (3)/ 쾌적한 조경시설/ 안전함/ 먹거리가 많음/ 봉사활동이 잘 됨
	- 두산A 단지가 크고 시설이 좋음, 세대수가 많아 좋음 (3)/ 쓰레기 분리수거 해서 좋음 (2)
	- 주변 운동 공간 및 시설이 충분함 (2)/ 주변 아산의 산책로와 환경, 공기가 좋음
개선사항	- 정릉천 자전거 도로, 걷는 길이 있어 좋음/ 산이 많아서 좋음, 산이 있어 운동하기 좋음
	-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함/ 택배, 우편 등 신경 안 쓰임
	- 관리실(경비실)이 있어 좋음/ 주위가 깨끗함 (2)/ 깨끗한 학교가 있음
	- 연세 많은 노인의 복지 개선(복지를 제공하는 병원 필요) (2)/ 지하철이 멀다 (3)/ 장마철 지하방의 수해
	- 노인 일자리 부족, 별이가 없어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음/ 이웃 간에 서로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음 (2)
	- 방범(밤에 순찰 잘 돌아오면)/ 골목길에 어두운 곳이 있어 위험함, 불안함 (2)
	- 주차난(거주자 주차장이 많아 함, 공용주차장 필요) (6)/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대책이 시급
	- 쓰레기 무단 투기 (3)/ 이웃이 친절하지 않음, 인심이 박함 (2)
	- 이웃과 소통이 안 됨, 단절(행사 등 모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 접촉을 해야 함) (3)
	- 반상회를 했으면/ 공공의식 부족(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등) (2)/ 쓰레기 모아놓는 장소 부족
- 남자 고등학교가 없음/ 전문가의 활동 부족, 참여의식 부족/ 아파트 층간 소음/ 전통시장 활성화	
- 쓰레기 하차장 옮겨주었으면 (6)/ 아남A 옆 느티나무길에 노숙인이 많다(술, 화투 등)	
- 신뢰성 부족, 개인 소신이 너무 강함, 개인주의 (2)/ 세입자 대책이 시급함/ 개 짖는 소리	
- 오페산로 길이 두산A 정문을 지나서 국민은행쪽으로 가면서 좁아져 답답해 보이며 불편함	
- 월곡산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함(편의시설 및 장비 관리 소홀, 산책로 정비 필요)	
- 교통이 좋음에도 주택가격이 너무 싼/ 어린이들을 위해서 CCTV가 더 설치되었으면	
- 골목이 깨끗해 졌으면 좋겠다/ 동네길이 좁음/ 의료시설이 많았으면/ 대형 스포츠센터가 있었으면	

(4) 마을사업 제안

- 월곡1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밤나무골 전통시장 활성화>와 <아파트 주민과 단독·다세대주택 주민과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제안함

[표 3-71] 월곡1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밤나무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유형	- 전통시장 활성화
요구사항	- 전통시장 활성화가 필요
	- 밤나무골 시장 지붕 누수문제
	-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함
마을 현황	- 따뜻한 나눔과 교류가 있는 마을을 희망함
	-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인 1990년대 가장 붐비던 곳이었음
	- 달동네 개발로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밤나무골시장 등 동네상권이 죽었음
	- 아파트 주민들은 주로 두산위브상가를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나무골시장은 현재 비법정시장 - 지하 단칸방 거주자 증가(재개발 이전 주민) - 임대아파트 955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52명 등 취약계층이 많음
마을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나무골 시장의 특이한 형태로 인해 터널형 시장, 땅굴속 시장이라고 칭해지며, 마을의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 - 인정이 남아 있음. 달동네 같은 깊은 정이 넘침 - 밤나무골 시장을 좋아하는 주민 다수 존재(인정, 저렴한 물가 등)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신청(진행중), 전통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음 - 기존의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환풍, 배수, 누수 문제를 해결하여 고객편의 증진(시·구의 지원,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신청) - 전통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마을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실시(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상권 마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시장 활성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주민들이 참여하여 직·간접적으로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제시 등)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저소득층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모델 제시 - 소규모 전통시장 상인들의 조직력 강화
협력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표 3-72] 월곡1동 마을사업 예시 2안

구분	내용
사업명	- 아파트 주민과 단독·다세대주택 주민과의 마을공동체 형성
사업구분	-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복원
요구사항	- 주민화합이 잘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사랑하고 가꾸는 동네를 희망함
마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주민과 비아파트 주민들의 견해 차 존재 - 신규 주민의 지역 활동 참여도가 낮고 정주의식이 없음 - 호수 기준으로 아파트가 69%, 단독다세대주택이 31%
마을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이 남아 있음. 달동네 같은 깊은 정이 넘침 - 에코마일리지 실천, 송곡초와 송인초 등 학교와 연계한 에너지 절약 교육프로그램으로 확장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주민과 단독·다세대주택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동주민회의, 마을축제,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 청소년모임 등) - 경로당, 운동시설 등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 시설을 일부 개방하여 함께 공유하는 방안 모색(신축시 소요되는 비용, 자원 절약) - 단독·다세대주택 지역 안에서도 공동체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효과	- 시설 공유 및 주거문화 교류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협력부서	- 주택관리과, 자치행정과

16) 월곡2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월곡2동은 강북구로 이어지는 8차선 화랑로와 월곡1동과 이어지는 4차선 오패산로를 주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화랑로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차량통행량이 매우 많음. 화랑로 지상부는 북부간선도로가 통과함
- 월곡2동 내 2차선 이면도로인 오패산로4길, 오패산로10길, 장월로1길이 차량통행량 및 보행량이 많음. 그외 화랑로1길, 화랑로5길, 화랑로14길, 화랑로18일, 화랑로19길, 월곡로18길임
- 지하철 : 월곡역, 상월곡역 2개의 지하철역이 위치함

- 버스 : 간선버스(120, 163)와 지선버스(1111, 1226)가 통과함
- 마을버스 : 성북10번(장위중과 미아삼거리역 연결), 성북12번(석계역과 상월곡역 연결)
- 대부분의 주택에 차량 접근이 가능함



■ 주택유형

- 아파트가 2,939호, 단독주택이 1,942호, 다세대(연립)주택이 456호로,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55.1%임
- 동아에코빌과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상그레빌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되었음
- 그 외 구역은 대부분이 1960년대의 소규모 단층주택이며, 일부 2~3층의 적벽돌체 다세대주택이 분포함. 격자형의 좁은 골목이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골목의 깊이(3차)가 매우 깊음
- 월곡역 주변으로 신축된 도시형생활주택이 급증하고 있음(특히 월곡과 우남아파트 주변)
- 월곡2동 골목길 전체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음



■ 관련 계획

- 월곡, 월곡1, 월곡2, 월곡3, 상월곡은 동아에코빌과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상그레빌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되었음
- 월곡4구역 재개발구역은 2006년 8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어 구역지정된 상태임
- 월곡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덕여대주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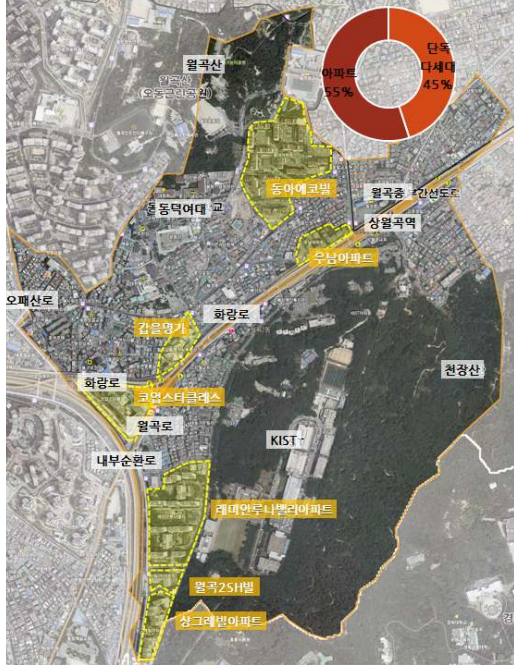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월곡2동 주민센터, 성북보건소, 장애인복지관, 국유림관리사업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교육시설 : 월곡초등학교, 월곡중학교, 동덕여자대학교
- 복지시설 : 성북정보도서관, 월곡구민운동장, 월곡실버복지센터
- 공원 및 녹지 : 홍릉과 연결되어 있는 천장산공원, KIST숲, 월곡산에 위치한 오동근린공원, 어르신건강마당, 동덕예술대학 쌈지공원

■ 도로 및 교통



■ 주택유형



■ 관련 계획



■ 주요 시설 및 지역 경제



[그림 3-18] 월곡2동의 물리적 현황

■ 지역 경제

- 월곡2동의 주요 상권은 월곡역 주변지역으로 오패산로10길, 오패산로4길, 화랑로5길, 화랑로11길로 다양한 업종의 상가가 분포함
- 월곡역에서 동아에코빌아파트로 이어지는 장월로1길 도로변에 다양한 식당들이 분포함
- 월곡역 주변에 월곡시장 재건축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섰고, 맞은편 주상복합에도 홈플러스가 입점함

- 월곡중학교와 접한 화랑로19길은 골목시장 형태로 운영 중임
-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과 주변에 상권 형성
- 월곡2동 전역의 소규모 봉제공장이 많이 분포하며 주택가에서 미싱 소리가 많이 들림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월곡2동의 인구는 21,681명으로 남성 10,718명, 여성 10,96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월곡2동의 취약계층은 총 609가구(829명)로 기초생활수급자 312가구(474명), 한부모 72가구(178명), 독거노인 121가구(121명), 차상위장애 61가구(66명), 가정위탁아동 3가구(3명), 결식아동 16가구(18명), 차상위의료 24가구(29명)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월곡2동 주민센터에서는 월곡2동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특강 미술교실, 주산활용 수리셈, 어린이발리댄스, 종이접기, 영어, 주말어린이탁구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함, 이외에 유아를 대상으로 종이접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
- 성인을 대상으로는 노래교실, 국선도, 에어로빅,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성인발리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월곡2동의 마을행사로는 트락예술무대가 진행되고 있음. 트락예술무대는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최되며, 뮤지컬, Jazz, B-boy, 아카펠라, 라틴음악 등 공연을 진행함

■ 사회적경제 자원

- 월곡2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진각홈케어 성북센터'가 있음

[표 3-73] 월곡2동 사회적기업 현황

구분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
진각홈케어 성북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재가요양의 노인복지 이원(二元) 시스템 구축 - 요양에서 상조까지 노인복지 토탈서비스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 효(孝) 정신의 실천 및 계몽 - 설립종단의 '찾아가는 포교 실천의 일환 - 주된 사업내용은 재가노인요양, 독거 등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무료 이동 지원 및 치료 연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이 있음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진각홈케어성북센터'는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사업으로 <이심전심 부모마음>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은 가족 돌봄을 가족과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님. 주된 사업 내용은 지역 품앗이 돌봄, 중증 장애인가정 휴식 지원 등이 있음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월곡2동장을 비롯하여 5인의 월곡2동 주민을 대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월곡2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74] 월곡2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 등이 날로 악화되어 감 • 공원형성 및 주거환경 변화 • 전통시장 → 상가형시장 • 쾌적한 환경(월곡산, 천장산)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마을만들기가 생김 • 무허가 건물(판자촌) → 아파트 • 정릉천 생성 • 초등학교 증가 • 편리한 교통(월곡역, 상월곡역)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디구장 등 여러 운동장과 월곡천의 하천길, 돌레길 • 상부상조가 잘되고 시골의 정을 느낄 수 있음 • 간선도로로 인한 교통난 • 주차 공간 확보 • 동 통폐합에 의해 동사무소 가기가 불편함, 접근성 고려 • 노인들의 문화시설 이용이 쉽도록 함(계단이 너무 많음) • 합리적인 신호등체계 • 천장산 등산로 개발 • 행사참여도가 높음 • 매연 • 동사무소 확대
공간	생활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도서관 •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 장애인복지관 • 진각치매요양원 • 상월곡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모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동공원 • 동덕여대 앞 먹자골목 • 이발소, 미용실 • 아파트 단지의 정자 및 놀이터 • 주차장관리사무실, 부동산사무실
공동체	공동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간의 이기주의 • 봉사정신 투철 • 주민 간에 서로 돕고 이해하는 편임 • 주민들이 인정이 많고 화합이 잘 됨
	주민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 간 갈등 심화 •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동대표와 부녀회의 갈등 • 정치적인 갈등
마을만들기	자발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사모, 월곡산악회, 일심회 • 녹색환경실천단 • 배드민턴 동회 등 체육동아리
	희망하는 마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오래 거주하는 마을 •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 간 소통이 원활하고 서로 돕는 마을 • 인심 좋고 환경 좋은 살기 좋은 마을 • 깨끗하게 청소하여 쓰레기가 없는 마을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 조성 • 자투리땅 이용하여 화단 만들기 •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정부 지원 최소화 • 독거노인 대상 봉사활동 • 공공근로 확대를 통한 주변 환경 개선 • 문화, 복지 개선사업
	마을만들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취사선택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참여 유도 • 참여자의 마음가짐과 교육 • 정부 지원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예산 지원 • 교육을 통해 몸소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3) 월곡2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14일(금) 오후 2시, 30명

○ 월곡2동의 자랑거리로는 편리한 교통(9), 천장산, 월곡산, 정릉천, 월내길이 있어 좋음(7),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많음(5), 문화 복지 시설이 있어 좋음(6)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쓰레기 투기 및 청소 불량(17), 비효율적 교통체계(6), 소음 및 공해 심각(5), 마을버스 이용 불편(5) 순으로 많음

[표 3-75] 월곡2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거리	- 교통이 편리함(내부순환도로와 지하철 역 등) (9)/ 운동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많음, 운동하기 편함 (5)
	- 오동공원 운동기구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좋음/ 보건소가 있어 좋음 (2)/ 정보도서관이 있어 좋음
	- 등산로가 잘 되어 있음/ 천장산, 월곡산이 있어 공기가 좋음 (4)
	- 정릉천, 월내길 등 생활 환경이 좋음 (2)/ 정릉천 공원화/ 조용해서 좋음
	- 동네 분들의 친목, 시골 같은 분위기/ 이웃관계 도모 편리, 화합과 협동 (2)
- 시장이 있어 편리함, 시장물건이 저렴함 (4)/ 마트가 있어 좋음 (2)	

개선 사항	- 주민센터에 문화센터가 있어 좋음, 여가활동 즐기 좋음 (3)/ 주민설명회 등 회의가 있어 발전할 수 있음
	- 나쁜 점 없음/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문화센터 더 있었으면
	- 주민센터 포화, 문화센터에 대기자가 많으나 공간이 협소함
	- 월곡중학교 정문 앞에 바로 도로가 있어 위험함/ 월곡중학교 앞 벽면 그림 새로 그렸으면 (2)
	- 도로 쓰레기(개 분뇨 등) (5)/ 산, 공원에 개 데리고 오는 것 (2)
	- 주변에 쓰레기가 많음,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문제 (5)/ 골목길에 파인 곳이 많음
	- 재개발 미뤄지니 환경이 열악함/ 주택 지붕 노후화로 고통이 있음
	- 헌 집 수리 시 소음, 공해/ 내부순환로와 북부선이 잘못 연결됨(교통이 소통이 안 됨) (2)
	- 교통이 복잡함, 내부순환로 램프 복잡, 도로 소음이 심함/ 동덕여대 오거리 신호등 설치, 교통질서 구축
	- 공공근로 인원 총원 필요, 마을 환경 개선 필요 (2)/ 홍보물 전단지 금지 (4)
	- 소규모 공장 약취, 소음, 공해/ 4구역 재개발지역으로 주민이 양분되어 있음
	- 오동공원 축구장 들어가는 입구 운동시설이 부족함/ 정릉천 환경 개선 (2)
	- 여학생 진학문제, 부중 남녀공학 만들어 줬으면/ 노인들 쉬는 곳에 젊은 애들이 있어 불편함
	- 재활용 가구 버려지고, 가구배출이 불편함/ 동사무소 예산 부족/ 주차 문제

(4) 마을사업 제안

- 월곡2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건강친화마을 만들기>와 <문화센터 증축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제안함

[표 3-76] 월곡2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건강친화마을 만들기(삼태기 마을)
사업구분	- 시설·공간 조성 +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복원
요구사항	- 이웃과 함께 즐겁고 소통, 나눔, 돌봄, 협동하는 마을을 희망함 - 건강친화마을 이후 마을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마을학교를 진행하면 좋겠음
마을 현황	- 좁은 골목길과 반지하에 봉제 공장이 많아 환기문제로 거주자 및 근로자 건강 우려 - 삼태기 마을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성북구보건소가 주관으로 진행하는 건강친화마을 조성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진행 중(주민협의체 구성, 마실사랑방 운영, 걷기동아리 운영, 건강 마을축제, 건강 길 조성, 건강검진 기기 설치 및 대사증후군 검진 등 진행) - 삼태기 마을 찾아가는 마을학교 진행(2012년 하반기)
마을 자원	- 홍릉과 연결되어 있는 천장산공원, KIST숲, 월곡산에 위치한 오동근린공원, 어르신건강마당, 동덕여대 대학 삼지공원 - 공중전화기, 과일가게 앞에 항상 함께하는 할머니들과 친밀한 이웃 - 슈퍼, 선녀미용실, 삼우세탁소, 공주전파사, 철물점, 진미빵집 등 이웃 간 소통의 거점이 존재 - 정주성, 관계성, 적극성, 자발성 강함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건강마을 만들기를 통해 개인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마을의 공동체, 주민들 간의 교류, 유대, 소통의 가치를 이룸 - 보건소 중심으로 추진해 온 개별단위 건강증진사업을 지역사회와 주민이 주도하고 보건소와 전문가가 지원하는 참여 중심으로 전환 - 주민 대상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교육, 보건서비스 지원, 건강에 좋은 환경개선 등 - 주민 회의를 통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계획(비만탈출, 어르신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효과	- 건강친화마을 만들기를 통한 주민역량 강화와 과제 도출을 지속적 실행 - 이웃 주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장(공동체 활성화)
협력부서	- 건강정책과

[표 3-77] 월곡2동 마을사업 예시 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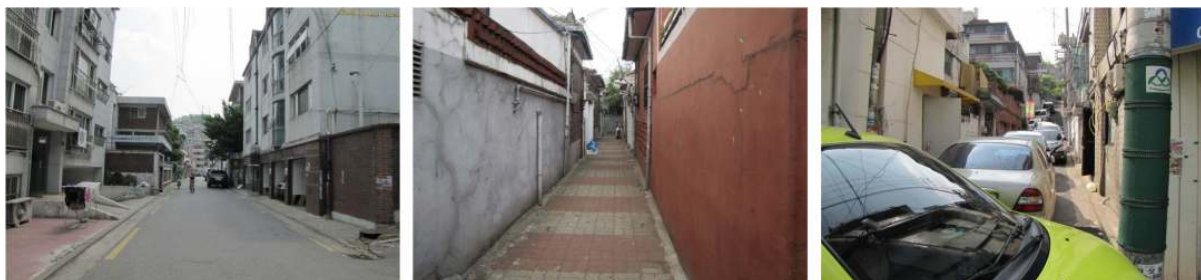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업명	- 문화센터 증축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
사업구분	- 시설·공간 조성 (프로그램 활성화)
요구사항	- 문화센터 필요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 유도 바람 - 노인들의 문화시설 이용이 쉽도록 하는 것 필요
마을 현황	- 주민센터 내 위치한 문화센터가 포화상태로 대기자가 많고 공간이 협소함 -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더 있었으면 좋겠음
마을 자원	- 공공시설 : 월곡2동 주민센터, 성북보건소, 장애인복지관, 국유림관리사업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복지시설 : 성북정보도서관, 월곡구민운동장, 월곡실버복지센터 - 잔디구장 등 여러 운동장과 월곡천의 하천길, 돌레길, 천장산이 위치함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경로당, 가정, 공원 등에 강사 파견을 통해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진행(인형 공예, 컴퓨터 교육, 미술, 숲해설가 등) - 차밍댄스 등 실내 대규모 공간이 필요한 경우 시설 증축 또는 신축을 통한 공간 확보로 보다 다양한 문화센터 강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효과	- 다양한 문화센터강좌를 통해 삶의 만족도 증진
협력부서	- 자치행정과

17) 장위1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장위동 북서면에 강북구로 이어지는 4차선의 월계로가, 북동면에 8차선의 돌곶이로가, 동면으로 4차선의 장월로가 접하고 있으며, 남면으로 4차선 장위로가 통과하고 있음
- 버스 : 종로구와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를 연결하는 월계로를 지나는 다양한 간선버스가 있음
- 마을버스 : 성북10번(월곡동과 장위중학교 주변)과 성북13번(석계역과 장위로 주변)



■ 주택유형

- 아파트가 57호, 단독주택이 2,911호, 다세대(연립)주택이 1,757호로,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이 전체 주택의 98.8%임
- 장위로22, 24, 26길, 장월로11길 주변 주택, 장위로11가길, 장위로15길, 장위로21나길, 장위로21나길 주변 주택, 장위로30길, 장위로32길 사이 천주교장위동교회 인근 지역은 주택이 양호함
- 장위로6, 8, 10길과 월계로22길 주변 주택, 장위로16길과 장위로20길 사이 밀집 주거지역, 장위

로 주변 상가 및 시장, 주상복합형 건물, 서울장곡초등학교 주변 밀집 주거지역, 장월로33길 주변 밀집 주거지역, 장월로31길과 장월로29길 주변 밀집 주거지역은 주택 노후도가 심각함



■ 관련 계획

- 장위1동에는 7, 12, 13, 14, 15, 14구역 등 총 5개의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추진 중임. 15구역은 장위2동과 월곡2동을 포함하고 있음
-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장위 7, 12, 14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상태이고, 장위15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상태임.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2010. 5. 대법원 판결)된 장위13구역은 공공관리사업을 준비 중임

■ 주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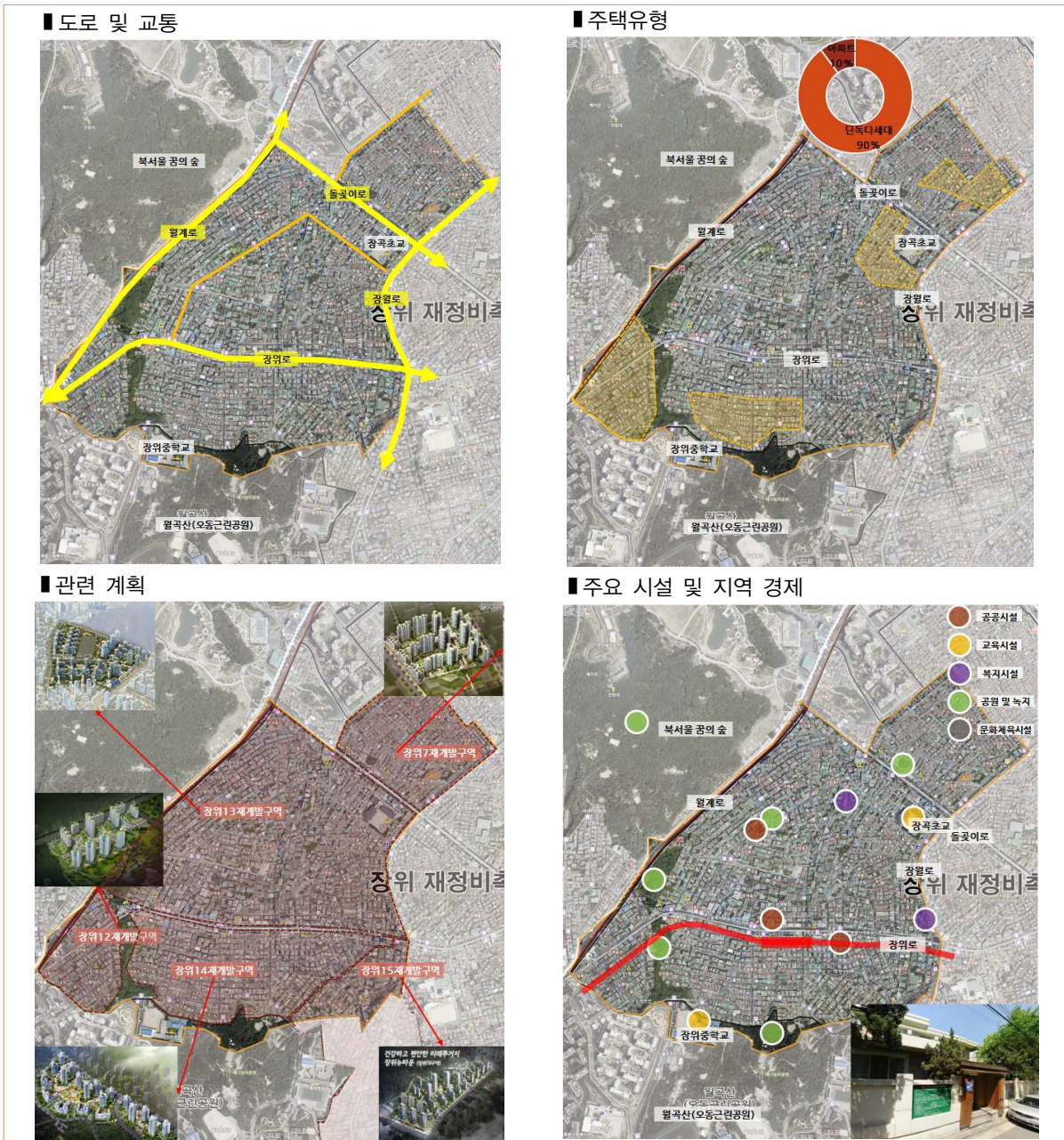
- 공공시설 : 장위1동 주민센터, 장위1동 치안센터, 공영주차장(동방고개)
- 교육시설 : 장곡초등학교, 장위중학교
- 복지시설 : 천주교 성북나눔의 집, 성북청소년공부방, 아가세지역아동센터
- 공원 및 녹지 : 오동근린공원, 동방주택 인근 어린이놀이터 1개소, 장위1동 마을마당 1개소 위치, 월계로 맞은편에 북서울 꿈의 숲이 위치

■ 지역 경제

- 봉제 관련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
- 장위로를 따라 생활권 상가가 형성됨
- 장위1치안센터 주변에 시장이 형성됨
- 장위로와 오동근린공원 사이 주택가 곳곳에 소규모 봉제공장이 운영됨
- 장월로33길 주변에 점집 운영됨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장위1동의 인구는 26,891명으로 남성 13,444명, 여성 13,44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장위1동의 취약계층은 총 2,316가구(3,219명)로 기초생활수급자 439가구(829명), 한부모 100가구(249명), 저소득노인 1,458가구(1,787명), 장애인연금 155가구(156명), 결식아동 101가구(101명), 차상위 63가구(97명)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19] 장위동의 물리적 현황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장위1동에서는 2012년도에 동춘서커스 공연을 개최하였음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장위1동주민자치위원회'는 생활환경개선 및 공동체 의식 형성·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위1동복지문화센터조성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주된 사업 내용은

잉여물자 기부 및 판매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쉼터 및 소통 공간 마련 등이 있음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장위1동장을 비롯하여 주민자치위원, 통장협의회 회장, 부녀회장, 새마을문고 총무 등 5인의 장위1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장위1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78] 장위1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낙후 • 노후된 도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막해진 분위기 •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유층 → 저소득층 증가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스럽고 정감이 있음 • 공기가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미가 흐름, 서로 돕고 협력함 • 오동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 숲이 가까워 산책하기 좋음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이 협소함 • CCTV 설치 필요 • 뉴타운 해지 또는 빠른 진행으로 주민 생활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등, 전봇대 등 정리 필요 • 쓰레기 분리 문제가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 공간 필요 • 문화, 복지, 교육시설 확충
공간	생활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모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나무공원 및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공동체	공동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저소득층이 많음 • 이웃 간에 서로 사정을 잘 알고 지내나 화합은 잘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타운으로 인한 불안정 	
	주민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타운 찬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쓰레기·집수리 문제로 인한 갈등 	
	자발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마음회 • 행복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 자원봉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누리배구단 등 체육동아리
마을만들기	희망하는 마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신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마을 •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하는 마을 • 삶의 질이 향상, 치안이 잘 되어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화합하고 합심할 수 있는 마을 • 주민들이 참여, 소통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마을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집수리 • 버룩시장, 물물교환 활동 • 문화, 교육 관련 활동(다문화 가정에 한국어 교육 등) •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지원에 촉매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구매, 아나바다 운동 •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소 지정 	
	마을만들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후원이 필요 •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화합이 중요함 • 주민 소통을 위한 행사 필요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지원 • 주민센터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복지 교육을 할 수 있는 협력자원 연계 •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지원 	

(3) 장위1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20일(목) 오후 2시, 28명
- 장위1동의 자랑거리로는 북서울 꿈의 숲과 인근에 산이 있어 좋음(12), 인심이 좋고 주민화합이 잘 됨(8), 편리한 교통(3)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차(10), 치안 및 방법시설 부족(7), 쓰레기 투기 및 청소 불량(6), 지하철 및 버스 이용 불편(4), 개발 찬반 주민갈등 심각(4), 사업추진 지연(4) 순으로 많음

[표 3-79] 장위1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체가 잘 되어 있음/ 교통과 산책로가 잘 되어 있음/ 인근에 산이 있어 공기가 좋음 (5) - 약간 깨끗함/ 도로가 깨끗함/ 인사를 잘 함/ 대화(소통)가 잘 됨 (3)/ 시골 같은 분위기(2) - 이웃이 좋음 (2)/ 이웃 간의 협력과 화합 (2)/ 더불어 살 수 있음 - 사랑이 있고, 교회가 있어 좋음/ 잔디구장, 산 등 운동 할 수 있어 좋음 (2) - 100년 된 향나무가 있어 좋음/ 꿈의 숲이 있어 좋음(운동, 산책) (7) - 주민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 전통시장이 잘 정리되어 있음 (2) - 시내중심지가 가까워서 좋음/ 교통이 좋아 어디든 갈 수 있음/ 장수경로당이 원만함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 신속 결정 (4)/ 재개발 반대(예전처럼 골목길에서 친목행사 할 수 있도록) (3) -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홍보 필요/ 동네가 너무 시끄러움 - 방법, CCTV 설치 요망 (5)/ 보안등 부족/ 노인 휴식 공간 필요/ 어린이 놀이터 부족 - 화재 시 소방차 출동이 취약함/ 주차 공간 부족, 주차장 설치 요망 (8) - 골목길이 좁음 (3)/ 도로가 좁음(차도, 인도구분이 의미가 없음) (2) - 골목길 노후화, 보수 필요/서로 상호를 밝히길/ 주택 경사진 곳에 축대 설치 등 해결 필요 - 쓰레기 무단 투기(쓰레기 버리는 장소 설치 요망) (3)/ 교통이 불편함 (2)/ 마을버스 배차시간이 너무 김 - 동네가 스스로 청소하길, 집 앞 스스로 청소(홍보 필요) (2)/ 청소년들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함 - 동네 사거리에 게시판 설치 요망 (3)/ 버스정류장 의자 설치 요망 - 버스정류장이 멀어 불편함/ 버스정류장이 한쪽에 몰려 있어 불편함 - 재활용 폐지 수거하는 노인들에게 교육 필요, 쓰레기가 흩어지는 것 방지 - 민원을 넣어도 예산이 없다고 함/ 시설은 많으나 관리가 부족함

(4) 마을사업 제안

○ 장위1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벼룩시장 등 공유경제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제안함

[표 3-80] 장위1동 마을사업 예시안

구분	내용
사업명	- 벼룩시장 등 공유경제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유형	-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복원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 반대 입장) 골목길 친목행사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음 - 서로 신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마을을 희망함 - 공동구매, 아나바다 운동, 벼룩시장, 물물교환 활동을 통한 마을만들기 참여 원함 - 주민 소통을 위한 행사 필요
마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다세대 90%. 총 5개의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추진 중임 - 주택이 낙후되고, 저소득층이 증가, 고령자, 저소득층이 많음 - 장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복지협의체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 '사랑모아기쁨나눔'(사모기나)를 개최함(2012. 9. 14) - 양평군(지평면 미사랑정보화마을)과 장위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 결연을 맺어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하고 협력하는 정신으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기로 약속함
마을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동근린공원, 동방주택 인근 어린이놀이터 1개소, 장위1동 마을마당 1개소 위치. 월계로 맞은 편에 북서울 꿈의 숲이 위치 - 이웃 간의 협력과 화합이 잘 됨 - 한마음회, 통장 자원봉사단, 행복나눔 등 자발적 모임이 존재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벼룩시장 개최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서로 교환함. 수익의 일부 저소득층 지원 - 마을 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간, 정보, 공간 등을 함께 나눠 사용함으로써 자원 활용성을 극대화(자동차, 주차장, 빈 방 등) - 마을화폐 활용 가능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경제, 협력적 소비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복원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협력부서	- 사회적경제과

18) 장위2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장월로는 북쪽으로 노원구 월계동으로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만나는 화랑로와 연결됨. 편도 1차선 도로로 장위2동의 주된 도로로 통행량이 많음
- 장위로는 장위동 전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편도 1차선 도로로 통행량이 많음
- 장월로와 장위로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면 차량이 밀리고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는 정체가 심한 편임
- 돌곶이로는 장위2동을 북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는 편도 2차선 도로로 장월로와 장위로와도 교차 되고 있으나 통행량은 장월로와 장위로에 비해 적은 편임
- 지하철 : 6호선 지하철 상월곡역과 돌곶이역이 인접해 있음
- 버스 : 돌곶이로, 화랑로, 장월로를 통과하는 간선 및 지선버스가 각각 2~3개씩 운행됨
- 마을버스 : 석계역과 상월곡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성북 12번)가 장위로를 통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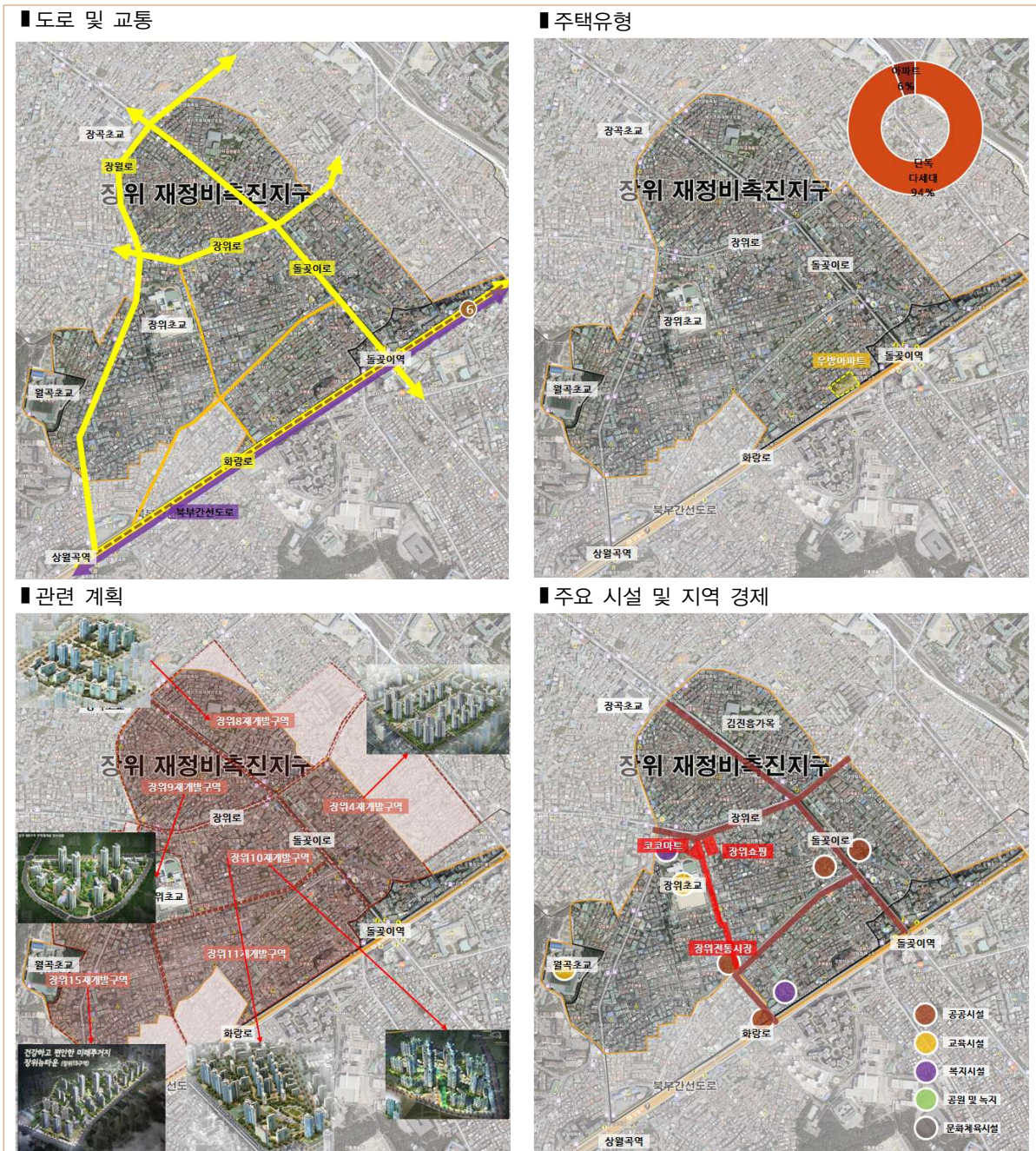
■ 주택유형

- 아파트가 202호, 단독주택이 2,669호, 다세대(연립)주택이 823호로,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이 전체 주택의 94.5%임
- 주된 주택유형이 단독과 다가구, 다세대주택이며, 주요 생활도로 주변은 근린주택으로 1층에 상가를 두고 있었으며 주로 봉제공장이 많음
- 장위초등학교와 장위시장이 인접한 지역에 1960~1970년대 조성된 단독주택이 밀집함
-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골목은 차량이 지나가기 어려운 좁은 골목이 많았으며 주차 공간이 적음



■ 관련 계획

- 장위2동에는 4, 8, 9, 10, 11, 15구역 등 총 6개의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추진 중임. 8구역과 4구역은 장위3동, 11구역은 월곡2동, 15구역은 장위1동과 월곡2동을 포함하고 있음
-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장위 4, 8, 9, 10, 11,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상태이고, 장위15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상태임



[그림 3-20] 장위2동의 물리적 현황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장위2동사무소, 장위동우체국
- 교육시설 : 월곡초등학교, 장위초등학교
- 복지시설 : 성심지역아동센터, 나눔봉사센터
- 문화체육시설 : 서울시 문화재 김진흥가옥, 우리은행체육관
- 공원 및 녹지 : 오동근린공원, 마을공원 1개소, 작은 공터에 평상 1개소

■ 지역 경제

- 장위로가 유동인구 및 간선버스 통행으로 활발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장위전통시장이 장위로38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인접 돌곶이로27길과 화랑로 25길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음
- 돌곶이역은 건너편 석관동 방향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장위2동 주변은 활발하지 못함
- 장위로를 중심으로 양측에 은행과 근린상가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장위시장이 접한 장위로38길과 돌곶이로27길, 화랑25길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음
- 돌곶이로가 편도2차선 주요 도로이나 교통량이 많지 않으며 그 영향인지 도로변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음
- 근린주택 상가에 봉제업을 하는 곳이 많고, 대형마트도 없으며, 장위시장과 도로변 식당, 가게 등이 있음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장위2동의 인구는 23,734명으로 남성 12,007명, 여성 11,72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장위2동의 취약계층은 총 2,172가구(2,976명)로 기초생활수급자 464가구(803명), 한부모 90가구(227명), 저소득장애 138가구(142명), 위탁아동 4가구(6명), 결식아동 97가구(103명), 노령연금 1,333가구(1,626명), 차상위 46가구(69명)로 구성되어 있음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장위부마축제추진위원회'는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사업으로 <전통혼이 흐르는 활랑리 장위부마축제>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은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시작함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7월 2일 장위2동장을 비롯하여 새마을 부녀회장 등 5인의 장위2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장위2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81] 장위2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 산 → 길과 주택지	• 단층주택 → 다가구 2층 주택, 빌라	• 거리환경 개선	
	자랑거리	• 주택밀집지역이라 교통 편리, 전통시장 분포, 접근성이 뛰어나	• 이웃 간에 정이 많음	• 컴퓨터교실 운영	• 통학이 편리함
	개선할 점	• 골목길 확장, 갓길주차 방지	• 녹지공간 및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함		

		• 주민간의 화합 필요	• 마을청소
공 간	생활편의시설	• 경로당과 실버타운	• 주민센터 신축 희망
	모임공간	• 전무함	• 주민센터 옆 공간
	공동체 특성	• 토박이들이 많음	• 단합이 잘 됨
공 동 체	주민갈등	• 재개발 찬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 주차와 쓰레기 문제	• 빈부 격차
	자발적 모임	• 주민자치위원회 등 15개 모임(방위협의회, 지역복지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녹색환경실천단, 자유총연맹, 통장협의회 등)	
		• 장인 상인회, 활랑리 모임	• 열심히 사는 모임
마 을 만 들 기	희망하는 마을상	• 정이 넘치고 사랑이 있는 마을 • 서로 돕고 갈등이 없는 마을	•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 삶의 질이 높은 마을 • 어른들을 존경하고 청소년을 선도하는 마을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 커뮤니티 공간 확보 • 마을 축제 추진	•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추진 • 자투리 땅의 주기적인 관리 및 활용
	마을만들기 활성화	• 김진흥 가옥 등이 있는 존치지구 보존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으므로 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전통시장(장위시장) 활성화	• 전문가 참여
		• 교육여건 개선	• 자치센터 방문, 단체장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네에 맞는 프로그램 수립
		• 컴퓨터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 확보	• 공동체 복원을 위한 컨설팅, 자문 역할

(3) 장위2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20일(목) 오후 5시, 23명
- 장위2동의 자랑거리로는 전통시장이 있어 편리하고 물가가 저렴함(6), 인심이 좋고 주민화합이 잘 됨(3)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개발 찬반 주민갈등 심각(8), 치안 및 방범시설 부족(7),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차(5), 쓰레기 투기 및 청소 불량(3) 순으로 많음

[표 3-82] 장위2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거리	- 이웃사람과 차 한 잔 할 수 있어 좋음, 이웃이 좋음 (2)/ 시골 같은 분위기, 정이 있음 - 전통시장이 있어 편리하고 물가가 다른 곳보다 저렴함 (5) - 골목시장 활성화로 싼 가격에 시장을 볼 수 있어 좋음/ 집집마다 나무가 1~2그루 있어 눈이 즐거움
개선사항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 필요/ 아이들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부족 - 주민들이 모임 공간이 없음/ 주차 문제(주민 다툼 유발) (4)/ 쓰레기 무단투기 - 음식물쓰레기 문제(고양이들 때문에 지저분해 짐)/ 원주민이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 좀도둑이 많음, CCTV 설치 요망 (4)/ 공가가 많아 관리가 안 됨(사유재산이라 관리가 어려움) - 공원이 부족함/ 개발을 소규모로 하면 좋겠음/ 재개발 반대 - 재개발 문제로 분위기가 어수선했, 주민갈등 심함 (3)/ 길이 비좁음 - 통장을 해보니 사람 만나기가 힘들, 대문이 잠겨 있어 만나기도 어렵고 대화도 어려움

(4) 마을사업 제안

- 장위2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장위 부마축제 지속적 개최>를 제안함

[표 3-83] 장위2동 마을사업 예시안

구분	내용
사업명	- 장위 부마축제 지속적 개최
사업유형	-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복원
요구사항	- 재개발 찬반에 따른 주민 간 갈등, 주민간의 화합 필요 -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추진 희망 - 마을 축제 추진 - 김진흥 가옥 등이 있는 존치지구 보존
마을 현황	- 2012년 9월 15일에 제1회 장위부마축제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침(전통공중혼례 재현, 축하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 실시) - 장위2동에는 총 6개의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추진 중임. 찬반 갈등 심각 - 주민자치위원회 등 15개의 자발적 모임
마을 자원	- 김진흥 가옥(서울시 민속자료 25호) - 마을축제 개최 경험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마을축제 주체모임이 연 1~2회 부마축제 개최와 더불어 계속해서 마을 자원을 보존하는 노력을 함 - 역사문화 자원 지키기, 마을축제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연대감 형성
효과	- 공동체에 기반한 마을축제 지속 - 마을 자원 보존
협력부서	-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19) 장위3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장위3동의 남동면은 노원구로 이어지는 8차선 화랑로, 동북면은 성북구와 노원구 경계에 위치한 우이천을 따라 조성된 4차선 한천로, 북서면은 미아삼거리에서 노원구 월계동으로 이어지는 4차선 월계로와 접하고 있음
- 장위3동 내 이면도로는 2차선 장월로, 장위로임
- 블록 내 골목은 비상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다수 분포함
- 지하철 : 6호선 돌곶이역과 1호선 석계역으로 연결됨
- 버스 : 간선버스(120, 163, 147, 261)와 지선버스(1111)가 통과함



■ 주택유형

- 아파트가 1,248호, 단독주택이 2,257호, 다세대주택이 966호로,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이 전

체 주택의 72.1%임

- 장위3동 북동면의 참누리아파트, 장월SH빌1단지, 꿈의숲대명루첸아파트는 재개발 완료됨
- 장위1, 3, 4, 5구역은 격자형 필지에 1960년대 1~2층 국민주택이 다수로, 대부분 노후함. 일부 다세대주택이 분포함
- 장위6구역은 비정형 골목길에 노후한 다세대주택과 1960년대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음
- 장위3동 전체적으로 주택이 노후함



■ 관련 계획

- 장위3동 북동면의 참누리아파트, 장월SH빌1단지, 꿈의숲대명루첸아파트는 재개발 완료됨
- 장위1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가 난 상태임
- 장위4,5,6,8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가 난 상태임
- 장위3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상태임

■ 주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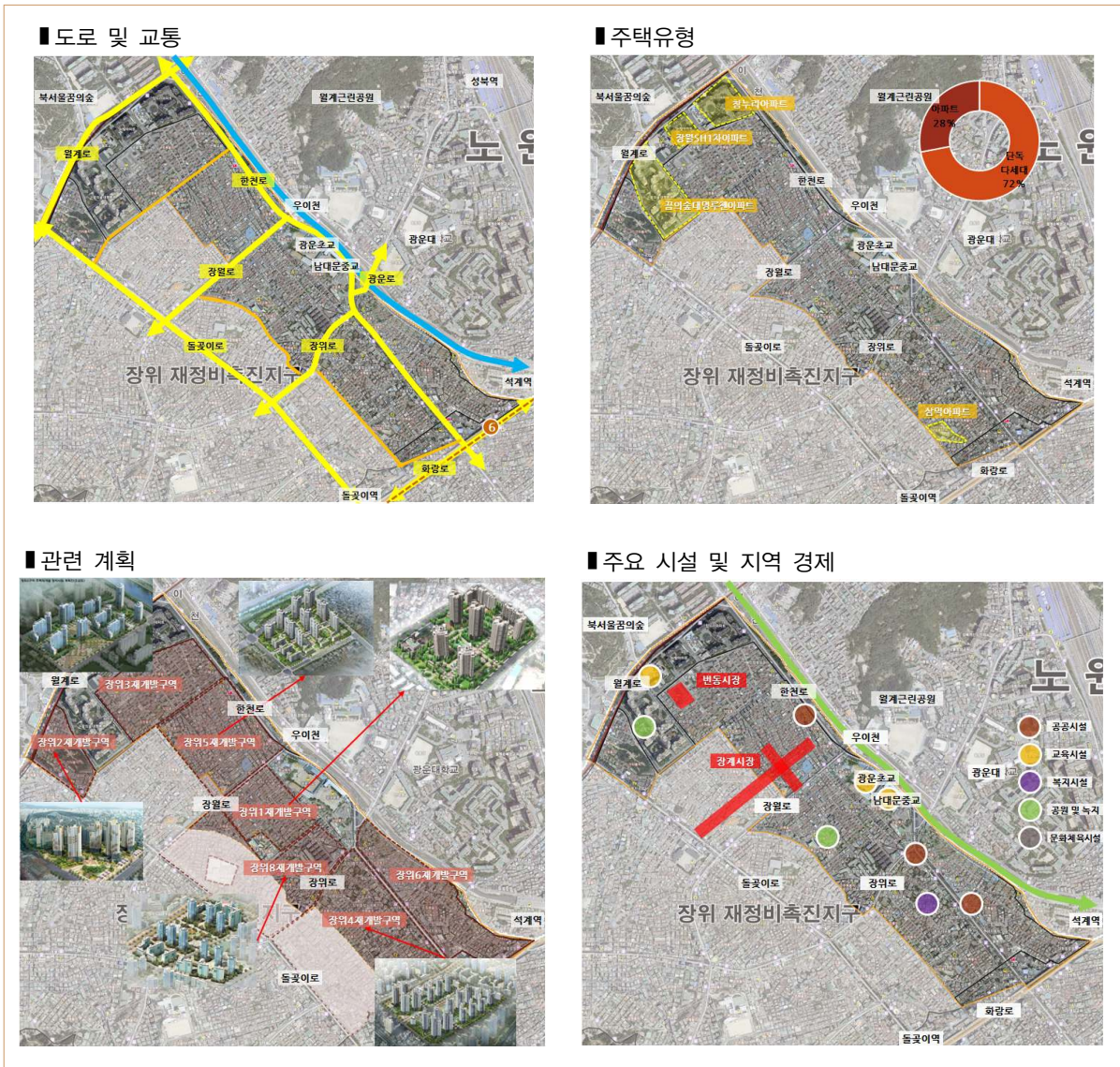
- 공공시설 : 장위3동주민센터, 장위119안전센터, 장위3동공용주차장
- 교육시설 : 장월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 복지시설 :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성북청소년수련관, e편한종합자립지원센터
- 공원 및 녹지 : 장위3동마을공원(지하는 공용주차장), 장위6구역 내 어린이놀이터(노후한 미끄럼틀, 철봉, 파고라만 설치됨), 인접하여 북서울 꿈의숲이 위치해 있음, 동측에 우이천이 흐름

■ 지역 경제

- 장월로변에 다양한 상가가 위치해 있으며 상권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 장월로3길, 한천로97길에 상당한 규모의 장계시장(골목시장, 비인가)이 형성되어 있음
- 장위3동 북동면에 자리한 변동시장은 현재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시장건물은 매우 노후한 상태임
- 인근 장위2동에 장위시장이 위치해 있음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장위3동의 인구는 19,476명으로 남성 9,942명, 여성 9,52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장위3동의 취약계층은 총 600가구(1,019명)로 기초생활수급자 406가구(693명), 한부모 58가구(147명), 차상위 118가구(155명), 틈새계층 18가구(24명)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21] 장위3동의 물리적 현황

■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등의 스포츠 프로그램과 장구, 주부교실, 한문서예교실, 원어민 영어·일본어회화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장위3동의 아동을 대상으로는 종이접기 교실을 운영함
- 장위3동에서는 트라예술무대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트라예술무대는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최되며, 뮤지컬, Jazz, B-boy, 아카펠라, 라틴음악 등 공연을 진행함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장위3동장을 비롯하여 새마을문고 회장, 통장 등 5인의 장위3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장위3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84] 장위3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 정비 • 단층 집 → 4, 5층 주택 • 마을 주민이 많이 줄어듦(약 1,030명 → 약 750명)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이 많아 사람들 간의 인정이 있음 • 마을텃밭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임 • 학교가 많고 전통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좋고 역세권임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맞는 뉴타운, 원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 거품 빼기 • 재건축 때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뉴타운 실시 후 분위기가 나쁨 • 침수문제 • 쓰레기 불법투기 • 문화시설 부족
공간	생활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복지관 • 성북구청소년수련관 • 주민센터
	모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원 • 청소년수련관 앞 정자마당
공동체	공동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적으로 뒤처짐 • 뉴타운 철거지역이라 망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임 • 시골스러운 분위기 • 서민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위 환경과 도시기반 시설 취약
	주민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타운 재개발 갈등
	자발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향우회, 조기축구회, 산악회 • 한마음연맹
마을만들기	희망하는 마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이 있는 동네 • 개발되어 계획정리가 된 동네(침수문제 해결) • 뉴타운 조성시 아파트가 아닌 저층주거지가 들어서길 희망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에 도움이 되는 안내판 설치(ex. 공원에 시가 적혀있는 안내판 설치) • 노인들을 위한 사업 • 공동육아 프로그램
	마을만들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교육 시 주민들이 잘 숙지할 수 있는 방법 활용(사진자료, 사례 중심) •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을 배려 • 시장 상인 교육을 통한 시장 살리기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함 • 센터 사업 소개 및 설명 • 미등록전통시장 지원

(3) 장위3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21일(금) 오후 2시, 17명
- 장위3동의 자랑거리로는 주민간 정이 좋음(5), 주거환경이 좋음(4), 편리한 교통(3)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노후화된 주택 및 공가 방치(7),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차(7),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 쇠퇴(5), 쓰레기 투기 및 청소 불량(3), 치안 및 방범시설 부족(3) 순으로 많음

[표 3-85] 장위3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거리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함(버스, 지하철 2호선, 6호선 지남) (3)/ 전통시장이 저렴하고 싱싱함
	- 역세권에 있음/ 어떤 지역보다 살기가 편함/ 주변 환경 양호/ 산책할 곳이 많아 좋음/ 운동하기 좋음
	- 주민간 정이 좋음 (2)/ 주민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짐
개선사항	- 주민들이 보수적인 면이 있고 예의가 바름/ 시골스러워 좋음
	- 전통시장 활성화 (3)/ 기반시설 부족 (2)/ 주택 노후화, 개발이 빨리 진행되길 원함 (3)/ 재개발 반대
	- 주차 문제(공가가 많은데 헐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길 원함) (5)/ 마을공원 부족/ 문화공간 전무
	- 도로가 좁아 불편함 (2)/ 구획정리 안 된 도로가 불편함/ 공가가 많아 불편함 (2)/ 좁도독이 많음
	- 노후 된 집들이 많아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음 (2)/ 거리청소 개선 요망/ 우이천 꽃길 조성
- 마을만들기에서 있는 그대로를 활용해야 할 부분들이 많음	
-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요망/ 골목시장 개발, 주민이 장보기에 편하도록	

(4) 마을사업 제안

- 장위3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마을 공터, 옥상을 활용한 마을텃밭 확대>와 <학교 주차장 및 야

간개방 주차장 운영)을 제안함

[표 3-86] 장위3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마을 공터, 옥상을 활용한 마을텃밭 확대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요구사항	- 시골스러운 분위기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음 - 마을텃밭은 마을자랑거리인데 더 확산되길 바램
마을 현황	- 단독·다세대주택 비율 72% 차지 - 장위3동 대부분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찬반 갈등 존재 - 공가가 많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 - 성북구 차원에서 상자텃밭 보급, 동주민센터별로 상자텃밭 가꾸기 재배교육 실시 - 장위3동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도시텃밭과 꽃마당 조성사업을 진행
마을 자원	- 현재 장위3동 단독·다세대주택가에 상자텃밭, 마을텃밭을 가꾸는 주민들이 많음 - 공가, 공터, 옥상 등 마을 안에 마을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존재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이용해 나눔장터를 개최 - 주택가 마을텃밭에서 어린이집 텃밭, 초등학교 텃밭 등으로 확대 - 텃밭 수확물을 친환경 급식, 나눔 도시락 재료로 활용, 텃밭음악회, 텃밭체험학습 등 다양한 텃밭 활용방안 모색 - 텃밭디자인 강좌, 공모전을 통한 미적 아름다움도 동시에 획득하도록 함
효과	- 마을경관 개선 - 넋지효과(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
협력부서	-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표 3-87] 장위3동 마을사업 예시 2안

구분	내용
사업명	- 학교 주차장 및 야간개방 주차장 운영
사업유형	- 시설·공간 조성 (관리방안 마련)
요구사항	- 주차 공간 필요 - 학교와 협조하여 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존에 있는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활용하여 마을만들기를 했으면 좋겠음
마을 현황	- 장위3동 공용주차장이 있으나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함 - 도로가 좁음, 구획정리 안 된 도로가 불편함 - 대부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용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마을 자원	- 장위3동에 장월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가 위치함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주차장 조성비(주차관제시스템, CCTV 등)와 유지보수비 지원방안 모색 - 학교개방, 주차장 운영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개방시간, 주차이용시 지켜야할 규칙 등에 대해서 구-학교장-주민 간 협의를 통해 합의 도출
효과	-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 - 학교 개방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
협력부서	- 교육지원과, 교통지도과

20) 석관동

(1) 지역현황 및 자원

■ 도로 및 교통

- 석관동의 북서면과 접하는 화랑로는 편도 4차선 도로로서 서측으로는 월곡동과 도심방향, 동측

으로는 노원구 월계동, 공릉동 및 동부간선도로와 맞닿아 있고, 고가 구조의 내부순환도로가 상부에 지나고 있는데 양 도로 모두 서울 동북부의 주요 간선로로서 차량통행량도 많은 편임

- 동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돌곶이로와 동 서측의 장위사거리와 신이문역을 통과하는 한천로는 편도 3차로인데 차량통행량은 적은 편임
- 지하철 : 6호선 돌곶이역이 동 북측 중앙,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북동측 끝에 위치하고 있어 동의 남측과 서측 주민은 도보로 이동이 불가능함. 남측과 동측 주민들은 동대문에 속하는 신이문역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
- 간선버스 : 한천로, 돌곶이로에서 지하철역이나 (부)도심부로 연결되는 지선버스가 배차되어 있으나 이용여건은 보통임



■ 주택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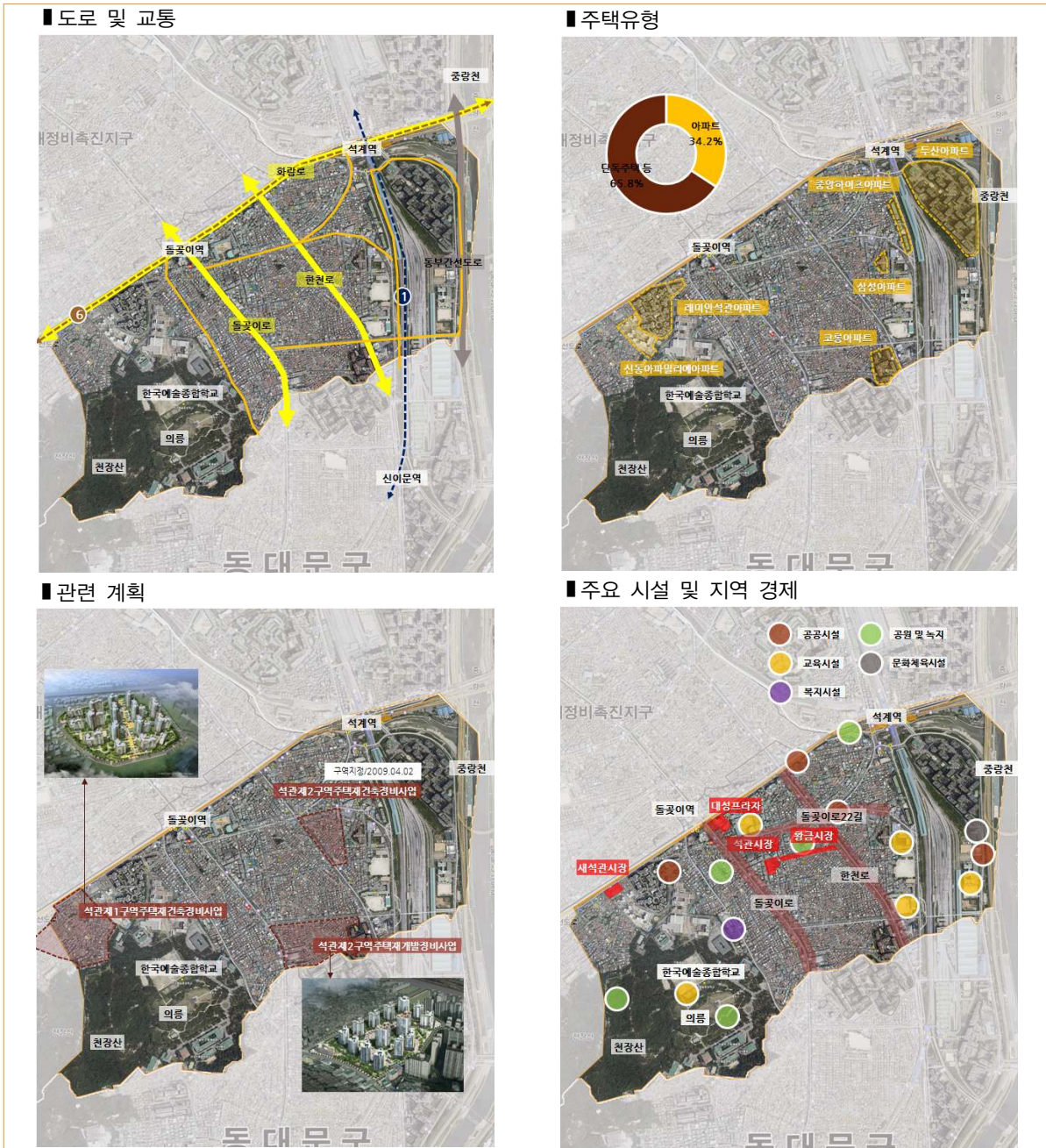
- 아파트가 3,540호, 단독주택이 4,425호, 다세대(연립)주택이 2,383호로,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이 전체 주택의 65.8%임
- 주로 간선도로나 생활가로변의 주택은 1층을 상가로 개조하거나, 근린주택으로 조성한 경우가 많음. 단독은 대체로 건축연도가 15~40여년을 경과한 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의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
- 북동측 한천로와 화랑로를 접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신축 10년 이내의 다세대주택이 위치함
- 북서측 화랑로에 접하고 있는 신동아, 삼성아파트와 북동측 및 남동측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두산아파트(2,000세대 이상), 코오롱아파트가 있고 모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임



■ 관련 계획

-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1곳,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2곳임
- 석관제2구역(재개발)은 2012년 2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상태인데,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40% 이상의 반대 동의를 이루어드는 등 갈등이 심함
- 석관제1구역(재건축)은 2011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석관제2구역(재건축)은 2009년4월

구역지정되었으나 아직 추진위원회만 활동하고 있는 상태임



[그림 3-22] 석관동의 물리적 현황

■ 주요 시설

- 공공시설 : 석관동 주민센터, 재활용집하장, 석관1, 2치안센터
- 교육시설 : 석관초등학교, 석관중학교, 석관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 복지시설 : 석관실버복지센터가 유일함
- 문화체육시설 : 성북종합레포츠센터가 있으나 동측 끝 국철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주민을 제외한 석관동 주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위치임. 그 외는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함(학교운동장이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 공원 및 녹지 : 북동측 경계에 셋별상상어린이공원과 남서측 경계에 돌피어린이공원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이공원이 없음. 석관마을마당, 돌곶이공원 2개소가 단지 중앙부의 부족한 녹지 및 주민 휴식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조선 제20대왕 경종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 어씨(宣懿王后魚氏)의 능인 의릉 (11만여평)이 단지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어(사적 204호) 녹지 및 공원 기능 실질적으로 병행

■ 지역 경제

- 화랑로변은 내부순환로 등의 영향으로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비교적 활발하지 않은 편임
- 돌곶이로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한 소매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돌곶이로22길과 8길, 한천로78길 등은 생활권역의 서비스 제공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돌곶이로 양측으로 3~10층 내외의 근린시설과 대형상가가 집중되어 있고, 돌곶이로22길과 8길, 한천로78길 등은 양측으로 2~3층 내외의 근린주택(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음
- 황금시장과 석관시장 등 일부 전통시장의 상가 기능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새석관시장은 재건축 추진 등으로 보수유지가 장기간 되지 않아 쇠퇴되어 있음

■ 인구 구성 및 취약계층 분포

- 석관동의 인구는 38,373명으로 남성 19,394명, 여성 18,97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석관동의 취약계층은 총 3,298가구(4,252명)로 기초생활수급자 516가구(808명), 한부모 125가구(316명), 기초노령연금 1,991가구(2,409명), 틈새 26가구(37명), 장애인 401가구(411명), 결식아동 180가구(180명), 차상위 의료특례 59가구(91명)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적경제 자원

- 석관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재활용 쓰레기를 재선별 하는 회사로 '(주)영주자원'이 있음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석관황금시장상인회'는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석관 황금시장 안내 게이트 설치>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 사업은 석관황금시장의 특성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특화된 시장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석관황금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과 고객의 가치를 높이며,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된 사업 내용은 안내판 설치, 문화 및 할인 행사 전단지 배포, 시장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사진대회 개최, 할인쿠폰 발급 등이 있음

(2) 주민인터뷰 결과

- 조사개요 : 2012년 8월 6일부터 20일까지 석관동장을 비롯하여 부녀회장, 석관시장 대표, 주민 자치위원, 석관동 도당재 운영 주민, 석관동 산악회 회장 등 5인의 석관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석관동 주민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88] 석관동 주민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마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없음, 여전히 낙후됨 • 도당재 축소, 주민응집력이 약해짐
	자랑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집값 등이 저렴해 저소득층 서민들이 살기 좋음 • 1호선(석계, 이문역 등)과 6호선(석계역) 등 교통이 편리함 • 의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음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문로 등의 옛날 도로 확장 • 연탄장이 있어 연탄가루가 많이 날림 • 석관동은 제외되었다는 인식이 강함, 제약이 너무 많음 • 기반시설 부족(교육, 복지, 문화시설 매우 취약)
공간	생활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거의 없음 • 돌곳이 학교(다문화가족 대상) • 성북종합레포츠타운
	모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의릉(어르신들)
공동체	공동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박이가 많아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고 있음, 애착심이 강함 • 인구가 많음(성북구에서 두 번째임) • 주민들끼리 단결이 잘됨 • 이웃 간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의 전통사회 문화가 남아있음
	주민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타운 찬반 갈등이 있었음(뉴타운 무산됨)
	자발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곳이 향우회, 천석회(지역상인모임) • 산악회, 체육회, 조기축구회 • 돌곳이 중앙회(석우회, 석신회, 동우회, 마루들, 석친회, 구일회, 동심회, 돌부리회, 뿌리회, 석청회, 석영회, 석지회, 석돈회 등)
마을만들기	희망하는 마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같이 잘 사는 마을 • 개발 후에도 원주민이 정착하여 사는 마을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을 통해 정비된 마을 •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마을만들기 참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활성화(시장 정비사업 등) • 도당재 유지보존
	마을만들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일자리와 재정이 필요함 • 지역 발전 및 인구 증가 • 낙후지역 개선 • 동네상권 활성화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에 대해 처음 알게 됨 • 주민행사 등에 참여, 활동에 대한 홍보 •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및 전달

(3) 석관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 주민설명회 개요 : 2012년 9월 21일(금) 오후 5시, 26명
- 석관동의 자랑거리로는 편리한 교통(13), 중랑천, 천장산이 있어 산책하기 좋음(11), 전통시장이 있어 물가가 저렴함(10), 이웃 간 소통이 잘 됨(7) 순으로 많음
- 개선사항으로는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차(11), 쓰레기 투기 및 청소 불량(9), 소방도로 미확보(4),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쇠퇴(3) 순으로 많음

[표 3-89] 석관동의 자랑거리와 개선사항

구분	내용
자랑거리	- 물가가 저렴해서 서민들 살기 좋음 (6)/ 전통시장이 있어 좋음 (4)/ 마트가 있어 좋음/ 교통이 편리함 (13)
	- 살기 좋고 마음 좋고 편함 (2)/이웃 간 관심이 많아 홀로 외로운 분들이 없는 것 같음
	- 이웃 간 소통이 잘 됨 (4)/ 이웃이 좋음, 서로 인사하고 삼 (2)/ 휴식공간이 있어 좋음/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동네를 위해 매일 골목청소, 하수도 관리를 하고 계심
개선사항	- 중랑천변 운동시설 등이 있어 여가를 즐길 수 있음 (2)/ 운동하기 편함 (2)/ 의릉이 있어서 좋음 (3)
	- 예술종합대학이 있어서 좋음 (2)/ 천장산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고 공기가 깨끗함 (6)
	- 재건축 신속 해결 요망/ 집값 하락, 재건축 신속 진행 원함/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노후함 (2)
개선사항	- 문화시설 낙후/ 전통시장이 너무 낡아서 위험함/ 시장 내에 마트가 없음
	- 술집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음/ 좁은 골목길 문제, 소방도로 부족 (4)
	- 주차 공간 부족 (8)/ 주말에 주차 질서가 잘 안 됨/ 심야주차 8시 이후엔 주차단속 하지 말길 (2)

- 골목길 쓰레기 문제 (3)/ 청소를 잘못함, 골목이 지저분함 (6)/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비가 오면 불편함
- 의릉으로 인한 건축제한이 나쁨/ 고가가 통과해서 나쁨/ 서로 인사가 없음/ 길거리 흡연 문제
- 저소득층이 많아 도움이 필요함/ 하수도 역류 피해/ 녹지 부족/ 편의시설 부족/ 공공근로자 부족
- 전통시장 공중 화장실 필요/ 전통시장에 주민 휴식 공간이 없음/ 좀도둑이 많음, CCTV 설치 요망 (2)
-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목욕탕 필요/ 사람들끼리 따뜻한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길 소망

(4) 마을사업 제안

- 석관동 마을사업 예시안으로 <황금석관시장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방시설 설치>를 제안함

[표 3-90] 석관동 마을사업 예시 1안

구분	내용
사업명	- 황금석관시장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유형	- 시설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요구사항	- 전통시장이 너무 낡아서 위험함 - 전통시장 공중 화장실 필요, 전통시장에 주민 휴식 공간이 없음 - 전통시장 활성화(시장 정비사업 등) 필요
마을 현황	- 석관동 279-7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2006년 11월 13일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됨 - 대지면적 3,630㎡, 건축 연면적 6,09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마을 자원	- 전통시장이 있어서 좋다고 응답한 주민 다수 존재 - 물가, 집값 등이 저렴해 저소득층 서민들이 살기 좋음 - 1호선(석계, 이문역 등)과 6호선(석계역) 등 교통이 편리함 - 토박이가 많아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고 있음, 애항심이 강함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빈 점포의 매입 혹은 임대를 통한 주민편의시설(화장실, 휴게실, 회의실 등) 마련 - 맞춤형 매대 제작, 아케이드 설치를 통한 개별 판매대의 돌출과 파리솔 등의 무분별한 설치 문제를 해결 - 시장 내 자투리 공간, 인접 공원을 활용을 통한 휴식 공간 조성 - 토요일터, 벼룩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타지역 고객 유치 효과
협력부서	- 시장관리과, 도시디자인과

[표 3-91] 석관동 마을사업 예시 2안

구분	내용
사업명	- 소방시설 설치
사업유형	- 시설 조성
요구사항	- 좁은 골목길 문제, 소방도로 부족 - 도로 주차 문제 - 이문로 등의 옛날 도로 확장 필요
마을 현황	- 재개발, 재건축 찬반 갈등이 심함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비율이 65.8%로 높은 편 -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노후함
마을 자원	-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동네를 위해 매일 공목청소, 하수도 관리를 하고 계심 - 돌곶이 향우회 등 자발적 모임 다수 존재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	- 화재취약지역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예방 캠페인 행사 - 노인인력 활용 혹은 자발적 모임과의 연계를 통해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 계획 수립 - 지역 조사를 통해 도로 폭 확장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 소방도로 확충
효과	- 화재 예방 - 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노인 일자리 창출
협력부서	- 도로시설과, 소방서

제4장

성북구 마을만들기 수요와 과제

1. 설문조사
2. 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



제4장

성북구 마을만들기 수요와 과제

1.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는 2013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성북구 내 20개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였음.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원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수강하는 주민에게 설문지 작성을 요청한 뒤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표 4-1] 설문조사 개요

단위 : 부, %

구분	조사동		거주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북동	100	5.0	188	9.4
삼선동	102	5.1	111	5.5
동선동	106	5.3	76	3.8
돈암1동	100	5.0	108	5.4
돈암2동	100	5.0	96	4.8
안암동	101	5.0	102	5.1
보문동	97	4.8	65	3.2
정릉1동	100	5.0	59	2.9
정릉2동	100	5.0	140	7.0
정릉3동	100	5.0	104	5.2
정릉4동	100	5.0	74	3.7
길음1동	100	5.0	91	4.5
길음2동	100	5.0	113	5.6
종암동	100	5.0	94	4.7
월곡1동	100	5.0	99	4.9
월곡2동	100	5.0	119	5.9
장위1동	100	5.0	94	4.7
장위2동	100	5.0	59	2.9
장위3동	100	5.0	96	4.8
석관동	101	5.0	119	5.9
합계	2,007	100.0	2,007	100.0

2)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 성별, 연령 및 고용상태

- 성별은 남성 31.8%, 여성 68.2%임
- 연령별로는 40~50대가 47.7%로 가장 많고, 20~30대(31.7%), 60대 이상(20.6%) 순임
- 고용상태별로는 주부가 40.1%로 가장 많고, 상용직근로자(16.1%), 자영업자(12.6%), 학생(9.2%) 순임. 성별 고용상태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상용직 근로자(25.0%), 자영업자(24.4%), 학생(14.7%) 순임. 여성은 주부(58.6%), 상용직 근로자(12.0%) 순임. 연령별 고용상태 비율을 살펴보면, 20~30대는 학생(28.3%), 상용직 근로자(27.5%), 주부(17.7%) 순임. 40~50대는 주부(51.7%), 자영업자(16.4%), 상용직 근로자(14.2%) 순이고, 60대 이상은 주부(47.7%), 연로자(만 65세 이상 무직)(24.0%), 자영업자(10.9%) 순임

[표 4-2] 성별, 연령 및 고용상태

단위 : 명, %

구분	성별		구분	고용상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성	639	31.8	상용직근로자	324	16.1
여성	1,368	68.2	임시직근로자	84	4.2
합계	2,007	100.0	일용직근로자	42	2.1
구분	연령		구분	고용상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대	312	15.5	자활·공공근로	53	2.6
30대	325	16.2	자영업자	253	12.6
40대	398	19.8	실업자	76	3.8
50대	559	27.9	주부	805	40.1
60대 이상	413	20.6	학생	185	9.2
합계	2,007	100.0	연로자(만 65세 이상 무직)	105	5.2
			기타	80	4.0
			합계	2,007	100.0

■ 주택유형 및 주택점유형태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61.8%,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38.2%임
-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55.1%, 임차 44.9%임

[표 4-3] 주택유형 및 주택점유형태

단위 : 명, %

구분	주택유형		구분	주택점유형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아파트	767	38.2	자가	1,105	55.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	1,240	61.8	임차	901	44.9
합계	2,007	100.0	합계	2,006	100.0

■ 거주기간

- 성북구 거주기간은 평균 16.6년이며, 거주동 거주기간은 평균 13.4년임. 성북구 거주기간과 거주동 거주기간이 같은 경우는 71.9%로 10명 중 약 7명은 성북구 내 같은 동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성북구 거주기간은 15년 초과가 42.5%로 가장 많고, 5년 초과 15년 이하(31.0%), 5년 이하(26.5%)의 순임. 거주동 거주기간은 5년 이하가 35.6%로 가장 많고, 5년 초과 15년 이하(32.4%), 15년 초과(31.9%)의 순임

[표 4-4] 거주기간

단위 : 명, %

구분	성북구 거주기간		구분	거주동 거주기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년 이하	531	26.5	5년 이하	711	35.6
5년 초과 15년 이하	622	31.0	5년 초과 15년 이하	647	32.4
15년 초과	851	42.5	15년 초과	637	31.9
합계	2,004	100.0	합계	1,995	100.0
평균(년)	16.6		평균(년)	13.4	
중위수(년)	13		중위수(년)	10	
최소값/최대값(년)	1/70		최소값/최대값(년)	1/70	

(2) 거주이유 및 향후 거주의사

■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거주하는 이유

-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거주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살아와서가 2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직장이 가까워서 16.2%, 교통이 편리해서가 15.2%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30대는 직장이 가까워서가 25.1%로 가장 많고, 40~50대와 60대 이상은 오랫동안 살아와서가 각각 22.9%와 34.1%로 가장 많음
- 거주기간별로는 거주동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연환경이 좋아서, 이웃관계가 좋아서, 오랫동안 살아와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지고, 거주동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주거비가 저렴해서, 직장이 가까워서, 자녀 교육 때문이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짐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직장이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해서, 자녀 교육 때문에, 자연환경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은 주거비가 저렴해서, 친척이나 친구가 가까이 있어서, 개발가능성 때문에, 이웃관계가 좋아서, 오랫동안 살아와서, 이사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거주동별로는 돈암1동은 교통이 편리해서(38.9%), 보문동은 직장이 가까워서(27.7%), 장위2동은 이사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16.9%)가 20개동에서 가장 높음. 정릉1·2·3·4동은 다른 동에 비해 자연환경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임³⁾

3) 거주동별 분석 결과는 별도의 표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하 거주동별 분석도 동일함

[표 4-5]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거주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연령			거주동 거주기간			주택유형		합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아파트	단독 등	
주거비가 저렴해서	9.4	8.9	7.0	12.2	8.0	5.5	7.3	9.5	8.7
직장이 가까워서	25.1	15.4	4.4	28.3	12.5	6.4	17.2	15.6	16.2
교통이 편리해서	11.8	16.2	18.2	15.6	18.2	11.9	20.7	11.8	15.3
자녀 교육 때문에	3.0	7.8	2.4	6.0	5.3	4.2	7.6	3.7	5.2
자연환경이 좋아서	3.0	8.2	12.6	5.5	7.0	10.0	8.2	6.9	7.4
친척·친구가 가까이 있어서	11.5	7.1	4.4	10.5	8.0	5.0	7.6	8.1	8.0
개발가능성 때문에	2.0	2.3	1.7	2.3	3.6	0.5	1.6	2.4	2.1
이웃관계가 좋아서	0.9	3.0	6.5	1.8	2.0	5.5	2.3	3.5	3.1
오랫동안 살아와서	21.8	22.9	34.1	7.7	24.7	43.5	21.8	26.8	24.7
이사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5.8	7.6	8.0	5.3	9.3	7.1	4.4	8.8	7.2
기타	5.7	0.6	0.7	4.6	1.4	0.3	1.3	2.8	2.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향후 거주 의사

-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72.8%로, 10명 중 7명 이상은 성북구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며, 성북구 내 다른 동으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 비율은 20~30대가 15.4%로 가장 높음
- 거주기간별로는 거주동 거주기간이 길수록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
- 거주동별로는 정릉1동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86.4%로 20개동 중 가장 높고, 장위1동이 58.5%로 가장 낮음

[표 4-6] 앞으로도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

단위 : %

구분	연령			거주동 거주기간			주택유형		합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아파트	단독 등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다	61.7	74.8	86.0	64.8	72.2	82.2	73.0	72.9	72.9
성북구 내 다른 동으로 이주하고 싶다	15.4	10.2	5.8	13.8	11.9	6.9	9.4	11.9	11.0
성북구가 아닌 서울시 다른 구로 이주하고 싶다	17.0	9.0	3.4	14.2	9.9	6.8	12.5	9.0	10.4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	6.0	6.1	4.8	7.2	6.0	4.1	5.1	6.2	5.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참여 의사

■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인지 여부

-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임.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 설치·운영(30.0%),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26.1%),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실시(24.7%),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운영(24.3%) 순으로 나타나며, 모든 항목에서 30.0% 이하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40~50대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30대가 가장 낮음
- 거주기간별로는 성북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에 비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더 많이 알고 있음
- 거주동별로는 월곡2동(조례 63.9%, 지원센터 68.9%, 공모사업 69.7%, 도시아카데미 55.5%)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종암동(조례 7.4%, 지원센터 20.2%, 공모사업 9.6%, 도시아카데미 8.5%)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가장 낮음

[표 4-7]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연령			성북구 거주기간			주택유형		합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아파트	단독 등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14.8	32.6	28.3	17.3	23.3	33.6	23.3	27.7	26.1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18.8	36.5	32.4	20.0	28.6	37.5	27.6	31.5	30.0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실시	18.2	29.2	24.2	18.3	22.3	30.4	23.1	25.6	24.7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운영	16.0	29.2	25.9	16.2	24.1	29.6	23.3	24.9	24.3

* 비율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 성북구가 발전하는 데 마을만들기 필요성 여부

- 거의 대부분의 주민(95.0%)이 성북구가 발전하는 데 마을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별, 거주기간별,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거의 없음
- 거주동별로는 석관동이 99.2%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개동 중 가장 높고, 장위2동이 86.4%로 가장 낮음

[표 4-8] 성북구가 발전하는 데 마을만들기 필요성 여부

단위 : %

구분	연령			성북구 거주기간			주택유형		합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아파트	단독 등	
필요하다	94.7	95.4	94.4	94.7	95.2	95.1	96.1	94.3	95.0
필요하지 않다	5.3	4.6	5.6	5.3	4.8	4.9	3.9	5.7	5.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할 의사

- 마을만들기 활동 중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마을축제 및 마을장터가 75.2%로 가장 많고,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강좌(53.1%), 마을만들기 관련 자원봉사활동(52.3%), 정기적 마을회의 및 소모임(39.3%),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37.6%) 순으로 나타남.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하거나 참여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참여 의사가 낮은 편이고, 일시적이고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는 높은 편임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하지만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20~30대의 경우도 마을축제 및 마을장터, 마을만들기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는 비교적 높은 편임
- 거주기간 및 주택유형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다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이나 정기적 마을회의 및 소모임에 대한 참여 의사는 거주기간이 길거나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남
- 거주동별로는 월곡2동이 5개 모든 항목에 대해 20개동 중 참여 의사가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길음1·2동의 참여 의사가 낮은 편임

[표 4-9]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할 의사

단위 : %

구분	연령			성북구 거주기간			주택유형		합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아파트	단독 등	
마을만들기관련 교육 강좌	38.1	59.8	60.8	50.3	52.4	55.5	52.9	53.2	53.1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	27.2	40.6	46.8	31.5	38.7	40.7	33.0	40.5	37.6
정기적 마을회의 및 소모임	23.4	43.8	53.5	32.8	36.5	45.5	37.2	40.6	39.3
마을축제 및 마을장터	71.1	76.7	78.2	74.4	75.2	75.9	75.4	75.2	75.2
마을만들기 관련 자원봉사활동	50.4	53.8	51.8	52.5	52.7	51.9	52.9	51.9	52.3

※ 비율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4) 마을만들기 활동내용과 활성화 방안

■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재생의 중요도

- 마을만들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문별 재생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물리적 재생(3.26점), 경제적 재생(3.30점), 사회적 재생(3.26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함
- 연령별, 거주기간별, 주택유형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거주동별로는 물리적 재생과 관련해서는 장위2동이 3.44점으로 20개동 중 가장 높고, 정릉2동이 2.96점으로 가장 낮음. 경제적 재생과 사회적 재생은 정릉1동에서 각각 3.55점과 3.54점으로 20개동 중 가장 높으며, 장위1동이 3.11점과 2.91점으로 가장 낮음

[표 4-10]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재생의 중요도

단위 : 점

구분	연령			성북구 거주기간			주택유형		합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아파트	단독 등	
물리적 재생 :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3.28	3.29	3.15	3.25	3.27	3.25	3.26	3.25	3.26
경제적 재생 :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3.29	3.33	3.27	3.27	3.31	3.32	3.30	3.30	3.30
사회적 재생 :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3.30	3.27	3.18	3.31	3.23	3.26	3.28	3.25	3.26

※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2점: 중요하지 않음, 3점: 중요함, 4점: 매우 중요함

■ 물리적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내용

- 물리적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내용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기반시설 우선 정비가 3.24점으로 가장 높고, 유희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공동시설 마련(3.23점), 주민참여에 의한 종합적인 마을계획 수립(3.15점)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이나 거주기간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40~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물리적 재생과 관련한 모든 항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편임
- 주거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이 아파트에 비해 물리적 재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 개량 및 소규모 공동 신축 지원을 통한 점진적 정비가 3.18점으로 아파트(3.09점)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11] 물리적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내용

단위 : 점

구분	연령			성북구 거주기간			주택유형		합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아파트	단독 등	
실태조사를 통한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방식 결정	3.08	3.14	3.00	3.07	3.11	3.09	3.08	3.10	3.09
주민참여에 의한 종합적인 마을계획 수립	3.17	3.16	3.09	3.17	3.14	3.14	3.14	3.15	3.15
역사·문화·자연 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마을 조성	3.12	3.16	3.06	3.11	3.13	3.14	3.15	3.11	3.13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기반시설 우선 정비	3.27	3.24	3.20	3.25	3.22	3.26	3.24	3.24	3.24
주택 개량 및 소규모 공동 신축 지원을 통한 점진적 정비	3.12	3.17	3.12	3.12	3.10	3.19	3.09	3.18	3.14
현목 개보수 및 골목 정비를 통한 도시형한옥 보존	3.08	3.11	3.01	3.07	3.08	3.09	3.06	3.09	3.08
유희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공동시설 마련	3.22	3.24	3.21	3.24	3.20	3.24	3.22	3.23	3.23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지킴이 마을 조성	3.04	3.17	3.12	3.08	3.11	3.15	3.12	3.12	3.12

※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 2점: 필요하지 않음, 3점: 필요함, 4점: 매우 필요함

■ 경제적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내용

- 경제적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내용은 지역 기업(사회적기업 포함)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3.30점으로 가장 높고, 전통시장 및 작은 가게 등 골목상권 활성화(3.21점),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3.17점)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재생과 관련한 모든 항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높음
- 거주기간별로는 성북구 거주기간이 길수록 전통시장 및 작은 가게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 기업(사회적기업 포함)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영세자영업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상설창구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강하며, 주민이 출자하는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의 필요성은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더 높게 나타남
- 주거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이 아파트에 비해 전통시장 및 작은 가게 등 골목상권 활성화, 마을 및 주민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주민이 출자하는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영세자영업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상설창구 운영과 관련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에 비해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표 4-12] 경제적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내용

단위 : 점

구분	연령			성북구 거주기간			주택유형		합계
	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아파트	단독 등	
전통시장 및 작은 가게 등 골목상권 활성화	3.17	3.24	3.23	3.17	3.20	3.26	3.19	3.23	3.21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3.14	3.21	3.12	3.15	3.18	3.18	3.18	3.16	3.17
지역 기업(사회적기업 포함)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3.29	3.32	3.29	3.24	3.31	3.34	3.30	3.31	3.30
마을 및 주민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3.10	3.13	3.09	3.11	3.13	3.11	3.10	3.12	3.11
주민이 출자하는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2.96	2.98	2.95	2.99	2.96	2.95	2.92	2.99	2.97
지역 기업의 지역사회 이익 환원 및 사회공헌 활성화	3.12	3.17	3.08	3.15	3.10	3.16	3.14	3.14	3.14
영세지역업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상설창구 운영	3.07	3.20	3.16	3.11	3.12	3.21	3.11	3.18	3.15

※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 2점: 필요하지 않음, 3점: 필요함, 4점: 매우 필요함

■ 사회적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내용

- 사회적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내용은 품앗이를 통한 돌봄·육아·복지 프로그램 활성화가 3.24점으로 가장 높고,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등 세대 간 통합 지원(3.20점), 마을 기반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3.19점)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50대가 사회적 재생과 관련한 모든 항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더 큰 편인데, 품앗이를 통한 돌봄·육아·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마을 기반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의 경우 연령이 낮아질수록 점수가 더 높아짐
- 거주기간별로는 성북구 거주기간이 길수록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등 세대간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북구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품앗이를 통한 돌봄·육아·복지 프로그램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있음

[표 4-13] 사회적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내용

단위 : 점

구분	연령			성북구 거주기간			주택유형		합계
	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아파트	단독 등	
주민대표모임의 구성 및 안정적 운영 지원	2.94	2.99	2.93	2.99	2.95	2.95	2.96	2.96	2.96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3.04	3.06	3.02	3.10	3.03	3.02	3.05	3.04	3.05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의제 발굴 및 실천 지원	3.03	3.05	3.01	3.07	3.02	3.02	3.04	3.03	3.03
마을협정 등을 통한 자발적 마을 운영 활성화	3.00	3.04	3.03	3.04	3.01	3.03	3.01	3.04	3.03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등 세대간 통합 지원	3.18	3.21	3.21	3.19	3.20	3.22	3.18	3.22	3.20
품앗이를 통한 돌봄·육아·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3.30	3.23	3.15	3.27	3.25	3.21	3.23	3.24	3.24
마을 기반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3.21	3.19	3.16	3.21	3.19	3.19	3.18	3.20	3.19

※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 2점: 필요하지 않음, 3점: 필요함, 4점: 매우 필요함

■ 성북구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북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 성북구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북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다중응답을 기준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홍보 및 맞춤형 교육 실시가 41.5%로 가장 많았고, 주민 간 소

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모임 활동 지원(36.1%),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마을만들기 기금 조성(27.9%)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홍보 및 맞춤형 교육 실시를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규모 마을 단위 주민 리더 발굴 및 양성과 마을을 기반으로 한 공동협체 구성 및 운영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유형별 시범마을 선정 및 지원을 통한 모델 개발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마을만들기 기금 조성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짐
- 거주기간별로는 성북구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유형별 시범마을 선정 및 지원을 통한 모델 개발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짐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에 비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홍보 및 맞춤형 교육 실시, 주민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모임 활동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은 아파트에 비해 소규모 마을 단위 주민 리더 발굴 및 양성, 마을 지원을 위한 마을활동가 육성 및 파견, 마을특성을 고려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속 추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마을만들기 기금 조성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
- 거주동별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마을만들기 기금 조성은 장위2동(21.2%)이 20개동 중 가장 높고, 주민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모임 활동 지원은 길음1동(24.4%)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홍보 및 맞춤형 교육 실시는 길음2동(27.4%)이 가장 높음

[표 4-14] 성북구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북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단위 : %

구분	연령			성북구 거주기간			주택유형		합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아파트	단독 등	
마을만들기에 대한 홍보 및 맞춤형 교육 실시	18.4	22.0	21.8	19.8	19.1	22.7	21.2	20.6	41.5
소규모 마을 단위 주민 리더 발굴 및 양성	5.7	6.7	7.8	4.6	8.1	6.8	6.4	6.8	13.2
주민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모임 활동 지원	17.2	18.4	18.7	18.4	17.9	17.9	19.9	17.0	36.1
마을을 기반으로 한 공동협체 구성 및 운영 지원	10.4	10.7	11.5	11.3	10.5	10.5	10.7	10.8	21.5
유형별 시범마을 선정 및 지원을 통한 모델 개발	13.4	9.7	7.3	12.0	11.3	8.8	10.6	10.3	20.7
마을 지원을 위한 마을활동가 육성 및 파견	6.4	6.4	6.4	6.0	7.5	5.9	5.5	6.9	12.8
마을특성을 고려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속 추진	12.9	11.1	12.1	11.5	12.2	11.9	11.2	12.4	23.8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마을만들기 기금 조성	14.4	14.1	13.0	14.4	12.9	14.5	13.6	14.2	27.9
기타	1.1	0.9	1.5	1.9	0.6	0.9	0.9	1.2	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수	1,267	1,912	825	1,058	1,242	1,699	1,527	2,477	4,004

※ 다중응답, 비율은 응답수를 기준으로 함

(4) 마을만들기 과제와 희망하는 마을상

■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에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에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중응답을 기준으로 CCTV, 보안등 등 치안 및 방범시설 설치가 20.8%로 가장 많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깨끗한 골목환경 유지(20.7%), 노후주택 개량 지원 및 방치된 공가 정비(16.4%)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깨끗한 골목환경 유지(21.4%, 24.2%)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20~30대는 CCTV, 보안등 등 치안 및 방법시설 설치(24.7%)를 가장 많이 선택함.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주택 개량 지원 및 방치된 공가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깨끗한 골목환경 유지, 공용주차장 설치 및 골목길 불법 주차 단속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짐. 반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CCTV, 보안등 등 치안 및 방법시설 설치, 동네공방,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문화여가시설 확충, 쌈지공원, 놀이터, 휴게공간 등 소규모 쉼터 설치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짐
- 거주기간별로는 거주동 거주기간이 길수록 노후주택 개량 지원 및 방치된 공가 정비, 주민교류를 위한 다목적 주민사랑방 설치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지고, 거주동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쌈지공원, 놀이터, 휴게공간 등 소규모 쉼터 설치, 동네공방,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문화여가시설 확충, 산과 하천 등 자연자원 및 성곽과 문화재 등 역사자원 유지·관리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짐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쌈지공원, 놀이터, 휴게공간 등 소규모 쉼터 설치, 산과 하천 등 자연자원 및 성곽과 문화재 등 역사자원 유지·관리, 주민교류를 위한 다목적 주민사랑방 설치, 동네공방,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문화여가시설 확충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은 노후주택 개량 지원 및 방치된 공가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깨끗한 골목환경 유지, CCTV, 보안등 등 치안 및 방법시설 설치를 선택한 비율이 높음
- 거주동별로는 20개동 대부분이 노후주택 개량 지원 및 방치된 공가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깨끗한 골목환경 유지, CCTV, 보안등 등 치안 및 방법시설 설치를 선택한 비율이 높음. 장위2동은 노후주택 개량 지원 및 방치된 공가 정비를 선택한 비율(26.3%)이, 월곡2동은 CCTV, 보안등 등 치안 및 방법시설 설치를 선택한 비율(28.2%)이, 종암동은 동네공방,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문화여가시설 확충을 선택한 비율(28.2%)이 20개동 중 가장 높음

[표 4-15]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에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단위 : %

구분	연령			거주동 거주기간			주택유형		합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아파트	단독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및 방치된 공가 정비	11.3	17.8	20.8	13.8	15.4	20.1	13.2	18.3	16.4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깨끗한 골목환경 유지	17.4	21.4	24.2	19.3	22.0	21.0	18.3	22.2	20.7
옥상녹화, 벽화그리기, 꽃길조성 등 골목경관 개선	5.9	3.1	4.0	4.0	3.9	4.5	3.7	4.4	4.2
공용주차장 설치 및 골목길 불법 주차 단속 강화	7.4	9.5	13.1	8.1	10.6	10.1	9.3	9.7	9.6
쌈지공원, 놀이터, 휴게공간 등 소규모 쉼터 설치	10.2	8.4	7.5	10.0	8.4	7.8	10.6	7.7	8.8
CCTV, 보안등 등 치안 및 방법시설 설치	24.7	20.7	15.2	21.0	21.4	20.3	19.8	21.5	20.8
산과 하천 등 자연자원 및 성곽과 문화재 등 역사자원 유지·관리	5.9	5.0	4.2	6.5	5.0	3.8	6.3	4.4	5.1
주민교류를 위한 다목적 주민사랑방 설치	3.6	4.4	5.8	3.6	4.6	5.3	5.9	3.5	4.4
동네공방,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문화여가시설 확충	12.7	9.4	4.2	13.1	8.1	6.6	12.1	7.7	9.4
기타	0.9	0.4	0.8	0.8	0.5	0.5	0.7	0.6	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수	1,273	1,913	825	1,422	1,292	1,274	1,533	2,478	4,011

* 다중응답, 비율은 응답수를 기준으로 함

■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에서 공동체 형성 및 복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에서 공동체 형성 및 복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중응답을 기준으로 맞춤형 교육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21.4%로 가장 많고, 베틀시장, 녹색장터, 나눔장터 등 마을장터 정기 개최(20.6%),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19.2%)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사회 등 정기적인 마을회의 개최, 주민 간 갈등 조정 및 화합을 위한 전문가 파견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맞춤형 교육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짐
- 거주기간별로는 거주동 거주기간이 길수록 반사회 등 정기적인 마을회의 개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지고, 거주동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베틀시장, 녹색장터, 나눔장터 등 마을장터 정기 개최,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등 주민소통장치 설치 및 운영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짐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맞춤형 교육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선택한 비율이 높고,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은 반사회 등 정기적인 마을회의 개최,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
- 거주동별로는 20개 모든 동에서 맞춤형 교육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베틀시장, 녹색장터, 나눔장터 등 마을장터 정기 개최,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을 선택한 비율 높음. 길음1동은 맞춤형 교육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선택한 비율이 28.6%로 20개동 중 가장 높은 반면,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13.7%로 20개동 중 가장 낮음. 월곡2동과 장위1동은 다른 동과 달리 반사회 등 정기적인 마을회의 개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정릉1동은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28.0%로 20개동 중 가장 높음

[표 4-16]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에서 공동체 형성 및 복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단위 : %

구분	연령			거주동 거주기간			주택유형		합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아파트	단독 등	
반사회 등 정기적인 마을회의 개최	5.0	12.7	15.9	8.5	10.7	13.7	9.7	11.6	10.9
맞춤형 교육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23.3	21.2	19.0	22.3	23.9	18.0	25.1	19.2	21.4
베틀시장 녹색장터 나눔장터 등 마을장터 정기 개최	23.3	19.4	19.5	23.0	20.1	18.6	20.0	21.0	20.6
이웃간 교류를 위한 마을잔치 및 마을축제 개최	13.0	12.4	14.7	11.6	14.5	13.4	13.3	13.0	13.1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등 주민소통장치 설치 및 운영	6.0	7.0	5.5	6.6	6.3	6.2	6.5	6.3	6.3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22.2	18.6	16.0	19.6	18.0	19.8	17.4	20.3	19.2
주민 간 갈등 조정 및 화합을 위한 전문가 파견	7.1	8.4	9.1	7.8	6.4	10.1	7.8	8.3	8.1
기타	0.3	0.4	0.4	0.6	0.2	0.2	0.3	0.4	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수	1,272	1,912	825	1,419	1,294	1,273	1,532	2,477	4,009

※ 다중응답. 비율은 응답수를 기준으로 함

■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이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

-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이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다중응답을 기준으로 치안이 잘 되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이 21.9%로 가장 많고,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19.1%), 문화·여가시설 확보로 삶의 질이 높은 마을(14.5%)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참여하는 활력 있는 마을, 나눔문

- 화와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을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짐. 연령이 낮아질수록 치안이 잘되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문화·여가시설 확보로 삶의 질이 높은 마을,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보호·활용하여 발전하는 마을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짐
- 거주기간별로는 거주동 거주기간이 길수록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참여하는 활력 있는 마을, 나눔문화와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을,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짐. 거주동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문화·여가시설 확보로 삶의 질이 높은 마을, 치안이 잘되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보호·활용하여 발전하는 마을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짐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치안이 잘되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 소규모 공동체가 많고 소통이 활발한 마을, 방문객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마을을 선택한 비율이 높고,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참여하는 활력 있는 마을,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
 - 거주동별로는 정릉1동과 월곡2동을 제외한 18개동에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고, 두 번째로 치안이 잘되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의 선택비율이 높음. 세 번째로 선택 비율이 높은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성북동, 삼선동, 돈암1동, 보문동, 정릉4동은 나눔문화와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을을, 동선동, 돈암2동, 안암동, 정릉2동, 정릉3동, 길음2동, 월곡2동, 석관동은 문화·여가시설 확보로 삶의 질이 높은 마을을, 길음1동,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참여하는 활력 있는 마을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

[표 4-17]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이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

단위 : %

구분	연령			거주동 거주기간			주택유형		합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아파트	단독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참여하는 활력 있는 마을	9.7	13.3	18.7	11.4	13.2	15.3	12.4	13.8	13.2
나눔문화와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을	11.6	14.0	14.8	12.4	13.9	14.0	13.4	13.4	13.4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	18.4	20.1	17.8	18.8	19.1	19.5	17.1	20.4	19.1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보호·활용하여 발전하는 마을	8.0	7.6	5.8	7.9	7.6	6.6	7.5	7.3	7.4
치안이 잘되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	24.6	20.8	20.1	22.5	22.0	21.0	22.4	21.5	21.9
소규모 공동체가 많고 소통이 활발한 마을	5.1	4.0	7.2	4.9	5.1	5.0	5.5	4.7	5.0
방문객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마을	5.0	5.4	5.1	5.4	5.2	5.1	4.4	5.8	5.2
문화·여가시설 확보로 삶의 질이 높은 마을	17.3	14.5	10.1	16.4	13.7	13.3	17.3	12.8	14.5
기타	0.2	0.3	0.5	0.4	0.2	0.3	0.2	0.4	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수	1,274	1,914	825	1,422	1,294	1,274	1,534	2,479	4,013

* 다중응답, 비율은 응답수를 기준으로 함

2. 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

1) 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 개요

- 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임대주택 입주자, 노인, 장애인, 청소년, 초등학생 자녀 양육 엄마, 자원봉사그룹,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 준비모임, 전통시장 상인 등 9개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그룹당 2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음

[표 4-18] 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 현황

구분	인원
임대주택 입주자	A그룹 3명
노인	B그룹 4명
장애인	C그룹 6명
청소년	D그룹 6명
초등학생 자녀 양육 엄마	E그룹 6명
자원봉사그룹	F그룹 6명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G그룹 6명
협동조합 준비모임	H그룹 6명
전통시장 상인	I그룹 4명
합계	47명

- 다양한 주민들이지역사회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마을만들기 수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인터뷰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기 힘들었던 그룹을 대상으로 별도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조사를 진행함
- 인터뷰 항목은 ① 성북구의 특성 및 자원, 마을의 자원과 문제점, ② 마을 과제 및 해결방안, ③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사, ④ 희망하는 마을모습, ⑤ 관심분야별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⑥ 마을만들기에 대한 지원체계 등으로 구성됨

2) 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 결과

(1) 다양한 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북구 및 마을의 문제점과 과제

■ 생활권 내 아동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미흡

-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은 성북구 내에 도보로 접근가능한 생활권 내에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음. 도서관이나 놀이터가 전부라서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나 놀이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이 주변에는 자기주도 학습관이 생기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놀이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라든지 녹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길음1동쪽은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 말고는 놀이터가 전무한데, 아

파트에 살지 않는 친구들은 그런 데를 이용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 E-2(길음2동, 초등학교 자녀 양육 엄마)

저는 주로 새날도서관을 이용해요. 그런데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은 그럼 어디 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죠?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가 있지만 겨울에는 잘 이용하지 못하거든요. 도서관을 짓더라도 실내 체육관, 실내 놀이터 등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 E-4(중암동, 초등학교 자녀 양육 엄마)

성북구에서는 초등학교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잘되지 않아요. 저는 성북구 내 방학 프로그램(성신여대 영어프로그램, 고대 독서논술 등)같이 대학교에서 초등학교 대상 학습 프로그램 말고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아는 사람이나 이용하지, 초등학교들이 얼마큼 이용하는 지는 미지수예요.

- E-4(중암동, 초등학교 자녀 양육 엄마)

■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시설 부족과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

- 성북구 내에는 청소년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이 부족한 상황임.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고 학교 운동장이나 스포츠센터 등의 공간은 조기축구회나 대학생, 어르신 등이 이미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노래방, PC방, 영화관, 카페 등에서 주로 모이게 되는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

보통 노래방, PC방, 영화관, 카페, 햄버거집, 운동장에서 모여서 놀아요. 초등학교 때는 운동장에서 보냈는데, 커보니까 그것도 실증이 나더라고요. 도서관도 가긴 하는데 거기 가서 놀면 떠든다고 뭐라고 해요.

- D-4(남, 중학생)

소비를 안 하면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봄, 가을은 그렇다 쳐도 여름 겨울 같은 때는 어디 들어가야 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요. 카페 같은 데 가면 커피 한 잔에 3~4천원이예요.

- D-3(남, 중학생)

저희 동네는 청소년들은 별로 없고 대학생들이 많다보니까, 청소년들이 놀 곳이 없어요. 개운산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등산수준이라 친구들끼리 가기 힘들어요. 가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자리도 없고요.

- D-5(남, 중학생)

동네에서 학교 말고는 운동(축구, 농구 등)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조기축구회 아저씨들이 차지하고요. 저희들끼리 작은 공간에서 족구 같은 거 하다보면 욱 듣고 그래요.

- D-2(남, 중학생)

-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내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특히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골목이나 주차장 등에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해본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 청소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함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끼리 너무 추워서 주차장 공간에 들어가서 있었어요. 그런데 경비아저씨가 갑자기 들어와서 사진 찍고 담배를 폈다고 의심을 하고요.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저희가 담배를 폈다고 확신을 하고 막무가내로 당장 나가라고만 하셨어요. 일단 어른들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 D-6(여, 중학생)

일부 청소년들의 문제를 청소년 집단 전체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 D-3(남, 중학생)

체육관 앞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치워달라고 했는데, 짜려보셔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데, 어른들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할 거라고 보시니까.

- D-5(남, 중학생)

주기적으로 골목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단체로 인사를 하면 동네 어른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 D-2(남, 중학생)

■ 장애인의 이동 편의에 대한 고려 미흡과 차별적 인식 존재

- 성북구는 지형적 특성상 경사지가 많아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여건을 갖고 있음. 성북구청 주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 편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주거지 선택에 제한을 받기도 함.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며 고장이 잦음.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하철 노선이 한정되어 있어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됨

다니다보면 길이 많이 울퉁불퉁한 곳이 많고, 공사(경전철)하는 데가 많아서 다니기가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 그리고 보문역에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사용하는데 고장이 자주 나요. 안암역으로 해서 돌아서 오시는데 그게 너무 보기가 안스럽더라고요.

- C-1(보문동)

저희 사무실도 아무래도 안암역보다는 (보문역에서 오는 길이 평지라) 보문역에서 오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 휠체어 탄 분들은 리프트를 타기 싫으니까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안암역에서 오죠.

- C-2(안암동, 휠체어 이용)

보문역 리프트를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20명 정도 돼요. 이용자가 많은 이유가 보문역 쪽이 지대가 낮아서 장애인들이 살기가 편하거든요. 가파르다고 얘기하는데 장위동, 정릉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쪽은 휠체어 타고 못 내려와서, 아예 가지도 않아요.

- C-3(석관동, 휠체어 이용)

성북구를 관통하는 지하철이 4, 6호선이 있죠. 6호선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시설이 좋고 편하긴 한데, 노선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강북구를 관통하는 노선이 없다는 거죠. 장애인들이 4호선 아니면 6호선을 이용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백이 커요. (...) 그래서 장애인들은 그나마 교통이 편한 전철역 근처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C-3(석관동, 휠체어 이용)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특히 상가에 출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복지관도 포화상태여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도 제한적임

생각보다는 이 근처에 장애인들이 잠깐 들어가서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나마 여기(별골 카페)가 생겨서 차 마시고 싶으면 오고 그러는데, 여기 말고는 딱히 저희(휠체어 이용 장애인)가 접근할만한 곳이 없어요. 먹거리나 그런 게 선택권이 없고 한정되어 있어요. 가능하다면 1층짜리 건물들은 경사로 좀 설치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애인들을 고려해서 경사로를 신경 써서 만들어주면 우리도 좀 더 폭 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아쉽죠.

- C-2(안암동, 휠체어 이용)

저는 원래 고대정문 앞에 7~8년 정도 살았는데 임대아파트로 이사한지 얼마 안 됐어요. 이사를 갔는데, 가고 보니까 임대아파트에는 장애인 분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식당이 없어요.

- C-2(안암동, 휠체어 이용)

현실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가가 들어서더라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장애인들이 많아도 장애인 배려는커녕, 상가 자체가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장애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복지관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이 그 옆 동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C-3(석관동, 휠체어 이용)

- 접근성 문제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의 출입 자체를 거부하는 상가들도 존재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구하는 것 자체를 부동산에서 거부하기도 함

상가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바쁜 시간에 오면 특히 싫어하시죠. 예약되어 있다고 내쫓기도 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 의자 2개를 차지해요. 장애인 1명을 받으니 비장애인 2명을 받는 게 낫거든요. 이미지 홍보를 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 C-3(석관동, 휠체어 이용)

저희는 3월이면 만기여서 사무실도 구해야 하는데 장애인들을 잘 안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C-1(보문동)

■ 고령자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 성북구 내 고령자를 위한 공간은 경로당이 중심이 됨. 구청이나 복지관, 보건소 등에서 경로당

에 인력을 파견하여 노래교실, 체조 등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자체적으로 바둑, 컴퓨터, 서예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는 경로당도 있지만 경로당마다 편차가 큰 편임

복지관이나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와서 노래교실, 체조를 가르치고, 고대 경희대 의과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을 보내줘서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 그래요.

- B-2(돈암1동, 아파트)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방에서 마작, 화투를 쳤는데, 시끄럽고 해서 내가 부임하면서 없애버렸어요. 술, 담배도 못 하게 하고, 대신 장기, 바둑을 두고 일부 서예실을 두는 식으로 바꿨어요.

- B-2(돈암1동, 아파트)

컴퓨터도 4대 설치하고 경로당 노인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3~4명밖에 듣지 않아요. 최근에 종암 복지관에서 와서 프로그램 신청을 받더라고요.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프로그램을 해줘요. 공예도 하고 운동도 하고, 85세 넘으신 할머니도 17명이나 되요. 싫어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좋아하세요.

- B-4(동선동, 단독주택 등)

- 경로당은 만 65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지만 70대 초반까지는 건강하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등산을 다니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일이 거의 없음. 경로당은 75세 이상 중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경로당하고 복지관하고 개념이 달라요. 복지관은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간다면, 경로당은 몸이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가눌 수 있는 사람만 경로당 회원으로 받아요. 우리가 양로원도 아니고,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받는 거죠.

- B-1(월곡2동, 아파트)

■ 다양한 형태의 주민갈등 존재

-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참여와 화합이 전제가 되지만 지역사회 내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주민갈등이 존재하고 있음. 성북구 내에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마을이 많은데 재개발과 관련한 갈등이 존재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중 일부는 재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에 갈등이 심각하여 소통과 공동체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재개발 문제로 마을이 분열되고 소통이 되지 않아요. 재개발 될 건지, 안 될 건지 결정이 나와 마을의 문제를 파악해서 발전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일 힘든 지역인 것 같아요. 구심점이 되는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현 상태에서 관계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 F-1(여, 길음2동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 주민갈등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되기도 함. 기존의 공동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아파트의 폐쇄적인 공간의 특성, 분양과 임대 등 점유형태에 따른 소득

격차 등으로 인해 주민갈등이 항상 내재하고 있음.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함

뉴타운 문제점은 재개발 아파트다 보니 기존에 사시던 분과 새로 입주하신 분의 갈등, 개발된 곳과 개발되지 않은 곳의 갈등, 학교 안에서의 아이들끼리도 임대동과 임대동이 아닌 곳의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재개발이 되면서 상대적 빈곤을 겪는 아이들도 많아요. 저희는 기반시설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아파트만 개발된 곳인데, 그런 거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 F-5(여, 길음1동 아파트봉사단)

학교에서 아이들도 임대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차별을 받아요. 여기 앞에 임대단지와 분양단지 사이에 바리게이트 쳐 놓은 거 보셨죠? 불법인데 가시철망만 안 해 놓았을 뿐이지 다른 수법으로 다 해요. SH 공사에서는 분양하고 커뮤니티로 이루라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결국 우리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 A-2(월곡2동, 재개발임대)

경로당을 같이 쓴다고 가정해 보면, 분양에 사는 분들은 자식한테 용돈도 받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때때로 과일, 음료수를 사갈 수 있죠. 그런데 임대아파트 노인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그 안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죠. 결국 경로당도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 A-2(월곡2동, 재개발임대)

■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미흡

-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아파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만들기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정주성이 낮아 지속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정주성이 높은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50~60대가 중심이 되어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

아파트 문화가 사람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포섭을 해서 일 좀 시킬까 하면 이사 가고 없어요. 이동인구가 많으니 꾸준히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니면 장기 거주자들,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위주로 하게 되는데 뭔가 안 나와요. 같은 일을 해도 젊은 사람들이 하면 쉽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공을 들여서 가꿔 놓으면 이사가 버려요.

- F-2(여, 종암동 자원봉사캠프장)

40대들은 돈 벌러 가고, 중고등학생 뒷바라지 하고요. 50~60대가 주로 봉사하죠.

- F-3(여, 삼선동 자원봉사캠프장)

주택가는 많이 오래들 사시니까 장기적인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보면 시간 등이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 F-4(남, 동선동 비영리민간단체)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아파트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주민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정보가 어둡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보니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맞벌이로 다 나가 버리고, 노인 분들은 소화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다 보니 벽에 부딪치고, 그리고 다들 먹고살기 바쁘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지적자원을 갖고 있는 분 중에 노시는 분도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돈 좀 모으면 다 도망가 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참여하기는 원치 않고, 누군가 해 놓으면 덕만 보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예요. 해봤던 사람들은 돈이 안 생기고 오히려 돈을 써야 하니까 안 하는 거고, 안 해본 사람들은 남한테 욕먹기 싫다고 안 하는 거예요.

- A-2(월곡2동, 재개발임대)

(2) 희망하는 마을만들기 활동내용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도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사는 거는 불편한 거는 못 느꼈는데, 벌어들이는 사람은 없고 애들은 있다 보니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생활이 힘들죠. 애기들이 4, 6학년짜리 돌인데 영어, 수학학원을 보내달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수학은 못 보내고, 영어 학원만 보내요. 동네 근처에 무료로 아이들 공부 가르쳐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 A-3(길음1동, 재개발임대)

맞벌이, 조손가정이나,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원을 못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해요.

- A-2(월곡2동, 재개발임대)

■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연계하는 노력을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택배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간행물 포장 등의 부업을 정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나 세차, 자동차 정비, 요양보호사 등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일자리 연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함

택배회사 측에서는 택배기사를 구하기가 힘든데, 저희가 이렇게 하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은 요즘 문 열어주기 무서운 세상인데 동네사람들이 전해주니까 안심할 수 있다고 좋아하시고요. 실버메신저로 빨간 조끼 입고 다니시거든요. 택배기사님들께 음료수도 드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 A-1(길음1동, 재개발임대)

공간이 없어서 시행은 못하고 있는데, 쇼핑 간행물 포장하는 거는 앉아서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도 않고,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 A-2(월곡2동, 재개발임대)

3년 전에 SH공사와 협의해서 지하공간을 얻어냈거든요. 보일러 깔고, 도배해서 구청에서 직거래로 부업을 들여와서 여자 분들이 일하세요. 남자 분들은 스팀세차, 택배, 자전거 수리, 자동차 정비를 가르치고, 여자 분들은 요양보호사, 보육, 한 7개 정도를 가지고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중이에요.

- A-2(월곡2동, 재개발임대)

■ 고령자

■ 고령자를 위한 야외 쉼터 등 조성

- 고령자의 경우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주변에 산이나 공원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 고령자가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고령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야외 쉼터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함. 경사지보다는 평지에 위치해야 하고 건물 옥상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단독주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외놀이공간이 없어요. 근처에 산이나 공원이 있긴 한데, 거리도 2~3km로 멀고 게다가 경사지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힘들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관절이 많이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주택가로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주로 여자분들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여름에 더울 때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벤치라도 있는 조그만 쉼터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다고.

- B-3(정릉4동, 단독주택 등)

동마다 놀이터 옆에 정자를 지어놨는데, 여름에는 이용을 하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용을 안 하죠. 주로 할머니들이 애들 나와서 노는 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은 경사지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경로당에 거의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 B-2(돈암1동, 아파트)

야외쉼터가 있으면 여름철에 야외에서 놀 수도 있는데, 우리 동네는 공원이고 뭐고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릉은 개천도 있고 산도 있고 한데, 우리는 가까운 곳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 B-4(동선동, 단독주택 등)

저희 경로당은 게이트볼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설치비용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 공간은 얼마든지 만들면 되는데(옥상 등),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 체육과에 얘기를 했더니 이리저리 미루고 안 되더라고요. 옥상에 3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어서 활용하면 좋겠는데...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놓으면 젊은 노인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 B-1(월곡2동, 아파트)

■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임.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규모와 유형을 다양화하여 저소득층 이외에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노인 일자리를 주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경우는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요. 실제로는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는 노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집이 있으니까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금까지 조회해서 제외하고 나면 대상자가 없어요. 종전에는 우리 같은 경우도 일을 하고, 노인회에다 적립을 해서 경로당을 키워나갔는데 그게 막혀버렸으니까...

- B-2(돈암1동, 아파트)

■ 경로당 지원 방식 개선 및 강화

- 고령자에 대한 마을 단위의 지원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기본적으로는 난방비나 식당도우미 지원 등은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또한 수요가 있어도 재정적 부담으로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좌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북구 차원에서 강사를 파견하거나 강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도우미 지원하는 것도 조건을 완화시켜야 해요. 밥 못하고 스스로 거둘 수 없는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대상자들이 없어요. 구청에서 직접 조사를 나와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B-2(돈암1동, 아파트)

식당도우미 지원을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 B-1(월곡2동, 아파트)

우리 경로당은 서예를 하는데, 봉사자(강사)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하는데 직업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주택과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15만원씩 강사비를 주는데, 이런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 B-2(돈암1동, 아파트)

- 또한 재개발로 인해 단독주택이 철거되면서 기존의 경로당도 철거되었는데 새로 들어선 아파트 내 경로당은 단독주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단독주택 주민들도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또한 개별 단지마다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여러 단지를 통합하여 규모를 키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단독주택 주민이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려면 주택법,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해요. 한 번 개정돼서 부근에 경로당이 없는 경우 가까운 데서 받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주민, 노인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안 돼요. 일단 법에서 정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특정한 규정이 없어요.

- B-2(돈암1동, 아파트)

노인들을 위해서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경로당 지으라고 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재개발 후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성북구 경로당이 거의 200개가 되고 있어요. 경로당 1개 당 40만원도 모으면 많은 액수예요. 여러 경로당에 나눠서 아무 효과 없이 주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 B-1(월곡2동, 아파트)

■ 장애인

■ 시범거리 지정을 통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구역 확보

-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사로 설치 등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단 시간 내에서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음.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이 접근하기 좋은 일부 지역을 시범거리로 지정해 상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성신여대를 가나 안암동을 가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할 때 성신여대 거리나 안암동 주요 거리를 구청에서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어요

- C-4(안암동, 장애인단체 활동가)

■ 동료 및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접근성이 제한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살고 있는 마을과 가까운 곳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편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기대하고 있음

저는 수다방을 만들고 싶어요. 야학이라든지 센터 등 특정 목적으로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열려있어서 밥 먹고 싶음 먹고, 커피도 마시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도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것을 할 때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면 더 좋고요.

- C-4(안암동, 장애인단체 활동가)

여유가 좀 된다면 좀 큰 데로 옮겨서, 사무실하고 휴게실이 있어서 지역 장애인들이 편하게 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라는 게 얼굴 마주 보고 자판기 커피 먹으면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일반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은 일부거든요. 나머지 그 많은 장애인들은 다들 어디 가겠어요? 그런 점이 많이 안타깝죠.

- C-3(석관동, 휠체어 이용)

■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보고 있음. 장애인 이동 편의를 강제하는 규정들도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함

이동편의가 고려되는 저변에는 장애인 당사자를 배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장애인 단체가 이동편의를 주장하면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해요. 법적 기준 강화도 도움이 되니까 공공시설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 C-4(안암동, 장애인단체 활동가)

■ 청소년

■ 청소년 카페, 연습실, 실태체육관 등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

-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청소년 카페를 비롯하여, 춤이나 노래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 청소년 놀이터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제가 반에서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조사를 했더니 청소년 카페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반에 춤추는 친구가 있는데, 연습실이 부족하다고 수련관 연습실을 증설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겨울에는 야외에서 운동할 수도 없고, 학교 운동장도 이용하기가 힘들니까 실내 체육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PC방, 노래방도 담배냄새가 나니까, 청소년들만 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애들도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교육복지실이 생겨서 관리자가 있고 보드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그것도 학교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런 거를 동사무소에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 D-6(여, 중학생)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문화생활도 중요해요. 아리랑시네센터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게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 D-3(남, 중학생)

-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은 마을 내에 설치되어야 접근하기가 쉬우며, 학습을 위한 공간과 놀이 또는 운동을 위한 공간을 복합적으로 조성하고, 공공기관 차원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월곡동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에는 위층에 독서실이 있고 지하에 탁구장이 있더라고요. 친구들끼리 공부하러 갔다가, 쉬는 동안 내려와서 잠깐 얘기도 하면서 탁구도 치고, 다시 올라가서 공부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건물 내에서 공부도 하고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으면 좋겠어요.

- D-2(남, 중학생)

구청에서 만들어지면 홍보 효과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니까 어른들도 걱정을 덜 할 것 같아요. 민간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 D-4(남, 중학생)

-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이 활발하게 이용되려면 성북구 내 설치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현재 성북구 내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률이 낮다고 보고 있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유가 홍보가 잘 안 되어 청소년들이 그런 기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춤 좋아하는 애들도 수련관에 공간이 있음에도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모르니까,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문이 나와도 선생님들이 소개를 안 해주고 그냥 벽에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좀 더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 D-6(여, 중학생)

■ 아동

■ 마을카페, 어린이도서관 등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조성

-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은 마을 안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편하게 모여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일상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자율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저희도 정릉처럼 엄마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 동덕여대가 있는 곳이라 카페는 많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5~6천원을 주고 음료수를 마시에는 큰 돈이기도 하고, 한 번 모이면 1~2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로 길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엔 애들이 많이 떠들고 하니까 카페 가기도 어렵고, 엄마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운영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 E-1(월곡1동, 초등학생 자녀 양육 엄마)

저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 서비스처럼 프로그램을 딱 짜서 하는 시설보다, 아이들이 간식이나 밥을 해결하면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쉼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요.

- E-5(정릉2동, 초등학생 자녀 양육 엄마)

- 이러한 공간을 조성할 때 동별로 설치되어 있지만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는 새마을문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새마을문고를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바꾸고 지역 내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간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동마다 새마을 문고가 있어요. 저도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그런 공간을 활용도 있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젊은 어머니들이 오셔서 그런 분위기를 바꿔주세요.

- E-2(길음2동, 초등학생 자녀 양육 엄마)

다양한 연령층을 다 포섭하기 보다는, 새마을문고는 어린이도서관화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주로 이용하는 층이 어린이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연령층을 대상으로 책도 구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 E-1(월곡1동, 초등학생 자녀 양육 엄마)

■ 학교 개방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및 공동체 형성

- 아동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을 새로 조성하려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 관심과 기대가 컸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개방하고 학교 내 공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면서 아이들을 함께 지키고 돌보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그냥 개방할 수는 없고 지원이 되어야 해요. 도서관을 개방하려고 해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 있는 도서관을 교문 쪽으로 옮겨서 학교의 일부만 개방해도 쓸 수 있게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역에서 학교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지만 학교가 지역이랑 같이 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문을 닫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학교 밖에 나왔을 때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학교와 구청, 지역이 함께 해서 아이들이 집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해요.

- E-1(월곡1동, 초등학생 자녀 양육 엄마)

학교 도서관이 지역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방법론은 고민해 봐야겠지만, 기능적으로는 지역에 개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학교가 동네의 허브 역할을 해주면 좋겠어요.

- E-2(길음2동, 초등학생 자녀 양육 엄마)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방학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이상 학교는 방학만 되면 정지돼요. 사실 새롭게 시설을 짓는 것 보단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책도 많고, 매년 최신도서 구비해 놓고, 방학에도 이용할 수 있기는 한데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이용시간 짧아서 아쉬죠.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학교를 폐쇄하니깐 엄마들이 학교를 이용하고 못하고, 잘 안 오게 되요. 원래 학교라는 장소가 애들도 놀고, 엄마들도 같이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 학교가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학교를 폐쇄하는 바람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아요.

- E-4(종암동, 초등학생 자녀 양육 엄마)

- 현재 학교 개방 및 교내 공간 활용과 관련한 원칙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 안전과 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지역사회에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많은 편인데, 야외도서관을 조성하고 교내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저희 학교는 야외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성북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운동장에 테라스형태로 야외도서관 만들고, 비에 안 젖게 지붕을 씌워서 야외에 책도 놓고 했어요. 아이들의 활용도도 높고, 관리도 나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지역에 도서관을 개방하겠다고는 하는데, 성북구와 학교 사이에 관리문제가 있어요. 5~6시까지 학교 보안관님들이 관리해주시는데, 그 이후에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 E-1(성북동, 초등학생 자녀 양육 엄마)

■ 전통시장 상인

■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 정비

- 전통시장 상인들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통시장 시설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정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화장실과 주차장 등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아케이드와 도로를 정비하고,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판을 정비하는 등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

돈만 있으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해서 활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화장실도 없거든요. 소비자들이 와서 화장실이 없다고, 왜 이렇게 노후하냐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 1-2(남, 석관황금시장)

저희도 천막이 아크릴이 아니라 천으로 해놓은 상태예요. 방염이 안 되어 있어서 소방서에서도 말을 하더라고요. 올 해 10년 차가 되어 많이 낡고 비가 새요. 태풍이 불어서 한 쪽은 날아가 버리고, 부분적으로 신청해서 보수를 하긴 했는데, 한두 번 터지다 보니까 계속 그러네요.

- 1-4(남, 장위시장)

저희는 시장 내 도로에 아스팔트도 깔아야 하고, 간판 정비도 해야 해요. 전통시장은 가게, 간판이 노후화 되어 있어요. 시장마다 특색 있는 색깔을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해서 깔끔하게 리모델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 1-3(남, 정릉시장)

■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이벤트 개최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토요일장터를 추진한 경험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린 정기적인 이벤트 개최가 고객 확보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정릉시장은 대형마트, SSM으로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원들이 생각해 낸 것이 토요일장터였어요. 토요일장터 같은 경우는 판매품목을 20~3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보통 찾아오는 인원이 1,000명 정도 되요. 우리가 토요일장터만 하는 게 아니라 벼룩시장하고 연계해서 하거든요. 벼룩시장의 원칙은 집에서 쓰던 물건, 옷 등을 성북구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런 토요일장터, 벼룩시장의 효과로 사람이 많이 와요. 성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고객들까지 유입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밖으로 놀러 가려다가 동네에 토요일장터가 열리니까 여기에서 놀기도 하고요. 토요일장터는 앞으로도 정릉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지속할 계획이에요.

- 1-3(남, 정릉시장)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자원봉사활동은 반찬 및 도시락 배달, 공부방 운영,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지만, 이러한 과정이 이웃과의 소통과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

사회활동을 공동체 활성화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마을만들기와 접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원봉사자가 아파트 내에서 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 문화활동도 하면서 이웃이랑 화합하고 소통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현재 공동체마을 아카데미 교육도 받고 사업 신청 작업 중에 있고, 목표는 3년 안에 우리아파트가 서로 화합하고 옆집에 누가 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게 하는 거예요.

- F-6(여, 길음1동 아파트봉사단)

동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산 교육이 되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봉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애착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고요.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게 주민들 간에 소통이 되면서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각자 생각하면 분열되고 마을만들기가 안 되는데, 아파트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소통이 되고 애착이 생기게 되면서 저절로 마을만들기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아파트 봉사단, 마을 봉사단을 잘 만들어서 마을만들기와 접목을 시키면 상승효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 F-6(여, 길음1동 아파트봉사단)

■ 사회적경제 부문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제공

-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수익 확보임. 이는 지속 가능한 운영과 사회적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고령자 등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역 내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여 자녀 교육이나 고령자 취미 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바른 먹거리를 중심으로 도시락, 반찬사업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청소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의사가 굉장히 높아요. 노인 일자리로 청소 대행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 G-4(여, 노인일자리 창출)

요즘은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뭐든지 가능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처음에는 미술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다섯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년 카페를 열었어요. 이런 것이 다 지역 자원이거든요. 사실은 자기 아이들 키우고 했던 엄마, 아빠들인데 그걸 결합을 시키니까 기업이 되겠더라고요. 한 명이 시작하면 힘든 일이고 한계가 있겠지만,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G-3(여, 학습 멘토링)

시니어 중에서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지만 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젊은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을 가르쳐줄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 보기도 했었어요. 도시 전반적으로 도시텃밭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텃밭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 G-5(여, 문화예술활동 지원)

■ 마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 협동조합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카센터나 병원 등이 마을에 기반하여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 카센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생협 매장의 물건에 대해 믿음이 있듯이 협동조합으로 카센터를 하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H-7(여, 정릉4동)

일반병원에 가면 이익을 위한 건지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과잉진료, 과잉검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생협이 만들어지면 진실되게 환자가 필요로 하는 걸 알려줄 것 같아요

- H-5(남, 장위1동)

- 돌봄과 관련된 활동도 마을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의 영역에 포함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돌봄의 범위에는 공동육아와 같이 어린 자녀를 이웃과 함께 마을 안에서 돌보는 것에서부터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놀이를 테마로 한 협동조합도 제시되었음.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 이외에도 독거노인에 대한 반찬,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도 가능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음

두 돌이 된 아들이 있어요. 다행히 저희는 운이 좋아서 양가 어머님들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공동육아는 가까운 데에 있어야 서로 돌아가면서 봐 줄 수가 있잖아요. 협동조합 방식이든 뭐든, 작은 그룹들이 여러 개 생기고 그 그룹들끼리 정보와 노하우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인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같은 인프라는 사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H-6(남, 삼선동)

저희 딸의 가장 큰 욕구는 또래와 함께 놀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노는 것도 좋지만 친구와 놀고 싶다는 욕구가 커요. 저희 동네가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없죠. 있더라도 엄마들이 위험하니까 못 놀게 하죠. 그래서 제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친구들 모아서 같이 가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 H-2(여, 성북동)

독거노인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특히 남자분들이 홀로 남은 경우 반찬, 세탁 등의 문제가 있어요. 반찬이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조합을 만들면 일자리도 제공될 거예요.

- H-4(남, 종암동)

(3)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기본적으로는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정보들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동네 소식지나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동네 소식지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으면 좋겠어요. 베틀신문과 협약을 맺어 몇 페이지는 동네 소식을 담은 등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H-1(남, 안암동)

-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홍보 부족으로 참여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 부문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충분히 홍보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어렵게 됨. 사회적경제 부문을 포함하여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시장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교육 같은 것을 주최를 하거나, 부모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바로 상품을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청년 등 사회적기업 페스티벌 행사 때도 저희가 시식회를 준비했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우리들만의 행사였어요.

- G-4(여, 노인일자리 창출)

저는 "성북에서 OO하고 싶은 청년들"이 참 좋았어요. 거기서 비슷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아쉬웠던 점은 지역 주민의 참여 없이 창업팀만 모여 있었다는 점이에요. 지역기반이라고 하면 소통이 필요한데 성북OO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희에게 발언권,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시너지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 G-3(여, 아동 교육 지원)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마을만들기 교육을 통한 관심과 흥미 유발

- 마을만들기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야 활성화될 수 있음. 아동과 청소년은 앞으로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자기 팀이 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게 소속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현재는 마을이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사는 곳이지, 마을 공동체 그런 의미는 없더라고요.

- E-4(중암동, 초등학생 자녀 양육 엄마)

아이들 3명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한테 경력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하게 하고 싶었어요.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면 커서도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원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주변 이웃을 알게 되고 봉사활동이 마을로 확대되고 자발적

봉사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 F-5(여, 길음1동 아파트봉사단)

-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이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험들이 마을과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저는 마을만들기 할 때 지역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눈높이, 노인의 눈높이,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접근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동네를 발로 걸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께서 아파트 학생회(동아리)를 만들어보자는 사업 제안을 하셨어요. 현재 아이들끼리의 커뮤니티가 많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들을 잘 만들어 주면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해요.

- E-2(길음1동, 초등학생 자녀 양육 엄마)

- 청소년들도 마을만들기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마을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마을 신문에 게재하는 마을기자단이나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재미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형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마을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지역 언론을 만들면, 지역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아요.

- D-3(남, 중학생)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한 마을이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마을신문을 만들면 여기가 우리 마을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전통시장 이용과 관련한 내용도 신문에 담으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D-6(여, 중학생)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흥미 있는 부분으로, 재능기부 형식(책 읽어주기 등)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 D-6(여, 중학생)

■ 맞춤형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 마을만들기는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인 주민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주민들의 역량은 직접적인 참여 경험과 교육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됨. 주민들의 수준에 대응하여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구체적인 실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마을만들기가 전시 행정이 아닌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을 하더라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화과정으로, 실천 활동으로 연계해서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교육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게 구에서도 지원해야 할 거고, 잘 된 사례지역과 엮어서 운영모임도 열고 지원해줘야 해요.

- F-6(여, 길음1동 아파트봉사단)

성북구에서 하는 교육도 많지만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교육을 받았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실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안 가시는 분도 많아요. 교육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옆에 붙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담당이 마을에 하나씩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던져주고 숙제를 풀어가는 현재의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잘 되어 있는 마을만들기 사례들을 직접 보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해요.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참여를 안 하죠.

- A-2(월곡2동, 재개발임대)

-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욕구는 협동조합과 같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되면 더욱 절실해짐.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개념이나 운영방식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조합원들의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조합원으로 섭외할 대상에게 교육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저희가 교육을 몇 번 받기는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직접 전달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거든요. 조합원들과 조합예정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이 부족하다보니 저희가 그것을 다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그런 사명감이 가장 두려워요.

- H-3(여, 성북동)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많아요. 교육을 할 때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학부모들이 듣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마을만들기 교육도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교육 안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손님이 아니라 동네의 주인으로 말이죠.

- H-7(여, 정릉4동)

협동조합 단계별로 요구가 계속 바뀌니까 계속해서 교육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원단이나 협의회와 협의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에 전달하면, 구는 거기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 H-1(남, 안암동)

■ 마을만들기 거점 공간 조성

- 마을만들기는 소통과 논의를 통해 발전하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웃 또는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공간은 일상적으로는 주민모임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나 협동조합 등 특정한 실천 활동을 준비하는 이들의 논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위에서 주민들한테 뭔가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우선적인 것 같아요. 개인 용도가 아닌 공동체를 위해 한다고 한다면 그런 공간 마련이 필수적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자세는 미온적이예요. 탁상행정이라고 하죠, 실생활을 보지는 않고 행정적으로만...

- A-2(월곡2동, 재개발임대)

협동조합은 자주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논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

- H-5(남, 장위1동)

어쨌든 개인들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과 같은 기반 시설은 사회가 제공해줘야 하지 않을까 해요.

- H-1(남, 안암동)

공간이나 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협동조합을 하기 쉽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대부분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자본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거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파지 또는 고물 수집, 의류 수거도 협동조합으로 하면 수익도 많을 것이지만, 그 분들이 협동조합을 못 하는 이유는 어려운 사정에 공간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초창기에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빈약한 자본을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정부의 지원 방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H-4(남, 종암동)

-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는 기부채납 공터와 같이 현재 활용되지 않는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도시텃밭을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특별한 용도가 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기부채납한 공터가 많아요. 그냥 놀리지 말고,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도시텃밭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기부채납한 구유지 같은 공간에 꽃도 심고 채소도 심으면 보기에 좋고, 수확한 작물들을 어려우신 분께 드릴 수도 있고, 심을 때도 함께 참여한다면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런 것도 마을만들기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F-6(여, 길음1동 아파트봉사단)

도시 전반적으로 도시텃밭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간을 텃밭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나 노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라고 생각해요.

- G-5(여, 문화예술활동 지원)

대부분 처음에 설계될 때 명칭이 있는데, 용도가 없는 공간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공간들을 쓰겠다고 했더니 용도가 없는 공간은 변경을 해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택배사업을 할 공간도 필요하고, 아이들 교육받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무산될 지경인데, 쓰겠다고 했더니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저런 거를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 A-2(월곡2동, 재개발임대)

■ 전문가 파견 및 상담을 위한 체계 구축

-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구체적인 실천 활동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남. 하지만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더라도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음. 특히 공모사업이나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행정 또는 회계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해주거나 마을에 직접 전문가를 파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있음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노인, 장애인,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상주를 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등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런 거에 익숙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실무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해요.

- A-2(월곡2동, 재개발임대)

정부에서는 우리가 가서 물어보고 찾아야 하는 현재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건물 만들어 놓고 사람들 모아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찾아가게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될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 해요. 우리가 가치를 제시하면 설립부터 서류, 정관을 만들어줘야 하고, 행정적인 절차 간소와 경영 컨설팅이 필요해요.

- H-1(남, 안암동)

- 사회적경제 부문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 특히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성공적인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지역 내 프로보노 집단을 확보하여 사회적기업 등을 준비하는 이들의 필요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사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멘토링이에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북구 안에서 프로보노 집단들이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움을 직접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역 안이면 좋겠다는 거지요. 지역에 환원되는 아이টে를 거기서 찾으면 되는 것이고, 사실 형식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집단이 없어요. 준비단계에서는 그런 프로보노 집단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후 사업화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서 발표해야 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인프라가 갈증이 나는 이유는 사업에 대해서 냉철하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행사가 이벤트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 G-1(남, 사회적기업 펀딩)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나, 사회연대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처럼 설립 절차 등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곳,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인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교육"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도 돼요.

- H-1(남, 안암동)

■ 연속적인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마을만들기는 단시간 내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나 사회적경제 부문과 관련된 지원,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단기간 동안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특히 추진주체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건비나 행정 업무, 경영 컨설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저희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업기간 동안에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운영이 되지만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운영비를 마련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2년 정도는 운영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 A-2(월곡2동, 재개발임대)

방향성은 맞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기간도 한정되어 있고, 단기간 내에 성과도 내야 해요. 이런 점이 지역사회가 수행하기에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 E-2(길음1동, 초등학교 자녀 양육 엄마)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지속성도 떨어져요. 내 것을 쥐어짜서 엮어보다가, 아이들도 크고 돈 나갈 데가 많으면 그만 두고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마을만들기라는 형태가 "삶" 안에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인건비라도 그런 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E-3(정릉3동, 초등학교 자녀 양육 엄마)

공동 마케팅 같은 경우도 계속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2년까지 밖에 안 해줘요. 사업이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 I-1(남, 돈암제일시장)

- 전통시장의 경우 상인회가 생업을 유지하면서 추진주체로 설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과 연계하거나 시장관리팀이 현장에 밀착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종로 통인시장이나 수원 못골시장은 사회적기업이 투입되었어요. 상인들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좋은 안을 기획할 수 없잖아요. 계속 와서 도와주고, 사회적 기업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은 보조만 해주면 되니까 잘 된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들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쪼개서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 I-1(남, 돈암제일시장)

구청이 해야 할 것들은 시장 관리하는 팀들이 시장에 깊이 관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성북구 시장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뛰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청장님

한테 부탁한 것이 시장 관리팀을 늘리고, 시장을 관리하는 팀들은 진급을 시키더라도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알 만하면 바뀌고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 I-3(남, 정릉시장)

■ 관련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인 주민모임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더라도 시민단체나 대학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마을만들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특히 성북구의 경우 대학교가 다수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1차는 주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개설했는데, 서울시에 예산을 올려서 일부 지원을 받아 추진을 하고 거기에 시민단체 모임에서 개입을 해서 더 활성화가 됐어요. 또 대학교 네트워크 협조체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직접 대학교 총장, 학생회장, 과회장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성북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SH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을 모을 때도 성북통합센터 등 구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훨씬 쉽죠.

- A-1(길음1동, 재개발임대)

각 지역에서 대학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신대는 지역사회와 함께 포럼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대학들이 별로 없어요. 고대 같이 큰 대학교가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역사회에 문을 잘 열지 않아요. 학교 측에서 의지를 갖고 지역 안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 E-6(안암동, 초등학교 자녀 양육 엄마)

제5장

성북구 마을만들기 비전과 목표

1.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철학
2.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비전과 목표



성북구 마을만들기 비전과 목표

1.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철학

1) 마을만들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마을만들기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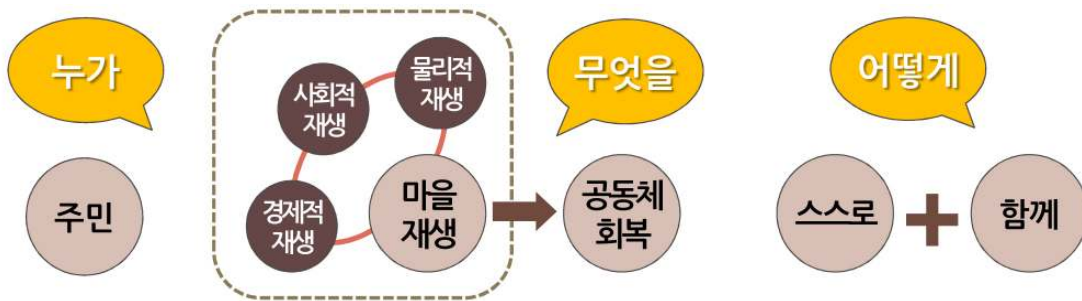
- 각 지자체에서는 마을만들기 조례를 통해 마을만들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마을만들기 앞에 '아름다운', '좋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고, 시설이나 환경 개선과 같은 물리적인 마을이 아닌 마을공동체와 공동체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규정하기도 함
- 안산시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념까지 포함하여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좋은 마을만들기를 '다시 태어나다'의 의미를 가진 '마을르네상스'를 마을만들기 정책 브랜드로 설정하고 있음
- 정의를 보면 기본적으로 '주민', '스스로'와 같이 마을만들기 주체를 주민으로 명시하면서 마을만들기가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공동체 창조'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음

[표 5-1] 마을만들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마을만들기의 정의

구분	명칭	정의
광주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활동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인재 육성 사업,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 생활공간 개선 사업,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을 포함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2)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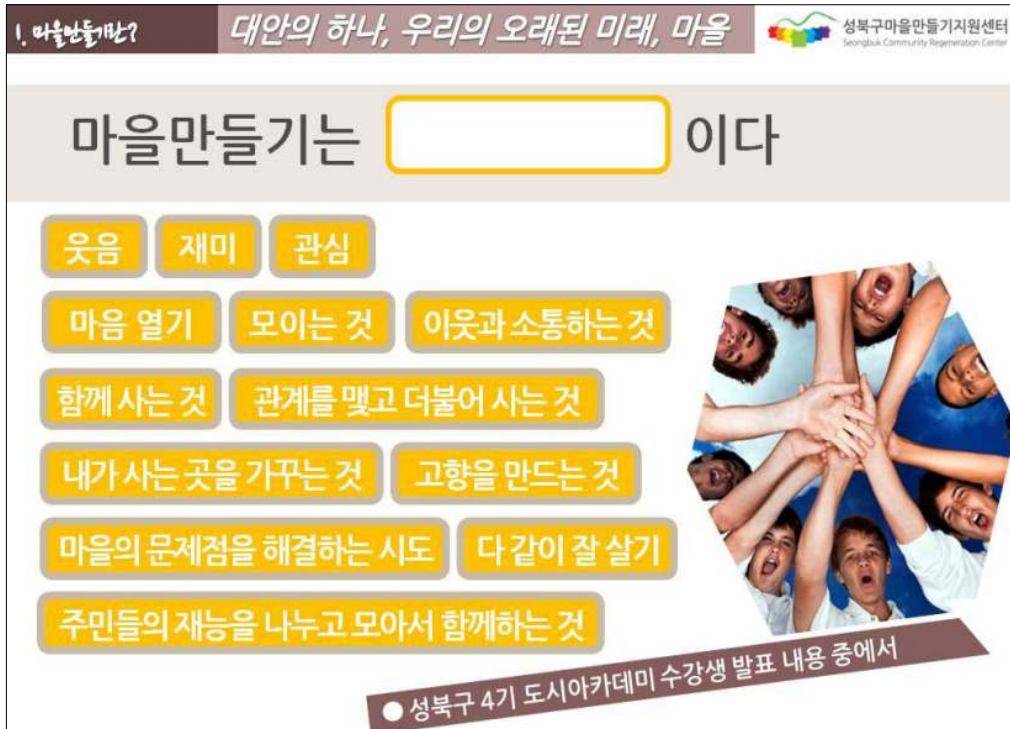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조'에서는 마을만들기를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 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주민과 함께 마을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성북구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해결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다르지 않음. 주체와 방법은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마을만들기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성북구는 마을만들기의 영역과 대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조례에서는 마을만들기의 영역을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사업목적에서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개선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또한 생활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행정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주민이 공동으로 한다는 적극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은 결과적으로 '주민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결국 성북구 마을만들기는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재생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을 재생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웃과 함께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그림 5-1]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개념

- 이러한 개념은 성북구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만들기와 일치하기도 함. 성북구 4기 도시아카데미 수강생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000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웃음, 재미, 관심"과 같이 한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마을 열기, 모이는 것, 이웃과 소통하는 것,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사는 것, 고향을 만드는 것"과 같이 소통과 공동체를 강조하기도 하였음. 또한 "내가 사는 곳을 가꾸는 것,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도, 다 같이 잘 살기"와 같이 마을만들기의 방법과 목표 자체를 언급하기도 함

- 마을만들기에 대한 개념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목표는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5-2] 성북구 주민이 생각하는 마을만들기 개념

자료 :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동별 주민설명회 자료

3)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철학

-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함. 마을만들기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마을만들기의 개념에 부합하며,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 볼 수 있음
- 성북구의 마을만들기 철학은 크게 ① 소통과 참여, 협력이 즐거운 마을만들기, ②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③ 사람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마을만들기, ④ 종합적이면서 단계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로 설정함

(1) 소통과 참여, 협력이 즐거운 마을만들기

- 소득 증대로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주변 환경 및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개발로 인한 공간 및 주민 구성의 변화는 마을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나눔, 관계 맺음을 약화시켰음. 반면 주민 의식의 향상과 지방자치의 확산으로 주민참여의 욕구가 높아지고 주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 왔음
-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모여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것을 시작으로 이뤄지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을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음. 따라서 성북구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소통'과 '참여', '협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 그동안 행정과 시장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주민은 실질적인 주체이면서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민원 제기와 불만 접수와 같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왔음.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주민의 요구는 다양해졌지만 행정과 시장이 더 이상 이러한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주민이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주체, 즉 사회적경제 부문으로 성장하기도 함
-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의 수준⁴⁾은 단계에 따라 다양하고 형식적인 참여만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역량 강화나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이뤄낼 수 없음. 따라서 성북구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권한위임과 시민관리를 지향함으로써 마을만들기의 과정을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장소와 사람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마을만들기

- 성북구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지 정비수법인 주택재개발사업은 기존의 마을을 구성하고 있던 장소의 가치와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 철거를 통해 마을에 대한 흔적 자체를 없애 버리고, 주민들의 삶과 욕구와는 무관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왔음.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 온 삶터와 일터는 사라지고 주민들이 쫓겨나면서 마을공동체는 붕괴되었음
- 성북구 마을만들기는 전면철거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개발'이 아닌 '재생'에 초점을 맞춰야 함. '재생'은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사람의 가치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을의 특성과 주민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원칙으로 함

(4) 종합적이면서 단계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 물리적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전면 철거에 의한 주거지 정비는 짧은 시간 동안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음. 주거비 부담의 상승과 기존 공동체의 붕괴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는 경험을 하기도 함.
- 마을만들기의 목표는 마을의 특성과 주민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법도 다양함. 또한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수준이 높아지고 주민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움. 따라서 성북구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4) Arnstein은 시민참여를 크게 비참여, 형식적 참여, 시민자치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비참여 단계는 조작·조종, 치료, 형식적 참여 단계는 정보제공, 의견청취·협의, 회유, 시민자치 단계는 협력, 권한위임, 시민관리로 구분하였음.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생을 추구하며,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주민과 공동체의 참여 수준과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소통과 참여, 협력이 즐거운 마을만들기

-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을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조건
- 주민들이 '소통'과 '참여', '협력'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 주민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권한위임과 시민관리 지향
- 마을만들기의 과정을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장소와 사람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마을만들기

- 전면철거방식에 대한 반성 → '개발'이 아닌 '재생'
- 장소와 사람의 가치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 마을의 특성과 주민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종합적이면서 단계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생 추구
-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주민과 공동체의 참여 수준과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

[그림 5-3]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철학

2.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비전과 목표

1) 성북구의 비전과 목표

- 성북구는 2004년에 <2010 성북비전>에서 성북구의 비전을 '살기 좋은 도시, 성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20 성북비전>을 새로 확정하였음. <2020 성북비전>은 성북구의 비전을 '사람투자, 사람중심 Human City'로 제시함
- <2020 성북비전>은 구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도시의 물리적인 건강이 서로 양립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성북사회를 통해 희망도시 성북을 구현하고자 자연과 문화, 전통과 첨단, 과거와 미래, 구세대와 신세대, 젊음과 활력이 어우러진 건강한 구민과 행복한 사람들, 건강한 도시, 사람이 희망인 휴먼도시 성북을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행복한 복지도시, 눈높이 문화도시, 건강한 녹색도시, 참여하는 주거도시, 동북권 중심도시, 일상의 정보도시,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도시 등 7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5대 실천전략과 4대 특화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2020 성북비전>은 성북구가 가진 자원으로 복지, 역사, 젊음, 문화, 활력, 자연 등을 설정하고, <2010 성북비전>인 '살기 좋은 도시'가 성북구의 자연과 주거, 도시가 건강하고 행복한 구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표 5-2] <2020 성북비전>의 개념

비전	7대 목표	5대 실천전략	4대 특화전략
사람투자, 사람중심 Human City	- 행복한 복지도시	- 행복한 복지·보건 - 눈높이 교육문화 - 건강한 녹색환경 - 참여하는 주거환경 - 희망찬 성북경제	- 전문적인 주민지원 서비스 체계 - 전문교육 클러스터와 젊음의 거리 -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의 명소화 - 미래지향적인 성북의 중심활동공간
	- 눈높이 문화도시		
	- 건강한 녹색도시		
	- 참여하는 주거도시		
	- 동북권 중심도시		
	- 일상의 정보도시		
	-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도시		

자료 : 2020 성북비전(2011)

- 한편, 성북구는 2011년 <성북구 민선5기 중점추진 과제연구>를 통해 성북구의 생활구정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2020 성북비전>의 '건강한 사람들의 행복한 희망도시, 성북'은 특성상 보편성을 극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민선5기 구정철학의 슬로건인 '사람이 희망인 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도시, 구민이 주인 되는 성북'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에 성북구의 종합적인 잠재력이나 경쟁력,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 민선5기 구정철학과의 연속성 혹은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의 정부, 참여 자치, 생활 정치 -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성북 생활구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이 문화인 도시', '사람이 창조적인 도시', '사람이 미래인 도시'를 생활구정의 목표로 도출하였음

[표 5-3] 성북구 민선5기 생활구정 비전과 목표

구정비전		구정목표
시민의 정부	사람이 문화인 도시	- 성북구민 각자가 문화적 창조성을 가진 개별 개체로서 구정의 주체가 되는 도시
참여 자치	사람이 창조적인 도시	- 성북구민 모두가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통해 창조적인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집행하는 도시
생활 정치	사람이 미래인 도시	- 성북구의 다양한 문제들을 삶의 현장에서 직접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

자료 : 성북구 민선5기 중점추진 과제연구(2011)

2)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비전과 목표

(1)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비전

- <2020 성북비전>과 <성북구 민선5기 생활구정>에서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는 모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고 있음. 성북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앞서 설정한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철학도 주민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소통과 참여, 협력을 강조하고, 종합적이면서 단계적 접근방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장소와 사람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성북구가 중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마을만들기 비전은 성북구의 비전과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철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 협력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성북, 지속가능한 마을 재생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성북"으로 설정함
- 이 비전은 성북구 마을만들기가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음. 우선적으로는 마을만들기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행정 등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간의 소통과 참여, 협력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이나 전문가가 아닌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다음으로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재생을 실현해야 하고, 마을 재생은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2)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목표

■ 목표 1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소규모 모임 및 네트워크 활성화

- 마을만들기는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행정 등 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소통과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만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
- 기본적으로는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 관심사를 공유하고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소모임을 지원하여 향후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마을포

럼 등을 통해 마을 또는 성북구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와 함께 성북구 차원과 마을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성화하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마을만들기 실천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목표 2 :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협력체계 구축

- 마을만들기 초기 단계에는 행정과 민간단체,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는 단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맞춤형 마을만들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주민, 행정, 민간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협력체계를 구축하되,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행정, 민간단체, 전문가는 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 목표 3 :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한 종합적인 마을 재생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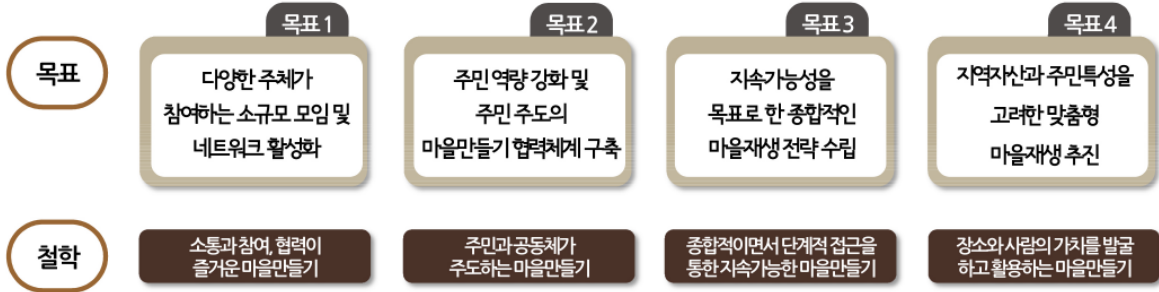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비롯한 공공의 지원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지원이 완료된 이후에도 마을만들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마을특성과 주민여건을 고려하여 마을 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 재생 전략은 주민들이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마을의 미래상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해야 하고, 물리적 재생,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함

■ 목표 4 : 지역자산과 주민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마을 재생 추진

- 지역자산의 유형과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마을 재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을 재생을 추진할 때에는 마을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 내 또는 마을 주변의 역사·문화·자연 자산과 마을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마을 재생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비전

“소통과 참여, 협력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성북,
지속가능한 마을 재생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성북”



[그림 5-4]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철학과 비전, 목표

제6장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1.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개요
2.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유형별 추진방안
3.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분야별 추진방안
4.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단계별 추진방안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1.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개요

1)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1)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필요성

- 주민의 자발적·주체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안내서 필요
- 성북구 자원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확인된 성북구 상황에 대응한 맞춤형 전략 필요
-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특색있는 전략 필요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단계별 실현가능한 전략 필요

(2)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목적

-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철학과 비전에 근거한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중·장기 구상 및 방향 설정
- 성북구 마을특성 및 주민여건을 고려한 마을만들기 유형 설정 및 유형별·분야별 추진전략 수립
- 성북구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한 단계별 과제 도출 및 과제 해결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2) 중장기 구상 및 방향 설정

(1) 기본구상

-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시간적 범위를 단기(2013년), 중기(2014~2015년), 장기(2016~2020년)로 구분하여 시기별 방향 설정을 하고자 함
- 우선 단기의 경우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기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마을만들기 토대 구축 단계로 설정하고, 중기의 경우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확산하는 마을만들기 확산·발전 단계로 설정함. 마지막으로 장기의 경

우 마을재생사업을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가 운영되는 마을만들기 지속 단계로 설정함

(2) 추진전략

■ 단기 : 2013년

- 첫째, 마을만들기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마을만들기의 추진주체가 되는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합리적인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 둘째,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을을 기반한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해 소통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셋째,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마을 내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마을만들기 활동이 시작되고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
- 넷째, 중기인 마을만들기 확산·발전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성북구 및 마을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을 주민들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중기 : 2014~2015년

- 첫째,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고 보다 많은 지역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둘째, 마을만들기 활성화 전략에 따라 유형별, 분야별 추진전략을 활용하여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셋째, 마을특성과 주민여건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 넷째, 마을재생 시범사업을 유형별로 추진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른 마을로 점차적으로 확산

■ 장기 : 2016~2020년

- 첫째,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 안에서 경제적 자립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관리하고 가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추구
- 둘째, 마을별 맞춤형 지원 경험을 통해 성북구 특성이 반영된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지속
- 셋째,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가 확인된 마을재생사업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성북구 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 넷째, 마을만들기를 넘어 마을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재생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마을재생전략을 수립하고 마을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그림 6-1]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2.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유형별 추진방안

1)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유형

(1) 유형화의 기본방향

- 성북구의 지역자원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유형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① 지역특성, ② 개발사업, ③ 지역자산, ④ 자연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6-2] 성북구 마을만들기 유형화의 기준

- 우선 지역특성과 관련해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은 다시 주택의 유형과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공동주택 밀집지역, 임대주택 밀집지역, 한옥밀집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상업지역도 대학교 및 역세권 주변으로 한 상점가와 전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시장만을 다루기로 함
-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것인데, 성북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상당한 비율이 각종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장기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 침체 및 공동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개발사업의 추진단계 및 개발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주민갈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세 번째는 지역자산에 대한 것인데, 우선 성북구에는 고려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대학교가 7개나 위치하고 있어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대학교 주변으로 주요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성북구는 서울성곽, 정릉 등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에 비해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교, 성곽, 문화재 등 지역자산 인접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공동체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자연환경과 관련한 것인데, 성북구는 북한산을 비롯한 개운산, 북악산 등 주요 명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성북천과 정릉천을 복원하여 구민들을 위한 운동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호하는 활동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2) 유형화에 따른 공간적 범위

- 마을만들기는 도시계획사업과 달리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불가능함. 기본적으로는 행정 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는 있지만 행정동을 단위로 한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마을만들기 유형화의 기준과 관련해서도 지역특성과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동 단위보다 더 작은 골목 및 블록, 단지, 개발사업구역 등을 공간적 범위로 하는 경우가 많음. 지역자산의 경우에는 행정동을 기반으로 하기도 하지만 여러 행정동을 포함하는 생활권 단위를 기반으로 하기도 하며, 자연환경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생활권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마을만들기의 공간적 범위는 특정 범위로 한정하기보다는 마을만들기의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6-3] 유형화에 따른 공간적 범위

2)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 추진방안

(1) 현황

- 노후화된 주택 및 공가 방치
-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방범 시설 부족
- 고령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
- 낮은 소득수준과 높은 무직 비율
- 이웃 간 소통과 교류 활발
- 높은 정주의식
- 주민공동이용 시설 부족
- 소규모 쉼터 및 문화여가시설 부족

(2) 대표지역

- 성북동 북정마을, 삼선동 장수마을, 정릉3동 정릉골 등

(3) 기본방향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여건 개선을 통한 계속 거주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4) 추진전략

-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유형을 정리하면 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개량 지원, ②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확보, ③ 주민여건을 고려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④ 마을만들기 거점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6-1]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개량 지원	- 노후화된 주택 개량 지원체계 수립 -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마을경관을 고려한 주택 개량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확보	-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 마을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및 방범시설 설치
주민여건을 고려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 공동부업 추진 및 공공일자리 연계
마을만들기 거점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쉼터 설치 - 빈 집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보 및 운영

(5) 실현수법

■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개량 지원

■ 노후화된 주택 개량 지원체계 수립

- 전면철거에 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노후화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 의한 자발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함
-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주택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임. 집주인이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융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여유있게 부여하고 이율을 낮게 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현물주거급여를 활용하는 것(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집수리사업)이 가능하고, 민간 차원에서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집수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연계하여 집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함
- 노후화된 주택이 한옥인 경우에는 서울시 한옥개보수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석면지붕이 설치된 주택에 대해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제거 및 개량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석면지붕 제거비 전액과 개량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그런데, 주택 개량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주택 개량 자체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주택 개량 전반에 대한 설명과 주택 상태에 따른 예상 개량비용, 주택 개량과 관련한 행정 처리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주택 개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성북구 주택개량 상담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주택 개량 상담 및 설계, 시공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위탁하여 성북구 내 주택 개량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상담을 실시하고, 적절한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집주인에 의한 자발적인 집수리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함

● 참고사례

▶ 전주시 해피하우스사업

- 전주시는 2010년 국토해양부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에 인후2동이 선정된 이후 노송센터와 완산센터를 신규로 개소하여 전주시 자체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 전주시 해피하우스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처럼 점검·보수해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동네(마을)단위의 공동체 부활을 도모하는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 사업으로, 전주시 내 3개 센터 사업구역 내 노후주택 2만34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2012년 기준 주택보수 서비스는 불량 콘센트, 누전차단기, 환풍기 등 전기시설 교체 3,350건과 양변기·세면기 부속품, 대문개폐기, 인터폰 등 설비보수 1,265건과 창문, 흉통, 타일 보수 같은 소규모 집수리 1,289건으로 총 1,553세대 7,076건의 실적을 올림
- 주택보수 서비스 이외에도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해피하우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도가 낮아 어두운 골목길 경관용 벽등(LED램프) 설치, 노후 담장 보수 및 도색 등 주민맞춤형 마을개선 희망사업도 추진할 계획임



■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마을경관을 고려한 주택 개량 지원**

- 주택 개량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하며, 공적 공간이 아닌 사적 공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주택 개량에 대한 지원, 특히 보조 등을 통한 직접 지원일 경우에는 형평성과 공공성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주택 개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크게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임대료가 상승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것과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마을경관을 훼손하거나 이웃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때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마을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며, 마을 단위로 이뤄질 때에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협정(경관협정 등)을 만들고 마을협정에 동의한 주민에 한해 인센티브 부여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사례**

▶ **부산시 감천문화마을 신바람셋바람 사업**

- 부산시는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1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감천문화마을(부산시 사하구 감천2동의 7통과 11통)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현장실사를 거쳐 주민공공시설 정비, 주민편의시설 조성, 민간시설 정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음
- 민간시설 정비사업은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으로 215개동(1동당 약 200만원)에 대해 총 4억원을 지원하였음. 지원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건물 도색, 도배, 장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노후도, 건축년도, 거주자의 연령 및 수입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고 통반장이 주민상태 및 주택개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 과정에서 주민 합의를 형성하였음
-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은 공터로 방치되던 공간에 썸지공원 4개를 만들어 운동기구와 놀이기구, 정자를 설치하고 벽화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함
- 주민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경로당, 공동작업장, 공동화장실 등 9곳을 리모델링하고, 골목길·위험담장·계단정비 사업으로 2.15km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정비하였으며, 이와 함께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기 위해 보안등 25대를 신설·교체하고 보안용 CCTV 2대도 신규로 설치함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확보**

■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 소방도로, 공동주차장,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필수요 소이기 때문에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기반시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성북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런데 기반시설의 확보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북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모든 노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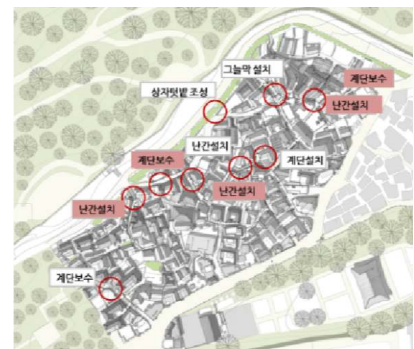
독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을 단기간 내에서 확충하는 것이 불가능함. 따라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모임을 구성하여 마을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각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대략적인 비용을 공유하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함.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을 주민참여 방식으로 진행하면, 예산의 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음

● 참고사례

▶ 서울시 성북구 장수마을 '다섯이 모이면 골목이 바뀐다'

- 서울시 성북구 장수마을 '다섯이 모이면 골목이 바뀐다' 프로그램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골목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거나 예쁘게 가꾸고 싶은 주민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웃을 찾아 함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임
- 장수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같은 골목에 사는 주민들이 최소 5명이 동의한 의견을 제시하면 됨.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성북구청과 (주)동네목수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골목 환경을 개선하였는데, 장수마을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주로 난간 보수와 계단 보수 및 설치에 대한 제안이 대부분이었음
- 골목에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개인이 아닌 이웃과 함께 공동으로 제안하면 검토 후 바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주민들 스스로도 이웃과 함께 의견을 모아보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경험을 얻게 됨
- '다섯이 모이면 골목이 바뀐다' 프로그램으로 장수마을 곳곳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고령자 등이 이동하는 데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음



■ 마을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및 방범시설 설치


-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은 골목이 좁고 복잡하고 막다른 골목도 많은데 반해 늦은 저녁이 되면 사람들의 통행량이 적어 학생이나 여성들은 편안하게 골목을 지나갈 수 없음. 특히 경사가 있는 구릉지에 위치한 마을의 경우에는 골목이 경사까지 심해 고령자 등 몸이 불편한 주민들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겨울철 눈이 많이 올 때는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편임
- 지역 특성상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거나 생활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골목길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마을에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CCTV, 보안등, 제설함 등 안전 및 방범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해야 함

- 골목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 및 방범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들과 함께 마을 전체를 직접 걸으면서 안전 및 방범시설이 필요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설치 규모는 예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필요한 모든 곳을 표시하고, 2차적으로 예산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안전 및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순찰대나 마을안전지킴이 등의 모임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활동하면 더욱 효과적임

● 참고사례

▶ 장수마을 역사·문화 보전 종합계획

-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되는 장수마을 역사·문화 보전 종합계획에는 안전 및 방재환경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골목통신원 워크샵 및 골목모임을 통해 CCTV와 보안등, 제설함 및 소화전,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할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 CCTV는 주요 지점 5곳에 통합형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어두운 골목길 2개소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골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쓰레기 집하장은 주차장 설치 부지의 공간을 일부 활용하는 방식임
- 특히 제설함 및 소화전은 총 9곳에 설치하는데, 골목길 특성을 반영하여 골목별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였고, 이와 함께 골목길별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과 소화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사례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안전마을 만들기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일대는 서울시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시범사업지로 선정됨. 이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발이 지연되어 경찰청이 지정한 161개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중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곳임.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염리동(鹽里洞)이란 동네 이름에 걸맞게, '소금을 테마로 한 다양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음
- 먼저, 운동을 할 만한 놀이터나 공원은 없고 인적까지 드물어 무섭기만 했던 좁은 골목길이 1.7km의 '소금길'로 탈바꿈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즐겨 찾는 운동공간과 커뮤니티공간으로 변했음. 전봇대에 번호를 매기고, 코스안내 지도, 방범용 LED 번호표시등, 안전대처요령 사인, 안전 벨을 설치해 안전부분도 강화함
-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6곳의 '소금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란색 대문 집 앞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위험에 처했을 때 눌러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음
- 인근 교회가 무상으로 제공한 부지에 주민공동체 거점공간인 소금나루를 설치하여 운영함. 소금나루는 카페, 마을 문고, 택배수령서비스, 비상약 등 편의용품 판매 기능과 커뮤니티아트 교육 등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 24시간 초소기능을 하며, 주민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함



◆ 서울시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 디자인정책과

-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디자인을 의미함
- 서울시는 범죄심리학자, CPTED 분야 전문가, 경찰청 관계자, 아동청소년 전문가, 행동심리학자, 커뮤니티디자인 및 서비스디자이너 등 총 10인의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현장방문을 통해 마포구 염리동과 강서구 가양동 공진중학교를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음
- 서울시는 사후조치 위주였던 범죄대책에서 탈피, 디자인을 통해 환경적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는 예방책으로 전환하여 대부분 취약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발생률을 낮추고, 이로 인한 연간 20조원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참여로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이웃 간 무관심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서울시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 행정과

- 서울시는 주민들이 지역 내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민 스스로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 범죄재난재해 등 지역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주민제안과 생활안전거버넌스로 구분됨
- 주민제안 분야는 일반시민(3인 이상 공동명의) 또는 주민단체가 주민 안전교육, 마을안전감시단 운영 등 주민 참여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 생활안전거버넌스 분야는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기존에 지역 내 안전 관련 활동을 하던 단체와 주민들이 지난 7월 연합해 구성된 공동협력체(생활안전거버넌스)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

■ 주민여건을 고려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 저렴한 주거비로 인해 저소득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물리적 환경 개선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음. 따라서 무엇보다 일자리를 새롭게 발굴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특히 주택 개량이 필요한 노후 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집수리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마을기업의 경우 마을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물리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 집수리 외에도 마을 주민의 과거 직업 경험과 일자리에 대한 참여 의사, 희망하는 근무형태와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을기업의 사업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함

● 참고사례

▶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 마을기업 (주)동네목수

- (주)동네목수는 노후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기업임
- 장수마을은 고령자 비율이 높지만 건설일용노동에 참여한 경험 및 기술이 있는 주민이 많음. 이에 (주)동네목수는 주민들을 직접 고용하여 마을 내 빈집을 개보수한 뒤, 순환임대주택, 마을카페,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노후한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음

- (주)동네목수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는 다양한데, 2012년 말 현재 정직원은 6명(대표 포함)이고, 이외에도 일당제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상당함. 목공, 미장, 방수, 설비, 도색 등 주택 개량 공정별로 다른 주민들이 참여함
- 고령으로 더 이상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현재도 건설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주)동네목수는 주택개량 이외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쉼터를 조성하거나 골목평상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마을기업의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음



● 참고사례

▶ 관악구 신사경로당 공동작업장 '불로농원'

- 관악구는 경로당을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자는 '108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주변 자투리땅을 이용해 노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마련하고 있음
- 불로농원은 주변에 텃밭으로 활용할 땅이 거의 없는 신사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수경재배 방식으로 설치한 공동작업장임. 38.2㎡의 온실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배양액으로 약 2,200 포기의 채소를 한 번에 재배할 수 있음
- 2012년 시범사업 운영을 거친 뒤, 이후에는 지역 내 마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판매할 계획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상추를 시작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채소로 재배 범위를 넓힐 예정으로, 현재는 1주일에 2회 정도 수확해 월 12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음



■ 공동부업 추진 및 공공일자리 연계

-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공동부업을 추진하거나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가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빈집을 개보수하여 공동부업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마을 내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을 활용하여 경로당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음. 경로당 공동작업장은 100세누리 홈페이지(www.100senuri.go.kr)를 통해 일감 등록이 가능함
- 공동부업의 일거리는 쇼핑백·문구류 등 조립, 미늘까기, 파 다듬기, 양말 포장, 박스 및 봉투 접기 등 단순노동이 적절하며, 지역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차원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일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 주차장쉼터 골목 공동부업**

-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은 골목별로 이웃간 교류가 매우 활발한데, 골목별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부업거리를 갖고 와서 작업하기도 함.
- 봉제공장이 많은 창신동과 가깝다보니 주된 일감은 의류 상표를 완성하는 일임.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단가는 건당 5~30원으로 낮지만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골목사랑방에 모여 담소를 나누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음.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일감을 받아오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라 보기는 어려움
- 인근 지역의 봉제공장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일감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지면 적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연계사업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함
- 대상사업은 ① 지역자원 활용형(지역특산품·문화·자연자원활용 사업 등), ② 친환경·녹색에너지 사업(자원재활용 및 자전거 활용 사업 등), ③ 생활지원·복지형(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년도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성과 및 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선정함. 1차년도에는 5,000만원 한도, 2차년도에는 3,000만원 한도로 연차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마을기업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력 고용에 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등과 중복으로 선정 가능하지만, 사업비와 인건비 등 보조금 중복 지원은 불가능함

◆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 : 사회적경제과**

-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은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범용적 수단으로서 주민의 욕구 및 지역문제 해결을 과업으로 하며, 마을주민의 자발성에 바탕을 둔 협동조합 원리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의미함
- 마을공동체기업은 ① 민주적 운영방식과 협동조합 원리, ② 마을관계망의 확보와 5인 이상의 주민 참여, ③ 플랫폼 등록, ④ 창업 6개월 후부터 매출액의 1%를 지역기금에 적립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이나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과는 별도로 마을공동체 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사업비 등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시 접수에 의한 등록제를 원칙으로 하며, 씨앗기와 창업기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함. 씨앗기는 지역의 필요와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이 경제적 활동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까지의 단계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팀워크숍을 참여하는 시기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임
- 씨앗기에는 [필수], [조사], [의제발굴], [팀워크숍]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조사 및 의제발굴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을 100만원씩 지원함. 창업기에는 교육, 컨설팅과 공간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됨. 공간임대료 지원의 경우 공공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최대 1억원의 임대보증금 또는 최대 월 1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임. 임대보증금의 경우 3년 거치 2년 상환이나 2년 거치 3년 상환 등 신청인이 정한 일정대로 자유롭게 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월세의 경우는 상환하지 않아도 됨

◆ **보건복지부 경로당 활성화 사업**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자원봉사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노후생활교육, 레크레이션활동, 건강운동 활성화,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분됨
- 공동작업장 운영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생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

■ 마을만들기 거점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쉼터 설치

-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은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좁은 골목에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형태가 대부분으로,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원이나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은 한정적임
- 나대지, 자투리 공간 등 유휴공간을 이용하거나 개보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빈집을 철거하고 빈터에 쌈지공원, 놀이 및 휴게공간, 골목평상 등 소규모 쉼터를 설치하여 집과 가까운 곳에 휴식을 취하거나 이웃과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함
- 주민들과 함께 마을 내 유휴공간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쉼터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쉼터로 조성된 이후에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시작 단계에서부터 완료 이후 단계까지 모두 고려하여 준비해야 함. 실제로 쉼터로 조성하는 과정에도 주민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 만든 소중한 쉼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고사례

▶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 골목 평상 및 쉼터 조성

- 장수마을은 골목별로 평상이나 계단 등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일이 많은데, 마을기업인 (주)동네목수가 주민들의 자주 모이는 골목 모임공간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였음. 낮은 평상을 새로 만들어 교체하고, 계단을 정비하고 난간이 있는 데크를 만들어 평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존의 정자 형태의 휴게쉼터에 대해서도 겨울철이 되면 비닐을 이용하여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쓰레기 재활용장으로 방치되었던 마을 앞 공터 공간을 성북구청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벤치와 평상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하였음



■ 빈 집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보 및 운영

-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점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함. 농촌에는 마을회관이 거점의 역할을 하는 반면, 도시에는 경로당 이외에는 마을만들기 거점이 될 만한 공간이 거의 없음
-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마을사랑방, 작은도서관, 마을카페, 공동목욕탕 등 종류가 다양하며, 주민 특성에 따라 가장 필요로 하는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규로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규모가 큰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마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을 내 방치된 빈집 중 위치와 규모,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한 뒤, 개보수를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임

- 마을 내 빈 집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모임 등을 통해 마을 내 필요한 주민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는 실제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함
- 기존 시설의 매입 또는 임대비용 이외에도 개보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성북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또한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은 확보하더라도 향후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 스스로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정계획도 수립해야 함. 마을기업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거나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운영·관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참고사례

▶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의 작은카페와 주민사랑방**

- 장수마을에는 빈집이 13채가 있었는데, 마을기업인 (주)동네목수가 집주인을 설득하여 개보수 후 임대하도록 하고, 마을카페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향후에도 이러한 빈집을 매입 또는 장기간 임대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마을 공방, 마을구판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 빈집이 줄어들면서 주변 골목의 분위기가 살아났으며, 집주인은 임대료를 얻게 되고 세입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었음
- 또한 장수마을 역사·문화 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주민사랑방과 근대생활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장수마을과 주민들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전시하기 위한 마을박물관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인접한 2채를 매입하여 주민사랑방, 마을박물관, 예술가를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3)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추진방안

(1) 현황

- 주택 개보수 및 신축,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욕구
- 거주자 우선 주차와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환경 악화
- 쓰레기 배출 및 택배 이용 불편
- 도보로 접근가능한 소규모 쉼터 부족
- 주민공동이용 시설 부족
- 주택의 유지관리 및 에너지 성능 개선의 어려움

(2) 대표지역

-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2동, 석관동 등

(3) 기본방향

-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유지 관리 및 생활편의 지원을 통한 생활하기 편리한 마을만들기

(4) 추진전략

-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유형을 정리하면 ①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택정비수법 적용, ② 주민합의에 의한 가로환경정비 추진, ③ 주택의 유지관리 및 생활편의 지원 마을기업 육성, ④ 마을만들기 거점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6-2]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택정비수법 적용	-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안내지침 작성 및 실태조사 실시 -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용자 지원 및 상담 지원 - 주택 및 가구의 상황에 대응한 소규모 맞춤형 정비 수법 개발 및 적용
주민합의에 의한 가로환경정비 추진	- 골목경관 보호 및 환경 정비를 위한 주민협정 체결 지원 - 주민협정에 근거한 공유공간 확보 및 가로환경 정비 비용 지원
주민합의에 의한 주택 유지관리 및 생활편의 지원	- 주민합의에 의한 공동관리체계 마련 - 마을 공동의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마을만들기 거점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쉼터 설치 - 기존 주택 또는 공공시설 활용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보 및 운영

(5) 실현수법

■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택정비수법 적용

■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안내지침 작성 및 실태조사 실시

-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문제점 중 하나는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이는 난방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함
- 전면철거가 아닌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 개보수를 통한 점진적 주거환경 개선을 추구하고자 하면,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할 필요가 있음. 단독주택과 달리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이미 기존의 단독주택을 허물고 신축한 상태로, 건축법규와 도로여건상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택 개보수가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음
-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열성능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지붕, 벽체, 바닥, 창호, 난방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단열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보수해야 할 내용과 비용, 공사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대체에너지시설 설치 효과 및 비용, 지원제도 등과 관련한 정보

를 제공하는 안내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주택 에너지 성능 실태조사를 지원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에너지 성능 상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가구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때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보수를 병행하고 태양광시설 등 대체에너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난방비 부담 경감 등을 직접 비교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참고사례

▶ 서울시 알기 쉬운 "집수리" 매뉴얼 1.0

- 서울시는 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수리 매뉴얼을 발간하였음. 제1장에서는 집수리와 관련된 일반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집수리 순서, 견적서 만들기, 계약하기, 공정표 만들기 등 집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분야별 진단(누수진단, 에너지진단 등)과 시공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기금 등 용자 지원,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행정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 요약본을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요약본은 ① "집수리" 어떻게 할까요, ② "우리집"은 어떤 집인가요, ③ 집에 문제가 있어요!, ④ "우리집" 진단하기, ⑤ "우리집"을 고쳐주세요, ⑥ "집수리"에도 순서가 있어요, ⑦ 꼼꼼하게 "계약"하기, ⑧ 집 사용설명서 알아보기, ⑨ "집수리 지원제도" 알아보기로 구성됨



연계사업

◆ 서울시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BRP) 용자 지원 : 녹색에너지과

- 서울시는 주택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부분을 고효율 에너지설비로 개선하여 에너지사용량 절감과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을 개선·설치하는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용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용자가 가능함. 연 2.0%의 저리로 용자되며 8년 분할상환이 조건임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 녹색에너지과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사업임
- 최소 50가구 이상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마을범위를 지정하고,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립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실천활동을 추진해야 함
- 2013년의 경우 3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별로 1,000만원씩 지원함. 1년동안 사업을 진행한 후에 성과 평가하여 최대 3년까지 사업을 연장할 수 있음

◆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한국에너지재단은 단열·창호공사와 고효율 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에너지 빈곤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며, 지원방식은 크게 단열, 창호교체 등 지원가구의 난방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을 개보하는 시공 지원과 지원가구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고효율의 난방용품 및 가전제품 등을 보급하는 물품 지원으로 구분됨
- 가구당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하되, 시공 지원 가구 중 20%범위 내에서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함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그린 빌리지 사업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단독주택은 소유주,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가 신청해야 함

-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 사업은 동일한 행정구역(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서 10가구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의미함
- 에너지 유형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2013년)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설비 또는 용량 구분	지원단가	최대 지원금액	
태양광	고정식	3kW 이하	1,150천원/kW	3,450천원
	평판형 · 이중진공관형	10m ² 이하	446천원/m ²	4,460천원
태양열	이중진공관형	10m ² 초과 20m ² 이하	415천원/m ²	9,300천원
	단일진공관형	10m ² 이하	491천원/m ²	4,910천원
지열	수직밀폐형	10.5kW 이하	815천원/kW	8,557천원
		10.5kW 초과 17.5kW 이하	695천원/kW	12,162천원
연료전지	1kW 이하	34,237천원/kW	34,237천원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연계 지원 : 녹색에너지과**

- 서울시는 에너지관리공단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자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음. 태양광은 40만원/kW(3kW 이하), 태양열은 4만원/m²(20m² 이하), 연료전지는 70만원/kW(1kW 이하), 지열은 정부 지원금의 10%(17.5kW 이하)를 지원함
- 서울시 지원을 추가로 받으려면 에코마일리지(ecomileage.seoul.go.kr)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효과 분석 자료로 사용하고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 녹색에너지과**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600kW 이하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가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1kW당 110만원씩 최대 33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어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용자 지원 및 상담 지원**

- 주택 개보수의 필요성을 공감하더라도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보수를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비용에 대한 용자 제도 연계와 개보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것임
- 용자 지원의 경우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성북구가 독자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용자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적절함. 용자 상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보수 전후의 난방비 경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장기적으로는 용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본적으로는 성북구가 상담창구 설치 등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주택의 유지관리 및 생활편의를 지원하는 마을기업이 설립되면 마을기업이 용자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보수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북구와 마을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연계하도록 해야 함

▶ **서울시 주택개량 상담실**

-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저층주택 주택 개량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민간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주택개량 상담실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상시 운영 중임
- 상담실은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1층에 위치하고, 상담실엔 공공건축가 및 자치구 건축사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2명이 상주하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방문과 전화(02-731-6958~9)를 통해 상담할 수 있음
- 주요 상담 내용은 ①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등과 관련된 인·허가절차 및 법령에 관한 사항, ② 주택개량 시 시공방법, 건물 이력관리, 공사비 산정방법 및 계약서 작성 요령, ③ 각종 지원제도 안내 등이며, 필요한 경우 각 자치구의 상담반과 연계해 현장상담도 실시함

▶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상담창구**

- 서울시는 2012년 6월부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7개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음
- 7개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2개 구역(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3개 구역(동작구 흑석동,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 길음동),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2개 구역(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운수동)임
- 주택개량 상담창구는 구역별로 공공건축가(건축사)와 시공분야의 건축명장 및 시·구 공무원 등 총 4인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운영됨. 주민들이 상담을 신청할 경우 주택개량 범위 진단, 개략비용 제시 및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한 맞춤형 상담을 해주며, 아울러 시에서 용자 지원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통한 기술자문을 실시함

연계사업

◆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신축비 용자 지원 : 주거환경과**

-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택의 개량 및 신축비용에 대해 용자를 실시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형 아파트 위주의 개발 대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형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 주택개량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7,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1,75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용자됨. 주택개량 용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용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이 조건임.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 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각종 질병 및 장애에 맞추어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적용금리를 0.5% 인하해 1.0%의 금리를 적용함. 주택개량비용의 용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7곳 외에도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11곳도 포함되며,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의 경우 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창호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만 용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주택신축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3,500만원(14,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3,5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로 용자됨. 용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7곳이며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11곳도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주택신축비용 용자가 가능함
- 주택개량 및 주택신축비용 모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방식(연 4회)임

■ **주택 및 가구의 상황에 대응한 소규모 맞춤형 정비 수법 개발 및 적용**

-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안에도 주택 개보수만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없어 불가피하게 신축해야 하는 노후주택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
- 주택 신축은 주택 및 필지규모, 가구 특성 및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택 및 가구의 상황에 대응한 소규모 맞춤형 정비 수법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대규모 전면철거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기조도 소규모 맞춤형 정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신규로 포함된 것이 가장 대표적임. 또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주택 관리 및 정비 지원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성북구 특성에 맞는 정비 수법을 개발해야 함
- 필지단위에 따른 단독 정비, 인접대지와의 합필에 의한 공동 정비, 블록단위 공동 정비 등 정비 단위에 따라 진행절차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추진절차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원해야 함

연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전면철거형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여건에 따라 점진적인 주택정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지정요건은 ① 해당 지역 면적이 1만㎡ 미만, ②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너비 4m 이하 도로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③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일 것, ④ 해당 구역 내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의 합이 20호 이상일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9/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함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① 건폐율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경사지에 위치한 가로 구역으로 한정), ②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 ③ 건축물의 높이제한(도로사선제한, 일조사선제한) 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 ④ 주택법에 따른 부대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공사계약금액의 40% 이내에서 세대당 최대 4,500만원을 연 2%로 융자받을 수 있음.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착공 후 30%, 공정 50% 이상 20%, 준공 후 50%를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함

■ 주민합의에 의한 가로환경 정비 추진

■ 골목경관 보호 및 환경 정비를 위한 주민협정 체결 지원

- 주택의 개보수 또는 신축, 소규모 정비를 추진할 때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기존 골목경관 보호하고, 열악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깨끗한 골목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 가로환경 정비는 많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특히 골목경관의 경우 사적 영역의 변화가 공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민합의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임
-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협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경관협정을 기본으로 하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깨끗한 골목환경 유지를 포함하여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적절함. 주민협정은 주민들이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지만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규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민들이 지키기 쉬운 낮은 수준의 약속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재산권 침해나 규제가 강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협의하여 필요성을 공감한 상태에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주민협정의 범위와 내용은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참고사례

▶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 시범사업

- 강북구 우이동 지역은 2008년 12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비 1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시공과정을 거쳐 2011년 6월 사업이 완료됨
-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여 빼어난 자연풍광을 지닌 마을의 특성을 살려 자연과 함께하는 품위 있는 마을 조성을 목표로 마을입구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낮은 진입도로를 정비하였으며, 좁은 진입로에 위치하여 차량운행에 불편을 주고 있던 전주를 이설하고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소화전을 설치하였음. 또한 이웃간 소통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위해 높은 담장을 낮추어 화단형, 투시형, 생울타리형 등 맞춤형 담장을 세우고 보안등과 CCTV를 설치해 취약한 보안을 강화했음



연계사업

◆ 서울시 경관협정사업 : 공공디자인과

- 경관협정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거주지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제도로 최초로 주민자치의 개념이 도입된 법적 제도임
- 서울시는 2008년 경관조례를 만들고 2009년 1월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2009년 강북구 우이동, 양천구 신월2동, 광진구 중곡동(협정폐지)을 대상으로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구로구 개봉3동 244번지 일대(들머리마을)과 관악구 서림동 116번지 일대(보그니마을) 2곳을 대상으로 경관협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규모는 지역당 10억원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2년 동안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 1차 년도에 경관협정 체결 및 설계를 완료하고 2차 년도에 공사를 추진함
- 주요 사업 내용은 주민쉼터 조성, 자투리땅 녹화, 주민편의시설 설치, 통학로 정비, 담장 허물기, 생활환경 개선, 담장·대문 등 건물외관 경관개선 등을 포함함

■ 주민협정에 근거한 공유공간 확보 및 가로환경 정비 비용 지원

- 주민협정이 규제수단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협정에 근거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적 영역에 대한 양보 또는 공유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은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현재에도 그린파킹사업과 같이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담장철거 및 CCTV 설치, 식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주민협정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달라지겠지만, 나대지 및 미활용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공유공간을 확보하거나 녹도 및 공개공지 조성, 식재, 담장 및 옥상 녹화, 담장허물기를 통한 주차 공간 및 휴게공간 확보 등 가로환경 정비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성북구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보편적인 정책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임. 단기적으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경관협정 등 제도적 근거가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연계사업

◆ 서울시 그린파크(Green Parking)사업 : 주차계획과

- 서울시는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내집 주차장을 만들고, 골목길에 꽃과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이 있는 생활도로를 조성하여, 어린이와 노약자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그린파크(Green Parking)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등(뉴타운 지정지역, 재개발인가지역, 재건축허가지역, 신축예정주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주차면 1면 기준 800만원, 2면 기준 9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1,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골목길 내에 그린파크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이 50% 이상인 골목길에 대해서는 생활도로 조성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민간건물 옥상녹화·텃밭 조성 사업 : 공원녹지정책과

- 서울시는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옥상녹화 및 텃밭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지원대상은 옥상녹화(텃밭 포함) 가능면적이 65㎡ 이상인 민간건물로 시민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장소로 제공 가능한 건물 중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에 한정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구조안전진단은 전액 시비로 실시하고, 설계 및 공사비의 50% 범위 내(남산가시권 70%)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경량형 텃밭은 9만원/㎡, 혼합형 및 중량형은 10만8천원/㎡을 지원함

◆ 서울시 푸른서울 가꾸기 녹화재료 지원 시민공모 : 조경과

- 서울시는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녹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권 주변의 자투리 땅, 골목길, 담장 주변 공지, 가로변 녹지대 등을 가꿀 녹화재료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재료는 나무, 초화류, 퇴비 등인데 2013년은 유실수 위주의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지원할 계획임
- 대상지는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1순위는 마을공동체 적극 참여 대상지, 골목길 녹화, 사회복지시설, 2순위는 생활권 주변의 자투리 땅, 담장 외곽주변의 빈 공지, 3순위는 주요 가로변 및 다중이용 녹지대, 4순위는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녹화지역의 보식 등임. 단,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관련 법적 의무 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옥상공원 조성 지원지 등은 제외함
-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녹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로 녹화재료를 지원함.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공동체, 사회복지시설, 가족,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에 신청하면 됨

■ 주민합의에 의한 주택 유지관리 및 생활편의 지원

■ 주민합의에 의한 공동관리체계 마련

-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택배 보관 및 전달 등 생활의 편리함, 방법에 대한 안전함, 주택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은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이유인 동시에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불만의 원인이기도 함
-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해피하우스센터의 설치 등을 통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였음. 그런데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공간적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고 개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움

- 즉,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공동관리체계는 주민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합의를 통해 공동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공동관리체계의 목표와 운영방식, 사업범위, 운영비용 조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주민모임이 구성된 마을 중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공동관리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공간적 범위를 한정해야 하므로, 최소 규모 및 참여 희망 주민 비율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해줘야 함
- 공동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협동조합방식의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이 주택의 유지관리 및 생활편의 지원, 더 나아가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개보수 지원 등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협동조합방식의 경우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운영비용을 직접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활용 범위에 대한 논의와 조합비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함
- 조합비에 대한 부담으로 조합원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성북구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마을 공동의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공동관리체계와 관련한 비용은 공동관리체계로 인한 편리함과 안전함을 누리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주민합의에 의해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마을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관리체계 구축의 장점을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장 기본적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무인택배시설, 폐건전지나 형광등 수거함 등 마을 공동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방법초소의 설치와 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성북구 차원에서 초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을만들기 거점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쉼터 설치

-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도보로 접근 가능한 생활권 내에서 놀이 또는 휴식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마당을 갖고 있는 주택의 비율이 낮아 공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쉼터에 대한 욕구가 큰 편임. 하지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대지나 미활용 공유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썸지공원, 놀이터, 휴게공간 등 소규모 쉼터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음
-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쉼터를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단 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거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먼저, 마을 내 쉼터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쉼터의 종류와 규모를 추정해야 함. 이후에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걷기 등 주민참여수법을 활용하여 마을 내에 정비를 통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공간을 찾아내야 함. 공공시설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방치되고 있는 개인의 사적 공간, 개발 또는 건축 예정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공지 상태일 것으로 여겨지는 공간 등 다양하게 검토해야 함.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시설 또는 주택의 옥상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강조되어야 함

● **참고사례**

▶ **한평공원 만들기**

- (사)견고심은 시민연대는 2002년 원서동 한평공원을 시작으로 민간기업 및 행정의 후원을 받아 매년 한평공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 현재 40개가 넘는 한평공원이 조성되었음
- 한평공원은 기본적으로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 디자인 및 시공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성 이후의 관리까지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단순히 물리적으로 한평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한평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겨나 새로운 마을만들기 활동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평공원은 마을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마을별로 기능이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남



연계사업

◆ **서울시 한뼘동네공원(쌈지마당) 조성사업 : 공원녹지정책과**

- 서울시는 걸어서 10분 거리 내에 공원이 없는 공원소외지역에 한뼘동네공원(쌈지마당)을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뼘동네공원(쌈지마당)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대상지 선정, 계획 수립, 시공과정, 완료 후 관리 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
- 2012년 공원소외지역 대상지 81개소 중 전문가 회의 및 시민투표방식으로 관악구 은천동과 구로구 개봉동 2개소를 시범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관악구 은천동은 단독주택 1동을 철거한 뒤, 운동시설과 의자, 우수저류조, CCTV를 설치하고 나무들을 식재하였으며, 구로구 개봉동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북카페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중임
- 서울시는 2014년까지 175㎡ 규모의 한뼘동네공원(쌈지마당) 28개소를 조성할 계획임



■ **기존 주택 또는 공공시설 활용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보 및 운영**

- 소규모 쉼터와 같이 외부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임.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동주민센터는 모든 마을에서 접근가능하지 않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규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은 신축보다는 기존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임. 단기적으로는 공공시설 내에 활용되지 않는 내부 공간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일부 공간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계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주택을 집주인과 협의하여 장기간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마을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용도를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용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주민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특정 용도로 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공간을 설계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별로 이용규칙을 정하는 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는 작은도서관, 북카페, 놀이방, 방과후 공부방, 마을공방, 마을전시관, 마을카페, 경로당, 주민사랑방, 공동작업장 등 다양하기 때문에 주민 구성에 따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참고사례

▶ 부산시 감천문화마을 감내어울터

- 부산시 감천문화마을 감내어울터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부산시가 시비 8억원을 들여 옛 목욕탕 건물인 건강탕을 매입·리모델링하여 만들었음.
-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도자기 공방, 카페, 갤러리, 문화강좌시설, 방문객 쉼터 등이 운영되고 있음. 대형 욕탕, 사우나실, 수도꼭지, 사물함 등 기존의 공중목욕탕 시설물을 그대로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예술작가 1명과 주민 2명이 상주하여 관광객들에게 도자기, 천연염색, 목공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갤러리 작품을 전시하며, 커피 및 예술품을 판매하고 있음



4) 공동주택 밀집지역 추진방안

(1) 현황

- 폐쇄적인 공간구조와 개인 위주의 생활
- 공동규칙 위반,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
- 일부 주민대표가 주도하는 단지 관리
-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주택관리(쓰레기 배출, 주차, 택배 등)
- 입주자 참여에 의한 단지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추진 가능

- 교육, 문화, 예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음

(2) 대표지역

- 길음1동, 돈암1동, 종암동

(3) 기본방향

-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이웃과 더불어 소통하고 나누는 즐거운 삶터 만들기

(4) 추진전략

-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유형을 정리하면 ① 주민 욕구에 대응한 공동체 시설 및 공용공간 개선, ②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③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마을장터 및 마을행사 개최, ④ 협동조합을 통한 자생적 공동체 운영 모델 구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6-3] 공동주택 밀집지역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주민 욕구에 대응한 공동체 시설 및 공용공간 개선	- 기존 복리시설 이용실태 및 욕구 조사 실시 - 공동체 시설 및 공용공간 개선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세대 참여를 유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과 연계한 소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마을장터 및 마을행사 개최	- 나눔과 자원순환을 위한 마을장터 운영 -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육대회, 마을축제 등 마을행사 개최
협동조합을 통한 자생적 공동체 운영 모델 구축	- 협동조합방식에 의한 단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주민 주도의 자생적 공동체 운영 모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단계적 지원

(5) 실현수법

■ 주민 욕구에 대응한 공동체 시설 및 공용공간 개선

■ 기존 복리시설 이용실태 및 욕구 조사 실시

-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등의 종류가 있음. 복리시설 설치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는데 세대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복리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세대규모에 따라 정해지다보니 실제로 복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주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와 함께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복리시설의 현황 및 이용 실태, 주민들이 희망하는 복리시설 이용방식 등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함

- 공동주택 단지 내 여러 조직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복리시설 이용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복리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주민들과 공유함
- 조사방법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먼저 조사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용실태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복리시설이 이용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실제 주민들이 복리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엘리베이터 내 스티커붙이기 등을 통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조사를 실시할 때 법적으로 규정된 복리시설 이외에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시설이나 공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공동체 시설 및 공용공간 개선

- 복리시설 이용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민 참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체 시설 및 공용공간을 개선해가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설치된 복리시설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을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 복리시설이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이나 버려진 지하공간, 옥상 등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함. 복리시설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면적과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용도의 시설이나 공간을 추가할 경우에는 기존 시설이나 공간까지 포함하여 배치가 적절한 지에 대해 검토하여 수정해야 함
-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특정 용도로 한정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다목적 공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용주체, 이용시간, 이용절차 등에 대해서도 모두가 합의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함
- 공동체 시설 및 공용공간의 개선은 해당 시설 및 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함. 용도와 배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주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참고사례

▶ 서울시 강동구 현대홈타운 공동육아방

- 강동구 현대홈타운은 영유아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이고, 공동체활성화단체가 젊은 층의 입주민으로 구성되어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공동육아방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이용시간 및 대상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지 내 유휴공간 중 적합한 장소를 물색한 뒤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방치된 유휴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페인트칠을 하고 책장, 도서 및 장난감을 기증받아 공동육아방을 마련함
- 자율육아와 프로그램육아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율육아는 공동육아방 게시판 통해 입주민들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원하는 시간에 모여 놀다 가는 방식이고, 프로그램육아는 교육이 가능한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동요 부르고 율동하기, 가베수업, 바람개비 등 만들기 수업 등을 진행하는 방식임
- 공동육아방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여 주민 누구나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 2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품앗이교육시간을 운영하고 있음



연계사업

◆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사업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은 기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주민들이 제안하여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임
-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의 경우 북카페, 청소년휴카페, 예술창작소 등 기존에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지원했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제외한 새로운 개념의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주민사랑방, 주민쉼터, 마을창고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펼쳐지는 복합적인 공간이어야 함
- 연중 상시적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자부담 비율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리모델링, 비품 비치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비(임대료 제외) 및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며, 계속 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됨

■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세대 참여를 유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주민 연령대별로 관심사와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처음부터 모든 연령대의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입주민의 주요 연령대를 확인하여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함. 영유아를 가진 부모(20~30대)가 많은 단지의 경우에는 가사와 육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중고생 자녀를 가진 부모(40~50대)가 많은 단지의 경우에는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음.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고령자가 많은 경우는 건강, 여가,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음
- 이처럼 연령대별로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교육 및 문화, 예술 등 각종 강좌의 경우에는 단지 내 주민이 재능기부를 통해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과 기술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보람과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음
- 연령대별로 참여할 수 있는 시기와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1년 동안 운영할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여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지원 등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함. 특정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해당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부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상 프로그램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또는 방학기간 집중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도 중요함

● 참고사례

▶ 서울시 강서구 화곡3동 화곡푸르지오

- 강서구 화곡3동 화곡푸르지오아파트는 총 2,176세대 8천여 명이 거주하는 대형 평형 중심의 대규모 단지로, 입주민의 문화적 욕구가 큰 편임
- 2011년 강서구청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했던 컴퓨터실을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인 '푸르미홀'로 리모델링하였음. 공고를 통해 합창단을 모집했고, 30여명의 주민이 모여 주 2회 정기적으로 연습을 한 뒤에 지역축제 및 음악봉사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와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는 다목적커뮤니티공간 '푸르미홀'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

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특강과 행사를 수시로 열었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푸르미합창단, 라인댄스, 기체조교실, 중국어강좌, 천연비누특강, 요가교실, 기타교실, 영화상영, 어린이연극, 교육나눔멘토링 등 주민 재능 기부 프로그램이 많음

- 주민들은 30여개의 프로그램과 자율 동아리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푸르미아카데미' (<http://cafe.daum.net/prumiacademy>)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페를 통해 문화예술강좌와 건강강좌, 친환경 행사와 봉사 재능기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프로그램과 연계한 소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새로운 이웃을 만나 관계를 맺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관심사가 비슷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능함
-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비슷한 관심사를 주제로 하는 소모임을 구성하여 향후 마을만들기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안정적으로 모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는 모임 장소와 물품 등을 제공해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단, 소모임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칙을 정하고 그 결과를 단지 주민들과 공유해야 함
- 소모임은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주기나 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단순히 친목모임에 머무르지 않고 단지 차원의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소모임은 구성원의 특성과 연령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형태와 규모는 제한하지 않되, 특정 주제나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사례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마을주민 동아리 지원사업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 주민들끼리 할 수 있는 작은 마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주민 동아리 지원사업을 공모하였음
- 주민동아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참가자격은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마을에서 마을만들기를 시작하는 사업으로 5인 이상 참여해야 함. 새로운 주민모임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원센터의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모임이나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연계사업

◆ 서울시 우리마을 프로젝트 지원사업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서울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필요에 따른 마을공동체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우리마을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마을 프로젝트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이 최초의 주민 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모임 형성지원 사업'과 공동체의 주체가 일부 형성되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마을계획 수립지원 사업'으로 구분함
- 주민모임 형성지원 사업은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 3인 이상이 마을

- 과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성격의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지원사업에는 최초로 주민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이나 주민모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견학, 사례탐방 등을 포함하고, 악기모임, 춤모임 등 취미를 공유하는 소모임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공연을 개최하는 경우도 가능함
- 마을계획 수립지원 사업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복수의 주민모임으로 구성된 마을모임에서 우리마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지원사업에는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설문조사, 마을탐문조사, 견학, 사례 탐방 등과 주민동의를 모아가는 교육, 집담회, 마을회의, 마을행사 등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함

■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마을장터 및 마을행사 개최

■ 나눔과 자원순환을 위한 마을장터 운영

-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는 주민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을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음.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마을만들기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함
- 녹색장터, 벼룩시장, 아나바나장터, 나눔장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마을장터는 주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 최근에는 자녀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직접 판매하면서 경제 원리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마을장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음
- 마을장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지 내 많은 주민들이 마을장터의 운영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매월 첫째주 토요일 등 특정 날짜를 정하고 반드시 약속된 날짜에 마을장터를 운영하여 신뢰와 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를 선정하여 마을장터를 발견하고 우연히 참여하는 주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물품 판매 이외에도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해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마을장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주민이기 때문에 판매금액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하거나 마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모금 현황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마을장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함

연계사업

◆ 서울시 녹색장터⁵⁾ : 자원순환과

- 서울시 녹색장터는 독서 나눔장터 등 기존 서울시가 개최한 나눔장터가 장소 제약 및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 시민과 판매 물품이 한정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공원, 주차장 등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동네 사람끼리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한 사업임
- 녹색장터 운영은 부녀회 등 주민모임, 녹색장터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 동호회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월 1회 이상 장터를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된 운영단체에게 1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의 재활용센터와 연계하여 중고가전 무상·실비수리 이벤트, 우산 수리, 재활용 교육, 폐건전지·폐휴대폰 수집 등을 실시하고 있음

5) <http://greenmarket.seoul.go.kr>

▶ 서울시 양천구 목동11단지 아나바다 장터

- 양천구 목동11단지는 2012년 5월부터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아나바다 녹색장터를 개최하고 있음. 아파트 단지 내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주택면적이 좁아 유아, 초등생, 중학생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민이 많은 편임.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 물품을 나눠 쓰는 아나바다 녹색장터를 추진하게 되었음
- 녹색장터에서는 녹색장터 판매와 함께 참가자 행운권 추첨, '민속놀이' 체험장, '손톱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장 등을 함께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음. 어머니회 회원들이 향균 수세미를 만들어 판매하고, 장터 안내, 운영, 관리를 담당했고, 중·고등학생 자원봉사로 '민속놀이(투호던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굴렁쇠굴리기)' 체험장과 '손톱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장이 운영됨. 또한 판매금의 10%를 참여자들에게 후원받아 연말에 11단지 주민 일동으로 후원하였음



■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육대회, 마을축제 등 마을행사 개최

- 과거에는 추석, 설날, 한식, 정월대보름 등 명절이 되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윷놀이나 노래자랑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음. 현재 도시에서도 행정동별로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 연초에 함께 산신제를 지내면서 전통행사를 계승하는 곳도 있으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봄이나 가을에 체육대회나 노래자랑과 같은 마을행사를 개최하기도 함
- 체육대회나 마을축제 등 마을 주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마을행사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홍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자리가 될 수 있으며, 평소에 마을 일이나 이웃에게 관심이 없었던 주민들이 마을만들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마을행사가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고 홍보기간을 충분히 두어 많은 주민들이 마을행사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마을행사 안내문을 부착하고 행사 전일과 당일에는 안내방송을 통해 마을행사 개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함
- 이러한 마을행사를 기획할 때에는 단지 행사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인근 단지나 단독주택지역 주민모임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지역사회의 주요한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같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같은 마을의 주민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행사를 인근 지역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 길음뉴타운 마을축제 및 나눔장터

-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길음뉴타운입주자협의회와 함께 '지역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행복한 마을'이라는 주제로 길음뉴타운축제를 매년 5월 개최하고 있음
- 길음뉴타운은 여러 단지가 인접해있기 때문에 개별 공동주택 단지가 참여하는 축제가 아니라 모든 단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축제임

- 2012년의 경우, 문화공연(인디밴드, 어린이 환경뮤지컬, 초등학교 동아리 공연, 청소년 공연 등), 체험부스(매직쇼,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인절미 만들기 등), 나눔바자(의류바자, 먹거리바자), 어린이 그림대회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나눔바자 수익금은 다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였음



연계사업

◆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 5월 마을로의 초대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의 한 유형인 '5월 마을로의 초대'의 경우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일축제와 연합축제로 구분되며, 5월 중에 실제로 축제를 개최해야 함
- 단일축제는 300만원 내외, 연합축제는 최대 1,500만원(300만원 내외 2x2~5개)을 지원하며, 전체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임, 2013년의 경우 유형별로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고됨
- 단일축제는 하나의 마을에서 하는 축제, 사업유형은 ① 같은 날, 단일 장소에서 하는 작은 축제, ② 하나의 아이টে으로 하는 축제, ③ 골목이나 아파트 단위의 축제가 포함됨
- 연합축제는 다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하는 축제, 사업유형은 ① 같은 날, 단일 장소에서 다양한 아이টে을 가지고 하는 큰 축제와 ② 다른 날 또는 다른 장소에서 하는 축제가 포함됨

■ 협동조합을 통한 자생적 공동체 운영 모델 구축

■ 협동조합방식에 의한 단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의미와 가치, 협동조합의 운영방식 및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협동조합방식에 의한 단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 단지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협동조합방식으로 전환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방식을 통해 단지를 관리하거나 교육, 복지, 돌봄, 육아 등 품앗이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여 협동조합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강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가 주민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단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는 교육 강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 것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지 및 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좌를 구성하여 필요할 때마다 운영해야 하는데, 협동조합에 대해 먼저 고민하고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신규로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형태가 효과적일 수 있음

연계사업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 서울시는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① 동북권-사회투자지원재단(노원구), ② 서북권-한살림서울생협(중구), ③ 동남권-한국협동조합연구소(서초구), ④ 서남권-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영등포) 등 4개의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상담은 협동조합분야 운영 및 연구·교육, 실행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며, 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① 협동조합 기본법, ②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분야, ③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이, ④ 협동조합 운영원리, ⑤ 조합원 가입 관련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됨
-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초보자(협동조합의 가치와 원리, 성공사례 등), 중급자(협동조합기업의 설립 방안 및 절차 설명, 업종별 참고자료 및 전문가·기관 안내), 고급자(설립신고·인가에 따른 서류 작성과 절차)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성북협동조합 마을학교 '협동조합! 두드림(DODREAM)'

- 성북구는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성북협동조합 마을학교 '협동조합! 두드림(DODREAM)'을 운영하고 있음. 2013년 제3기 성북협동조합 마을학교의 경우 총 4강으로 운영되는데,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 가능함
- 교육과정은 ① 협동조합 들여다보기 : 지금, 왜 협동조합이 대안경제로 떠오르는가?, ② 협동조합 뽀개기 : 협동조합 기본법과 운영원리, ③ 협동조합 맛보기 : 문학과 예술 속에서 찾아보는 협동조합, ④ 협동조합 상상하기 : 협동조합 운영사례 : 함께걸음의료협동조합으로 구성됨

■ 주민 주도의 자생적 공동체 운영 모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단계적 지원

-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방식에 의한 단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실제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민모임이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협동조합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부문별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협동조합방식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으로 참여할 주민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교육, 복지, 돌봄, 육아 등 욕구가 확인되는 부문별로 품앗이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단지 및 주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활동으로 연계한 뒤 확대 운영해가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운영 모델을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에 확산하는 것이 중요함.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전제로 해야 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협동조합방식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
-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민 주도의 자생적 공동체 운영 모델의 지속가능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확대 추진에 앞서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 및 유형별 대응 전략도 모색하여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통적인 영역 이외의 차별적인 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함

● 참고사례

▶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아파트

- 부녀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욕구 조사를 통해 2009년 월 1회 회의공간으로 사용되는 관리사무소 3층을 독서실을 만들었음.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빌려와 공기청정기, 천정에어컨, 운동, 비데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음. 월 이용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인 7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음. 5

- 명의 부녀회 회원들이 시급 4,000원을 받고 돌아가며 관리하고 있음
- 2010년에는 유용미생물(EM) 발효액과 세탁비누를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2011년에는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유용미생물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재생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음
- 2012년에는 관리사무소 2층을 마을문화센터와 어린이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였음. 문화센터에서는 바리스타, 요가, 바둑, 요리, 공예와 아이들 보드게임의 6개 프로그램을 주 2~3차례씩 운영하고 있음. 이외에도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 텃밭상자, 아파트봉사단 결성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2013년에는 기존 마을기업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음. 소(통), 나(눔), 기(쁨)의 줄임말인 '소나기 아파트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협동조합을 신청할 예정임.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 고구마, 고추 등 먹거리 공동구매, 콩나물 재배, 반찬가게 운영 등을 포함하는 '로컬푸드, 그린푸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연계사업

◆ 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공동주택과

- 서울시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 주도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되는데, 지정공모는 전액시비 보조사업이고 자유공모는 시·자치구 매칭사업임
- 지정공모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주민교육 및 컨설팅 사업과 커뮤니티 리더 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주민학교와 아파트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공동참여, 생활공유 사업(공동육아, 공동빨래방, 카풀, 공유도서관, 공구도서관, 밥상공동체 등)으로 구분됨
- 사업비는 아파트 관리비 관련 사업은 시비 500만원 이내이고 그 외 사업은 시비 1,000만원 이내로, 초과분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함

5) 임대주택 밀집지역 추진방안

(1) 현황

- 고령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
- 일하지 않는 주민의 비율이 높음
- 주민참여 저조로 지역사회 침체
- 방치·고립되고 있는 취약계층과 자살률 증가
- 지역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 증가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시설 부족

(2) 대표지역

- 길음1동, 돈암1동, 월곡1동, 종암동

(3) 기본방향

- 일 할 기회가 있는 마을만들기 + 돌봄과 나눔을 통한 공동체에 기반한 복지마을 만들기

(4) 추진전략

- 임대주택 밀집지역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유형을 정리하면 ①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 ②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③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및 복지 거점 조성, ④ 자발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6-4] 임대주택 밀집지역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제공	-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아이템의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 지역사회 내 일자리 확보 및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주민 특성을 고려한 취미 및 교육문화 강좌 프로그램 운영 - 마을만들기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을행사 개최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및 복지 거점 조성	- 유휴공간 실태조사 및 활용 방안 모색 및 협의 -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공동체 및 복지 거점 조성
자발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 돌봄 관련 수요 및 자원 조사 실시 -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공공일자리 및 자원봉사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5) 실현수법

■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

■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아이템의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일반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일을 구하지 못해 실업상태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마을기업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다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특성과 주민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단지과 지역에 적절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 사업 아이템은 크게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이나 공적 부문과의 협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살펴보면 먼저 택배의 경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시도해볼만 함. 택배회사와 협약을 통해 특정 공동주택의 택배물량을 직접 받아 단지 내 주민들이 배달하는 방식으로 이미 성북구 길음뉴타운 내에서 시도하고 있음. 이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약을 통해 단지 내

- 청소나 재활용쓰레기 수거, 도배장판 교체 등을 위탁받는 방식도 가능하고, 단지 내 옥상에 공동 텃밭을 조성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도시농업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함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크게 돌봄, 교육, 공동식당 운영 및 도시락 배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 주민 중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해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도 가능함. 또한 공공임대주택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방과후 공부방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마을기업 사업 아이템으로 고려할 수 있음. 아동 이외에도 치매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주간보호센터도 행정과의 협약을 통해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마을기업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행정 및 민간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참고사례**

▶ **대구시 달서구 월성 영구임대주택의 새싹삼 재배 '싱싱한 팜'**

- 대구시 달서구 월성 영구임대주택은 아파트 외곽에 방치된 놀이터가 취객과 비행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면서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놀이터 자리에 유리온실을 설치하였음. 주민들이 직접 국화를 재배하여 전시회 및 축제를 열고 풍덩이를 키워 분양하는 등 유리온실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단지 내 봉사단체인 월성사랑회 차원에서 기존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고, 새싹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마을기업 (주)월성사랑회 '싱싱한 팜'을 설립하였음. 새로운 일자리를 5개 창출하여 단지 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투자와 판매로 얻은 수익금은 모두 월성사랑회의 봉사활동으로 환원하여 아파트 내 행사를 열거나 주민자치 활동에 사용하고 있음



연계사업

◆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 : 자활지원과**

-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은 쪽방촌, 영구임대주택단지, 불량노후주택단지 등 저소득 밀집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들의 자조 기반 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지원함. 일자리 창출(지원), 환경개선, 자조금고, 여가활용 등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사업유형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자치구·지역자활센터 연계형 종합 지원 사업인 지역형(공공부문 연계형) 사업과 주민(또는 민간단체)이 스스로 기획하는 소규모 지원 사업인 아이템(민간단체 주도형) 사업으로 구분됨. 지역형(공공부문 연계형) 사업의 경우 자치구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해당 주민 설명회 개최 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사업제안을 한 단체나 모임은 심층상담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 2012년도 선정결과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 임대아파트의 달맞이 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은평구 구산동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빌 사랑터 운영이 선정되었음

◆ **NH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사업**

- NH는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2010년부터 NH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기서 생긴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0년 시흥 능곡, 청주 성화, 대구 율하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전북 익산, 충북 충주, 경기 화성, 원주 태장, 울산 호계 등 8곳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마을형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었음
- 8개 마을형 사회적기업은 돌봄 서비스, 급식, 영농, 친환경제품 제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9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루 360여명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LH는 2016년까지 1,50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30개의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여 36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루 1,400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향후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사회적기업 유치 공간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임

■ 지역사회 내 일자리 확보 및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 마을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포함된 지역사회 내에서 일자리를 확보하여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임
-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 내에서 확보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기술을 확보하고 경험을 축적해야 함.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전혀 없는 주민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사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과거에 유사한 일자리에 종사한 경우에도 오랫동안 노동시장을 떠난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
- 특히 마을기업을 통해 확보된 일자리나 지역사회 내에서 발굴되어 연계된 일자리의 경우 일반노동부분이 아닌 사회적경제 부문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 습득을 위한 것 이외에도 마을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인 취약계층을 대하는 태도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교육 및 훈련을 마을일꾼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해야 함

● 참고사례

▶ SH공사 취업지원 아카데미

- SH공사는 2011년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사회적기업과 함께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SH공사가 임대주택시설물 분야의 일감을 일부분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면 사회적기업은 교육기간동안 수강생을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도배 및 장판 시공의 보조업무를 맡겨 3개월간의 교육기간을 성실하게 마칠 경우 정식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이와 함께 SH공사가 운영 중인 '시프트 아카데미' 내에 기술훈련과정을 신설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3개월 동안 주말에 교육을 실시함

■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주민 특성을 고려한 취미 및 교육문화 강좌 프로그램 운영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아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 부족, 비용 부담, 심리적 여유 부족 등으로 인해 취미활동이나 교육문화 강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마을만들기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취미 및 교육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취미 및 교육문화 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 때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면 무료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집단의 욕구에 대응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따라서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발굴 및 육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장애인 등 문화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미 및 교육문화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함. 공공임대주택 단지 및 인근 지역의 재능있는 주민을 발굴하여 재능기부 형태로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참고사례

▶ 청주시 성화동 국민임대주택 청개구리 도서관 주민 프로그램

- 청주시 성화동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단지 내 복지시설을 LH와 협의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LH가 공간(600m²)을 제공하고,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에서 필요한 도서를 제공했으며, 충청북도는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지원했음
- 청개구리 도서관에서는 도서대출 이외에도 주민들과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요가교실, 리본, 부채 만들기 등 공예교실, 부모교육강좌 등을 통해 젊은 엄마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책읽어주기, 그림책과 놀기 등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엄마들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또한 마을축제와 마을영화제 등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마을만들기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을행사 개최

- 취약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협소한 편인데, 아파트의 폐쇄성은 이러한 경향을 강하게 함. 혼자서 생활하는 고령자나 장애인은 외부활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계속하게 됨
-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할 때 추진주체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만들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면서 마을만들기를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마을만들기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모임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규모 마을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마을만들기의 즐거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을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단지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이동식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오가면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간단한 음식 나눔, 물품 교환 등을 포함한 베품시장도 시도해볼 수 있음. 젊은 세대의 비율이 높은 단지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고령자 비율이 높으면 수지침이나 한방진료 등 건강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주민 특성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참고사례

▶ **부평은 대학 '카페 뉴서울'**

- '부평은 대학'은 아파트형 문화공동체 활성화 모델 개발과 지역에 기반한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을 목표로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뉴서울아파트를 대상으로 5개월 동안 활동하였음
- 2차례 진행한 '카페 뉴서울'은 단지 내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 커피와 빵을 제공(자율 모금)하고, 솜사탕 만들기, 캐리커처 그리기, 문패 만들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와 함께 나온 30~40대 부모들과 자연스럽게 주민 인터뷰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지역 내 문화 자원에 대한 이해도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였음



■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및 복지 거점 조성

■ 유휴공간 실태조사 및 활용 방안 모색 및 협의

-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돌봄 및 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점이 되는 공간이 필요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주택과 주민복지시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가가 발생하고 단지 내 임대상가 중 비어있는 점포가 존재함
- 주민들이 주도하여 미활용 주민복지시설, 단지 내 빈 점포, 빈 집 등 유휴공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공간 활용과 관련한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마을계획과 연계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의 용도와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한정된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함. 또한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초기 투입 비용과 관리운영 비용을 산출하고 충당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 실내 공간 이외에도 놀이터, 쉼터, 운동시설 등 단지 외부 공간에 대해서도 계획된 용도에 맞게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적절한 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분양주택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인 주택관리공단이나 SH공사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도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공동체 및 복지 거점 조성

- 주민 참여에 의해 유휴공간 활용 방안이 마련되면, 실천활동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주민공동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 사용조건, 유지관리비 비용 부담 원칙 등 유휴공간의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이 담긴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모임 간 또는 주민과 관리주체 간,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함
-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조성된 공동체 및 복지 거점의 존재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단지 주민들에게 공고문 등을 통해 알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해본 이후 당초 계획대로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함. 주민들의 노력으로 버려지거나 활용이 잘 되지 않았던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그 공간이 공동체 및 복지 거점으로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과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주민 참여 및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참고사례

▶ SH공사의 방화6단지 임대주택 단지 및 은평뉴타운 내 북카페 설치

- SH공사는 단지 내 미분양 상가를 활용해 북카페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소통을 지원하고 있음
- 2010년 방화6단지 임대주택 단지 내 장기 미임대 상가 2개 점포를 이용하여 "여성행복 북카페"를 설치하였음. 북카페에서는 문화예술(연극놀이 체험 등) 전문가 무료교실 운영, 영화상영 및 영화 관련 영상물 상영, 음악방송 및 마을음악회 등으로 구성된 요일별 테마카페, 도서선장추천서평 게시, 매월 독후감 모작시상 및 우수작 게시를 내용으로 하는 도서추천 및 이벤트, 참여 고객 지도력 양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2012년에는 은평뉴타운 내 미분양 상가 2개소를 활용하여 북카페 '물푸레'를 개관하였음. 은평뉴타운은 일반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어 주민들이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할 수 있는 북카페가 사회통합(Social Mix)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SH공사에서 미분양 상가를 무상임대하고, 시설 설치비용과 비품 및 도서 구입비용을 부담하였음. 은평구청에서는 관리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관리운영을 담당할 계획임



연계사업

◆ LH 임대단지 공부방 설치 공모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단지 내 유휴 공간에 공부방을 설치·운영하여 입주 아동에 대한 교육, 급식, 정서 함양,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2013년의 경우 1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내용은 크게 공부방 리모델링 비용 지원(최대 1,300만원), 운영비 일부 지원(1,000만원, 2년간), 문화프로그램 진행비 지원(500만원 2년간)로 구분됨. 운영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하거나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임대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부방 운영을 위해 최소한 82.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공부방 서비스 이용료는 무상이 원칙임

■ 자발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 돌봄 관련 수요 및 자원 조사 실시

- 성북구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이 재개발임대주택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달리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봄 관련 수요 및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및 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동 등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실태조사를 통해 수육을 파악해야 구체적인 돌봄 대상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
- 기본적인 현황 파악은 성북구청 및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입주자 관리카드를 바탕으로 하되, 욕구 파악과 관련해서는 개별 가구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가구가 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해야 함. 특히 자발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일정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 돌봄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기적으로 재능기부 활동이 가능한 주민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돌봄 관련 수요 및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돌봄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해갈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계획에 근거하여 돌봄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돌봄 네트워크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특히 돌봄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돌봄이 필요한 계층의 특성에 따라 달라짐. 돌봄에 대한 수요가 아무리 크더라도 돌봄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면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순위는 돌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
- 또한 돌봄 네트워크는 수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를 해당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한정해서는 안 됨.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인접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나 분양주택 단지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연계사업

◆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 출산육아담당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율적 보육·육아활동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회적 돌봄으로서 지역적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임
- 주민 3인 이상이나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안할 수 있으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구축비 등을 지원하는데, 성장단계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함

성장단계별	지원한도액/연간	지원기간	지원내용
씨앗	300만원	1년간	인큐베이팅(6월말 선정)(커뮤니티 활성화비)
새싹(토대)	3,000만원 이하	최초 1년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인프라 구축비 등
줄기이후(도약·발전)	4,000만원 이하	최대 3년간 지원	

○ 유형별 제안사업은 다음과 같음

유형	특징	지원방향	지원 사업
자조모임형	부모 품앗이,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주양육자 활동	양육자 정책요구 수렴 및 자생적 육아활동 지속성 보장	- 지역 내 문화공간, 주민센터, 기타 마을주민 공간 등을 활용 · 품앗이육아(종일, 시간제, 긴급) ·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 발달·체험프로그램 재능기부 운영 · 육아상담·교육 · 보육인적자원육성 · 기관연계 돌봄사업 · 기타 공동육아사업
공공기관연계형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육아공동체 활동	공공기관의 참여확대 및 지역돌봄 강화	※ 지원제외·축소 · 학습프로그램비 제외 · 어린이집 운영비 제외 · 과도한 임대료, 행사성 경비 지원축소
민간기관연계형	출판사, 기업 등 민간기관과 연계한 육아공동체 활동	민간기관의 지속적 지원·관심확장 및 주민 자율성 보호	
지역거점형	지역내 거점을 중심으로 육아사업 추진	지역내 거점화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육아활동 지원	

■ 공공일자리 및 자원봉사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자발적 돌봄 네트워크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북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초기 운영을 지원해야 함
-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경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원봉사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돌봄 지원대상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력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와 연계하여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생계와 육아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단지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의 부모에게 우선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력 이외에도 돌봄 활동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함. 특히 단순 노력봉사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재능 기부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센터와 연계하여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자발적 돌봄 네트워크의 취지와 가치에 공감하는 지역사회 자원을 자체적으로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단지 주민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 주민이나 대학생을 포함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일자리 및 자원봉사 연계를 통해 돌봄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추진주체를 확보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 성북구도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발적 돌봄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공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계사업

- ◆ 서울시복지재단 희망온돌 나눔이웃 활성화 공모사업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이웃이 지역내 취약계층을 돌보는 따뜻한 돌봄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희망온돌 나눔이웃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2년 10개 사업(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2013년에는 40개 사업(최대 1,400만원 이내 지원)으로 확대하였음

- 이웃의 형편을 잘 아는 주민(부동산중개업소, 슈퍼, 미용실, 야쿠르트 아줌마 등)들을 나눔이웃으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하여 시민 스스로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서비스 연결을 지원하도록 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임
- 서울시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지역복지협의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은 '나눔이웃' 발굴 및 교육, 간담회, 워크숍, 현장견학, 조직화 등 '나눔이웃' 발굴·육성사업과 '나눔이웃'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사업을 포함함

◆ 내 엄마손 밥상 프로그램

- 엄마손 밥상 프로그램은 방학기간 동안 맞벌이 등으로 인해 혼자 있는 아이들에게 점식식사를 제공하면서 풍선아트, 영화관람, 탁구, 난타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내가 주거복지연대와 함께 2005년에 수원매탄 국민임대주택 단지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2012년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전국 88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확대하여 4,000여명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함

◆ SH공사 노노(老老)케어사업

- SH공사 노노(老老)케어사업은 영구임대주택의 건강한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서울형 일자리사업의 유형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주 3~4일 근무에 1일 3~4시간, 월 36~64시간을 참여하는 조건으로 매월 20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함

6) 전통시장 지역 추진방안

(1) 현황

- 시장재정비사업으로 골목형 전통시장 상권 축소
- 인근 지역 내 SSM 설치로 인한 고객 및 매출 감소
- 주차장, 화장실, 휴게공간 등 쇼핑편의시설 부족
- 시장상인의 고령화와 서비스 마인드 부족
- 원산지 미표기 및 조작에 대한 불신 심화
- 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성 및 특색 부각 부족

(2) 대표지역

- 정릉시장, 돈암제일시장, 석관황금시장 등

(3) 기본방향

-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있어 계속 찾아가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

(4) 추진전략

- 전통시장 지역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유형을 정리하면 ① 상인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상인회

활성화, ②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 수립 및 추진, ③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추진, ④ 서비스의 현대화와 고객 참여형 이벤트 개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6-5] 전통시장 지역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상인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상인회 활성화	- 교육을 통한 상인회 역량 강화 -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공동체 활동 추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 수립 및 추진	- 상인 참여를 통한 지역 특성 발굴 및 특화전략 수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적 추진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추진	- 공동주차장 설치 및 관리 - 빈 점포 매입 및 임대를 통한 편의시설 확보 - 시장특색을 반영한 시설물 정비
서비스의 현대화와 고객 참여형 이벤트 개최	- 원산지 및 가격표기 운동 추진 - 쿠폰 및 포인트 제도 도입 - 배송서비스 제공 - 토요일장터 및 베틀시장 등 이벤트 개최 - 체험을 위한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5) 실현수법

■ 상인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상인회 활성화

■ 교육을 통한 상인회 역량 강화

- 전통시장의 마을만들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상인들의 매출 증대 및 경제적 여건 개선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구성원인 상인들의 참여와 단결이 우선되어야 함
- 상인회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대표조직으로,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해가고 있음. 상인회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내 모든 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여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함
-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여러 부문별 실천사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면 상인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회장, 총무 등 상인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상인회에 소속된 회원인 개별 상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상인대학 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이 기본이 되어야 함
- 상인대학 운영은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인회 차원에서 전통시장의 특성과 상인들의 주요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전문 강사에 의한 강연식 교육을 지양하고, 현재 전통시장이 처해있는 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상인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 상인회에 소속된 모든 상인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상인대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인회의 활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일부 상인의 뜻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상인회의 결속력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음

연계사업

◆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 사업 : 시장상권과

-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영혁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 지원 내용은 ① 마케팅(공동마케팅, 공동구매 및 특가판매, 시장투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지원 등), ② 상인교육·연수(상인대학, 상인대학원, 맞춤형교육, 정보화교육 등), ③ 시장관리·점포경영 선진화(시장자문·점포지도, 상인조직역량 강화) 등이며, 사업에 따라 지원한도와 지원조건이 달라짐
-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신규 신청 시장이나 특성화 시장 등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시장을 우선 지원함

■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공동체 활동 추진

- 전통시장 상인들은 자신의 집보다 시장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이웃과의 교류도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짐. 즉,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전통시장 내에서 다른 상인들과 함께 보내고 있음. 판매업종의 특성상 영업시간 동안에는 계속 상점을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은 한가한 시간에 주변 상점의 상인을 중심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상인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상인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공동체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공동체 활동은 서로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친목활동을 비롯하여 공통된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활동이나 나눔과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 특히 동호회활동은 노래, 악기연주, 댄스, 요리, 그림그리기, 글쓰기 등 감성적 문화활동과 연계되면 축제나 이벤트를 개최할 때 상인들이 직접 공연이나 전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라디오 방송 운영, 시장신문 발행 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
- 또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통시장이 지역사회와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상생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1% 나눔 운동'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참고사례

▶ 청주시 가경터미널 시장 동아리활성화 프로젝트

- 청주시 가경터미널 시장은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장문화소통공간 '덤'에 조성한 동아리활동실을 활용하여 시장으로 이주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를 구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였음. 수강료는 가경터미널시장 공동문화쿠폰 50장으로 책정함
- 풍물&난타 동아리, 판소리 동아리, 가경상인 밴드, 우리 춤 동아리 등 4개 동아리가 구성되어 주 1회 동아리 연습을 진행하였고, 가경터미널시장 가을 축제에서 각 동아리들이 발표회에 참여함



■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 수립 및 추진

■ 상인 참여를 통한 지역 특성 발굴 및 특화전략 수립

- 성북구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2011)에서는 현황 분석, 상인회 의견, 소비 트렌드 등을 토대로 정릉시장, 돈암제일시장, 석관황금시장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음. 우선 정릉시장은 정릉천을 정릉시장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정릉천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공원형 시장으로, 돈암제일시장은 여성 위주의 상권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여성중심형 시장으로, 석관황금시장은 골목시장의 친근함과 문화적 감성을 담은 문화형 시장으로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의 특성과 지역 특성을 발굴하여 이를 활용하여 특화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지역 특성을 발굴하고 특화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 특성과 이용객의 성향과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해온 상인들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개별 상인의 여건에 따라 참여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참여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간단한 선호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상인회 실무자가 직접 상점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함.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특화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워크숍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그룹별로 이해관계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 전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권리관계나 업종별로 공통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참고사례

▶ 종로구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통'

- 종로구 통인시장은 마을 내 골목시장으로 반찬가게, 떡, 분식가게 등 먹을거리와 관련된 점포가 많은 편이고, 인근에 사무용 건물이 밀집하고 있어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편임. 통인시장 상인회는 시장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락카페 '통'을 운영하고 있음
- 고객만족센터 2층에 위치한 도시락카페에서 500원 단위의 업전을 구입하면 빈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음. 이용객은 시장 내 20개 정도의 도시락카페 가맹점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업전으로 구매하면 됨.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반찬을 입맛대로 골라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통인시장의 명물로 홍보되어 이용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인시장 전체 매출도 증가하고 있음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적 추진

- 성북구 내 전통시장은 특수한 용도의 시장이 아닌 생활권 내에 위치한 일반적인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상점유형과 판매물품이 중복되는 경향이 나타남.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들릴 수 있도록 친밀감과 한 번 방문하면 다시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설렘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특화전략을 수립할 때는 전통시장의 특성과 장점을 바탕으로 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한 번에 모든 상인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바로 실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방향이 결정되고 실행이 가능한 부문별로 실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합의 형성을 기본으로 하되, 전략적으로 시급하게 준비가 필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여겨지는 부문에 대해서는 상인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의견을 조정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계사업

◆ 중소기업청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 공공판로지원과

- 중소기업청은 지역 문화, 관광 및 특산품 등을 연계하여 성장이 가능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특성 발굴, 관광자원 연계 개발, 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원분야는 크게 문화관광형시장(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한 시장), 국제명소시장(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시장), 민속5일장(역사·전통이 있는 5일장)으로 구분되며, 2013년의 경우 신규 시장을 21개소 지원할 계획임. 시장당 2년간 최대 10억원(국비 기준)을 지원하는데, 시장규모와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지원내용은 ① 시장특성 발굴·개발(시장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발굴, 스토리텔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체험거리 등의 조성), ② 관광자원 연계 개발(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상징물 조성 등), ③ 지속발전 역량 강화(상인조직을 택배사업 등의 수익모델을 갖춘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홍보·마케팅 등 지원)로 구성됨.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 편의시설 및 판매시설 등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함
-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추진

■ 공동주차장 설치 및 관리

- 현대사회는 승용차 중심의 생활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편리한 주차는 이용객 확보 측면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주요한 과제임. 공동주차장 설치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북구 차원에서 중소기업청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함
- 공동주차장 설치를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설치 이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초기단계부터 상인회 자체적으로 관리 실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함. 무료주차권 발행 대상 및 방법 등을 상인회 차원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뒤 상인들과 이용객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무료 주차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빈 점포 매입 및 임대를 통한 편의시설 확보

- 시설현대화를 통해 편의시설은 화장실, 고객쉼터, 사무실, 회의실 및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 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편의시설의 규모와 용도, 배치방식 등은 전통시장의 규모와 공간구조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

요가 있음. 시장 규모가 작거나 집중형 공간구조인 경우에는 편의시설을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시장 규모가 크거나 선형 또는 격자형 구조의 경우에는 편의시설을 소규모로 하여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편의시설 용도를 결정할 때는 화장실 등 필수 용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용도는 상인 및 이용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성이 큰 용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고객센터의 운영시간을 이용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대로 한정하고, 이외 시간에는 상인사랑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고객센터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카페 형태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거나 상인회 운영 경비 및 이벤트 개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비용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편의시설이 확보되면 시장 입구 및 통로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고사례

▶ 강북구 수유마을시장 작은도서관, 다락방, 생생클럽

- 강북구 수유마을시장은 문정정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다락방, 생생클럽 등 상인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였음
- 작은도서관은 상인회 사무실 옆 창고를 개조하고, 상인들의 후원을 받아 설립하였으며, 단순히 도서를 대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소통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1회 3권의 책을 대여하는데 대출기간은 2주임.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
- 다락방은 시장 내 예술동아리 모임 및 워크샵, 연습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2011년에 시장카페로 재단장하면서 오전에는 예술동아리(한중매화방, 민요 벚바리, 난타 시장통, 건강댄스모임, 글쓰기모임)의 워크샵 공간으로 사용하고 오후 1시부터 음료와 차를 판매함. 오전시간대와 오후 7시 이후에는 모임 장소로 대여(1회 2시간 이용, 5,000원)가 가능함. 수익금의 1/3은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고 1/3은 시장 예술동아리를 지원하며, 나머지 수익은 카페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생생클럽은 시장 내 상가건물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성의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음. 평상시에는 시장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도 활용되고, 리본공예, 목공, 종이공예 등 각종 공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 시장특색을 반영한 시설물 정비

-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때 시설물 정비는 크게 아케이드 설치, 간판 정비, 가판대 제작 등으로 구분되며,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임
- 시설물을 정비할 때 단순히 기능적 측면만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의 특색이 반영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여 시각적 홍보 효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간판이나 가판대의 디자인은 시장 전체 또는 개별 상점에 대한 이미지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동일한 디자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루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에 용도별 또는 위치별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함. 또한 디자인 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간판이나 가판대 제작이 완성된 이후 불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상인들이 참여하는 디자인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디자인 시안이 나온 이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상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참고사례

▶ 청주시 가경터미널 시장

- 문정성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청주시 가경터미널 시장은 공공미술을 활용하여 점포 상징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점포의 주요 판매품을 천이나 생활용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하여 점포 앞에 설치하는 방식임
- 점포 상징물은 간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제공함으로써 점포를 눈에 띄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연계사업

◆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시장상권과

-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국비 최대 7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조건은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를 원칙으로 하지만, 주차장, 진입로, 공동화장실, 상·하수도, 전선지중화, 공동가스·전기·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광장은 민간부담을 면제하고 있음
- 주요 지원 내용은 ① 주차장,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② 시설물 개보수(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교체·개량) 등 노후시설 개선, ③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거리정비, 홍보·상징조형물 등) 설치 등이며,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치·조형물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서비스의 현대화와 고객 참여형 이벤트 개최

■ 원산지 및 가격표기 운동 추진

- 전통시장의 경우 원산지와 가격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직접 상인에게 물어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는 불편함을 느끼고 전통시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됨. 대형할인마트와 달리 모든 것을 상인 스스로 관리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원산지 및 가격표기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함

- 상인회 차원에서 원산지 및 가격표기 운동을 추진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원산지와 가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격변동이 심하고 판매물품이 달라져서 매번 표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접 쓰고 지울 수 있는 메모판 형식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공공미술팀과 연계하여 시장 및 가게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임
- 원산지 및 가격표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상인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이유를 파악하여 일정기간 동안 원산지 및 가격표기를 직접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쿠폰 및 포인트 제도 도입

-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최근 고객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인회가 공식적으로 쿠폰이나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전체 시장 상인이 참여하면 쿠폰과 포인트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단골고객을 확보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임
- 소규모 영세 상인이나 노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쿠폰 및 포인트 제도의 경제적 효용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쿠폰 및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포인트 제도의 경우 회원카드 제작 및 시스템 확보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적고 준비절차가 간단한 쿠폰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쿠폰을 제작할 때 해당 전통시장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하여 이용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사례

▶ 서울시 광진구 중곡 제일시장 혁신 프로그램

- SK텔레콤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중곡 제일시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음
- 중곡 제일시장은 상인회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시장으로, 마을기업인 (주)아리청정을 설립하여 참기름, 멸치, 김, 육가공품 등 시장 제품을 '아리청정'이라는 상품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음. 하지만 낮은 브랜드 인지도, 쇼핑물 사업에 대한 전문역량과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매출 성장에 한계가 있음
- SK텔레콤은 중곡 제일시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한 전통시장'을 목표로 정보통신기술(CT)을 접목한 판매방식 도입, 전문 프로보노 활동을 통한 경영·마케팅 노하우 전수, 정보통신기술(CT) 활용과 온라인 판매, 고객 서비스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마켓인 11번가에 '아리청정'을 판매하여 온라인 마켓을 활용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였고, 무료 와이파이 존을 지원하여 스마트 월렛을 통해 모바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지역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배송서비스 제공

- SSM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는 경우 무료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료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 특히 아직까지 전통시장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승용차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무료 배송서비스가 제공되면 대중교통 이용 및 도보 방문 이용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돈암제일시장에서는 성북구의 지원을 받아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초기 단계에서는 공공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배송서비스를 담당할 인력을 지원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배송서비스 제공이 현실화되려면 전통시장 내 개별 상점들이 배송서비스 제공에 동의하고, 배송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처음부터 모든 상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성을 증명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해갈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배송서비스에 동의하는 상인들이 함께 '○○시장 배송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출자금 부담 및 조합원비 납부를 통해 운영비용을 마련해야 함. 배송서비스에 가입한 상점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객을 유도해야 함.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상인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최종적으로는 해당 전통시장 내 모든 상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연계사업

◆ 서울시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사업 : 소상공인지원과

- 서울시는 2012년 말 34개 전통시장에서 배송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 20개 전통시장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임. 일정금액 이상 구입할 경우 무료 배송하거나 건당 요금 청구, 거리에 따른 요금 차등화 등 배송요금은 해당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성북구의 경우 돈암제일시장이 선정되어 모닝밴 1대, 오토바이 1대를 활용하여 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삼선동, 동선동 등 관내 지역은 2,000원, 기타 지역은 3,000~5,000원의 요금을 청구함
- 공동배송센터 설치 시장으로 선정되면 서울시로부터 배송차량 및 운영집기 구입비, 초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특히 2013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20개의 시장에 대해서는 배송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배송전담인력에 대한 초기 인건비도 지원할 계획임
- 지원금은 배송차량 등 구입비 1,200만원(모닝밴, 다마스밴, 오토바이 등 시장여건에 맞춰 구입), 배송센터운영 집기 구입비 1,000만원(인테리어, 전화, 무전기, 쇼핑카드 등), 초기운영비 1,000만원(배송차량 도안 도색비, 차량보험료, 초기홍보비) 배송전담인력 초기인건비 1,300만원(지원년도 내 1회 지원, 최대 8개월)등으로 활용가능함



■ 토요장터 및 벼룩시장 등 이벤트 개최

-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이용객이 늘어나면 개별 상점의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재적 이용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과 연계하여 이벤트의 종류와 주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신규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최근에는 SNS, 블로그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이벤트 개최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참가 소감이나 후기를 올리는 이용객에게 전통시장 판매물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존에 토요일장터 및 벼룩시장을 진행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객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획하되,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함. 인접한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공동 이벤트를 준비하여 전통시장 탐방코스를 제안하거나 성북구 내 역사문화자원이나 자연자산 등을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을 안내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토요일장터나 벼룩시장은 상인회가 주도하여 진행해야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기획, 홍보, 행사진행, 평가, 예산확보 등 이벤트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북구 내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임

● 참고사례

▶ 서울시 성북구 정릉시장 토요일장터

- 정릉시장상인회는 2012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계속해서 격주로 토요일마다 '정릉 토요일장터'를 운영하고 있음
- 2012년의 경우 10월은 어린이, 책, 전통시장을 주제로 어린이 장난감, 아동도서 헌책방 장터를 운영하였고, 11월은 가족, 김장, 나눔을 주제로 한 체험마당을 운영하였으며, 12월에는 노인, 송년, 희망을 주제로 신년희망 띄우기, 홀몸어르신 지원장터를 운영하였음
- 장터마당은 벼룩시장(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물물교환, 나눔의 장터), 체험마당(친환경 제품 만들기, 빵튀기, 솜사탕 만들기, 김장체험 등), 판매마당(시장상인이 참여하는 특산물 코너, 대박할인 행사 등)으로 구성됨



■ 체험을 위한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전통시장이 대형할인마트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용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는 손두부나 도토리묵 등 전통시장 내 즉석가공식품을 만들어보는 것에서부터 목공교실, 요리교실, 공예교실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음. 처음부터 특정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내 활용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도나 만족도를 평가한 뒤에 특화된 상설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를 활용하거나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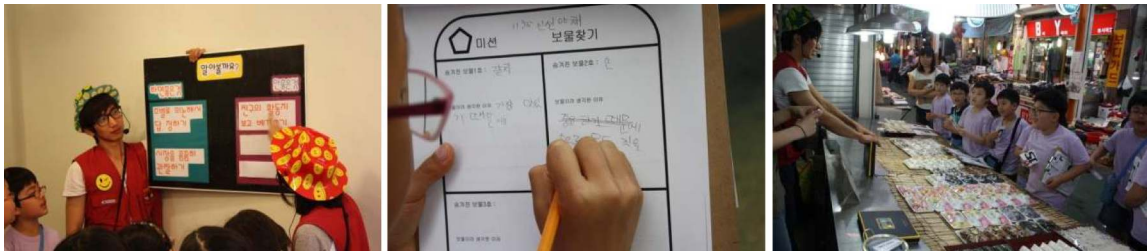
시설을 설치할 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해야 함.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함

- 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되겠지만, 이용객인 적은 요일이나 시간대에는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나 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사례**

▶ **서울시 금천구 남문시장 '남문탐험대'**

- 남문탐험대는 남문시장 문정성시 사업(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는데, 시장 홍보 효과가 매우 큰 편임. 남문시장 상인, 지역 초등학교 교사, 예술 매개자, 기획자, 예술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시장과 지역이 만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음
- 초등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개월에 평균 2회 정도 진행함. 사전에 신청자를 미리 받아서 진행하였으며, 회당 30여명이 참여함.
- 남문탐험대 프로그램은 크게 ① 시장탐색(시장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장의 고유한 언어와 단위를 습득), ② 00의 여행일지(상품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를 퍼즐 형식으로 풀어봄), ③ 시장 보물찾기(상인들이 가진 자신만의 보물(고유한 노하우 등)을 찾아내 소중함을 느끼게 함), ④ 경매놀이(한정된 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매를 통해 경제의 용어와 원리를 이해함)로 구성됨



연계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정성시) : 지역민족문화과**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 경험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5개 전통시장을 지원해왔음. 시장규모 및 사업내용에 따라 시장당 연간 1.5~3억원(국비 50%, 지방비 50%)씩 차등적으로 지원함
- 주요 사업내용은 ① 상인참여형 문화컨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상인극단, 상인합창단 등), ② 시장별 전통과 특성을 활용한 문화마케팅(스토리텔링, 시장브랜드 개발 등), ③ 문화적 환경 조성(문화공간 조성, 공공미술, 커뮤니티 디자인 등) 등임
- 점포수 50~200개 내외의 생활권 인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2년에 걸쳐 지원하는데, 1차년도는 시장조사 및 커뮤니티 조성에 집중하고, 2차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형태임

7) 성곽 등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 추진방안

(1) 현황

- 문화재 인접 지역 규제로 인한 주택 노후
- 근대생활문화경관으로 인한 특색 있는 정취

- 역사문화자산의 보존 및 활용 미흡
- 난개발 방지로 인한 깨끗한 청정마을 유지
- 역사문화자산 탐방객의 잠재적 활용 가치 높음
- 행정에 의한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 부재

(2) 대표지역

- 삼선동, 성북동, 정릉2동

(3) 기본방향

- 역사문화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마을 재생 계획 만들기

(4) 추진전략

- 성곽 등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 마을만들기 활동유형을 정리하면 ①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계획체계 마련, ② 마을경관과 생활문화경관 보전이 전제된 주택 개량 지원, ③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마을경제 활성화, ④ 역사문화 거점을 연계한 마을탐방코스 개발 및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6-6] 성곽 등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계획체계 마련	-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 보존과 활용을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에 대한 주민합의 도출
마을경관과 생활문화경관 보전이 전제된 주택 개량 지원	- 마을경관 및 생활문화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작성 - 주택 개량비용 및 동네건축가 파견 지원
역사문화 거점을 연계한 마을탐방코스 개발 및 운영	- 역사문화자산 관리 및 안내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먹거리 및 기념품 판매를 통한 마을 공동소득 창출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마을경제 활성화	- 주민 공모 등을 통한 마을탐방코스 개발 및 홍보 - 테마가 있는 다양한 마을탐방코스 운영

(5) 실현수법

■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계획체계 마련

■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 성북구 내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현황을 기본적으로 파악한 뒤, 유형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접근을 전제로 하여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 보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특히 한양도성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재 인접 지역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 자체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계획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 보전 및 활용 계획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학술 또는 기술용역을 통해 추진하더라도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규정해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회 등과 같은 공식적인 주민모임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 개선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성북구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한양도성 북측 북정마을(성북동 114-8 일대), 선잠단지 주변 선잠마을, 시장공관 주변 앵두마을, 최순우 옛집 도화마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북동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보존과 활용을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에 대한 주민합의 도출

-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의 보전 및 활용 계획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실천사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함. 일방적인 규제만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역사문화자산과 조화로운 마을경관과 생활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층수나 색채, 재료 등을 규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적 영역의 주택 개량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직접 지원이나 융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해야 주민합의를 도출할 수 있음
-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별 주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역사문화자산 보존과 활용을 통해 창출될 마을의 경제적 이익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고, 창출된 이익의 분배 또는 재투자 원칙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주민합의를 도출할 때에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규제와 인센티브가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보전 및 활용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때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예시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또한 권리관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와 인센티브를 정할 때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마을경관과 생활문화경관 보전이 전제된 주택 개량 지원

■ 마을경관 및 생활문화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작성

-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의 가치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함. 도심 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마을경관 및 생활문화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탐방객 유인 효과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을 경제 활성화를 시도할 수도 있음. 이처럼 역사문화자산과 어울리는 마을경관과 골목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경관은 마을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약속을 만들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디자인가이드라인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함
- 마을경관 및 생활문화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작성은 전문가가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을 만들더라도 마을의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작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해야 실천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음. 마을경관과 관련해서는 입면디자인, 지붕, 창호, 색채, 재질 등을 고려해야 하며, 생활문화경관과 관련해서는 벽면 및 담장, 대문, 화단, 건축설비 등을 고려해야 함

- 디자인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항목이 많으면 주민들이 규제가 과도하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일차적으로 디자인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한 뒤에 마을회의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주택 개량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지원과 상관없이 마을경관 및 생활문화경관 보전 취지에 공감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지킬 것을 유도하는 권장사항으로 구분하여 주민들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전후 마을경관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동의하는 주민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참고사례

▶ 주민참여형재생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

- 주민참여형재생사업에서는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 등 이용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서 인간의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축기준(규제사항) 및 더 나은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권장하는 사항(권장사항)의 내용과 함께 주민협정 체결을 위한 사항(주민협정이 체결된 경우)을 상세한 도면, 사진 예시도와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지침서임
- 디자인가이드라인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되며, 민간부문은 주민의 이해와 활용을 고려한 다양한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을,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사업집행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디자인가이드라인은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주민, 민간의 건축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 주민이나 행정의 의뢰를 받아 건축설계 또는 공공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가 등이 활용하며, 사전에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함

■ 주택 개량비용 및 동네건축가 파견 지원

- 주민참여를 통해 작성된 디자인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는 규제 수단이 되지만 이를 준수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동안 주택개량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초는 장기 저리의 용자 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주택 개량을 유도하는 수준이었지만 용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효과가 크다고는 할 수 없었음
-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는 개별 주민이 부담하는 주택 개량비용 일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한옥을 제외하고는 직접 지원 사례는 특정 마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임. 주택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마을경관 및 생활문화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주택 개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택 개량비용 지원 수준은 주민들의 참여율 제고 측면과 다른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정해야 하며, 지붕이나 외벽 등과 같이 공적 영역과 방수, 단열, 보일러 교체 등 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지원금액이나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함
- 주택 개량비용에 대한 지원은 지원할 세대가 늘어날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에 성북구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으므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정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성북구 차원에서는 '(가칭) 마을경관 및 생활문화경관 보전을 위한 주택 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기 어렵지만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 보전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큰 지역에 한정하여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 주택 개량비용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실제 주택 개량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조언을 하고, 마을경관 및 생활문화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성북구 내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를 동네건축가로 지정하

여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재능기부 형태로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함

연계사업

◆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 건축기획과

- 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내 구릉지, 성곽 등 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시범적으로 참여해오던 '특별경관설계자'제도를 2012년부터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로 새롭게 확대 개편했음
- 신진건축가 35명, 총괄계획분야 17명, 디자인 우수분야 25명, 총 77명의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공공건축가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자문을 담당하고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접 설계를 맡게 됨. 또한 재개발·뉴타운 등 정비사업에도 참여해 지역특성과 주변 경관을 살리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함

■ 역사문화거점을 연계한 마을탐방코스 개발 및 운영

■ 주민 공모 등을 통한 마을탐방코스 개발 및 홍보

-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마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탐방객들의 방문이 늘어나야 하고, 탐방객 증가가 경제적 소득 창출로 연결되어야 함. 최근에는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이 주변 지역 마을로도 확산되기 때문에 역사문화거점을 포함한 여러 마을들을 연계하여 걷기 코스를 개발하면 탐방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현재 당장에 시도가능한 마을탐방코스로는 한양도성 주변 마을인 삼선동 장수마을, 성북동 앵두마을, 성북동 북정마을을 연결하는 것임. 한양도성에 인접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아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골목길 풍경을 갖고 있으며, 점진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해 주민모임이 구성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
- 이는 하나의 예시이며, 성북구의 경우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마가 있는 마을탐방코스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마을탐방코스를 정하기보다는 주민 공모 방식을 통해 주민 스스로 테마를 정하고, 테마에 맞는 코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주민 공모 방식을 통한 제안된 마을탐방코스 중 성북구 주민의 이용률과 탐방객 유입률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되는 코스를 선정하고 마을지도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블로그 등을 활용한 탐방후기 작성 이벤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참고사례

▶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탐방 여행기 공모전

- 서울문화재단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문화예술탐방 여행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음
- '서울 산책 코스 대발견' 공모전은 서울 시내 미술, 문학, 디자인, 영화, 음악 등 문화예술을 테마로 한 탐방 코스를 스스로 찾아내어 제안하는 형태임. 탐방 코스는 2곳 이상을 방문하되, 3시간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임. 탐방지 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도보 또는 교통편을 함께 제안해야 함.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탐방코스는 제외하며, 여행기는 코스 기획의도와 가치를 포함한 글과 사진, 찾아가는 길로 구성해야 함
- 선정된 시민에는 최우수상(1개 작품) 200만원 및 상장, 우수상(1개 작품) 100만원 및 상장, 장려상(1개 작품) 50만원 및 상장을 수여하였음




■ **테마가 있는 다양한 마을탐방코스 운영**

- 제주도는 올레길 개발 이후 관광객의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올레길 코스를 모두 돌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성북구 내 역사문화거점을 연결한 마을탐방코스도 다양하게 개발되면 탐방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다양한 마을탐방코스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탐방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마을지도를 판매하고 주요한 거점별로 손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장기적으로는 마을안내소가 설치·운영되면 안내소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이지만 모든 마을에 처음부터 마을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마을탐방코스가 시작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 처음에는 운영되는 마을탐방코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코스별로 마을지도를 제작하여 판매하더라도 마을탐방코스가 다양하게 개발된 이후에는 올레길 패스포트처럼 전체 코스를 완성할 수 있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하거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탐방객의 증가가 마을주민의 사생활 침해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을을 방문할 때 지켜야 할 수칙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참고사례**

▶ **부산시 감천마을 마을지도 및 스탬프**


- 부산시 감천마을은 '감천동 문화마을 지도'를 2,000원(2013년 2월 인상)씩 판매하고 있는데, 마을을 둘러볼 수 있도록 마을 전체 지도와 주요 명소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음
- 또한 지도 내에 '감천문화마을 집 프로젝트 투어'라는 제목으로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사진갤러리, 어둠의 집, 하늘마루, 빛의 집, 평화의 집, 북카페, 아트샵, 감내어울터 등 주요 장소에 스탬프를 비치하여 방문객들이 직접 방문한 장소에서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함. 모든 장소를 방문하여 스탬프를 찍으면 엽서 1장과 본인이 찍은 사진 중 1장을 인화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감천마을 내 새로운 장소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스탬프 투어 대상도 늘어나고 있으며, 마을 코스도 A코스과 B코스 두 가지를 제시하여 방문객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사례**

▶ **서울한양도성 스탬프 투어 지도 및 스마트폰 어플**

- 서울 한양도성 길은 인왕산, 북악산, 낙산, 남산으로 이어지는 18.6km의 도성 둘레를 걸으며 그 안에 깃든 역사와 문화, 생태를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트래킹코스임
- 종로구는 조선시대 유교덕목인 인의예지를 따와 4대문의 이름에 담았던 의미를 스토리텔링하여 서울 한양도성 스탬프투어를 운영하고 있음. 도성을 걸으면서 4대문지점에서 4개의 스탬프를 모두 모은 시민에게는 지정장소에서 완주기념 배지를 제공하고 있음
- 지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탬프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서울한양도성여행어플'을 개발하여 스마트폰만 들고 각 스탬프 지점에서 위치를 확인하면 스탬프 날인을 하고 완주기념 배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마을경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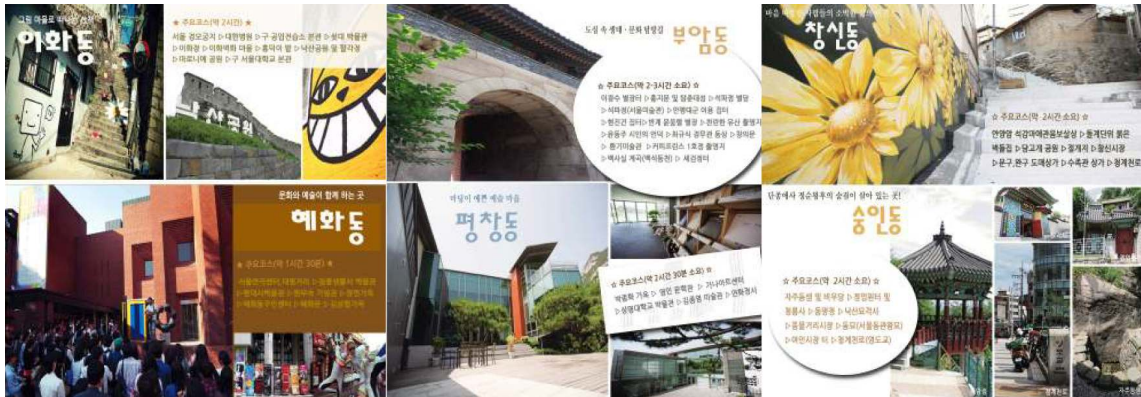
■ 역사문화자산 관리 및 안내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역사문화자산은 마을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지만 각종 규제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역사문화자산이 실질적으로 마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역사문화자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역사문화자산의 경우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주체별로 인력을 고용하여 청소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음. 청소나 잡풀제거 등 단순노동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이러한 단순노동과 관련한 일자리는 역사문화자산 주변 마을주민에게 우선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현재에도 운영 중인 희망근로나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와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북구와 관리주체간의 협의만 이뤄지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많을 경우에는 순번을 정하거나 추첨방식 등을 통해 공평하게 운영하여 주민 간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함
- 이외에도 탐방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설명하고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주민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함. 안내자의 경우에는 역사문화자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의 교육과 훈련을 이수해야 할 것임. 특히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은퇴한 노인의 경우 역사문화자산뿐만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흔적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참고사례

▶ 서울시 종로구 골목길 해설사

- 종로구는 2011년부터 골목길 해설사 양성교육을 통해 골목길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음. 골목길 해설사는 종로의 골목길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자원 등을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동네 주민들이 직접 풍부한 해설과 함께 안내하는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임
-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스토리텔링 기법, 스피치 교육, 현장교육 등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70시간 동안 이수한 뒤에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함. 골목길 해설사로 위촉되면 단체 및 개별 여행객의 요청에 따라 현장 지원근무를 하게 되며,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1회 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 골목길 해설사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3일 전(단체의 경우 5일전까지 신청)에 3인 이상이 인터넷 (<http://tour.jongno.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이용료는 무료임. 북촌 지역, 대학로 지역, 부암·평창 지역, 창신·송인 지역, 기타 지역 등 총 14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코스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종로구는 '종로구 골목길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골목길 해설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 먹거리 및 기념품 판매를 통한 마을 공동소득 창출

- 마을은 주민들의 일상이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관광자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 탐방객의 증가가 반갑지 않은 이유도 탐방객이 증가할수록 마을이 지저분해지거나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임
- 따라서 보상의 측면에서도 탐방객의 증가가 마을 주민의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민 개인 차원의 이익이 아닌 마을 전체 차원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마을 공동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을 정할 때는 탐방객의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을가게나 마을카페, 마을식당 등을 운영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할 때 시도할 수 있음. 처음에는 자판기를 설치하거나 간이음료판매대를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함. 빈집 등을 개보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마을회의를 통해 점포유형, 운영방식, 판매물품, 인력활용 및 인건비 지급방식, 수익활용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준비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념품 및 특산품을 주민들이 제작하여 탐방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준비해야 함. 수요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처음에는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이 좋고, 탐방객의 관심 및 호응도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함. 기념품 및 특산품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생산에서 판매까지 담당해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여 현실적인 조언과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사례

▶ 부산시 감천문화마을 감내카페

-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2012년 부산시 '산복도로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3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빈집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 후에 감내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마을 주민 3명이 매일 오전 10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서 커피, 주스, 전통차, 쿠키, 팥빙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음. 월 평균 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수익금은 인건비와 마을의 새로운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데 사용함



8) 산과 하천 주변 지역 추진방안

(1) 현황

- 북한산, 개운산 등 입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확보
- 성북천, 정릉천 복원으로 마을경관 및 운동 여건 개선

- 환경보호 및 생태운동 관련 자발적 모임 구성
- 산책로 및 둘레길 조성으로 이용객 증가 부작용 발생
- 쓰레기 투기, 애완견 배설 등 관리실태에 대한 불만 증가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보호·활용 노력 미흡

(2) 대표지역

- 정릉4동, 삼선동, 보문동, 안암동, 종암동

(3) 기본방향

- 산, 하천 등 자연자산을 보호·활용하여 발전하는 친환경 마을만들기

(4) 추진전략

- 산과 하천 주변 지역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유형을 정리하면 ① 생태환경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단 구성, ②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시설 및 환경 개선, ③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④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자연자산 지킴이 활성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6-7] 산과 하천 주변 지역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생태환경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단 구성 및 운영	- 생태환경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단 모집 및 구성 - 생태환경 관리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 - 개선사항 전달 및 모니터링 활동 지속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시설 및 환경 개선	- 주민 및 탐방객 의견 수렴 - 시설 및 환경 개선 결과 통지 및 공유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 주민 주도의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캠페인 개최 - 주민참여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 행사 개최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자연자산 지킴이 활성화	- 자연자산 지킴이 구성 및 운영 - 다양한 세대 참여를 통한 세대간 소통 및 교류 지원

(5) 실현수법

■ 생태환경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단 구성 및 운영

■ 생태환경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단 모집 및 구성

- 생태환경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단을 모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하나는 성북구청 차원에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자연자산을 보호·활용하여 발전하는 친환경 마을만들기의 취지에 공감하는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는 것임. 다른 하나는 기존에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

어 조사단을 모집하는 것임

- 처음부터 성북구내 모든 신과 하천의 생태환경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기본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관리 소홀 문제가 심각한 곳을 우선할 수도 있으며, 조사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사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조사대상을 파악하여 선정할 수도 있음
- 조사단을 모집한 이후에는 신청한 주민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조사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신청한 주민 수가 많을 경우에는 운영주체의 실무능력을 고려하여 몇 개의 조사단으로 나눠 구성하는 것도 가능함. 조사단을 구성할 때 조사단의 구성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 완료 이후 대응 전략 및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원칙을 정해야 함

■ 생태환경 관리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

-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태환경 관리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유의사항에 대해 강조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생태환경 관리 실태조사 일정과 사전준비물을 사전에 조사단 구성원들에게 공지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당일에는 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기록방법 및 사진촬영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야 함. 특히 실태조사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될 경우에는 전체 일정과 세부 회차별 일정을 꼼꼼히 챙겨야 조사단 구성원들이 꾸준하게 참여할 수 있음
-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바로 조사결과를 점검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조사되거나 누락된 항목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영주체는 조사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그 결과를 조사단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함
- 실태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주체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성북구 주민들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노력을 통해 성북구 주민들이 생태환경 보전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선사항 전달 및 모니터링 활동 지속

-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성북구의 생태환경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작성하여 성북구청 주무부서에 전달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조사단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제시해야 함
-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조사단 차원에서 요구했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야 함.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주무부서에 공개적으로 민원을 요청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함. 조사단 활동을 통해 행정의 태도를 바꿔내는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조사단 구성원들은 주민 참여의 중요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됨

▶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⁶⁾**

-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환경단체 활동가와 다양한 직업의 시민, 학생들에게 열려 있는 생태조사모임으로, 매달 한 번씩 새만금에 모여 방조제 건설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음.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급박하게 벌어질 생태계 대량학살과 주민 삶의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며 갯벌 살리기 운동을 펼치기 위해 2003년 12월 시민생태조사단을 구성하였음
- 연 1회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1박2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조사팀은 물새팀, 식물팀, 저서팀으로 구분하여 새만금의 생태계와 문화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100회 정기 모니터링을 기념하여 한·일 기념 워크숍을 실시하였음

■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시설 및 환경 개선

■ 주민 및 탐방객 의견 수렴

- 국가가 관리하는 자연자산의 경우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근거하여 시설물의 종류와 배치형태 등을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이나 탐방객 등 이용자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기도 하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임
- 여가활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상적으로 자연자산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자산 내 설치된 시설이나 환경에 대한 이용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주민 및 탐방객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상시적인 의견 수렴과 정기적인 의견 수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상시적인 의견 수렴은 자연자산 내에 시설 및 환경 개선 관련 이용자 의견 수렴에 대한 안내판과 건의함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 등을 정리하여 건의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됨. 정기적인 의견 수렴은 자주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일정기간 동안 이벤트와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효과적임. 산, 능, 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릴레이 형식으로 기획하여 주민 및 탐방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정기적인 의견 수렴의 경우 기획 및 실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자산 주변 주민모임의 주도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주민모임이 자연자산의 보호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의견 수렴을 위한 이벤트 개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행사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시설 및 환경 개선 결과 통지 및 공유

- 마을만들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의견을 제시해도 행정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포기하게 됨
- 상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수렴된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지하고 공유해야 함. 안내판에 제시된 이용자 의견 수렴 내용과 반영 여부 및 향후 처리과정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야 함. 이용자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할 수

6) <http://cafe.daum.net/smglife>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한 경우에도 반영한 이유와 전후 변화 모습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 주민 주도의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캠페인 개최

- 자연자산의 보전·보호를 포함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실천활동도 할 수 있는 주민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민모임이 주도하여 환경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캠페인을 개최하여 자연자산 보전·보호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나가야 함
- 자연자산 보전·보호 활동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마을환경교실 등의 형태로 에너지 절약, 대체 에너지 사용, 음식물 쓰레기 절감, 친환경 물품 사용, 재활용 물품 만들기 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색적인 캠페인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참고사례

▶ 한강공원 자원봉사단체 지원 공모사업

- 서울시는 자원봉사단체, 동아리 등 시민들이 참여한 문화·공연·생태·안전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해 선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 자원봉사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음
- 활동분야는 문화, 예술, 공연, 역사, 생태, 안전, 응급처치, 장애인 및 노약자 배려, 홍보, 모니터링 등 한강공원 내 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며, 2012년의 경우 13개팀을 선정하여 팀별로 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음

연계사업

◆ 서울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 환경정책과

- 서울시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올바른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대상프로그램은 ① 일상생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체험·탐구 및 토론 학습, ② 국민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활동과 환경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놀이 학습, ③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식과 지역적 환경특성 등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생태기행 및 체험 학습, ④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대한 실천방법 학습 및 체험을 통해 미래세대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학습, ⑤ 환경체험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류를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 ⑥ 기타 지역사회 및 국민의 실천적 환경프로그램 등임
- 응모자격은 민간환경단체(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학교 등 청소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 및 인적 자원을 갖춘 기관으로 서울시에 소재해야 함.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이내임

■ 주민참여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 행사 개최

- 생활권 내에 산과 하천이 있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하게 됨. 산 주변에는 산책 및 운동을 위한 둘레길을 만들고 하천에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만들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다보면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꽃이나 나무들이 훼손될 수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나 애완동물 배설물 등으로 인해 냄새가 나거나 더러워지기도 함. 행정에서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하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보호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식목일 행사 등과 연계하여 나무나 초화류 심기를 기획할 수 있으며, 봄이나 가을을 이용하여 자연환경보호를 강조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음. 매월 몇 번째 무슨 요일에는 다함께 쓰레기를 줍거나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우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시도해 볼만 함. 다양한 자연환경 보전 행사를 통해 자연자산의 소중함을 느끼고 참여를 통해 자연자산을 보호하는 활동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할 때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나무와 야생화 등을 식재하고, 나무와 야생화 이름 달기 행사를 개최하여 자연자산이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게 하는 것도 필요함. 도심 내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한 현장교육을 실시할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참고사례**

▶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의 '꼬미와 함께하는 숲 유치원'**

- 도봉산 숲 유치원은 도심 속에서 자라는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활동 위주로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 강좌로 진행됨. 모집대상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유치원의 6, 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접수임
- 프로그램의 주제는 ① 새싹 관찰하기, ② 꽃향기 맡고 나무 관찰하기, ③ 꼬물꼬물 애벌레 찾기, ④ 잎의 다양한 모습 관찰하기, ⑤ 자연물로 숲 속 패션쇼, ⑥ 곤충의 한 살이, ⑦ 새들과 친해지기, ⑧ 열매의 여러 가지 이동방법 등임

연계사업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 : 환경정책과**

- 서울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 환경개선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원대상사업은 지정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되고, 지정사업은 4개 부문(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자원 재이용 및 재활용, 환경보전, 생태보전) 총 15개 사업이 포함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4,000만원임
- 생태보전 분야에 '건고싶은 숲 마을 만들기'가 포함되는데, 마을과 생활주변 작은 산 등 마을권역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걷고 주변의 풍부한 생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태적으로 매력적인 걷고 싶은 숲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범위는 사업대상지 및 참여그룹을 선정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함께 생태공간을 조성한 뒤 평가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포함함

■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자연자산 지킴이 활성화**

■ **자연자산 지킴이 구성 및 운영**


-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자연자산 보전·보호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도 자연자산 보전·보호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주민모임이 필요함. 따라서 생태환경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단을 토대로 정기적인 실태 파악 및 감시를 위해 자연자산 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자연자산 지킴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연자산이 위치한 행정동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성북천의 경우 삼선동, 동선동, 보문동, 인암동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천장산의 경우 월곡2동, 석관동이 중심이 됨. 행정동 단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별로 지킴이를 구성하되, 인접한 다른 행정동과 공동으로 실천활동을 전개해야 효과적일 수 있음
- 자연자산 지킴이는 자발적인 주민모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동아리로 등록하여 봉사시간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지를 제작하여 자연자산 지킴이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도 중요함

● 참고사례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은 1999년 중랑천에서 물고기가 떴로 죽는 사고 이후 주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임
- 주요 사업은 ① 중랑천에 초록생명 불어넣기(수질정화식물과 초본류 식재), ② 푸른 중랑천 만들기 :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 ③ 중랑천 대청소, ④ 물빛아이들의 환경캠프, ⑤ 중랑천 전 구간 수질 및 식생에 대한 모니터링, ⑥ 사회소외계층 생태체험 교실, ⑦ 방과 후 생태체험 교실 등을 실시함



■ 다양한 세대 참여를 통한 세대간 소통 및 교류 지원

- 자연자산 지킴이는 연령대별로 참여할 수 있는 지킴이 활동의 내용을 다양하게 기획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것이 가능함. 세대간에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자산 지킴이를 세대간 소통 및 교류가 이뤄지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음
-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나 경로당활성화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초등학생은 체험학습 프로그램, 중·고등학생은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을 통해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 이외에도 가족 단위의 참여 권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2~3세대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음. 다양한 세대 참여를 통해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인정하고 차별화된 역할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고사례

▶ 한강 CANS 사업

- CANS는 기업(Company), 아파트(Apartment), 단체(NGO&Group), 학교(School)를 지칭하며,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공공자산인 한강공원을 함께 가꿔나가는 자원봉사·시민참여 프로그램임
- 그룹별로 한강의 12개 공원(강서, 난지, 양화, 망원, 여의도, 샛강, 이촌, 반포, 잠원, 독섬, 잠실, 광나루) 중 한 곳의 공원을 활동기반 공원으로 선택하여 한강공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룹별 봉사활동 주제 선정 후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정하게 됨
- 활동내용은 크게 ① 체험활동형(역사해설·동화구연, 한강안전지킴이(파트rol), 생태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운영 지

원, 공동체활동 및 놀이 프로그램 운영), ② 행정지원형(환경정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수해복구 지원, 한강공원 축제지원, 한강숲 가꾸기, 커뮤니티 가든 조성, 시설물 모니터링 등), ③ 기타 교육 및 기획 활동(환경 및 생태 교육, 소외계층 나들이 지원, 기획활동 및 홍보, 전시 및 공연 기획 등)으로 구분됨



9) 한옥밀집지역 추진방안

(1) 현황

- 소규모 블록 형태로 인한 낮은 인지도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한옥 멸실 가속화
- 한옥의 가치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용도 전환 및 주택 개량
- 한옥 개보수 지원 관련 정보 및 홍보 부족
- 한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전에 대한 관심 증가

(2) 대표지역

-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

(3) 기본방향

- 한옥의 가치와 특성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

(4) 추진전략

- 한옥밀집지역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유형을 정리하면 ① 한옥 멸실 방지 및 보존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② 한옥 개보수 및 신축 지원, ③ 한옥 소유자의 욕구에 대응한 지원방안 모색, ④ 한옥의 가치와 특성을 활용한 이익 창출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6-8] 한옥밀집지역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한옥 멸실 방지 및 보존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 한옥밀집지역 보존 및 관리대책 수립 - (가칭) 한옥 보존을 위한 주민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
한옥 개보수 및 신축 지원	- 한옥 개보수 및 신축 비용 지원 제도 홍보 및 상담을 통한 참여 유도 - 한옥 개보수 시범사업 실시 및 활용
한옥 소유자의 욕구에 대응한 지원방안 모색	- 한옥 소유자의 욕구 파악을 통한 매매 또는 활용 지원 - 희망하는 사용용도별 맞춤형 활용방안 및 원칙 제시
한옥의 가치와 특성을 활용한 이익 창출 지원	- 공유경제 등을 활용한 주거용 한옥의 이익 창출 지원 - 청년예술가와 연계한 개방형 협동공방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실현수법

■ 한옥 멸실 방지 및 보존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 한옥밀집지역 보존 및 관리대책 수립

- 성북동 등 5개동 한옥전수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북동 168채, 삼선동 196채, 동선동 233채, 안암동 207채, 보문동 331채 등 총 1,135채의 한옥이 분포하고 있음. 등급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한옥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A등급은 17.0%, B등급이 31.1%이고, 주택 개조 등을 통해 한옥의 고유한 특성이 훼손된 C등급이 51.9%를 차지함. 단독주택 대비 한옥비율을 동별로 보면 보문동이 20.0%로 가장 높고, 동선동(14.9%), 안암동(13.8%)의 순임
- 성북구는 정릉동 372번지 일대, 성북동1가 105-11번지 일대(앵두마을), 성북동 62-7번지 일대(선잠마을)에 대해 서울시에 한옥밀집지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임. 하지만 현재에도 원룸 및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한옥 멸실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함
- 그런데 성북구의 한옥은 종로구 북촌의 한옥과 달리 밀집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옥밀집지역 보존 및 관리대책은 마을 단위보다는 마을과 연계한 소규모 블록 단위로 거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 등 인접한 5개동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블록 단위별로 테마를 설정하고 연결함으로써 확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한옥의 용도에 따라 테마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거, 음식점, 찻집, 상점, 숙박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소규모 블록 단위별 특성을 파악해야 함. 한옥 건물에만 한정하지 말고 한옥이 위치한 골목의 풍경과 분위기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옥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생활환경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와 연계하여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함
- 한옥전수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소규모 블록 단위별 미래상과 거점별 연계를 통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실천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음.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이 거주하거나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옥과 주변 한옥들, 더 나아가 마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바라는 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함.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권리관계 또는 보존의사에 따라 별도의 논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서울시는 2002년부터 북촌, 돈화문, 인사동, 경복궁 서측 등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공고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형태, 높이, 용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한옥마을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음
- 2013년에는 혜화동과 명륜동 일대를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2018년까지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동선동, 보문동, 동대문구 용두동과 제기동 등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서울시 북촌지역 가로환경정비사업 지원

- 서울시는 2001년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에 의한 환경정비계획을 근거로 북촌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음.
-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북촌 내 4개의 길(가회동 31번지 및 11번지 골목길, 계동길~북촌길, 화동길~풍문여고길, 원서동길)을 대상으로 한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총 12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3곳의 주차장 조성(30개 주차면수 확보)을 위해 약 8억을 지원함. 주요 내용은 전통가로의 느낌이 나도록 골목길을 포장하는 가로환경정비, 부족한 주차장 확보, 쓰레기 수거시설 정비, 방재 관련 설비 정비 등임

■ (가칭) 한옥 보존을 위한 주민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

- '성북구 한옥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한옥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통로는 없는 상태임
- 한옥의 보존 및 관리는 주민들이 한옥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보존·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실현될 수 있음. 따라서 한옥을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 한옥 보존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 한옥 보존을 위한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주민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은 한옥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성북구 차원에서 한옥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존·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주민위원회 구성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주민들이 주민위원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소규모 블록 단위별로 한옥 거주 주민모임이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준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 한옥 거주 주민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주민모임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한옥밀집지역 보존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추진방향이냐 구체적인 실현수법 등에 대해 주민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야 함
- 이와 함께 주민위원회 차원에서 한옥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때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정책 또는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서울시 북촌 한옥마을 지킴이 연대

- 종로구 가회동 주민들은 마음을 합하여 전통한옥마을의 역사적인 의미와 한옥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유지, 발전시키고자 2002년 6월 9일 함께 모여 가회동 '한옥마을 지킴이 연대'를 결성하였음
- '한옥마을 지킴이 연대'는 가회동 전통한옥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모임으로, 가회동을 품격 높은 한옥마을로 가꾸어 전통과 역사가 숨쉬며, 생명력 있는 주거공간과 문화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현실화하기 위한 주민협의체임. 가회동 31·33번지 일대의 68가구가 참여하여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모임이 해체된 상태임

▶ **서울시 서촌 서촌주거공간연구회**

- 2011년 5월 8일 서촌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주민들이 모여 대화모임을 가진 것을 계기로 6월 5일 구성된 서촌의 주민모임
- 철거를 앞둔 한옥을 지키기 위한 활동, 수성동 계곡 공사 과정의 문제점 제기, 동네 어린이집 문제 대응, 월 1회 동네 골목 청소 등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주1회 일본어회화모임과 같은 소모임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 **한옥 개보수 및 신축 지원**

■ **한옥 개보수 및 신축 비용 지원 제도 홍보 및 상담을 통한 참여 유도**

- 성북구는 자치구로서는 최초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옥 개보수 및 신축과 관련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에 대해 보조 또는 용자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서울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북구가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임
- 한옥 개보수 및 신축에 대한 지원은 외관의 경우 소요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내부의 경우도 용자의 형태이지만 무이자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음
- 한옥밀집지역의 특성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신축을 유도하여 한옥 비율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어야 함. 한옥 개보수 및 신축 관련 비용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옥 상태에 따른 전체 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여 개보수 및 신축에 대한 참여 의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한옥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옥 개보수 및 신축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우편으로 배포하고 주민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 예시와 상담을 통해 한옥 개보수 및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나가야 함

■ **한옥 개보수 시범사업 실시 및 활용**

- 홍보물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상담만으로는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방법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개보수를 통한 효과와 비용 부담 정도를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한옥의 밀집도, 주민모임 구성 및 활동 정도,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관심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해야 함. 처음에는 마을만들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예산이 확보되면 사용용도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면 한옥 개보수에 관심이 있는 한옥 소유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방문하면서 한옥의 공간적 특성과 분위기에 대해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옥의 가치를 인정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면 한옥 보존 및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옥 개보수 및 신축을 전문으로 하는 동네건축가를 지정하여 매월 정기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개보수된 한옥을 둘러보고 공사과정 및 소요비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한옥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고사례

▶ 일본 교토시 경관·마치즈쿠리 센터

- 1997년 교토시가 100%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NPO법인으로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역공생(共生)의 토지이용 촉진을 목표로 각종 주민·행정·기업간 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교마치야 보전·재생과 관련해서는 교마치야의 개보수 지원, 마치즈쿠리 펀드 운영, 주민교육 및 개보수 등 상담, 교마치야 현황조사 등을 수행함
- 교토시는 행정기관과 별도로 지역사회와 보다 밀착된 NPO법인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주민, 행정, 전문가 등 역사경관 및 교마치야의 보전·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연계사업

◆ 서울시 한옥 수선 및 신축 공사비 지원('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시 시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 또는 한옥등록 예정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용자지원을 할 수 있음
- 지원 범위는 ① 한옥의 전면수선 등, ②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③ 한옥의 부분 수선 등으로 구분되며, 외관과 내부로 구분하여 외관에 대해서는 보조 지원, 내부에 대해서는 용자 지원을 원칙으로 함. 먼저 한옥을 전면수선할 때 외관의 경우 공사비용의 2/3 범위 안에서 최대 6,000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내부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용자 지원함.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할 때 외관의 경우 공사비용의 2/3 범위 안에서 최대 8,000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내부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용자 지원함. 전면수선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아 5년이 경과한 등록한옥의 지붕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 지원함
- 용자조건은 무이자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 원칙이고, 한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미 용자되었거나 용자될 자급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성북구 한옥 수선 등의 비용 지원('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성북구 구청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성북구 한옥보전지원기금의 범위에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의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범위는 크게 ① 한옥 신축, ② 한옥의 외부 또는 내부 수선, ③ 한옥 부부 수선으로 구분됨. 먼저 비한옥에서 한옥으로 신축할 때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 지원하고 있음. 한옥의 외관을 수선할 경우는 공사비용의 2/3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 지원하고, 한옥의 내부를 수선할 경우는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용자 지원함. 마지막으로 신축 또는 수선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아 5년이 경과한 등록한옥의 지붕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 지원함
- 용자조건을 보면, 무이자로 상환은 3년 거치 10년으로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한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한옥 소유자의 욕구에 대응한 지원방안 모색

■ 한옥 소유자의 욕구 파악을 통한 매매 또는 활용 지원

- 한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옥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입장도 소유자마다 다양할 수 밖에 없음. 한옥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빨리 매매하거나 개발하여 수익을 얻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영업시설로 사용하여 안정된 수익을 얻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음
- 거주용이나 영업용 등 한옥을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특히 개별 한옥별 대응보다는 인접한 한옥과 함께 테마를 만들어 접근하는 것이 더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

련하고 함께 협의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함. 지원 제도의 활용방법과 효과, 다른 지역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 등을 함께 학습하면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반대로 한옥의 보존 및 활용에 전혀 관심이 없고 매매를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옥 매매는 개인의 사적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가 일반적임. 하지만 새로 한옥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한옥을 철거하여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상가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골목 경관이 훼손되고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한옥의 보존 및 활용에 동의하는 매수 희망자를 확보하여 한옥밀집지역의 추진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매매의사를 표시한 소유자의 한옥 목록을 작성하고 외관과 내부 등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여 매수 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임. 특히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공공시설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해야 할 경우 마을 내 한옥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희망하는 사용용도별 맞춤형 활용방안 및 원칙 제시

- 한옥이 계속해서 철거되는 이유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옥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옥을 음식점이나 상점 등 영업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편의성 및 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불법 개축 등에 의해 한옥 고유한 특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활용방안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지켜야 할 원칙의 경우에는 주민약속 또는 주민협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와 인센티브의 효과를 모두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사용용도별 맞춤형 활용방안 및 원칙을 마련하는 과정에 주민모임 또는 주민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먼저 현재 성북구내 위치하는 한옥이 주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용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바람직한 경우와 부적절한 경우를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한옥의 사용용도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권장용도를 제안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블록 단위의 한옥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테마를 설정하여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한옥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골목길 경관 보존이나 보행환경, 주차 문제 등 주변 마을환경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효과적임

● 참고사례

▶ 전주한옥마을 내 경관조성물 지원

- 전주시는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한옥 개보수 및 신축뿐만 아니라 전주한옥마을 내 담장, 대문, 간판 등 경관조성 시설물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경관조성 시설물 중 담장, 대문, 조경 등에 대해서는 최대 800만원, 간판시설(단독주택 이외)에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시설물 설치자에게 지원하고 있음

연계사업

◆ 서울시 한옥마을 공동체 희망사업 : 한옥문화과

- 서울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중심형 '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 '희망사업'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한옥마을 공동체 희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상지역은 한옥밀집지역(서울특별시 한옥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된 종로구 소재 북촌·경복궁 서측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동체 프로그램과 시설 및 공간조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 공동체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소통 및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조성 사업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 및 공간 조성은 점적·선적·면적 공간, 가로시설물, 공공시설 등 설치, 조성 및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조성 사업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성북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한옥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지만, 앞으로 서울시에 한옥밀집지역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면 서울시 한옥마을 공동체 희망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한옥의 가치와 특성을 활용한 이익 창출 지원

■ 공유경제 등을 활용한 주거용 한옥의 이익 창출 지원

- 한옥을 개보수하여 계속해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개보수에 대한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한옥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한옥을 게스트하우스나 체험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해야 하는 소규모 한옥의 경우에는 공간이 좁아 불가능함. 따라서 주거용 한옥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빈 방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음
- 최근에는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옥을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도 만들어지고 있음. 코자자(www.kozaza.com)가 대표적인데, 코자자는 집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면서 저렴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찾는 여행객과 남는 방을 공유하면서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집주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함
-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한옥 숙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북구 한옥도 충분히 홍보가 되면 여행객이 선호하는 숙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빈 방 공유를 통해 이익 창출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를 대상으로 코자자의 운영방식과 등록방법, 서비스 제공원칙 등에 대해 설명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언어문제나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빈 방 공유를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면 이를 대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함

연계사업

◆ 서울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원제도 : 관광정책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지정기준은 ① 도시지역 내 위치하며 건물 연면적이 230㎡ 미만 일 것, 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중 하나에 해당될 것, ③ 운영자 또는 거주 세대원이 외국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 ④ 외국인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출 것 등임

- 서울시는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크게 ① 외국어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을 통한 언어 장애 해소 지원, ② 운영물품(간판 및 현관매트) 지원, ③ 관광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④ 도시민박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교육 실시, ⑤ 전문 예약대행업체 통합 게이트 사이트 구축 및 서울관광홈페이지 (<http://www.visitseoul.net>)와의 연계, ⑥ 도시민박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 등임

■ 청년예술가와 연계한 개방형 협동공방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성북구 한옥은 북촌이나 서촌과 성격이 달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박물관이나 문화원을 신규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고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 한옥의 공간적 특성을 공유하고 직접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외부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이들을 통해 마을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음
- 공방은 박물관이나 문화원에 비해 규모가 작아 소규모로 운영이 가능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옥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적합할 수 있음. 북촌의 전통적인 공방과의 차별화를 추구하려면 청년예술가들이 협동조합방식으로 공방을 운영하면서 일반 시민에게 공간을 개방하고 공방 특성에 맞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성북구 내에 위치한 7개의 대학교와 연계하여 청년예술가 창업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함
- 구체적으로는 성북구 차원에서 방치되어 있는 한옥을 장기임대하거나 매입하여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공간을 개방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청년예술가를 조합원으로 공개모집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그런데 성북구 한옥은 소규모 블록 단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한옥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대신 성북구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이나 자연자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점을 연결한 마을탐방코스 안에 개방형 협동공방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 참고사례

▶ 서울시 북촌 한옥 전통공방 위탁 운영

- 서울시는 북촌가꾸기사업 일환으로 매입한 한옥을 북촌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개방한옥으로 활용하여 한옥의 아름다움과 고유의 전통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공방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 있음
- 전통공방은 해당 건물에 직접 거주하면서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종목을 시연하고 방문객 대상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한국 전통문화와 관련된 기능인(서울시 및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또는 전통공예 및 예능기술인으로 신청자격 제한함
-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4/1,000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지면적 100㎡ 기준으로 연간 600만원 내외로 책정됨. 운영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운영할 수 있음. 일 6시간 주 5일 이상 개방해야 하며, 방문객에게 2,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참고사례

▶ 신당창작아케이드

- 신당창작아케이드는 1971년 조성된 신당지하쇼핑센터 내 52개 빈 점포를 40개실로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공예중심의 창작공방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11개 '서울시창작공간' 중 하나임
- 창작공방은 공예(도자·금속·섬유·유리 등) 및 기타 관련 분야(디자인, 기획, 평론 등) 내 역량 있는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1~12월 경 연 1회 입주 작가를 모집하고 있음
- 입주기간은 1년이며 계약 만료 후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함. 입주조건은 매월 15일 이상 공간을 사용해야 하고, 매월 평당 5,500원의 공간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신당창작아케이드 정기·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 시민과의 교류, 전통시장 상인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역 밀착형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투명한 소원도를 통해 방문객들이 실제로 예술가들의 창작과정을 볼 수 있는 '열린 공방'을 지향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자 만들기', '북아트', '칠공예' 등 공예창작활동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공공미술프로젝트로서 신당지하상가의 복도나 계단공간을 대상으로 한 '시장 골목 살리기' 프로젝트, 상가 내 횃집, 미용실 등의 점포를 대상으로 한 '흥+정 가게' 프로젝트 그리고 인근의 황학동 마을 곳곳의 골목길을 대상으로 한 '지상골목 꾸미기'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아트마켓 도시樂" 을 통해 입주작가들의 아트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함에 따라 예술작품의 산업화를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들을 위한 휴게공간도 제공하고 있음



10) 개발사업지역 추진방안

(1) 현황

- 사업 지연으로 인한 방치된 빈집 및 노후 주택 증가
-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싼 주민갈등 확대 및 공동체 붕괴
-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 및 분위기 침체
- 행정에 대한 불신 증가
-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한 대안 모색 노력

(2) 대표지역

- 성북동, 정릉3동, 길음2동, 장위3동

(3) 기본방향

- 신속한 주민의견 수렴 및 합의를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 및 대안적 마을재생 전략 만들기

(4) 추진전략

-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유형을 정리하면 ① 주민갈등 현황 및 원인 파악을 통한 대응방향 설정, ② 현장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및 상담 제공, ③ 서울시 실태조사 등을 활용한 신속한 주민의견 수렴 및 논의 자리 마련, ④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대응전략 모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6-9] 개발사업지역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주민갈등 현황 및 원인 파악을 통한 대응방향 설정	- 개발사업구역별 주민갈등 현황 및 원인 파악 - 유형별 대응방향 설정
현장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및 상담 제공	- 상담 콜센터 지속 운영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상시적인 정보 제공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 개발사업구역별 이동식 현장상담센터 운영
서울시 실태조사 등을 활용한 신속한 주민의견 수렴 및 논의 자리 마련	- 서울시 실태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주민모임 구성 및 활동 지원 - 주민갈등 완화 및 합의 형성을 위한 논의 자리 마련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대응전략 모색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공유 및 논의 - 취약계층 주거안정 보장 및 공동체 복원을 염두에 둔 사업 추진 지원 - 대안적 마을재생 전략 수립 지원

(5) 실현수법

■ 주민갈등 현황 및 원인 파악을 통한 대응방향 설정

■ 개발사업구역별 주민갈등 현황 및 원인 파악

- 개발사업구역별로 주민갈등 현황 및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던 모든 구역에 대해 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 정도 및 찬반 비율 등을 파악하고, 갈등주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주체별 입장 확인을 통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나 예정구역 해제 또는 구역지정 취소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함
-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개발사업구역의 주민갈등 유형을 정리하고 유형별 대응방향을 설정할 때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갈등 완화 및 의견 조율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 주체 인터뷰가 주요 조사방법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함

■ 유형별 대응방향 설정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유형, 추진단계, 찬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 추진주체(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가 없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초기단계에는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한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경우에는 반대가 심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추진단계별로 접근방법을 다르게 해야 함. 특히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우선되어야 함
- 유형별로 향후 대응방향을 몇 가지로 설정하고 추진전략 및 실현수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하는데, 개발사업 포기 또는 개발사업 지속 등 추진 여부가 1차 기준이 될 것임. 개발사업구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갈등 정도 및 찬반 비율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특히 소송 등을 통해 예정구역 해제 또는 구역지정 취소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갈등이 완전하게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소통을 통해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장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및 상담 제공

■ 상담 콜센터 지속 운영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상시적인 정보 제공

-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뉴타운 척척박사'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전화(120번 → ARS ③번) 또는 인터넷(<http://citybuild.seoul.go.kr/newtown>)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성북구도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척척박사 콜센터'(1899-4742)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성북구의 상담 콜센터의 주요 상담내용은 ① 실태조사의 절차, 내용, 진행사항 및 구역별 의견 청취 및 각종 설명회(주민설명회, 소그룹설명회) 안내, ②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 등), ③ 정비사업 해제, ④ 사업추진 요청서 작성방법, ⑤ 동의 방법, ⑥ 개인별 추정분담금 확인방법, ⑦ 실태조사관 연계 등임
- 실태조사 결과가 향후 대응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 콜센터의 운영은 바람직한 접근이므로, 콜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개발사업구역 내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 성북구의 전체 뉴타운·재개발 구역은 67개이며 이 중 46%인 31개 구역이 실태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실태조사 구역의 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실태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궁금증도 많고 심리적 불안감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개발사업구역별로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실태조사의 목적, 추진절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향, 선택 가능한 대안사업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여러 개발사업구역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식적인 주민설명회 자리는 주민들이 실태조사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개발사업구역별 이동식 현장상담센터 운영

- 공식적인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콜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개발사업구역의 수가 많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역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개발사업구역의 상황이 다르므로 주민갈등이 심각한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권역 및 순서를 정해야 함. 1개 권역에 5개 개발사업구역을 포함하여 권역별로 1개월 동안 요일별로 개발사업구역 내에 이동식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면 1개 개발사업구역별로 4회

정도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설명회를 사전에 요청하면 이동식 현장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요일에 경로당이나 마을사랑방 등을 이용하여 간담회 형태의 소규모 설명회와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동식 현장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은 가구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성북구도 개별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담 내용을 정리하여 향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완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서울시 실태조사 등을 활용한 신속한 주민의견 수렴 및 논의 자리 마련

■ 서울시 실태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주민모임 구성 및 활동 지원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실태조사는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주민들이 실태조사 과정 및 결과에 동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실태조사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현황조사 → 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 사업성 추정 등 3단계로 이뤄지고,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 절차를 거쳐 조사내용을 확정하게 됨. 실태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과정 및 추정 분담금 산출방식 등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서울시 실태조사 추진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모임과 반대하는 주민모임이 공동으로 실태조사 과정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실태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이들이 조사기관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주민갈등 완화 및 합의 형성을 위한 논의 자리 마련

-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요청하면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태조사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⁷⁾. 또한 실태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실태조사에만 모든 것을 맡겨둬서는 안 되고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논의 자리를 성북구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개발사업에 대한 찬반 의사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주민들은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와 일정이 신속하게 결정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자리가 마련되면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음
- 논의 자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관점을 갖고 상반된 주민의 입장을 중재 또는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성북구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지원하거나 지역단체 활동가

7) 성북구의 경우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중 17개 구역이 실태조사 추진대상에 포함되었음

나 주민 리더의 협조를 받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발사업 추진은 주민들의 의사에도 영향을 받지만 주민들이 모두 개발을 원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짐. 따라서 권리관계 등 가구 상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함께 해당 개발사업구역을 둘러싼 개발 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대응전략 모색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공유 및 논의

-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실태조사 결과 공유 후 주민 찬반의견 조사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동의하면 바로 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함.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 신청을 해야 함
- 추진주체 존재 여부에 따라 절차와 요건은 달라도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후 추진방향이 결정되는데, 100%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 추진 방향에 불만을 갖는 주민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됨
-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의 대응전략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함. 이 자리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주민들과 결정된 추진방향과 반대 의견을 제시한 주민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주민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취약계층 주거안정 보장 및 공동체 복원을 염두에 둔 사업 추진 지원

- 주민 다수가 뉴타운·재개발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이와 함께 개발사업 추진을 반대했던 주민들의 입장과 이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 여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던 세입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함. 또한 주민갈등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존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이 지속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 추진주체인 조합 등이 개발 반대 주민의 의견 수렴, 취약계층 주거안정 보장, 공동체 복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북구 차원에서 감시와 행정지도를 충실하게 해야 함

■ 대안적 마을재생 전략 수립 지원

- 결과적으로 개발사업 추진을 포기했지만 노후한 주택과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생활하기 불편한 구역의 경우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저층 주거지를 보전, 개량, 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되었음.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 연계하여 대안적 마을재생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주요 사업범위로 ① 생활환경 개선, ② 주택개량 지원, ③ 소규모 재건축, ④ 내 집 앞 환경 개선, ⑤ 공동체 거점 조성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

-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희망하는 마을상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민 스스로 마을재생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을학교'나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임

3.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분야별 추진방안

- 본 절에서는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방안을 크게 ① 물리적 환경 개선, ② 경제적 여건 개선, ③ 사회적 여건 개선, ④ 주민역량 강화 및 참여, ⑤ 마을공동체 활성화, 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분야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앞서 살펴본 마을만들기의 유형별 추진방안과 분야별 추진방안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형별 추진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살펴보고, 참고사례와 연계사업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음

1)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 물리적 환경 개선은 지역특성, 주택유형, 주택노후도, 기반시설 등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양호한 주택과 노후한 주택,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과 미흡한 지역은 마을만들기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 자체가 달라짐. 하지만 마을만들기 활동 유형은 유사하며, 구체적인 실현수법이 다름
-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 사적 공간에 대한 지원, 공적 공간에 대한 지원,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공간 조성 지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함.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연계하되, 주민참여를 전제로 할 때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추진전략

- 물리적 환경 개선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 유형을 정리하면 ① 마을계획 수립, ② 주택 개량 및 신축 지원, ③ 기반시설 확충, ④ 가로환경 개선, ⑤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 및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⁸⁾

8)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별 주택의 상태가 양호하고, 기반시설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확충되어 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보다는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이나 마을만들기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음.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물리적 환경 개선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공간이나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마을만들기 활동 유형은 ① 마을계획 수립, ② 마을경관 개선, ③ 단지환경 개선, ④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 및 운영 등으로 구분됨. 상업지역의 경우 ① 마을계획 수립, ② 기반시설 확충, ③ 개별 상점 환경 개선, ④ 가로환경 개선, ⑤ 고객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여기에서는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함

[표 6-10]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마을계획 수립	- 마을조사를 통한 문제점과 자원 파악 -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의 미래상 설정 - 물리적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마을계획 수립
주택 개량 및 신축 지원	- 마을의 미래상과 마을 경관을 고려한 주택 개량 지원 - 세입자의 주거안정 보장을 전제로 한 주택 개량 지원체계 구축
기반시설 확충	- 주민 참여를 통한 기반시설의 현황 파악 및 개선방법 도출 - 주민 공동의 요구에 대응한 기반시설 확충
가로환경 개선	- 주민 참여를 통한 이름답고 걷기 좋은 골목 환경 조성 지원 - 공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마을만들기 거점 조성 및 운영	- 마을공동체 시설 및 공간 조성 - 주민들의 자발적 관리·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3) 실현수법

■ 마을계획 수립

■ 마을조사를 통한 문제점과 자원 파악

- 물리적인 환경 개선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우며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면 주민들의 참여와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문임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을조사를 통해 우리 마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임. 마을조사의 방법은 다양한데, 주민들이 직접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임. 마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마을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막연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를 찾아 해당 장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다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 걸리버 지도 만들기, 마을 문제점 및 자원 지도 만들기 등 다양한 워크숍 수법을 통해 마을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마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면 됨. 마을조사를 통한 문제점과 자원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물리적인 환경과 관련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매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됨
- 동일한 마을을 조사하더라도 관심사에 따라 문제점과 자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세대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을조사 과정에서 고령자나 청소년,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의 미래상 설정

- 마을만들기는 앞으로의 마을 모습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포함함. 마을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자원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에 대한 평가이고, 마을의 미래상은 주민들의 욕구에 기반하게 됨. 마을의 미래상은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지만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음

- 마을의 미래상은 앞으로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관련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주민참여에 의해 마을의 미래상을 설정하고자 하더라도 모든 주민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먼저 주민모임이 주도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마을의 미래상에 대해 자율적으로 논의하여 마을 미래상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도출해야 함. 이후 마을 전체 회의나 행사를 진행할 때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마을 미래상을 확인하여 설정해야 함

■ 물리적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마을계획 수립

- 마을계획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부문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특히 물리적 환경 개선 부문은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마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물리적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마을계획은 ① 주택 개량 및 신축 지원, ② 기반시설 확충, ③ 가로 환경 개선, ④ 마을만들기 거점 조성 및 운영 등 다시 세부 영역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별도로 마을조사를 통해 특정 장소의 문제점을 기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은 행정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여 마을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법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정비 계획이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마을계획을 전문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가능함. 하지만 법정 사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존 지원 제도 및 행정 업무와 연계하여 실현 가능한 방법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포함된 마을계획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

■ 주택 개량 및 신축 지원

■ 마을의 미래상과 마을 경관을 고려한 주택 개량 지원

-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행위는 현재의 마을을 유지하면서 좀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 주택이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마을 자체가 침체되고 범죄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 심각하게 노후된 채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주택 개량 및 신축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마을경관 및 마을 전체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의 미래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택이 개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경관협정 등을 활용하여 마을경관이나 골목 등 가로환경에 영향을 줄 있는 높이, 배치, 지붕, 외벽 및 담장에 관한 약속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일방적인 규제와 달리 주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약속을 정하고 지키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경관협정의 내용을 만들어 약속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뒤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입자의 주거안정 보장을 전제로 한 주택 개량 지원체계 구축

-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하여 기존의 세입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마을만들기의 취지에 어긋남
- 주택 임대료의 결정은 시장원리에 따른 개인 간의 문제이지만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주택의 개량 및 신축을 지원하는 주택 개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 마을경관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음. 주택 개량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임대료 상승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3년 내외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함. 세입자의 주거안정 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마을협정에 포함하고 마을협정에 동의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세입자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승을 예측하여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정보 제공 및 재무 상담을 통해 경제적 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

■ 기반시설 확충

■ 주민 참여를 통한 기반시설의 현황 파악 및 개선방법 도출

- 소방도로, 공동주차장, 도시가스, 상하수도,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 등 기반시설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법을 도출하여 행정에 제안하고 행정에서 검토한 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방식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 내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며 실제로 생활하는 거주자의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행정에 의한 일방적인 방식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마을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현황을 살펴보고 확보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경우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주민들의 요구가 행정에 제안되면 행정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에 현재의 상황에서 개선이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고, 미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주민 공동의 요구에 대응한 기반시설 확충

- 개인적인 민원에 대한 대응보다는 주민 합의를 통한 공동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효과적임
- 주민들이 파악한 기반시설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우선적 대응의 필요성 등 행정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음
-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하게 대응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 개인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마을 전체 차원과 주민 공동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 기반시설의 확충은 기반시설의 유형에 따라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적 대응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이러한 접근 방식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민들의 요구가 분명하고 절차가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 이유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반드시 공유해야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생기지 않음

■ 가로환경 개선

■ 주민 참여를 통한 아름답고 걷기 좋은 골목 환경 조성 지원

- 마을의 골목 환경은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마을 전체의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깨끗한 골목환경 유지는 기본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아름답고 걷기 좋은 골목을 만들어 가면 가로환경 개선 효과가 큼
- 나대지 및 미활용 공유지 등을 확보하여 공유공간을 확보하거나 녹도 및 공개공지 조성, 담장허물기를 통한 주차 공간 및 휴게공간 확보 등은 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 사업을 활용하고, 골목 벽화 그리기, 골목 화단 및 텃밭 조성, 옥상 및 담장 녹화 등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골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료들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공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주민 참여를 통한 아름답고 걷기 좋은 골목 환경은 한두 명의 주민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동일한 골목을 공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골목 주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골목 환경의 개선도 민원 제기 등 개인 차원의 대응보다는 골목 주변 주민들의 합의를 통한 문제 제기와 개선 방안 건의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 환경의 문제를 이웃들과 함께 고민하고 직접 해결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골목에서 시작된 변화는 마을 전체로 확장해가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마을 내 아름답고 걷기 좋은 골목을 선정하여 이를 홍보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골목 환경 조성에 사용할 수 있는 상금을 제공하는 것도 주민들의 공동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임

■ 마을만들기 거점 조성 및 운영

■ 마을공동체 시설 및 공간 조성

- 물리적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공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만들기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마을만들기 거점은 크게 시설과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 마을공동체 시설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기존 주택을 매입·임대하거나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가능함. 마을공동체 시설의 용도는 마을사랑방, 마을카페, 마을공방, 작은도서관 등 매우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으며 도보로 접근하기 쉬운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함. 마을공동체 공간은 주로 놀이터나 공원 등이 부족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미활용 공유지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원이나 정자, 야외 쉼터 등 주민들

이 자연스럽게 만나 답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함

■ 주민들의 자발적 관리·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마을공동체 시설 및 공간이 당초 목적대로 충실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리·운영이 이뤄져야 함.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조성 이후의 관리·운영은 주민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을공동체 시설 및 공간은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민 합의를 통해 사용원칙과 방식을 정하고 이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시설 및 공간을 사용한 뒤의 정리·정돈 및 정기적인 청소와 같은 경우는 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지지 않으면 환경 자체가 열악해질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주민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마을공동체 시설 및 공간의 면적이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관리·운영에도 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사용자에게 의한 관리·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 경우에는 사용자 비용 부담이나 마을공동기금 등을 활용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 마을 주민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2) 경제적 여건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 경제적 여건 개선은 주민의 소득수준, 일자리에 대한 경험과 기술, 일자리에 대한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해야 함
- 경제적 여건 개선은 마을공동체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적 여건 개선이 사회적 여건과 물리적 환경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추진전략

- 경제적 여건 개선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 유형을 정리하면 ① 마을 자원 조사 및 마을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② 마을만들기 관련 일자리 및 소득 창출, ③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④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자산 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6-11] 경제적 여건 개선 방안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마을 자원 조사 및 마을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 마을 내 활용가능한 유무형 자원 조사 -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관련 일자리 창출	- 마을 자산의 유지·관리 관련 일자리 창출 -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 마을공동체 거점(시설 및 공간) 운영·관리 관련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 마을 및 주민 특성을 고려한 마을기업 설립 -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단계적 접근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자산 확보	-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활용 - 마을공동자산 확보 및 활용

(3) 실현수법

■ 마을 자원 조사 및 마을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 마을 내 활용가능한 유무형 자원 조사

- 마을의 경제적 여건 개선은 마을 특성과 주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 내 활용가능한 유무형 자원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마을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마을 내로 한정하지 않고 자원을 조사할 때는 공간적 범위를 마을 내, 마을 인근 지역, 외부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활용가능한 자원에는 역사문화자산이나 자연자산과 같이 마을의 입지조건으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의 자원과 전문적인 기술이나 재능을 갖고 있는 주민이나 마을 고유의 전통적인 행사와 같은 무형의 자원이 모두 포함됨. 또한 일자리에 참여할 욕구가 있거나 마을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도 향후 마을 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역사문화자산이나 자연자산과 같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마을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공간 개선 및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한 자원화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야 함. 마을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을의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까지 확대되어야 함

■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 마을 경제 활성화는 개별 주민의 생활 여건을 포함하여 마을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주민 참여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을 경제의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주변 여건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으며, 당초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 따라서 마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수립해야 함
- 마을 주민의 소득수준, 고용상태, 일자리에 대한 욕구 등 마을의 경제적 현황과 마을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유무형 자원 조사 결과를 일차적으로 분석하여 마을 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 마을 경제 활성화 계획은 실현을 전제로 해야 하므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마을 경제 활성화 계획은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마을공동 수익 창출, 마을기업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 뒤에 현실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함

■ 마을만들기 관련 일자리 창출

■ 마을 자산의 유지·관리 관련 일자리 창출

- 성북구의 경우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갖추

- 고 있음. 한양도성(서울성곽)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은 규모와 성격에 따라 마을에 주변에 위치하기도 하고 마을 내에 위치하기도 하는데, 마을만들기 활동이 이러한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마을 주민들이 역사문화자산을 마을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역사문화자산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일자리를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안내자 및 해설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 등 역사문화자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와 관련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면 마을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짐. 골목에 벽화가 그려지거나 예쁜 화단 및 상자 텃밭이 꾸며지고 작은 커뮤니티 공간이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하기도 함. 카페나 공방 등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는 거점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일상이 만들어지기도 함
-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보고 배우기 위해 외부 탐방객이 늘어나게 됨. 그런데, 탐방객의 증가가 마을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음. 따라서 탐방객의 증가에 대비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을 안내,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및 주거환경 악화 방지,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효과 창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마을 안내자 및 해설사, 마을카페나 마을가게, 마을식당의 판매원을 고용할 때 마을 주민을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정규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일당제 또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탐방객 증가로 인한 이득이 일부 마을 주민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므로, 주민협의를 통해 주민협의회 등 주민모임 차원에서 일자리 참여에 대한 원칙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 마을공동체 거점(시설 및 공간) 운영·관리 관련 일자리 창출

-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공동체 거점이 조성되면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마을공동체 거점이 소규모일 때 이용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마을공동체 거점의 규모가 크거나 여러 개일 경우 운영·관리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거점의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마을공동체 거점이 작은 도서관, 방과후 공부방, 돌봄센터 등 마을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적 일자리 등 기존 행정 지원체계의 공식적인 일자리와 연계하여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마을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마을 주민의 자발적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때에는 행정의 지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을공동기금을 활용하거나 자발적인 비용 부담을 통해 마을공동체 거점의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의 최소 인건비를 확보해야 함. 이 경우 일반적인 일자리와 달리 자원봉사정신

을 바탕으로 마을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 등 일자리 조건은 주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 마을 및 주민 특성을 고려한 마을기업 설립

- 마을기업의 설립은 마을 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개별 주민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마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여 다시 마을의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재투자하기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을기업은 마을 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의 탐방객이나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마을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과 수익의 재투자를 통한 마을경제의 활성화라는 원칙을 지켜야 마을기업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임
- 마을기업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마을 및 주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마을의 입지나 주변 여건, 활용가능한 자원의 특성, 인근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마을기업 운영과 관련한 여러 여건에 대한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영리기업과 달리 수익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단계 이후에는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됨
- 마을기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기업 설립 준비모임을 통해 마을기업의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마을기업의 종류와 운영주체, 운영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함. 마을기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주체가 확정되지 않으면 마을기업의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을기업에 참여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함. 마을 및 주민 특성이 비슷한 마을을 기반으로 한 마을기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함께 검토하면서 실현가능성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단계적 접근

-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는 어디까지나 초기 단계의 지원이기 때문에 마을기업 설립 후 1~2년이 지나면 독자적인 운영을 전제로 해야 함
- 특히 최근에는 마을기업의 형태를 협동조합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마을기업에 참여할 운영주체를 5명 이상 확보해야 함. 특정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마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대다수가 직접 마을기업의 구성원으로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초기 단계에서는 마을기업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소수의 주민들로 시작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의 의미와 가치, 역할, 이익배분의 원칙 등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투자 대비 손익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수익 재투자 측면에서도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마을기업의 성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전환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손익구조로만 평가하게 되면 일반 영리기업과의 차별성이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을기업의 가치와 의미를 부각하는 평가체계를 고민해야 함

-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초기에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인근 지역이나 불특정 다수로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특히 인근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마을 자체의 매력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발굴하여 마을기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자산 확보

■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활용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도 주민 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함. 마을만들기와 연계하여 물리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마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며, 공식적으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마을공동기금은 마을만들기 초기 단계에서는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와 연계하여 새롭게 일자리가 발굴되거나 마을공동의 소득이 창출되는 단계에 논의되는 것이 효과적임.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고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만큼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부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함
- 마을공동기금의 필요성, 조성방법, 사용방법, 운용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식화한 뒤 마을 주민 전체와 공유해야 함. 마을협정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마을협정의 세부 항목에 마을공동기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민합의를 통해 도출된 원칙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마을공동기금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공동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함. 기본적으로는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모든 활동에 의해 발생된 수익의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함. 특히 일자리의 경우 일부 주민만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므로 마을로 인해 얻게 된 이익의 일부를 다시 마을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접근임. 마을기업의 경우 사업의 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발생된 이익을 마을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도 이익의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협동조합방식으로 마을주민들이 출자금과 회비를 부담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방식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얻은 마을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마을공동기금의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적으로는 마을공동자산을 확보하고, 그 자산을 활용

하여 마을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마을공동기금이 일정 목표액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적립을 중심으로 하고, 목표액 도달 이후에는 기금의 일부를 마을공동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필요함

■ 마을공동자산 확보 및 활용

- 마을공동자산의 확보는 마을공동기금의 지속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자산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공동자산의 유형은 마을 주민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마을 수익을 창출하여 마을 주민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에는 주민사랑방과 같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집수리를 위한 순환용임대주택 등이 포함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마을카페, 마을식당, 마을가게 등이 포함됨
- 마을공동자산을 확보할 때는 마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단기적인 필요와 함께 장기적인 필요도 함께 고려하여 마을에 필요한 마을공동자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함. 특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여 위험요소에 대비해야 함
- 마을공동자산은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모임을 법적으로도 공식화해야 함. 주민대표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주민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거나 마을기업을 활용하여 단체 명의로 마을공동자산을 확보해야 함

3) 사회적 여건 개선 방안⁹⁾

(1) 기본방향

- 사회적 여건 개선은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경제적 여건 개선과 달리 마을 공동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시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합의를 이끌어내야 함
- 마을은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마을만들기는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와 참여가 중요함
-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마을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2) 추진전략

- 사회적 여건 개선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 유형을 정리하면 ①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사각지대 발굴, ② 마을을 기반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③ 취약계층 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④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9) 사회적 여건 개선에는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 마을만들기 활성화,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모두 포함하지만, 별도로 언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언급함

[표 6-12] 사회적 여건 개선 방안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사각지대 발굴	- 취약계층 유형별 현황 파악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분석 -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
마을에 기반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계획 수립	- 마을단위 자발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 - 돌봄 계획 수립 및 실현 방안 모색
취약계층 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민제안형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제공 및 참여 권유 - 취약계층 참여를 고려한 기획 및 운영

(3) 실현수법

■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사각지대 발굴

■ 취약계층 유형별 현황 파악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분석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행정의 담당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제도의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므로 마을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취약계층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도 대응 방법 중 하나임
- 마을 내에 취약계층이 얼마나 되고 이들의 생활여건과 어려운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행정 및 민간 정보를 활용하여 마을 내 취약계층 유형별 규모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사각지대의 발생 정도와 원인을 분석해야 함. 이를 바탕으로 마을 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마을에 기반한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취약계층이 밀집하고 있는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임대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시도될 필요가 있음. 서로 돕고 사는 마을 만들기, 복지 마을 만들기 등 돌봄과 복지를 주제로 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음

■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

- 개인주의 강화와 공동체 의식 붕괴로 인해 주변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마을 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에 대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므로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마을만들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마을 내에는 정부의 지원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정보가 부족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 무자 제도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취약계층이 존재함. 전자의 경우 행정기관으로 연계하여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복지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려운 이웃을 관심있게 보고 도움을 주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기본적으로는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복지위원, 자원봉사자 등이 중심이 되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응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마을 주민 모두가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마을에 기반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계획 수립

■ 마을단위 자발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

-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단위의 자발적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현재도 마을 내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알게 되면 통장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이를 좀 더 체계화하고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함
- 자발적이고 상호간의 협조를 통해 마을 안에서 돌봄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통장이나 복지위원, 자원봉사캠프장,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및 주민자치 담당 직원, 해당 마을을 사업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복지관, 봉사 관련 직능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 이들은 누구보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면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돌봄 계획 수립 및 실현 방안 모색

- 마을 단위의 자발적 돌봄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실천 활동을 위한 돌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돌봄 계획의 방향과 내용은 마을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며, 돌봄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여건과 참여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돌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돌봄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도 함께 준비해야 함.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 돌봄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 되지만 마을 내 취약계층의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마을 내 취약계층의 특성과 사각지대 발생과 관련한 객관적인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수요에 기반한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함. 돌봄 계획은 실천 활동을 전제로 하며, 실천 활동의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초기에는 돌봄 대상을 한정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돌봄 방식의 경우 기존 제도를 활용한 접근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더라도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마을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복지마을 및 건강마을 만들기 등 돌봄을 통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모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함

■ 취약계층 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민제안형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마을을 기반으로 한 돌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

램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편의 지원(활동보조 및 이동 지원, 청결 지원, 급식 및 식사, 반찬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바탕으로 하되 마을을 기반으로 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함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영역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문을 일부 포함하도록 하되, 단순한 생활편의 지원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도 양육 및 교육 등 품앗이 형태의 자발적인 돌봄활동과 연계하여 마을 내 취약계층 일부를 포함하는 방식과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함.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임대주택이 의무적으로 공급된 지역에서는 분양주택에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주민들이 돌봄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처음부터 마을 내 거주하는 모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 주민제안형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마을 내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행정체계의 한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특히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임대주택 밀집지역은 특정한 공간에 취약계층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기반하여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취약계층이 집중한 지역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복지, 교육, 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성북구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개발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적고 영구임대주택과 달리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 기반한 돌봄 관련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은 마을 내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제공 및 참여 권유

- 취약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편인데,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정보도 마찬가지임. 마을만들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정보 공유 과정도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이뤄지는 마을만들기 관련 행사와 소식을 접하는 것이 쉽지 않음. 또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반경 자체가 집 주변으로 한정되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음
- 마을만들기는 마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데, 여기에는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도 당연히 포함됨. 일차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마을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마을만들기 활동에 관심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분야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마을 구성원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취약계층 참여를 고려한 기획 및 운영

-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참여는 마을만들기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됨. 마을만들기는 주민 참여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통합이라는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취약계층의 참여를 배려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을 마을만들기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공모사업의 유형을 세분화할 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에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함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할 때도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마을 구성원으로서 마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4)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 방안

(1) 기본방향

- 마을만들기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고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함
- 주민들의 참여 정도는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참여 수준에 따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2) 추진전략

-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와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 유형을 정리하면 ①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②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③ 주민요구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 실시, ④ 소규모 마을포럼 정기 운영, ⑤ 마을활동가 양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6-13]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 방안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마을특성 및 주민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다양한 통로를 활용한 효과 증대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 주민모임 구성 및 공식화 지원 - 주민모임 지속을 위한 초기 정착 과정 지원
주민요구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정기 주민 교육 실시 -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자발적 학습 지원
소규모 마을포럼 정기 운영	-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소규모 마을포럼 운영 지원 - 주민 주도의 과제 발굴 및 합의 도출 과정 지원
마을활동가 양성	-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추진 - 주민 요구에 대응한 마을활동가 파견

(3) 실현수법

■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마을특성 및 주민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은 주민들이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만들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우연한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함
- 마을특성 및 주민여건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르므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할 때도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는 모든 마을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더라도 특정지역 및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해당되거나 주민모임 차원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 마을이 있으면, 주민모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보 제공 및 홍보 방식도 마찬가지로 마을특성 및 주민여건을 고려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집중한 마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취약계층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식지나 안내지를 배포할 때도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취약계층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추가해야 함

■ 다양한 통로를 활용한 효과 증대

- 전단지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정보 제공 및 공유, 홍보를 위한 수단들이 매우 다양해졌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활용으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도 높아졌음. 하지만 모든 주민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과 현재의 방식을 함께 활용해야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음
- 홈페이지, SNS, 이레터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성북소리 및 벼룩시장 활용, 동주민센터 내 안내지 배포 및 포스터 부착, 현수막 부착 등을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게 되면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음. 특히 온라인 홍보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검색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재되면 자동적으로 메일, SNS 등을 통해 자신의 계정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상대적으로 정보로부터 소외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을 중심으로 하되,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획득 및 참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 주민모임 구성 및 공식화 지원

- 주민역량 강화 및 참여는 주민 개인 차원보다는 마을공동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함. 따라서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마을만들기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공식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음
- 주민모임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통반장을 비롯하여 경로당 등 기존에 마을 내 형성되어 있는 소규모 커뮤니티와 사전협의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함. 처음부터 마을 내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민모임을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민모임을 홍보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 주민모임 지속을 위한 초기 정착 과정 지원

- 주민모임이 공식화되면 마을을 대표하는 모임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정한 원칙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공식적인 주민모임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민모임 결과를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초기 단계에는 모임 횟수를 최소화한 뒤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소모임이나 친목모임과 달리 공식적인 주민모임은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모임 일정 공유 방식부터 모임 진행 방식, 모임 결과 기록 및 공유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구성 초기 단계에서는 주민모임에 직접 참여해서 모임 진행 방식을 검토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도 해야 함. 이러한 역할은 초기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마을활동가의 역할 및 활동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주민요구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정기 주민 교육 실시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배경, 마을만들기 유형별 특성과 구체적 사례, 마을만들기의 주체와 역할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마을만들기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행정동별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동원형 교육을 지양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자발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반복해

서 참여하게 되는 주민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심어질 수 있으므로 중복 교육을 지양해야 함

-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 교육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고령자, 중·장년층, 전업 주부, 청년층, 청소년, 아동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중요함

■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자발적 학습 지원

- 마을별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다르고, 마을만들기 활동 단계에 따라 마을만들기 주체의 역량도 다르기 때문에 주민모임이 구성된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초기단계의 경우에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마을의 문제에 대한 공유를 중심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마을만들기 추진주체가 본격적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 돌아보기를 통한 자원과 문제점 발굴,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과제 설정, 우선순위 결정,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활용 방법 모색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관련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성북구나 서울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신청·선정된 경우에는 마을 진단 및 과제 도출을 통한 공모사업 계획서의 점검과 수정·보완, 유사한 주제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한 다른 마을의 실패와 성공 사례 검토 및 현장 답사, 공모사업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방법, 최종 평가 방법 및 사업 완료 이후의 추진계획 등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후속 활동 연계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주민모임에 대한 맞춤형 교육 이외에도 주민모임들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확보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 책자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소규모 마을포럼의 정기 운영

■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소규모 마을포럼 운영 지원

- 마을만들기는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며 서로간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모두가 합의하는 원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현할 수 있음.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매우 다양하며, 특정 주제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고 방향을 정해가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주민모임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을포럼이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소규모 마을포럼은 주제에 따라 성북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마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
- 기본적으로는 마을 차원에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포럼의 주제 및 진행방식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많은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주제의 경우에는 성북구 차원에서 여러 마을의 주민모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마을 차원에서 개최된

소규모 마을포럼의 주제 중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마을포럼을 정례화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주민 주도의 과제 발굴 및 합의 도출 과정 지원

- 소규모 마을포럼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어야 함. 성북구 차원의 마을포럼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발제자 및 토론자로 섭외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주민들을 교육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됨. 주민들이 마을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 차원의 소규모 마을포럼은 해당 주제에 대해 활발하게 논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주민들이 주도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마을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처음에는 자율적인 토론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마을포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마을활동가를 파견하는 것이 효과적임

■ 마을활동가 양성 및 파견

■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추진

-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 마을계획 수립 및 실천 방안 모색 등 상황별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됨. 재정과 인력이 제한된 행정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모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마을에 파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마을활동가는 기본적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형성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성북구 차원에서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운영하여 이 과정을 이수한 이들을 마을활동가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처음에는 주민보다는 성북구 내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실무자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장기적으로는 마을만들기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중 다른 마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을 포함해야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고 마을만들기의 경험이 확산될 수 있음. 마을 내 거주하는 청년, 여성, 은퇴한 고령자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마을만들기 활동의 영역과 주제도 다양해질 수 있음
-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은 실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이론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회의 운영 및 기록, 주제별 활용가능한 워크숍 진행수법, 다양한 유형의 마을만들기 사례에 대한 현장 실습 등을 포함해야 함

■ 주민 요구에 대응한 마을활동가 파견

-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수료한 이들을 마을활동가로 임명하고 마을활동가의 기본 특성 및 거주 지역, 희망하는 역할 및 주된 관심 분야 등을 자료로 구축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을활동가 파견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파견과 관련한 기본적인 규칙을 수립하여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이 모두 공유해야 함. 마을활동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역할 및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주민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마을활동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마을활동가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북구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북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처음에는 상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주민 요구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파견되어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해외 우수 사례 탐방 등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마을활동가와 관련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참여시간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보수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하게 지급해야 함

5)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마을 특성과 주민 요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룰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면서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만들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주체는 바로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추진전략

-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 유형을 정리하면 ① 마을만들기 관련 아카이브 구축, ② 다양한 소모임 구성 및 활동 지원, ③ 마을공동체 거점 이용 활성화 및 자율 관리, ④ 마을강좌 운영 및 마을행사 개최, ⑤ 소통과 공유를 위한 마을미디어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6-14]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마을만들기 관련 아카이브 구축	-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
다양한 소모임 구성 및 활동 지원	- 아카이브의 단계적 구축 및 지속 운영
마을만들기 거점 이용 활성화 및 자율 관리	- 소모임 활동 공간 제공 및 강사 지원
마을강좌 운영 및 마을행사 개최	- 소모임 경연대회를 통한 우수 소모임 선정 및 시상
소통과 공유를 위한 마을미디어 운영	- 마을만들기 거점 홍보를 통한 이용 활성화 도모
	- 자율 관리를 위한 이용규칙 및 관리방식 합의
	- 재능 기부 및 품앗이를 통한 마을강좌 운영
	-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 행사 개최
	- 마을미디어의 필요성 및 가능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마을TV 등 마을미디어 운영

(3) 실현수법

■ 마을만들기 관련 아카이브 구축

■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

- 마을공동체의 복원 및 활성화에 대한 관심으로 마을만들기를 시작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 마을 특성과 주민 여건을 고려하여 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하지만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경험이 없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낼 수 없음
- 따라서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을의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함. 아카이브 구축은 자료 수집 및 정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단기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준비해야 함.
- 아카이브 구축은 초기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공식적인 운영주체가 필요하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북구 내 마을만들기에 관심 있는 활동가나 주민들을 모집하여 '성북구 마을만들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준비팀'을 구성하여 준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준비팀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지역특성, 활동분야, 활용 자원, 활동단계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례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북구 마을만들기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함. 아카이브 체계가 정해지면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는데, 성북구, 성북구 인근 지역, 서울시, 수도권, 전국 등 지역도 고려해야 함
- 최근에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행정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모든 사례를 동일한 항목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사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야 함. 개별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활동주체와 수법, 결과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오랫동안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주민 역량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 사례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아카이브의 단계적 구축 및 지속 운영

- 마을만들기 관련 아카이브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에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책자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처음부터 완성된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계가 구성되어 대표 사례들이 정리되면 일차적으로 아카이브를 가동하되, 향후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뤄진다는 것을 명시해야 함. 초기에는 유명한 사례와 성북구와 비슷한 여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 아카이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팀을 운영팀으로 전환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아카이브 구축 현황을 검토하고 보완 및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가는 것도 중요함. 운영팀 내에서

논의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알고 싶지만 아카이브에는 구축되지 않는 주제나 수법에 대해 주민들이 요청하면 검토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례를 조사하여 자료를 업데이트해 가는 구조도 만들어야 함

■ 다양한 소모임 구성 및 활동 지원

■ 소모임 활동 공간 제공 및 강사 지원

- 소모임은 점차 개인주의화되는 사회에서 마을과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마을 내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을 구성하여 쉽고 재미난 활동을 마을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책읽기, 영화보기, 토론하기, 마을걷기, 그림그리기, 체조하기, 요리하기, 텃밭가꾸기, 가구만들기, 야생화키우기 등 소모임의 유형은 다양함. 주민들이 소모임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모임의 유형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음
- 마을 내에서 다양한 소모임이 구성되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을만들기 거점을 조성할 때 소모임 활동 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다목적 용도의 공간을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음. 공간 제공과 함께 소모임의 특성상 교육이나 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 및 재능을 갖고 있는 강사를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임. 이와 함께 소모임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서로의 기술 및 재능을 공유하면서 발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소모임 경연대회를 통한 우수 소모임 선정 및 시상

- 소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연말에 소모임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모임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소모임 경연대회는 우수 소모임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것 이외에도 성북구 주민들이 소모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소모임 구성원간의 상호 이해와 동기 부여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소모임은 어디까지나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이기 때문에 우수 소모임을 선정할 때 최종 성과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는 소모임의 활동들이 마을만들기와 연계하고 더 나아가 소모임 구성원들이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따라서 선정기준을 정할 때 소모임 활동의 지속성을 바탕으로 하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여했거나 다양한 세대간 교류가 가능한 활동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또한 우수 소모임을 선정할 때 일반적인 선정기준 이외에 이벤트 성격의 특별 선정기준도 함께 적용하여 주민들이 소모임 경연대회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만들기 거점 이용 활성화 및 자율 관리

■ 마을만들기 거점 홍보를 통한 이용 활성화 도모

- 마을만들기의 거점을 조성하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 부문에 포함되고 행정의 재원을 활용하

는 경우가 많지만 조성 이후의 운영 및 관리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거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마을만들기 거점을 당초 계획과 달리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방치되거나 일부 주민들이 독점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결과적으로 주민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마을만들기 거점 조성은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성 이후에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 상점들이 밀집한 지역을 제외하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고,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마을만들기 거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자율 관리를 위한 이용규칙 및 관리방식 합의

- 마을만들기 거점은 마을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음. 초기에는 홍보 부족으로 마을만들기 거점의 이용 빈도가 낮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마을만들기 거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초기단계에만 지원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된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함. 경비를 최소화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규칙을 정할 때 거점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를 관리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어 마을공동기금이 조성되면 마을공동기금의 사용용도에 마을만들기 거점의 관리운영비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관리운영비용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함. 이용자격, 이용횟수와 이용시간 등 기본적인 이용규칙을 정하고, 이용 후 청소방법, 비품 사용방법, 커피 등 음료 조달방법 등 관리방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도 함께 정해서 마을만들기 거점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을강좌 운영 및 마을행사 개최

■ 재능 기부 및 품앗이를 통한 마을강좌 운영

- 여가시간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각종 강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취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이들이 소모임 형태로 배움을 공유하기도 함.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마을 안에서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운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배움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됨
- 마을강좌의 주제는 공예품, 목공, 친환경 물품, 비누 등 각종 만들기 강좌부터 인문학, 재무 및 금융, 사진, 그림 등 학습 강좌까지 매우 다양하며,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하여 선택하면 됨
- 마을강좌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인데, 외부에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비용 지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마을 내 재능 기부자를 발굴하여 주민이 직접 가르치고 주민이 배우는 방식이 적절함. 또한 특정 주제로 한정하지 않고 '무엇이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마을강좌를 운영하여 참여하는 주민들이 자신이 가장 자신있는 내용에 대해 품앗이 형태로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마을강좌의 운영은 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토대를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재능있는 주민들을 발굴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향후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에 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갈 수 있음

■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 행사 개최

-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주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다수의 소극적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가는 것이 중요함
- 벚룩시장, 녹색장터, 마을잔치, 마을체육대회, 마을소풍, 마을축제 등 각종 마을행사는 기획 및 준비과정은 일부 적극적인 주민들이 주도하더라도 행사 당일에는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음. 마을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단순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마을만들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을의 정기적인 행사로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통과 공유를 위한 마을미디어 운영

■ 마을미디어의 필요성 및 가능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 마을만들기는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행사를 제외하면 특정 공간에서 일부 주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을 제외하면 마을 내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마을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소식과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및 행사 등을 홍보하고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마을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마을미디어는 적정한 주기로 약속된 시기에 정기적으로 발행되거나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며, 마을미디어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체가 확보되어야 함. 마을미디어의 운영에 관심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미디어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마을미디어의 유형과 운영형태, 인력 조달 및 재정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통해 의견 수렴 및 평가를 실시한 뒤, 정식 운영을 검토하는 방법이 적절할 수 있음

■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마을TV 등 마을미디어 운영

- 마을미디어는 마을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마을라디오나 마을TV의 경우에는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공간적 범위가 제한되어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임
- 현재 성북구는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와보송'이라는 마을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SNS 등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규

- 방송 형태가 아니더라도 동영상 제작을 통해 상시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 마을라디오의 경우에도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인들이 상주하면서 고객들이 계속해서 방문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함. 상인들이 직접 방송 코너를 기획하고, 진행자가 되어 방송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인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또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마을신문은 다른 마을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주민이 의지가 있으면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공유하는 데 효과적임. 마을신문은 정기적으로 발행되어야 하고, 특정 공간을 범위로 한정할 때 해당 범위 내 모든 주민에게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 마을신문의 형태와 지면 수, 발행 횟수와 발행 부수 등은 마을 특성과 발행 주체의 인력과 재정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발행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초기 단계에서는 소식지 형태의 간단한 마을신문을 발행하다가 점차적으로 지면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것이 어려우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마을신문을 게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6)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방안

(1) 기본방향

- 마을만들기는 마을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음
-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정, 민간(사회적경제부문 포함), 전문가(학교 포함), 주민이 성북구 전체 차원과 마을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해야 하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에 포함해야 함
-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은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문이지만 주체별 여건과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거나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

(2) 추진전략

-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 유형을 정리하면 ① 네트워크 주체 발굴 및 연락망 구축, ②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및 활동 공유, ③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④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6-15]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방안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네트워크 주체 발굴 및 연락망 구축	- 네트워크의 역할을 고려한 주체 범위 설정 및 발굴 - 네트워크 주체별 활동 현황 파악 및 상시적인 연락망 구축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및 활동 공유	-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및 활동 결과 공유 - 주체별 활동 공유를 통한 상호 이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네트워크의 목표와 역할을 고려한 원칙 설정 - 지역 위계를 고려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성북구 차원의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마을 단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3) 실현수법

■ 네트워크 주체 발굴 및 연락망 구축

■ 네트워크의 역할을 고려한 주체 범위 설정 및 발굴

- 마을만들기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주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임. 또한 마을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주체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활동을 마을만들기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파악하고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을 발굴해내야 함
- 지역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자원에 한정하지 않고, 풀뿌리단체(교육, 복지, 문화, 예술, 시민운동 등), 직능단체, 사회적경제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대학교, 전문가 등의 분포 현황 및 활동 내용에 대해 파악해야 함. 네트워크의 역할을 고려하여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주체의 범위를 설정한 뒤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 취지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 정도와 주체로서의 참여 의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네트워크 주체별 활동 현황 파악 및 상시적인 연락망 구축

-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주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확장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작해야 함
-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주체로 참여할 의사가 확인되면 기본적인 활동 현황에 대해 파악하여 기록하고 상시적인 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해야 함. 이 과정에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에 대한 소개를 요청하여 조사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주체를 발굴하는 것도 병행하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는 지역사회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연락처를 확보하여 기본 자료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및 활동 공유

■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및 활동 결과 공유

- 상시적인 연락망 구축은 활발한 소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나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제공과 홍보가 기본적으로 이뤄지지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일차적으로는 연락망을 페이스북 등 SNS와 연동하여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마을만들기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도 기획 및 준비단계에서부터 진행과정 등을 공유하여 관심 있는 이들이 역할을 맡아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행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활동 내용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주체별 활동 공유를 통한 상호 이해

-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정보 이외에도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활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함. 네트워크의 정기 모임에서는 주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논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서로의 활동 목표와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또한 활동 공유를 넘어 의견 수렴과 아이디어 교류로 발전하게 되면 개별 주체의 입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네트워크의 목표와 역할을 고려한 원칙 설정

- 네트워크는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와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 따라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네트워크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표와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함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에 관심있는 주체들이 함께 모여 성북구 마을만들기 네트워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뒤에 이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설정해야 함. 마을만들기 네트워크가 구성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지역 위계를 고려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계획은 앞서 설정된 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네트워크 구성원의 범위 및 조건, 의무와 권리, 운영방식, 주요 논의내용 및 의사결정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함
- 마을만들기는 성북구 전체, 생활권, 행정동, 마을 등 공간적 범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도 지역 위계를 고려해야 함. 기본적으로는 성북구 전체 차원의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해야 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마을만들기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단위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확인한 뒤에 구성해야 함

- 지역 위계에 따라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 목표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함. 마을 단위 네트워크는 지역적 특성 및 주민 역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먼저 구성된 마을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 다른 마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성북구 차원의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성북구 차원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는 특정한 공간적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과 민간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의 형태 또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민·민 네트워크의 형태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함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경제지원단, 청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함께하는 성북마당¹⁰⁾ 등과 협력하여 운영해야 함. 네트워크의 정기모임은 핵심 주체를 중심으로 분기별로 개최하여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주요한 사안을 공유하고 검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 이와 별도로 주제별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시적인 연락망을 통해 관심 있는 주체들이 참여하여 활발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모임의 참여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도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모임의 역량과 참여 의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모임을 중심으로 하되, 단독·다가구주택 지역, 공동주택 지역, 공공임대주택 지역, 상가 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 단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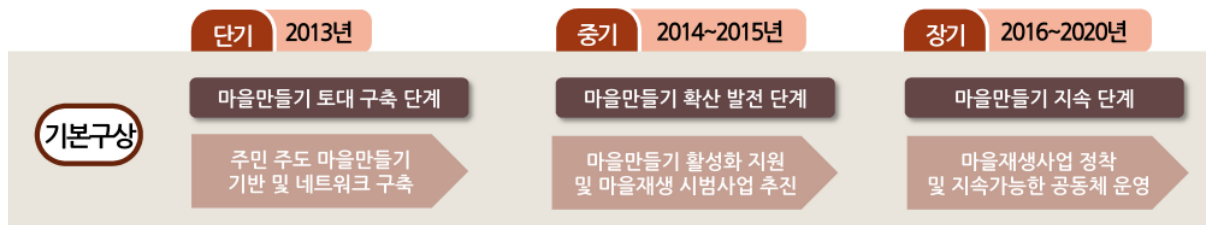
- 마을만들기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마을 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활동 주체와의 연대와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음
- 마을 단위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모임이 중심이 되어 행정(동주민센터), 복지관, 자원봉사단체, 보건소, 작은 도서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마을을 기반으로 한 일상적인 활동을 공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마을조사나 마을계획 수립, 마을경제 활성화 계획 등 마을 차원의 조사와 미래상을 계획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마을 행사를 기획할 때 초기 논의과정에서부터 함께 준비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주민모임이 처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를 파견하여 초기 구성 및 운영 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10) 성북구는 2012년 7월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지역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 모임인 '함께하는 성북마당'을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음. '함께하는 성북마당'은 성북구 내 다양한 지역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북지역의 역량을 모으고 공동 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상생과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단계별 추진방안

1) 단계별 주요 과제

-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구상에서는 단기를 마을만들기 토대 구축 단계, 중기를 마을만들기 확산 발전 단계, 장기를 마을만들기 지속 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음. 이러한 단계별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를 크게 사람, 관계, 활동, 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람의 경우 사람을 모으고 키워서 사람과 마을을 연결하고 최종적으로는 마을사람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관계의 경우 관계를 만들어 소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계를 점차 확장하고 깊게 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활동의 경우 함께 활동하는 것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활동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상황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전략의 경우 함께 모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계획을 만들고, 적용할 수 있는 시범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 뒤, 모델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 운영을 통해 가능성을 모색한 후 성과가 분명해지면 모델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착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함



주요과제



[그림 6-4]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단계별 주요 과제

2) 단계별 추진전략

■ 단기(2013년) :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 마을만들기 토대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자발적 주민모임들에 의해 구축됨.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및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추진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모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주민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주민모임을 준비하고 공식화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여 도중에 주민모임이 와해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며,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 및 의견 수렴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 기존 반상회 등 마을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모임을 공식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모임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공식화된 주민모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 리더 발굴

- 마을만들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는 소극적일 수 있으며, 행정이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도움에 대한 기대가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지원해야 함. 하지만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 주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주민 특성에 따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법은 차별적으로 적용하되, 기본적으로는 마을을 조사하고 마을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강의식 교육보다는 워크숍 방식 및 자유토론 방식을 통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다른 주민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마을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주민을 발굴하여 주민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마을만들기 활동 경험이 축적된 주민 리더에 대해서는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 참여를 통해 마을활동가로 설정하여 다른 마을의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역량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마을만들기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북구 내 사회적경제단체, 풀뿌리 단체, 주민모임 등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성북구 차원과 마을 단위 등 지역 위계를 고려하여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마을만들기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가치와 목표를 구성원들이 공감해야 하고, 마을만들기의 방향 설정과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함.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목표와 역할, 구성원의 범위, 구성원간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경우에는 모든 주체들이 처음부터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여의사가 분명한 주체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참여하지 않는 주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함

■ 마을활동가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 마을만들기가 확산·발전 단계에 들어서면 마을만들기 활동을 준비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마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인력만으로는 다양한 마을과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 및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마을활동가 및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토대 구축 단계에서 마을활동가 및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마을 내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나 주민 리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마을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활동가 파견과 관련한 원칙을 수립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와 함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경제 지원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동조합협의회 등 분야별 중간지원조직들이 해당 분야와 연계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모임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속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임. 따라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지속하면서 신규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주민모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대상으로 신규 신청 주민모임과 계속 신청 주민모임으로 구분하고, 신규 신청 주민모임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학습과 사업 기획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고, 계속 신청 주민모임에 대해서는 전년도 활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이 완료된 이후에 마을만들기 활동을 어떻게 지속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정한 활동에 집중하지 않도록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유형별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 향후 마을재생전략 수립을 고려하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유형이 물리적 재생,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 등 세 가지 부문에 균형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접근 방식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는 포함하지 않고 관계부서의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는 경우에는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마을특성 및 주민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전략 수립

- 오랫동안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온 마을과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막 생긴 마을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함
- 마을만들기는 사람과 관계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활동이 만들어지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려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마을만들기에 대한 성숙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만들기 초기 단계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단계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함.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유형, 마을만들기 유형별 사례, 주민모임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이와 함께 마을을 돌아보고 마을의 문제점과 자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을만들기 발전 단계는 주민모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거나 주민모임이 구성된 초기 단계로 마을 현황과 주민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주민합의를 통해 마을의 미래상을 설정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함.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효과적임
- 마을만들기 성숙 단계는 주민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단계로 마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로 확인되면 주민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을 고려하여 주민 스스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한 경험이 축적되면 성북구, 서울시, 중앙정부의 기존 사업들을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마을재생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마을만들기 지속 단계는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마을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이 단계는 마을기업 등을 활용한 경제적 여건 개선 부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며, 마을공동기금의 운영이나 마을공동자산의 확보 등을 통해 마을 차원의 이익을 창출하여 마을만들기 활동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경제적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마을재생전략 수립 및 모델 개발

- 성북구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재생,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을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마을재생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해야 함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경제부문과 협력하여 경제적 재생의 효과가 물리적 재생 및 사회적 재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을만들기 유형에 따라 마을재생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을 특성과 주민 여건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함. 마을만들기 유형별로 대표 지역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실현 모델을 개발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기(2014~2015년) :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및 마을재생 시범사업 추진

■ 마을활동가 파견 및 중간지원조직 연계를 통한 마을별 맞춤형 지원

- 마을만들기를 준비하는 주민모임이 늘어나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차원에도 주민모임의 모든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마을활동가 및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대응해야 함
-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 등을 수료한 마을활동가 중 자발적 파견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락처와 관심 분야, 참여 가능 시간, 주요 역할 등을 조사하여 기본 자료화하여, 주민모임의 요청에 대응하여 마을활동가를 직접 파견하여 주민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을활동가는 보편적인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하되 파견된 마을의 특성과 주민 여건, 주민모임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활동가의 경우도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부문이나 복지마을 만들기, 건강마을만들기 등 복지 및 건강 부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 지원단, 협동조합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을 연계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성과 홍보 및 확산

- 마을만들기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가 공유되면 아직까지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마을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므로,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마을만들기가 성북구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성북구청 및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성북소리, SNS 등을 활용한 기본적인 홍보 이외에도 성북구 차원 및 마을 단위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마을만들기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홍보해야 함. 단순히 결과에 대한 홍보보다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마을만들기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재생전략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가

- 마을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마을재생전략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마을재생 시범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마을재생전략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임
- 마을재생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 재생을 전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단기간 내에 특정 분야에 대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물리적 재생 부문, 사회적 재생 부문, 경제적 재생 부문별로 구분하여 부문별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유형별 마을재생 시범사업 추진 및 성과 분석

- 마을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마을재생 시범사업을 유형별로 추진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마을재생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수정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북구 마을만들기 유형을 9가지로 제안하였는데, 마을

재생 시범사업은 9가지 유형 중 정책 집행의 시급성과 확보가능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고려하면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 다세대·다구가주택 밀집지역, 임대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고, 성북구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하면 한옥밀집지역, 성곽 등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 산과 하천 주변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장기(2016~2020년) : 마을재생사업 정착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영

■ 마을만들기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속

- 마을재생사업은 주민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마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을 시도하는 마을만들기 성숙단계에 이른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초기 단계나 발전 단계의 경우에는 마을재생사업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
- 신규로 마을만들기 활동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마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단계별로 주민 요구에 대응하여 맞춤형을 지원하는 것은 지속되어야 함

■ 마을재생사업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마을재생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마을재생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 부서의 주요 업무에 공식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마을재생사업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의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성북구 고유의 특성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북구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정책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마을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로서 '성북구 마을재생사업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마을재생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주체로 마을재생센터를 설립해야 함. 마을재생센터는 기존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지원단을 통합하는 방식이 적절하며, 물리적 재생 부문, 사회적 재생 부문, 경제적 재생 부문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별 마을재생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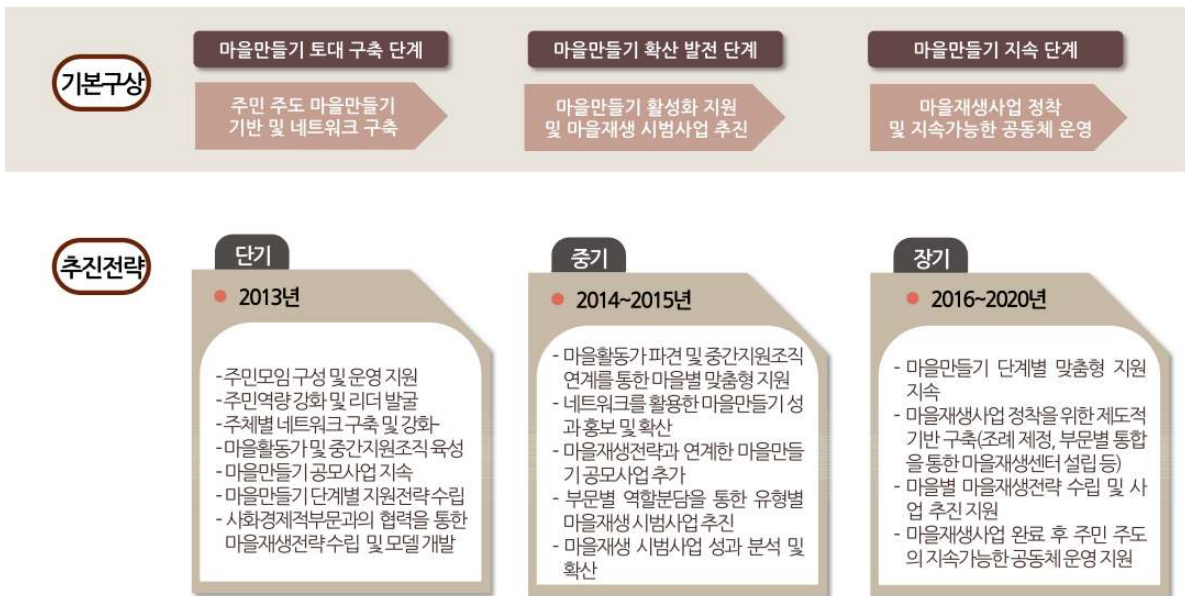
- 유형별로 마을재생전략을 수립하고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마을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음. 마을특성 및 주민여건이 유사한 지역에서는 추진전략의 방향과 실현수법을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을재생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추진전략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
- 마을 차원에서 마을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공식화된 주민모임이 중심이 되어 마을재생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마을재생사업 완료 후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영 지원

- 마을재생사업도 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더라도 사업이 완료되면 더 이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민

모임이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운영하려면 마을재생전략을 수립하고 마을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업 완료 이후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함.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는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인력의 경우도 기존에는 주민 리더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헌신했다고 하면 상시적인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차원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인력을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마을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기업 육성 및 마을가게 운영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창출된 마을 공동의 이익을 마을공동기금으로 확보하여 공동체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마을공동기금을 일정 정도 적립한 다음에는 마을공동자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다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산의 확보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민 간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모든 주민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6-5]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단계별 추진전략

제7장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1.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방안
2.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개선 방안
3.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개선 방안
4.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개선 방안



제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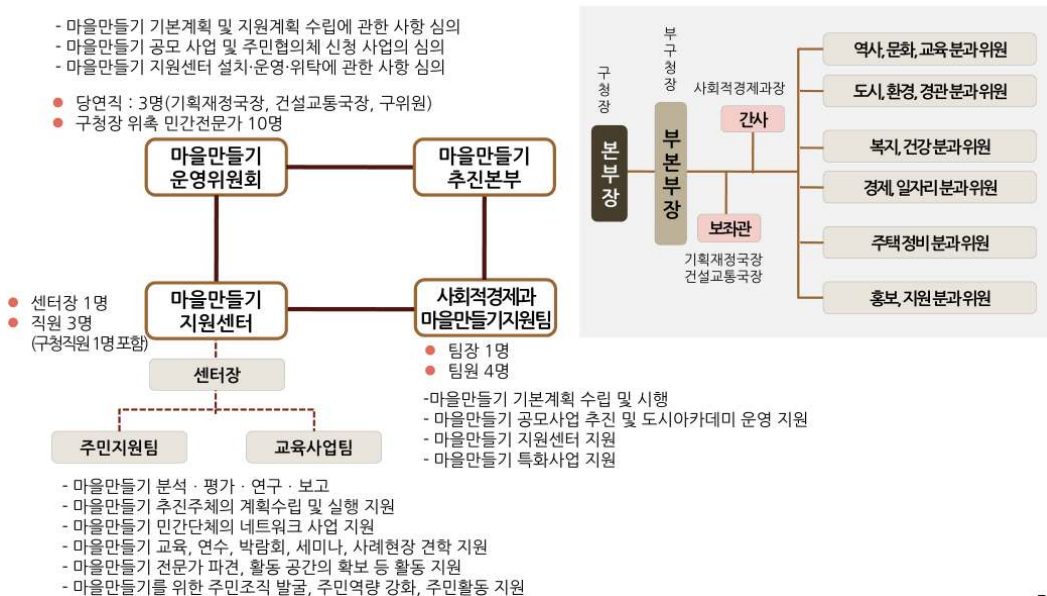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1.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방안

1)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현황

(1) 추진체계 개요

-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는 크게 마을만들기 추진본부, 마을만들기 지원팀(사회적경제과 소속),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구분됨
- 마을만들기 추진본부와 마을만들기 지원팀은 행정조직이고,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지원조직임



[그림 7-1]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요

(2) 추진주체별 현황 및 특성

■ 마을만들기 추진본부

- 마을만들기 추진본부는 ① 성북구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 개발, ②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당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③ 마을만들기 사업 검토·회의를 통한 성북구 마을만들기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행을 목적으로 구성됨
- 구청장이 본부장이고, 마을만들기 전담부서인 마을만들기 지원팀이 소속된 사회적경제과장이 간사 역할을 담당하며, ① 역사·문화·교육, ② 도시·환경·경관, ③ 복지·건강, ④ 경제·일자리, ⑤ 주택정비, ⑥ 홍보·지원 등 6개 분과로 구성됨

■ 마을만들기 지원팀

- 마을만들기 지원팀은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사회적경제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팀장 1명, 팀원 4명(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파견 1명 제외) 총 5명으로 구성됨
- 지원팀은 크게 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②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및 도시아카데미 운영 지원, ③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원, ④ 마을만들기 특화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함. 또한 마을만들기 추진본부와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진행 등을 담당함

■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는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등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됨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함
- 회의는 분기별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함
- 운영위원회는 크게 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성북구 마을만들기 중장기 구상과 기본방향, 행정·재정적 지원체계 및 추진체계, 마을만들기 관련 프로그램의 통합적 활용방안, 주민조직 발굴, 역량 강화,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세부내용, 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을 위한 도시아카데미 운영방안), ②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및 주민협업체 신청 사업(사업의 목적, 타당성, 사업비 산정의 적절여부, 사업효과 등), ③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연도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계획 심의, 민간 위탁업체 선정 관련 심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조직 구성의 적절여부 심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수탁자에 대한 평가), ④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주민, 민간단체, 행정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실천하는 성북구의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사) 나눔과미래이 성북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2011년 12월 29일에 개소하였음

- 지원센터의 조직구성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주민지원팀, 교육사업팀) 총 4명이 고, 성북구청에서 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직 공무원 1명을 추가로 파견함
-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① 마을만들기 분석·평가·연구·보고, ②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계획수립 및 실행 지원, ③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 ④ 마을만들기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견학 지원, ⑤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⑥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⑦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임
- 지원센터의 중점 사업은 크게 ① 함께하는 마을을 위한 열린마당 만들기, ② 마을의 사회·경제적 생활환경 개선, ③ 마을의 물리적 거주환경 개선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7-1]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중점 사업

구분	사업내용
함께하는 마을을 위한 열린마당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도시아카데미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기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만들어가는 열린 배움의 마당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마을 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 지원 - 찾아가는 마을학교 : 더불어 사는 마을을 방문하여 함께 마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교육과정 - 토론회·워크숍·발표회 개최 : 다양한 의견과 현장 사례 정보 교환
마을의 사회·경제적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교류 프로그램 :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축제, 동아리, 전시회 등 공동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콘텐츠 제작 공유 :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으로 우리마을 이해하기 - 사회서비스 연계 : 복지/교육/의료 등 공공, 민간 자원 나누기 -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일자리 만들기 지원
마을의 물리적 거주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도서관, 공원 등 공공 공간 개선 - 꽃길, 담장허물기, 도로정비 등 마을환경 개선 - 차없는 거리, 간판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 - 주택개량, 관리 등 노후 주거지 거주환경 개선

자료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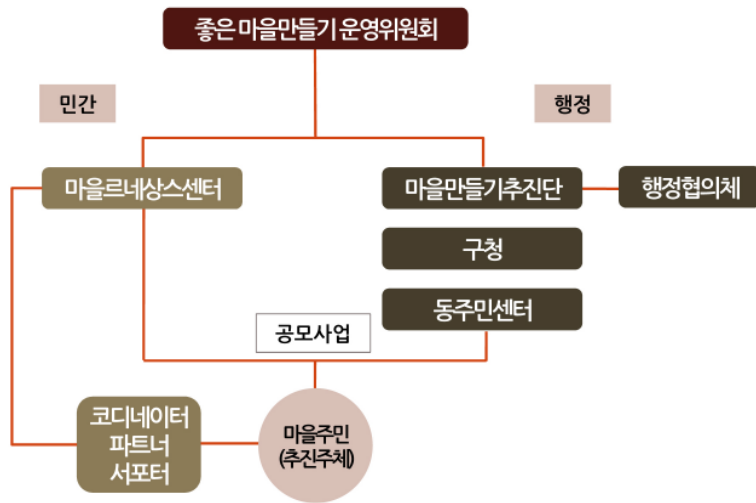
2) 다른 지자체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현황

(1) 수원시¹¹⁾

■ 추진체계 개요

-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는 크게 좋은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마을만들기 추진단, 행정협의체, 마을르네상스센터로 구분됨. 마을만들기 추진단이 구청과 동주민센터와 협력하고 있으며, 마을르네상스센터는 추진주체인 마을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코디네이터, 파트너, 서포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11) 2021 수원 마을르네상스 기본계획(2011)과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http://www.maeulcenter.or.kr>)를 참고하여 작성함. 이하 수원시 관련 사례도 동일함



[그림 7-2]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 추진주체별 현황 및 특성

■ 마을만들기 추진단

-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단은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로서 설치됨
- 제2부시장 직속 산하 기관으로, 추진단장 1명 주무관 7명 총 8명으로 구성됨
- 주요 기능은 ① 관련 업무의 협조체계 구축, ② 마을만들기 정책의 종합 기획 및 조정, ③ 마을르네상스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적 대안 마련 및 실현, ④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및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함

■ 행정지원협의체

- 행정지원협의체는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환경·문화 등에 대한 관련 법 저촉 및 상위계획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담당함
- 주요 기능은 ① 마을르네상스사업 추진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 ②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대한 관련 법 저촉 여부 검토, ③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관련 계획 부합 여부 검토, ④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소요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임
- 행정지원협의체는 ① 도시계획(도시계획과), ② 환경(환경정책과), ③ 도시재생(도시재생과), ④ 문화·관광(문화관광과), ⑤ 경관·간판(도시계획상임기획단), ⑥ 주택·건축(주택건축과), ⑦ 도로(도로과), ⑧ 경제·에너지(경제정책과), ⑨ 녹지·공원(녹지과), ⑩ 국·공유지(회계과) 등 10개 분야로 구성되며, 이외에도 관계 부서에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함

■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마을르네상스의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의 심의·자문은 물론 주민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 제안·연구 등의 지원을 위해 구성하였음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제2부시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2차 연임이 가능함. 당연직은 마을만들기·환경·도시계획·문화체육 관련 담당국장이 포함되며, 위촉직은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학계전문가,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 마을만들기 추진단장이 간사 역할을 담당함
- 2011년 3월 출범한 제1기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시민대표(5명), 전문가(6명), 시민사회단체(4명), 학계(7명), 공직자(당연직, 4명) 등 각계 대표 26명으로 구성됨
- 위원회는 마을르네상스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데, 크게 ① 마을만들기 연간 운영계획 및 공모·제안 사업 승인, ② 마을만들기 사업의 변경·취소에 관한 자문 및 심의, ③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 승인 및 지원, ④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및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함

■ 마을르네상스센터

- 마을르네상스는 주민-행정-3그룹(단체, 전문가, 학교, 기업 등) 세 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에 의해 추진됨. 마을르네상스센터는 세 주체들에게 필요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들을 제공하는 통합적 지원활동과 주체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마을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단체(수원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며, 민간이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르네상스의 중간지원조직임
- 마을르네상스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2명, 회계직원 1명, 홍보직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됨
- 주요 활동내용은 ①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체계의 안정화(각 주체들 간의 역할, 책임, 권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② 각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시스템 구축(교육과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시간별, 대상별, 주제별 맞춤형 교안과 방안 개발), ③정보의 허브(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와 연구결과가 집결되고 다시 확산되는 정보의 허브), ④ 마을르네상스 일꾼들의 열린 마당(마을르네상스 일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상호 교류하는 열린 공간), ⑤ 마을르네상스의 보급 창고(마을르네상스 과정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 제공)
- 추진사업은 크게 ①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② 주민역량 강화, ③ 공모사업, ④ 마을자원 발굴 및 활용, ⑤ 연구 및 홍보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7-2]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의 주요 추진사업

구분	사업내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마을르네상스 꿈장터, 마을르네상스 연구회, 마을르네상스 포럼, 마을르네상스 실무자 워크샵, 마을르네상스 민간협력 워크샵, 전국마을만들기네트워크
주민역량 강화	- 마을르네상스 마을학교, 마을르네상스 청소년학교, 마을르네상스 도시대학, 마을디자이너 운영
공모사업	-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마을르네상스 일꾼(리더) 교육, 도시르네상스 공모사업(2012년 이후)
마을자원 발굴 및 활용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용역 연계(2011년), 공모사업 중 마을조사 부문 연계, 마을르네상스센터 자체조사
연구 및 홍보	-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마을르네상스 백서 발간, 마을르네상스 스토리북 발간, 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 및 연구 동향 조사, 마을르네상스 보고대회

자료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

■ 마을르네상스 파트너 및 서포터 : 민간중간지원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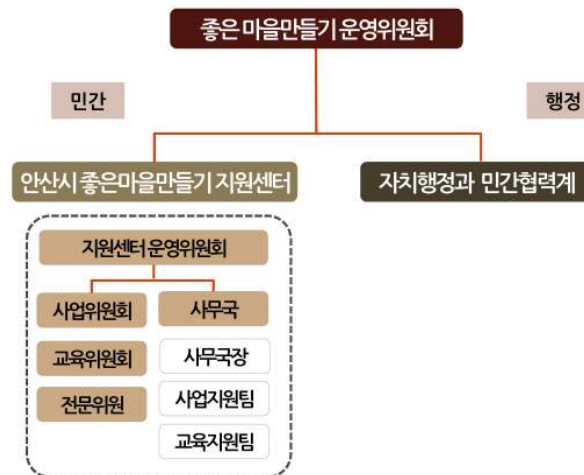
-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 확대되면서 마을르네상스 활동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으로 수시로 상담·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짐
- 마을르네상스 현장에서 주민주체와 협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마을르네상스 거버넌스를 추구하고, 주민과 마을르네상스센터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주민주체가 갖고 있는 마을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대한 욕구를 수렴하고 주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르네상스 파트너 및 서포터를 추진함
 - 주요 역할은 ① 중간지원조직 정보 공유 및 주민과 연계, ②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마을르네상스 모니터링, ③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관련 서류 작성 안내 및 지원, ④ 체험교육, 축제 및 이벤트 등 소프트웨어 활동 지원, ⑤ 조경, 건축, 공공미술 등 하드웨어 활동 지원 등임
 - 마을르네상스 파트너는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의 유경험자로 2인 이상이 함께 활동하는 조직이 등록할 수 있고, 마을르네상스 서포터는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의 유경험자로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음.
 - 마을르네상스 파트너 및 서포터를 통해 주민주체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주민-행정-센터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마을르네상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이와 함께 상시적인 주민 활동 지원을 통해 사전 문제 해결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마을르네상스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음

(2) 안산시¹²⁾

■ 추진체계 개요

- 안산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는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와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구분됨.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나 행정협의체가 존재하지 않고, 자치행정과 민간협력계에서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수준임



[그림 7-3] 안산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12)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happyansan.or.kr>)를 참고하여 작성함. 이하 안산시 관련 사례도 동일함

■ 추진주체별 현황 및 특성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구성됨. 당연직은 안산시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시의회 의원 2명이 포함되며, 위촉직은 주민 3명, 시민단체 3명, 학계 2명 및 관련 전문가 2명으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함
-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①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③ 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함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안산시의 마을만들기는 1990년대 후반 환경보전 중심의 녹색 마을만들기 운동에서 비롯됨. 2000년대에는 안산시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 주민,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마을 활동을 확산하게 되었음. 시장이 바뀌면서 예산이 중단되어 해체하였다가 안산의제21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함. 안산 마을만들기 시민네트워크¹³⁾가 발족하고, 2년 반 동안 약 2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7년 9월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함.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개소되었음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센터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사업위원회, 전문위원,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총 2명이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비상근임
- 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의 지원으로, 이를 위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상호 활동의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시민사회단체 11개의 네트워크 활동을 바탕으로 안산시건축사회, 한양대학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최근에는 '문화와 복지'라는 목표를 세워 경기창작센터(문화)와 안산지역 복지관련 기관(복지)들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크게 ① 교육 지원, ② 사업 지원, ③ 전문가 지원, ④ 조직 지원, ⑤ 연구와 정책 개발로 구분되며, 사업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7-3]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구분	사업 내용
교육 지원	- 마을주민대학, 마을디자인대학, 마을코디네이터 교육, 청소년 교육
사업 지원	- 주민공모사업, 아이디어 공모, 기획사업, 외부협력사업
전문가 지원	- 마을닥터, 헬프데스크
조직 지원	- 마을주민동아리, 청년서포터즈
연구와 정책 개발	- 마을포럼, 마을연구, 조사·정책·네트워크 등

자료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13)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나눔과연대, 아파트문화연대, 안산경실련,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민족예술인총연합, 안산의제21,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산YWCA, 풀뿌리환경센터가 포함됨

(3) 광주시 복구¹⁴⁾

■ 추진체계 개요

- 광주시 복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와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팀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26개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체제임



[그림 7-4] 광주시 복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 추진주체별 현황 및 특성

■ 마을만들기팀

- 광주시 복구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전담부서를 구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에 소속됨. 2003년 마을만들기팀이 신설되었고, 2005년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었다가 2007년부터 주민자치과에 소속되어 마을만들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마을만들기팀은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주민조직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26개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과 지역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총무) 등 임원과 3~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 수는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함¹⁵⁾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9인 이내로 구성됨. 당연직은 구의원 3명, 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 환경과장, 도시개발과장, 도심재생추진단장이 포함되며, 위촉직은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함
-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① 마을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마을만들기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④ 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⑤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기타 위원회가 필요

14) 광주시 복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gwangju.kr>)를 참고하여 작성함. 이하 광주시 복구 관련 사례도 동일함

15) 양진영, 「한국과 일본의 마을만들기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복구와 동경도 세전곡구를 중심으로」, 광주대 산업대학원, 2008.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함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광주시 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살터 가꾸기, 마을의 인재 육성, 지역공동체 형성 등 마을만들기 3대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었는데, 2005년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시 북구청 자치행정과 내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함
-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① 마을만들기 3대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자료 수집·제공, ② 마을만들기 특성화를 위한 동별 특성 조사 분석, ③ 학습과 교육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 이해도모 및 마을 리더 육성, ④ 마을만들기 체험 활동 및 마케팅 활동 전개, ⑤ 국·내외 자료 수집 및 전문단체와 네트워크 형성 등임
- 하지만 지원센터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주민자치과 내에 소속되어 있으며, 지원센터를 운영할 상근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과 직원이 담당 업무와 지원센터 운영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현재 마을만들기 자료 수집 및 보관, 정보 교류 및 제공, 마을만들기 홍보 등을 주로 추진하는 수준이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위탁 운영을 검토하고 있음

(4) 시사점

■ 마을만들기 전담부서의 위상 강화

- 수원시는 마을만들기 전담부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수원시 제2부시장 직속 산하에 설치하여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위상도 함께 높이고 있으며, 행정협의체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식적인 행정협의체를 통한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 수원시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부서를 행정협의체로 공식화하고 행정협의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협의체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관계 법률 및 제도를 사전에 검토하여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의 시행착오와 사업 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협력과 연계를 통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추구

- 안산시의 경우 지원센터 직원이 기존에 2명에서 2011년부터 3명으로 확충되었음.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조례 제정부터 함께 했던 11개 시민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센터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사업위원회에 포함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한양대학교와 안산 시건축사회 등 학계와 전문가와 연계하여 마을디자인대학 등을 진행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민간중간지원조직 운영

- 수원시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 경험이 풍부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파트너 및 서포터 등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상시

적인 주민활동 지원을 통해 사전 문제 해결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마을르네상스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됨

■ 동 단위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 광주시 복구는 마을만들기 전담부서인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팀에서 별도의 상근 직원없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6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동 단위를 기반으로 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및 마을만들기 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3)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방안

(1) 기본 방향

■ 마을만들기 전담부서의 위상 및 기능 강화

- 마을만들기 전담부서인 마을만들기 지원팀이 특정 부서(사회적경제과)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연계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적경제과에 소속된 마을만들기 지원팀을 마을만들기 담당관으로 전환하여 마을만들기 전담부서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해야 함. 마을만들기 담당관은 성북구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성북구청 내 관련 부서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성북구 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실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마을만들기 추진본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행정협의체 전환 및 역할 재정립

- 마을만들기 추진본부가 형식적으로는 6개 분과(역사·문화·교육, 도시·환경·경관, 복지·건강, 경제·일자리, 주택정비, 홍보·지원)로 구분하여 구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조직체제로 남아 있음. 또한 마을만들기 전담부서가 마을만들기 담당관으로 위상 및 기능이 강화되면 마을만들기 추진본부와 성격과 역할이 일부 중복됨
- 성북구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재생,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 등 종합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성북구 모든 부서들이 마을만들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마을만들기 추진본부를 행정협의체로 전환하여 분과별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임

■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전문화 추진

- 성북구 차원의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 국장에서 구청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물리적 재생 부문, 사회적 재생 부문, 경제적 재생 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를 보강하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화를 추진해야 함. 마을만들기 운영

위원회의 정기 회의와 별도로 부문별로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 자리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 체계화 및 협력체계 강화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단기 및 중기적 관점에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의 체계화를 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지원단을 통합하여 마을재생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주민지원팀과 교육사업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찾아가는 마을학교 등 주민활동 지원과 주민역량 강화가 중심이 되고 있음. 인력 부족 및 예산 한계로 조사기획 기능이 약화된 상태인데, 조사기획 기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북구 현황을 바탕으로 한 마을만들기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기획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성북구 내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연구회를 구성하여 선진 사례의 학습 및 성북구 적용 방안 모색, 분야별 추진전략 및 실천 프로그램 수립 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북구 내 대학교와 연계하거나 분야별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활동 지원 및 주민 역량을 강화와 관련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함
- 사회적경제단체, 풀뿌리단체, 주민모임을 포함하여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성북구 내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성북구 마을만들기가 활성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마을재생센터로 전환하게 되면 단기 및 중기 단계의 조직 구성(주민지원팀, 교육홍보팀, 조사기획팀)에 사업실행팀을 추가하여 본격적인 마을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분야도 세분화하여 전략 수립 부문, 물리적 재생 부문, 사회적 재생 부문, 경제적 재생 부문으로 구분하여 전문화를 추구해야 함

■ 동단위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축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지만,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될수록 주민활동 지원 및 주민역량 강화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서 모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음
- 예산 확보를 통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동주민센터별로 마을만들기 담당자를 배치하여 주민모임 구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동단위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함



[그림 7-5]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방안

(2)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 조직구성 및 운영

- 구청장이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고, 마을만들기 담당관이 간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운영위원회 위원을 15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한 당연직 3명 이상, 위촉직 12명 이상을 위촉하도록 함.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북구, 성북구 의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3명 이상), 학계(3명 이상), 전문가(3명 이상), 주민대표(3명 이상) 중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전문지식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를 위촉함. 위촉직 위원의 관심 또는 전문성이 특정 부문에 집중하지 않도록 물리적 재생 부문, 사회적 재생 부문, 경제적 재생 부문 등 부문별로 1명 이상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공식적인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함. 이와 함께 부문별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위원과 행정협의체 관계 부서들이 참여하는 부문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문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함

■ 역할

- 기존의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②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및 주민협의체 신청 사업의 심의, ③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심의 역할을 지속함
- 여기에 추가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북구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함. 행정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북구 모든 부서에서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성북구의 제도적 여건과 마을만들기에 대한 성북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변화에 주목하면서 성북구의 미래상과 연계한 마을만들기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부문별 세부 과제를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3)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조직구성 및 운영

■ 단기·중기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운영의 체계화

- 센터장 1명, 팀장 3명, 직원 2명 총 6명 체제로 인력을 보강해야 함. 센터장을 중심으로 주민지원팀(2명), 교육홍보팀(2명), 조사기획팀(1명)으로 구분하여 업무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센터장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면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마을만들기 담당관, 행정협의체와의 의견 조율 및 사업 논의를 담당해야 함
- 주민지원팀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및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주민모임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단체, 풀뿌리단체, 주민모임 등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과 성북구 내 대학교와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주민지원팀에서 담당해야 함
- 교육홍보팀은 찾아가는 마을학교,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주민역량 강화 및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성북구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사전에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만들기 활동 결과를 홈페이지, SNS, 성북소리, 마을방송 와보송 등을 활용하여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조사기획팀은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정책 및 사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마을만들기 아카이브에 지속적으로 구축해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마을만들기 연구회 또한 성북구 내 자원을 조사하여 마을만들기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활동으로 발전시켜야 함. 장기적으로 마을재생센터로의 전환을 고려하면서 마을재생 시범사업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조사기획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 장기 : 마을재생센터로의 전환

- 센터장 1명, 팀장 4명, 직원 6명, 총 11명 체제로 확장해야 함. 사회적경제 지원단과의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되지 않음. 기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조직구성(센터장(1명), 주민지원팀(2명), 교육홍보팀(2명), 조사기획팀(1명))에 조사기획팀을 1명 추가하고, 사업실행팀(4명)을 추가하는 형태임. 사업실행팀은 사업실행팀을 총괄하면서 전략수립 부문을 담당하는 팀장 1명과 물리적 재생,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 등 부문별로 직원 1명을 배치하여 4명 체계를 유지함
- 센터장, 주민지원팀, 교육홍보팀, 조사기획팀은 기존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형태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담당하되, 마을 재생을 위한 사업실행팀이 추가된 만큼 조사기획팀의 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사기획팀 직원을 1명 더 추가해야 함

- 사업실행팀의 경우 부문별로 구분하여 업무를 배치하지만 초기 단계에는 물리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을 중심으로 마을 재생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업무 분장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음. 마을 재생 시범사업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마을재생사업이 추진되면 사업실행팀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사업실행팀도 성북구 내 대학교 및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함

■ 역할

-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성북구 고유의 특성을 살린 마을만들기 유형을 개발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보편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함
- 주민 요구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함. 주민 참여를 넘어 주민 스스로 마을리더 및 마을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성북구 내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를 형성해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단체, 풀뿌리단체, 주민모임 등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사회적경제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마을재생전략을 수립하고 모델을 개발하여 마을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재생전략의 효과 및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성과가 확인되면 유사한 성격의 마을별로 마을재생전략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마을재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4) 마을만들기 담당관

■ 조직구성 및 운영

- 구청장 직속의 마을만들기 담당관으로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긴밀하게 함
- 마을만들기 담당관 1명과 주무관 6명 등 총 7명으로 인원을 구성하고, 주무관의 업무 범위를 사업과 부문을 구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함. 사업의 경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주민역량 강화 및 참여 지원, 주민활동 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재생 시범사업 지원으로 6개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주무관 1명이 1개의 사업영역을 담당하도록 함. 부문의 경우 물리적 재생,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으로 구분하여 주무관 2명이 1개의 부문을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함. 부문별 업무의 경우 마을만들기 담당관의 직접적인 업무 수행보다는 행정협의체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됨

■ 역할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주민역량 강화 및 참여 지원, 주민활동

- 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 이와 관련한 예산 확보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금 조성 등을 통한 재정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행정협의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북구 모든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만들기의 관점을 전제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행정협의체에 포함된 관련 부서들이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습과 훈련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행정협의체 이외에도 성북구 내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학교 등 공공기관, 동주민센터,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5) 행정협의체

■ 조직구성 및 운영

- 기존의 마을만들기 추진본부의 6개 분과(역사·문화·교육, 도시·환경·경관, 복지·건강, 경제·일자리, 주택정비, 홍보·지원)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 분과에 포함되는 관계 부서별로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자를 공식적으로 배치하여 마을만들기 담당관과 상시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함
- 마을만들기 담당관이 간사 역할을 담당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관계 부서별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자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협의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 연초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 중간 과정 검토, 사업성과 평가 등 연간 주요한 일정에 맞춰 6개 분과가 모두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상시적으로는 6개 분과별로 별도의 논의 자리를 마련하여 사업 발굴의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함

■ 역할

-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마을만들기 담당관이 도움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에 의견을 제시해야 함. 또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유형별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제안 사항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계획 및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 평가를 통해 효과성 및 파급효과가 상당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2.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개선 방안

1)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현황

(1) 개요

- 성북구는 전면 철거 위주의 주택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자치 기능 강화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1년 10월 21일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 이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 주도로 제정된 자치법규란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조례의 구성 및 내용

- 조례는 크게 총칙,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총 4장 24조로 구성됨
- 제1장 총칙에서는 마을만들기의 목적과 정의, 마을만들기의 기본원칙, 주민과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 제2장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사업 신청, 사업의 조정 및 선정, 예산의 반영 및 지원, 사업분석 및 평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 제3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제를 규정함
- 제4장은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 원칙과 회의록, 수당 등 운영 방식에 대해 규정함

[표 7-4]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의 항목과 내용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의 (제2조)	- 마을 :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 - 마을만들기 :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 - 마을만들기 사업 :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 - 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 : 주민자치위원회 및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
	기본원칙 (제3조)	- 마을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지향 - 마을만들기 사업은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장소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의 책무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 않고 가꾸고 정비하는 활동에 기본적인 가치를 둠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민은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향하고, 사업의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며, 스스로의 노력과 협동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
	구청장의 책무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주민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북구 마을만들기 중장기 구상과 기본방향 행정·재정적 지원체계 및 추진체계 마을만들기 관련 프로그램의 통합적 활용방안 주민조직의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에 대한 세부내용 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을 위한 도시아카데미 운영 방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신청, 조정, 선정 (제7조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협의체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2개 이상의 동에 걸쳐 추진할 사업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의견을 들은 후)에 구청장에게 사업을 신청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을 기본계획 및 구의 중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여 선정
	예산의 반영 및 지원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청장은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 주민협의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분석 및 평가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청장은 주민협의체에게 추진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구청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 발표회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평가·진단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 가능
	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 가능
제3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원센터의 기능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분석·평가·연구·보고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계획수립 및 실행 지원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 마을만들기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견학 지원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탁관리 및 운영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위탁기간 3년,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재위탁 가능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도감독 및 계약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 요구 및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 가능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시정 요구 가능
	위탁계약의 해제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청장은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은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심사 등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를 설치 1.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위탁(재위탁 포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명을 포함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 구의원 1명,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국장, 건설교통국장 - 위촉직 위원 : 구청장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중 위촉 -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간사 :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 부서장 - 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가능

2) 다른 지자체 마을만들기 조례 현황

(1) 수원시

■ 개요

- 2010년 12월 29일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및 시행
- 2011년 5월 4일 조례의 내용 일부 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중 20명 이내의 위원을 30명으로 개정
- 2013년 2월 5일 조례 일부 개정.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정책 브랜드인 "마을르네상스"의 용어 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마을르네상스를 보다 지속발전 가능한 관리체제로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협의회"와 "마을계획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조례의 구성 및 특성마을계획사

- 총 6장 31조로 구성되며, 조례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2월 5일 개정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동별로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 교육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주민과 함께 마을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제안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자문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촉된 전문가를 마을계획사로 정의하고, ①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과 교육 및 홍보, ②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 ③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도시재생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마을만들기 지원 대상에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표 7-5]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의 구성

구분	조례의 항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주민 및 추진주체의 책무
제2장 좋은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제4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제5조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제6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제7조 교육지원 등
제3장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9조 구성 제10조 임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위촉 해제 제13조 회의 제14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4장 마을만들기 협의회	제15조 설치 및 기능 제16조 구성	제17조 회의 제18조 실무분과
제5장 마을르네상스 센터	제19조 센터의 설치 제20조 센터의 기능 제21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22조 지도·감독 제23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6장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제24조 추진주체 구성 등 제25조 지원대상 제26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27조 포상 등	제28조 마을계획사 제29조 수당 등 지원 제30조 준용 제31조 시행규칙

(2) 안산시

■ 개요

- 2007년 9월 27일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함
- 2008년 2월 22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 문화사업소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 및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
- 2010년 1월 19일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일부 개정. 제4조 제5항(위원의 임기) 중 위원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함. 제2조의 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를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규정함

■ 조례의 구성 및 특성

-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총 9조로 구성되며, 조례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함

[표 7-6]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의 구성

구분	조례의 항목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주민 및 시의 책무
운영위원회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의2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제5조 위원의 해촉
지원센터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 위탁운영 등
	제8조 지도·감독
기타	제9조 시행규칙

(3) 광주시 복구

■ 개요

- 광주시 복구는 조례 제정의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2003년 11월 19일 '조례 제정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연구회의 워크숍에서 조례의 틀을 잡게 됨
- 주민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조례안은 2003년 12월 3일 복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의결을 거친 후, 2004년 3월 25일에 '광주시 복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됨
- 2004년 11월 25일 마을만들기 센터의 건립과 제반 운영사항을 담은 시행 규칙이 제정됨

■ 조례의 구성 및 특성

- 총 6장 31조로 구성되며, 조례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이외에 마을만들기 지구계획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의 일부 지구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정의하고, 지구의 특성에 따라 매력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이 필요한 경우 마을만들기 주체 등이 지구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에 지구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포함함
- 마을만들기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마을만들기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별도로 명시함

[표 7-7]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의 구성

구분	조례의 항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4조 주민의 책무
	제2조 정의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기본이념	제6조 마을만들기 주체의 책무
제2장 좋은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제7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제13조 주민 의견 반영 등
	제8조 마을만들기 지구계획	제14조 전문가 지원
	제9조 지원계획 수립	제15조 조사 및 보고
	제10조 지원대상	제16조 예산의 반영 및 지원
	제11조 사업 신청	제17조 분석 및 평가
	제12조 사업 조정 등	제18조 포상
제3장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	제21조 설치	제26조 위촉 해제
	제22조 기능	제27조 회의
	제23조 구성 등	제28조 회의록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29조 수당 등
	제25조 간사 등	제30조 규칙

(4) 시사점

■ 마을의 지향점과 마을만들기 정책 브랜드 명시

- 안산시와 광주시 북구는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마을의 지향점을 명시하고 있음. 안산시는 '좋은 마을'을 고품격 환경과 문화가 고루 갖추어져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의 정주의식이 높은 마을로 정의하고 있으며, 광주시 북구는 '아름다운 마을'을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로 정의함
- 수원시는 '마을르네상스'를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을 스스로 문화와 예술, 건축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으로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의 정책브랜드로 정의함

■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성

- 수원시, 안산시, 광주시 북구 모두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산시는 위촉직 위원에 주민 3명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주민대표를, 안산시는 주민을 위촉직 위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수원시는 마을 공동체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동별로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 협의회 의원은 ① 동 단위 단체장,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대표, 마을만들기 참여자, ② 마을만들기와 관련 있는 자원봉사 활동가, ③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함

■ 마을만들기 대상의 구체화 및 범위 확대

- 광주시 북구는 구의 일부 지구에 대해 마을만들기 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구의 특성에 따라 매력 있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이로 인해 광주시 북구 전체 차원의 마을만들기 추진과는 별도로 특정 지역에 대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주민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지구계획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수원시는 2013년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을 마을만들기의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마을만들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수원시는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행정지원 협의체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제안한 계획 중 행정부서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주민들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구청과 시청의 다른 계획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가 활용 및 파견

- 광주시 북구는 전문가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전문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원시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주체로부터 전문가의 도움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수원시는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포상 제도 운영

- 광주시 북구는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수원시는 시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평가 및 분석 결과 우수 추진주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또는 연수기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한 금전,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한 단체나 개인,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 행사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도 포함하고 있음

3)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개선 방안

(1) 행정 지원 강화

- 전담부서 및 행정협의체 등 마을만들기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함
- 교육, 연수, 견학, 세미나 등 주민역량 강화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에만 포함된 상태임

- 따라서, 행정 지원에 관한 장을 추가하여 전담부서, 행정협의체, 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해야 함

(2)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위원에 주민대표 포함

- 현재 마을만들기 위원 위촉대상에 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른 지자체 조례의 경우 대부분 주민대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중요한 심의기구인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주민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19조 위원회 구성에서 주민대표를 위촉 대상에 포함하도록 추가해야 함

(3) 부문별 예산 지원 대상의 구체화

- 종합적인 마을재생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략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제9조 예산의 반영 및 지원에는 주민협의체가 주도하는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제9조에서 예산 지원대상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 부분별로 구체화하여 명시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마을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파견 제도 명시

-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추구하더라도 마을만들기 활동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마을전문가나 마을활동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마을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파견 등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미흡한 상태임
- 따라서,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 부분에 마을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파견 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역할, 지원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개선 방안

1)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현황

(1) 공모사업 유형

-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크게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형성 및 복원으로 2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활환경 개선은 물리적인 공간 및 시설을 개선하거나 설치하는 사업이 중심이고, 주민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은 생활실천, 공동체 활성화, 주민 교류, 돌봄·육아·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중심임

[표 7-8]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유형

구분	사업내용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보수, 쌈지공원 조성, 꽃밭, 안내시설, 녹지공간 조성 - 자전거도로, 도로정비 등 도로환경 개선 - 꽃길, 차없는 거리 등 보행환경 개선 - 벽화 그리기, 담장 허물기, 간판 정비 등 경관 개선 -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 주거환경 개선 - 마을도서관, 북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기타사업
주민 공동체 형성 및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실천 프로그램: 지렁이퇴비화, 에너지절약, 텃밭 가꾸기, 벼룩시장, 목공교실 등 - 자연생태, 역사, 문화·예술 등을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주민교류 프로그램: 마을축제, 마을도서관/북카페 운영, 재능기부(지역화폐), 청소년 사랑방 등 - 돌봄·육아·복지 프로그램: 품앗이 돌봄·육아 등 -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주민육성 교육, 시장상인 동아리 운영, 캠페인 및 공동행사 등 - 기타 주민 공동체 형성에 해당하는 활동, 기타 사업 등

자료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2) 공모사업 추진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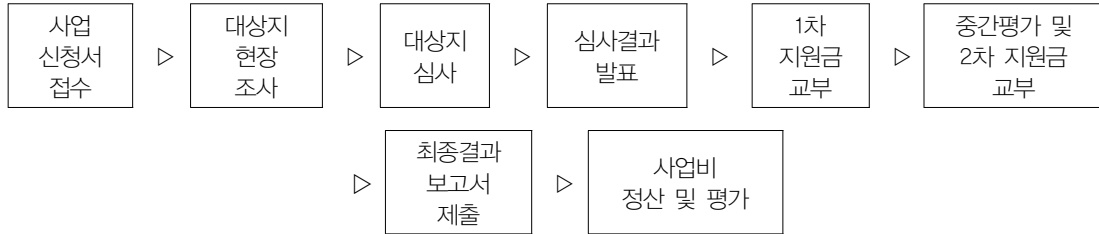
■ 신청자격

- 관내 주민으로서 마을만들기 추진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직능단체, 사회단체, 풀뿌리단체, 마을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 등 구성원 10~15인 이상인 단체가 신청할 수 있음
- 성북구청에서 시행한 각종 리더 양성 프로그램(아카데미)을 이수한 주민이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는 총득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함. 가산점 대상은 도시아카데미,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통장아카데미, 공동주택 아카데미, 사회적기업가 양성교육 등임
-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나 이익단체, 동일사업으로 국가·지자체·기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응모를 제한함

■ 추진절차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함

- 연 1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공고하며, 2012년도의 경우 5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함
-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현장조사를 통해 심사를 하며, 선정된 주체에 대한 지원금 교부는 1차로 지원금을 교부한 뒤 중간평가를 통해 2차 지원금을 교부함.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 사업비 정산 및 평가를 진행함



■ 심사방법 및 심사항목

- 심사방법은 1차적으로 심사위원단 평가를 실시한 뒤에 2차적으로 성북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함. 서류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현장 심사를 추가함
- 심사항목은 크게 ① 사업선정의 적절성, ② 사업의 실현가능성, ③ 사업의 효과성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7-9]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심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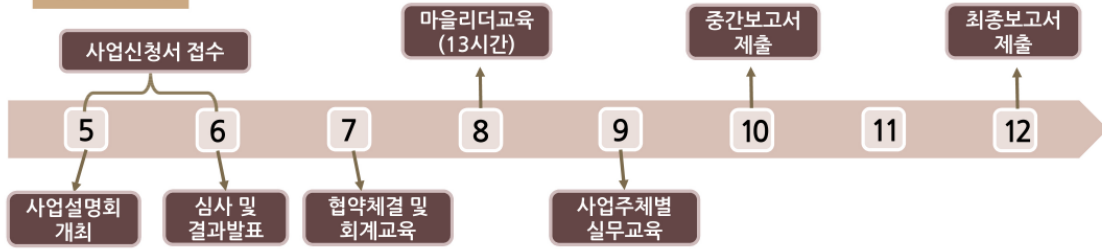
구분	평가항목
사업선정의 적절성	- 지역여건 및 주민요구에 의한 사업선정 여부 - 주민의 참여 동기 유발 및 공감대 형성의 여부 - 사업주체의 구성의 적절성 및 역량(관련 민간단체와의 컨소시엄 우대)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참신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 지역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지속적 추진 방안 제시 여부 - 주민주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 참여자들의 구체적 역할 분담 여부 - 사업규모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여부
사업의 효과성	- 사업추진에 의한 생활환경의 개선, 주민편익 증진, 공동체 활성화 기여 여부 - 사업추진 과정 및 완료 후 주민 네트워크 등 인적·사회적 자원 발굴 및 축적 여부 - 연계사업 및 지속 사업 가능여부

자료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3) 2012년도 공모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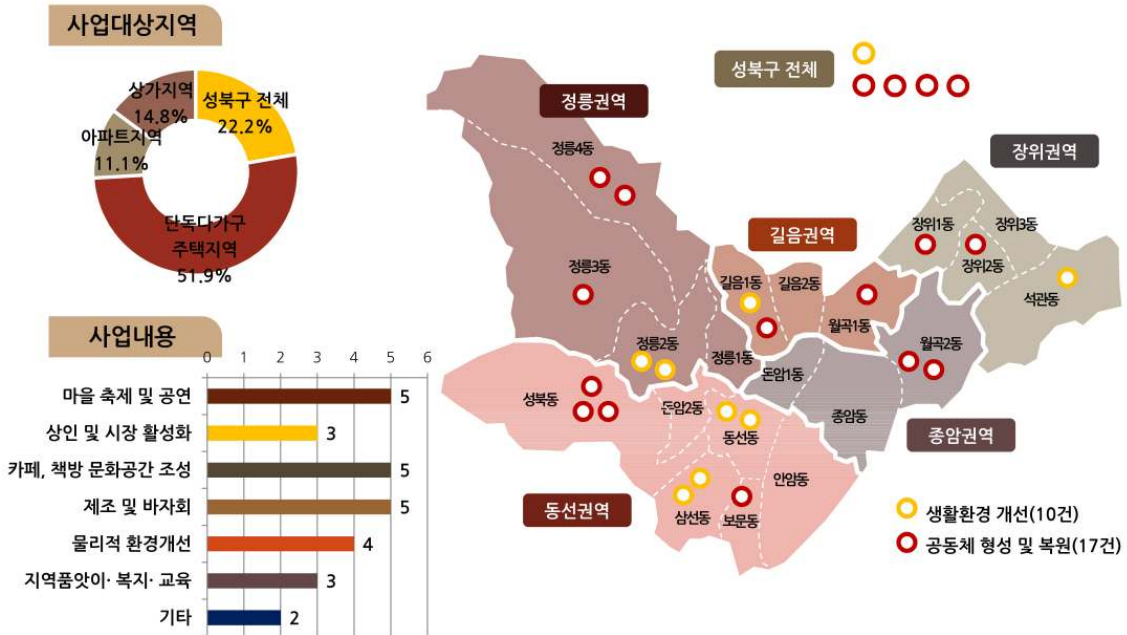
- 2012년도의 경우 총 2억8천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공고함.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3,000만원 이내, 주민 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은 1,000만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음
- 총 33개팀이 접수하여 최종적으로 총 27개팀이 선정됨. 유형별로는 생활환경 개선이 10건, 주민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이 17건임

신청자격	▪ 관내 주민으로서 마을만들기 추진협의체, 자발적 주민모임(10~15인 서명),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풀뿌리 단체, 사회단체 등
사업비	▪ 총2억8천만원 ▪ 생활환경 개선 : 3천만원 이내, 주민공동체 형성 : 1천만원 이내
사업장소	▪ 성북구 관내 전지역
최종접수팀수	▪ 총 33개팀(생활환경개선 11건, 공동체 형성 및 복원 22건)
최종선정팀수	▪ 총 27개팀(생활환경개선 10건, 공동체 형성 및 복원 17건)
사업추진일정	



[그림 7-6] 2012년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현황

- 사업대상지역을 보면 단독다가구주택지역이 51.9%로 가장 많고,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22.2%임. 상가지역이 14.8%, 아파트지역이 11.1%로 나타남
- 사업내용별로 보면 마을 축제 및 공연(5건), 카페, 책방 등 문화공간 조성(5건), 제조 및 바자회(5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4건), 상인 및 시장 활성화(3건), 지역품앗이·복지·교육(3건)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7-7] 2012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현황

2) 다른 지자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현황

(1) 수원시

■ 공모사업 유형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정기공모와 수시공모로 실시되며, 사업유형은 공동체 프로그램, 시설 조성, 공간 조성으로 구분됨. 사업비는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하며, 공동체 프로그램은 500만원 이하, 시설 조성은 2,000만원 이하, 공간 조성은 4,000만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음
- 2012년도 하반기에는 기획공모를 신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재활용 리폼,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별도로 공고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원 이하임

[표 7-10]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유형

사업방식	사업유형	사업내용	사업비
일반공모 (정기공모 /수시공모)	공동체 프로그램	- 체험교육, 축제, 문화공연, 마을조사, 복지 서비스 제공, 선진사례 벤치마킹, 인쇄·홍보물 발행, 강연교육, 전시회 등	500만원 이하
	시설 조성	- 관목·초화류 식재, 커뮤니티 시설 조성, 담장·가로 구조물 환경개선, 도시농업, 기능성 시설물 설치, 홍보·안내 시설물 설치 등	2,000만원 이하
	공간 조성		4,000만원 이하
기획공모 (2012년 하반기 신설)	저탄소 녹색성장		1억원 이하
	재활용 리폼		
	신재생에너지		

자료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

■ 신청자격

- 공모사업 신청주체는 수원시내 주민주체(거주 또는 소재하는 주민조직)로, 사업지 관할 참여조직(마을주체) 주민 15인 이상이 연명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한 주민 15명 중 3명 이상이 마을학교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함
- 시설·공간조성 분야는 선정 후 마을학교 또는 MP(총괄계획가)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추진절차

- 공모사업은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위탁하여 관리·운영함
-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공고하며,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됨
- 공모사업 설명회 이후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후에 공모사업을 접수하며, 주민들이 직접 사업 제안 내용을 발표를 통해 심사한 뒤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됨. 회계 교육, 공모사업 협약식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됨.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발표회에 참여해야 함. 보조금은 사업별 집행계획서 제출 확인 후 1·2차로 구분하여 지급함



-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분야별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 및 사업추진단계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법적 검토 등을 지원함.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추진주체 중 공모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거나 마을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 지문을 지원함
- 마을르네상스 학교에 참여한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 마을만들기 추진주체가 지도교수, 조교와 팀을 구성하여 5주 동안 마을을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함. 이론교육, 마을만들기 워크샵, 마스터플랜 작성, 세부사업 발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물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일반 공모에 지원하게 됨

■ 심사방법 및 심사항목

- 심사방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됨. 1차적으로 행정지원협의체 차원에서 검토하고 보조금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함. 2차 평가에서는 평가위원단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3차에서는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함
- 심사항목은 공통적으로 ① 주민참여도, ② 실현가능성, ③ 효과성, ④ 사업계획 발표 등으로 구분되며, 시설 조성·공간 조성·기획 공모의 경우 현장심사가 추가됨

[표 7-11]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심사기준

구분	평가 항목	
공통	주민참여도	- 사업내용 아이디어 발굴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정도 -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정도 - 시행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 사업규모, 내용, 자원투자계획 등 사업추진의 용이성, 타당성
	효과성	- 사업목적의 파급정도, 지역생활환경 개선의 효과 - 다수 주민에게의 수혜정도, 사회적 편익 증진에 대한 기여도
	사업계획 발표	- 공모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사업 프로그램 구성 적절 여부 등
시설 조성·공간 조성·기획 공모	현장심사	- 입지여건, 사업추진 실현가능 여부 등 - 서류와 현장의 부합정도 등

자료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

(2) 안산시

■ 공모사업 유형

-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생활환경 개선 분야와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 분야로 구분됨. 생활환경 개선 분야는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하드웨어 부분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 분야는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함

- 2012년도의 경우 생활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마을박물관, 마을극장, 마을도서관, 마을놀이터, 마을카페, 마을기업, 마을평상 등 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되는 시설 및 공간인 동네마당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음.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 분야는 공동체 프로그램(문화, 교류, 생태, 환경, 자치, 축제 등)과 공동체 학습(교육, 훈련, 워크숍, 연구조사)을 대상으로 하였음

[표 7-12] 안산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유형

구분	사업 내용	사업비
생활환경 개선	- 벽화, 담장허물기,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놀이터, 마을정원, 생태학습장, 안전한 통학로 등	최대 3,000만원 지원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	- 주민교육, 마을축제, 콘텐츠 제작, 마을신문, 청소년 마을교육, 지역화폐 등	최대 500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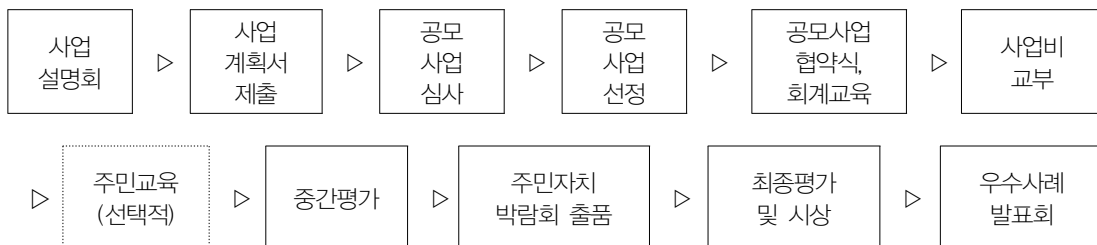
자료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 신청자격

- 공모사업 신청주체는 ① 마을단위에 기반을 둔 단체 및 조직(주민자치위원회, 상가발전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기타 풀뿌리 동아리 등), ② 추진협의회와 같은 컨소시엄(예 : 주민자치위원회 + 안산YWCA), ③ 다양한 주민 자발적인 조직(안산시를 활동 기반으로 주민 15명이 모인 모임 및 동아리)에 포함되어야 함
-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나 이익단체, 동일 사업으로 국가·지자체·기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응모를 제한하고 있음

■ 추진절차

- 공모사업은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위탁하여 관리·운영함
- 연 1회 공고하며,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됨
- 사업설명회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주체로 선정되면 협약식과 회계교육을 거쳐 사업비를 교부받게 됨. 중간평가 이후에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하고 최종평가를 통해 시상한 뒤 시상작을 중심으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함
- 지원금은 연중사업의 경우 사업협약 체결 후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지급함. 축제, 이벤트와 같이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단기사업은 사업협약 체결 후 100%를 지급함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이디어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음. 주민

모임이 사업설명회 이후 아이디어를 신청하면 헬프데스크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아이디어가 선정되면 마을디자인대학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발전시킨 뒤에 구청협력사업, 좋은마을만들기사업, 국가공모사업 등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센터는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사업신청 기간 중과 사업 추진 중 2단계에 걸쳐 지원함
- 사업신청 기간 중에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방법을 어려워하는 주민모임을 돕는 전문가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센터 사무국, 마을닥터(전문가), 운영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방향에 대해 상담하고 사업계획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함
-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중에는 마을닥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 지식이 부족한 마을주민들에게 전담 전문가인 마을닥터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것임. 또한 지도교수와 함께하는 현장 탐방과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 계획을 완성하는 마을디자인대학을 실시하여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러 있는 주민의견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외에도 관련 주제별 전문가 중심의 정기적인 정책토론을 진행하는 마을포럼에 참여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심사항목

- 심사방법은 1차적으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걸쳐 선정한 뒤, 2차적으로 안산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함
- 심사항목은 초기에는 사업의 적절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등 3가지 측면을 고려했는데, 현재는 주민참여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30), 고유성(10), 지속성(10) 등 5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7-13] 안산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심사항목

구분	평가항목
주민참여성 (30)	계획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하였는가? -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공유되었나? - 실행의 과정에서 참여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 누구와 함께 추진하는가? - 주민은 어떤 일을 하는가?
	추진의지 및 역량
실현가능성 (20)	-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한 확인 - 사업의 규모, 내용, 예산의 적절성 -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가능한가?
	주민역량강화 측면
효과성 (30)	- 주민은 마을구성원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는가? - 마을리더가 발굴되는가? - 공익성과 편익성 측면에서 기여도 -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행복해지는가?
	마을의 고유한 빛깔을 담아내고 있는가?
고유성 (10)	- 우리마을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 우리마을만의 창의적 활동인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인가?
지속성 (10)	-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또는 수립할 수 있는가?

자료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3) 광주시 복구

■ 공모사업 유형

- 광주시 복구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방향을 쾌적한 마을 삶터 만들기, 따뜻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앞서가는 마을 사람 만들기, 활력있는 마을만들기 4가지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따뜻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최근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사업(2011년~2012년), 스토리텔링 우리마을 미래계획 세우기(2012년 시범사업)를 추진하기 시작함
- 2000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실적은 크게 마을가꾸기 분야, 문화예술 분야, 주민편익 분야, 건강시설 분야, 기타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음. 2012년까지 총 283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7-14] 광주시 복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실적(2000년~2012년)

구분	사업내용	추진실적
마을가꾸기 분야	소공원, 화단, 꽃길, 담쟁허물기 사업 등	115개
문화예술 분야	공연장 조성, 문패달기, 벽화, 시화마을조성 사업 등	69개
주민편익 분야	등산로 정비, 파고라 설치, 도서관 조성 사업 등	81개
건강시설 분야	건강보도, 지압보도, 운동시설, 육상트랙 설치 등	15개
기타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마을미래계획세우기 등	3개
합계		283개

자료 : 광주시 복구청 홈페이지

- 2012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기본계획의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4대 추진방향에 따라 공모유형이 다양화되었음. 마을만들기 4대 사업을 중심으로 특화지구를 설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는 공모를 통해 지원함⁶⁾. 또한 기획공모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성, 수익성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와 마을(동)을 기본단위로 마을미래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을 매력적이고 특색있는 마을로 만들어 가는 것을 지원하는 스토리텔링 우리마을 미래계획 세우기를 공모함

[표 7-15] 2012년도 광주시 복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유형

구분	사업 영역	사업 내용
자본적 사업 (민간 자본보조)	쾌적한 마을 삶터 가꾸기	- 특색있는 마을(거리) 만들기
		- 녹색마을 만들기(마을텃밭정원 등) - 마을의 역사 찾기(마을 역사·유적 복원 사업)
경상적 사업 (민간 경상보조)	따뜻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 이야기가 있는 마을(마을의 역사, 뿌리 찾기, 마을신문만들기 등) - 공동체 이벤트가 있는 마을(마을봉사의 날 만들기, 마을 축제 등)
	앞서가는 마을사람 만들기	- 평생학습의 마을만들기(지역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마을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 책임있는 마을만들기(주민사서 양성과정 운영, 주민 독서동아리, 마을도서관

16) 주민 주도로 마을자원을 이용해 특화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곡지구(쾌적한 마을삶터 만들기 특화지구), 용봉지구(따뜻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특화지구), 운암지구(마을사람 만들기 특화지구), 중흥·두암지구(활력있는 복지마을만들기 특화지구), 문화지구(녹색의 문화 마을만들기 특화지구) 등 6개 지구로 구분함

	활성화 사업 등) - 아름다운 마을학교 운영 (마을만들기 리더과정 운영 등) - 마을리더 발굴
활력있는 마을만들기	- 특화마을 만들기(문화마을, 무장애 마을만들기 등) - 특화거리 만들기 - 마을기업 육성(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 공간의 질 제고(폐가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기획공모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 지역특화자원 활용사업(농촌마을, 특화거리 등) - 친환경·녹색에너지 사업(아파트 밀집지역 등) - 문화·복지형 사업(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스토리텔링 우리마을 미래계획 세우기 - 우리마을 미래계획 위원회 구성 후 마을자원 조사 스토리텔링 교실을 운영한 뒤, 주민 의견조사·면담·설명회 등을 통한 마을미래계획 수립

자료 : 광주시 북구청 홈페이지

■ 신청자격

- 동 단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된 공모사업 대상임
-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음

■ 추진절차

- 해당 동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신청한 후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해당동 선정사업으로 결정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서면심사, 사업계획 설명회, 현지 심사를 거쳐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심의한 후 최종 확정됨

■ 심사방법 및 심사항목

- 기획 공모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동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되고, 최종적으로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심의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됨
-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소요예산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

(4) 시사점

■ 공모사업의 다양화 추구

- 공모사업 유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공간 등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분야와 주민 참여에 의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야로 구분하는 것은 공통적인데, 기획 공모나 아이디어 공모, 기본계획과 연계한 유형 및 특화지구 설정 등을 통해 공모사업의 다양화를 추구함
- 공모사업 유형은 유지한 상태에서 특정한 주제를 제시하기도 함. 안산시의 경우 공모사업을 공모할 때 주제를 선정하기도 하는데, 2012년에는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 대해 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되는 시설 및 공간인 동네마당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함
- 공모사업이 누적되면 새로운 형태의 공모사업을 모색하기도 함. 수원시는 2012년 하반기에 기획공모를 신설하여 ① 저탄소 녹색성장, ② 재활용 리폼, ③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공모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였음. 광주시 북구도 2012년 공모사업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와

스토리텔링 우리마을 미래계획 세우기 공모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였음

- 광주시 북구의 경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① 쾌적한 마을 삶터 만들기, ② 따뜻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③ 앞서가는 마을 사람 만들기, ④ 활력있는 마을만들기 등 4대 추진방향을 공모사업 유형으로 설정하고, 6개 지구로 구분하여 4대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특화지구로 설정함

■ 주민 참여 및 협력에 대한 우선 고려

- 공모사업 추진주체는 마을이나 동을 기반으로 한 주민모임으로 설정하고 있음.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이 주민들이 추진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신청시 참여주민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심사기준에 주민참여도와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여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공모사업을 계기로 새로운 주민모임이 구성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 주민조직의 참여 이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안산시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 수원시와 안산시 모두 공모사업을 신청한 주민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수원시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주민주체 중 3명 이상의 주민이 교육 프로그램을 사전 이수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마을르네상스 학교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일반 공모에 지원한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받지 않고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됨
- 안산시의 경우 마을주민대학을 수료한 주민조직에 대해서는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아이디어 신청을 한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대학 및 마을디자인대학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발전시켜 안산시 또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모사업 준비 및 추진 과정 지원

-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모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신청기간이나 사업추진기간 동안에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교육을 진행함
- 안산시는 사업신청 기간에 헬프데스크를 통해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방법을 어려워하는 주민모임을 돕는 전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 및 사업추진단계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법적 검토 등을 지원함
-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도 수원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추진주체 중 공모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거나 마을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공간조성 분야는 선정 후 마을학교 또는 MP(총괄계획가)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안산시도 마을닥터 제도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전문가를 파견함

■ 공모사업 발표회를 통한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 공유

- 수원시와 안산시 모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공모사업 발표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다른 마을의 공모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 시상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안산시의 경우 최종 발표회 이외에도 중간평가 이후에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민자치박람회에 공모사업 결과를 출품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3)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평가

(1) 성과

■ 자발적 주민모임 구성 등 마을만들기 주체 형성 토대 마련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주민 개인이 아닌 마을만들기 추진협의체, 자발적 주민모임(10~15인 서명),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풀뿌리단체, 사회단체 등 단체만 신청할 수 있음
- 기존 조직이 있는 경우와 달리 주민모임이 형성되지 않은 마을에서는 공모사업을 계기로 주민모임을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만들기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기획, 주민교육 및 사업추진을 통한 주민 자치 역량 강화

-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 신청과정, 세부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함.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현황과 자원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음
-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도 주민교육 및 간담회, 답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모임 스스로도 자발적인 사업추진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됨

■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통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촉진

- 공모사업의 내용을 보면, 마을 축제 및 공연, 카페, 책방 등 문화공간 조성, 제조 및 바자회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 상인 및 시장 활성화, 지역품앗이, 복지, 교육 등 매우 다양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모임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참여를 촉진하게 됨

■ 주민모임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교육, 간담회, 평가회, 보고회 등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사업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인 주민모임 간에 정보를 공유하

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게 되어 이를 위한 행정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2) 한계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신청기간 제한

-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역시 짧게 책정되어 있어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모임이 있더라도 공모사업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해 신청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놓쳐버린 경우가 있음

■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등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부족

-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회계 관련된 업무는 매우 중요함. 하지만 대부분의 공모사업 추진 주체들은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등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업무 처리와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현재도 회계 교육 등을 통해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지만, 1~2회의 교육만으로는 회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함

■ 연차별 계획 및 사업완료 이후 활동 지속방식에 대한 고려 부족

- 마을만들기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의 사업계획서에는 마을 특성 및 주민요구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마을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또한 공모사업 이후에 어떻게 활동을 지속하거나 확산해갈 것인지에 대한 내부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짧은 사업기간으로 인한 원활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고, 주민 개인이 아닌 단체가 함께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견 조율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2012년도의 경우 대통령 선거 기간과 중복되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

■ 인력 및 시간 부족으로 인한 교육 참여에 대한 부담 증가

- 교육, 간담회, 답사 등을 통해 주민 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짧은 사업기간과 한정된 인력 속에서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됨

4)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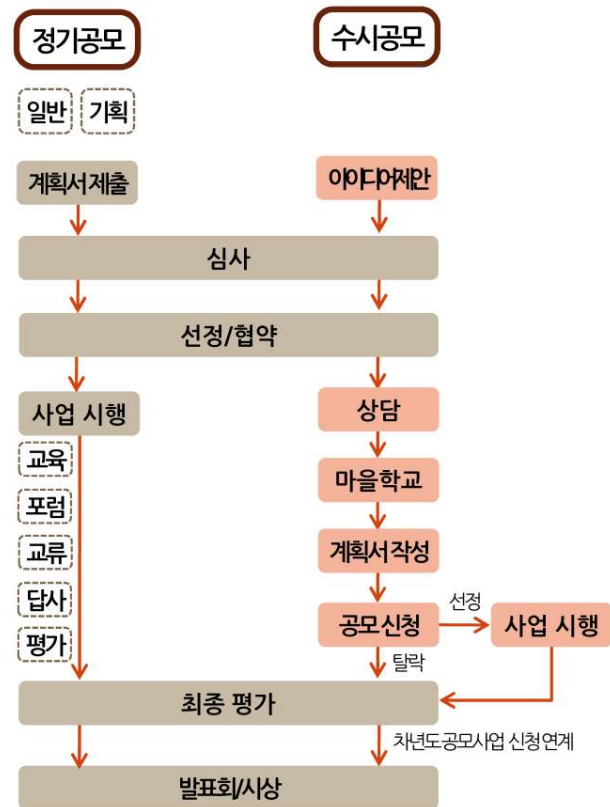
(1) 기본방향

- 첫째, 다양한 홍보 방법 활용을 통한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제고

- 둘째,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지원 방안 모색 및 성과와 공유 경험 기회 확대
- 셋째, 공모사업 분야와 방식의 다양화 및 체계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 추구
- 넷째, 장기적 관점의 마을의제에 기반한 연차별 계획 수립을 통한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 다섯째, 중앙부서 및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 증대

(2) 추진전략

- 정기공모 이외에 아이디어 제안형태의 수시공모 도입하고, 정기공모에 성북형 모델 발굴을 고려한 기획공모를 추가하여 일반공모와 기획공모로 구분함
- 수시공모는 상담, 마을학교와 연계하여 학습 및 기획을 지원하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 지원제도를 우선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대학과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함
- 정기공모는 장기 비전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함. 신규 신청의 경우 <학습 및 기획단계>와 <실행단계>로 구분된 2단계로 제시하고, 계속 신청의 경우 <전년도 활동 평가>와 <지원 이후의 활동 계획> 포함해야 함
- 기획공모는 공모사업 신청주체와 마을만들기 연구회,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여 테마와 지원방식 등을 제안하고,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사업시행기간을 6개월 이상 확보하여 실제 사업 추진 이외에도 교육, 포럼, 교류, 답사, 내부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일반공모와 기획공모를 통해 효과성과 파급성이 확인된 사업유형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보편적인 사업으로 제도화한 뒤 공모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7-8]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추진절차 개선 방안

4.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개선 방안

1)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현황

(1) 추진현황

- 성북구는 2010년부터 지역의 현황과 특성, 문제점 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마을리더를 육성하고,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도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
- 초기에는 가천대와 고려대 등에 위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치된 이후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 2012년 하반기부터는 성북구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마을학교'로 전환하여 현장에 밀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7-16]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유형	도시아카데미	도시아카데미	도시아카데미	도시아카데미	찾아가는 마을학교
기간	8주	8주	8주	11강	6강
대상 지역	장수마을, 정릉6구역, 성북천 일대	정릉1동, 정릉3동, 석관동	돈암제일시장, 정릉시장, 석관황금시장	성북동 앵두마을, 길음휴먼타운, 길음뉴타운3단지	길음동 소리마을, 월곡동 삼태기마을, 성북동 북정마을
참여자	41명	60명	62명	66명	144명(32명 수료)
운영자	가천대 (위탁교육)	고려대 (위탁교육)	고려대 (위탁교육)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자료 : 성북구청 홈페이지

(2) 운영방식

■ 교육규모

- 도시아카데미는 성북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스튜디오 형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50명 내외로 모집한 후 3~4개팀을 구성하여 운영함
-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마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마을 또는 주민모임을 5개소를 신청을 받아 선정한 뒤에 단위별로 15~20명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40명까지 참여하도록 함

■ 교육대상

- 도시아카데미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이외에도 활동가, 공무원, 구의원 등도 참여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① 성북구내에 저층 주거지 거주자로 주민 참여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활동가, ② 성북구 내의 마을경제 활성화, 상업지역 활성화, 역사문화자원 활용

한 지역활성화, 교육복지를 통한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 ③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및 구의원 등을 대상으로 함. 2011년 하반기와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도시아카데미를 진행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상인으로 한정하기도 함

-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마을 단위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 특성 및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참여가 아닌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마을 또는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함.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이나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마을학교 대상에서 제외함

■ 홍보방식

- 초기에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도시아카데미 공고 안내문과 신청서를 게재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을 받았음
-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관련된 단체 및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성북구청 홈페이지 웹포스터, 성북소리 게재, 주민센터별 포스터 배포, 홍보 현수막 설치, 웹포스터 메일 발송, 구청 사업 예정지(주거환경관리사업, 역사문화정비구역 등) 내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을 추천받음

■ 진행방식

- 도시아카데미는 스튜디오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교육은 이론 교육 및 사례 공유를 위한 강의 방식과 참여자가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형태의 워크샵 방식이 병행되며 대상지 현장답사나 우수사례 견학 등이 추가됨
-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직접 현장으로 방문하여 마을 현황 및 특성, 주민들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 수준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워크샵 방식으로 진행됨

(3) 주요 내용

■ 도시아카데미

- 도시아카데미 강의 주요 내용은 ① 마을만들기 개념과 효과에 대한 인식 향상, ② 경제, 문화예술, 생태, 복지 등 다양한 영역과 마을만들기 연계 방안 이해, ③ 물리적 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활성화, 마을기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지역 이슈 발굴과 행동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함
- 팀별로 진행되는 워크샵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① 팀 구성 및 대상지 선정, ② 자료 분석 및 현장 답사를 통한 대상지 분석(문제점과 자원 찾기), ③ 우수 사례 답사, ④ 마을만들기 우선순위 설정 및 마을의 미래상 제안, ⑤ 마을 설계 및 대안 작성, ⑥ 평가 후 수정·보완의 순서로 추진됨

[표 7-17]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워크숍 내용

구분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내용	- 친밀감 형성하기와 대상지 정하기	- 마을만들기에 대해 이해하기
	- 대상지 분석	- 대상지 주요 이슈와 문제점 토론
	- 대상지 답사	- 대상지 답사
	- 우선순위 정하기	- 마을지도 만들기
	- 우수 사례지 답사	- 우리마을 해법찾기(1)
내용	- 마을 디자인하기	- 우리마을 해법찾기(2)
	- 마을 규칙 만들기	- 우리 마을 설계하기
구분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내용	- 자기소개와 팀 구성하기	- 친밀감 형성하기
	- 대상지 주요 이슈와 문제점 토론	- 마을 진단하기
	- 대상지 답사	- 마을지도 만들기
	- 우리시장 해법찾기	- 마을 꿈꾸기(SWOT 분석, 아이템 선정, 마인드맵 작성)
	- 우수 사례지 답사	- 마을기획서 작성하기
	- 우리시장 설계하기	

자료 : 성북구청 홈페이지

■ 찾아가는 마을학교

-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강의 방식을 통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마을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① 마을 과제 찾기, ② 마을 둘러보기, ③ 마을 진단하기, ④ 우리 마을 상상하기의 순서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마을 단위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기존 마을공동체성의 정도, 마을의 현안과 주민들의 사전 교육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달라지거나 도중에 교육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함¹⁷⁾. 2012년 하반기에 진행한 길음마을, 북정마을, 삼태기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마을학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7-18] 성북구 2012년 하반기 찾아가는 마을학교 내용

구분	길음마을학교	북정마을학교	삼태기마을학교
1강	- 길음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 아마존사업 및 마을학교 소개	- 마을만들기 사례: 삼선동 장수마을 1	- 강의: 삼태기마을에서 건강하게 살기
2강	- 마을만들기 사례 : 마을만들기와 마을기업(장수마을)	- 우리 마을 좋은점 불편한 점 우선과제 찾기 - 우리 마을 둘러보기	- 강의: 마을만들기 이해 - 인생 100년 생활사 나누기
3강	- 내가 필요로 하는 점 - 자랑거리/좋은점 찾기 - 문제점 개선과제 - 우선과제 찾기	- 마을만들기 사례: 삼선동 장수마을 2	- 우리 마을 좋은 점, 불편한 점, 우선과제 찾기
4강	- 우리 마을 달인 찾기 워크숍(참가자의 기술과 재능)	- 우리 동네 SWOT 분석	- 답사: 마을 둘러보기
5강	- 사례지 답사: 월곡2동 삼태기 건강친화마을	- 장점을 기회로 살리고(SO), 약점을 기회로 극복(WO)하고, 위협은 장점으로 극복(ST)하고, 위협과 약점을 극복(WT)하는 법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	- 우리 마을 희망찾기 - 수료식

17) 2012년 찾아가는 마을학교 중 하나인 정릉골 마을학교의 경우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마을학교 운영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1강만 진행한 후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학교를 중단했음

6강	- 삼태기 마을 답사내용 공유 - 마을사랑방 마련 방안 기획	- 우리 마을 우선 과제에 근거한 액션플랜 계획과 상상하기 (마인 드맵-생각의 꼬리 늘이기& 지혜 모으기)
7강	- 어린이워크숍	
8강	- 주민인터뷰, 주민설문 결과 공유 - 마을만들기 실천계획 발표	

자료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2) 다른 지자체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현황

(1) 수원

■ 추진현황

-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진행하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마을르네상스 마을학교와 마을르네상스 도시대학으로 구분됨
- 마을르네상스 마을학교는 시민이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및 집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주체를 양성하고 마을발전계획 수립 능력을 배양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이고, 마을르네상스 도시대학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된 낙후지역 마을을 사례로 마을 공동체 형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이론 및 현장 답사 등 실습위주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마을을 조사하고 분석 및 검토 후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학습 강좌임
- 마을르네상스 마을학교는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추진되었으며, 1기 70명, 2기 53명이 참여 하였음. 마을르네상스 도시대학은 교육 운영방식 및 내용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향후 운영될 예정임

■ 운영방식

- 마을르네상스 마을학교는 1개팀당 6인 이상 10인 이하로 5팀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마을르네상스 도시대학은 1개팀당 8인으로 6팀으로 운영될 계획임
- 마을학교는 마을르네상스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개인 또는 추진주체를 대상으로 하며, 마을학교를 이수한 팀은 향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추진주체가 많은 경우에는 참여자 특성, 사업추진 역량,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선발하고, 선정되지 못한 추진주체에 대해서는 차기 교육 우선권을 부여함. 도시대학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마을학교를 이수한 자 중 마을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 ② 지역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만들기를 하고자 하는 주민, ③ 기타 마을만들기 관련 학과 대학생,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함
- 홍보방식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교육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동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하고, 지방 언론사 및 신문사 홍보도 병행하고 있음
- 마을학교와 도시대학 모두 팀을 구성한 뒤에 팀원간 조사 및 토의과정을 거쳐 과제물을 작성하

는 팀별 워크숍 형태로 진행됨. 마을학교는 팀별로 지도교수와 조교, 마을르네상스센터 직원이 배정되어 과제물을 작성하는 과정을 지원함. 마을학교는 의제 찾기, 자원 조사, 비전 설정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시대학은 현황조사, 현황분석, 계획구상, 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따르고 있음

■ 주요 내용

- 마을학교는 총 6회로 진행되며, 2012년을 기준으로 전문가 강의 6시간, 실습 22시간, 발표 2시간 총 30시간을 이수해야 함
- 마을학교는 ① 우리 마을 의제찾기, ② 우리 마을 자원 조사, ③ 우리 마을 비전 설정, ④ 사례지 답사, ⑤ 우리 마을 사업 계획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7-19]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마을학교 교육 내용

구분	교육 내용
우리 마을 의제 찾기	-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생활 속 의제 찾기
우리 마을 자원 조사	- 지역 의제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지역 내 다양한 자원 조사
우리 마을 비전 설정	- 지역 의제와 지역 자원을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통해 우리 마을의 방향성 설정
사례지 답사	- 도시형, 농촌형, 공동체형, 시설 조성 등 다양한 선진사례지 방문
우리 마을 사업 계획	- 사업계획서 발표 및 마을만들기 슬로건 제작

자료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

- 도시대학은 이론과 실습이 조화된 종합적인 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주민제안을 기획하고 공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함. 또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합의 통해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도시대학은 ① 현황조사, ② 현황분석, ③ 계획구상, ④ 기본계획의 과정을 8주 동안 진행하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7-20]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도시대학 교육 내용

구분	교육 내용
현황조사	- 문헌을 통한 사전조사 - 지역주민 현장력 활용 - 어메니티 자원 발굴
현황분석	-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지역현황에 대한 토의 - SWOT 분석 등 사용
계획구상	- 계획방향 설정 - 개발컨셉 논의 - 공간 구상(안) 작성
기본계획	- 브레인스토밍, 자문 - 기본계획 작성 - 상세계획(안) 작성

자료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

(2) 안산

■ 추진현황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대학, 마을 디자인대학, 마을 코디네이터 교육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 정도와 참여 의지에 따라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에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마을 주민 대학을,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마을 디자인 대학을, 마을만들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마을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마을 주민대학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9개 마을에서 마을 주민대학을 수료함. 마을 디자인대학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총 11개 마을에서 추진됨. 마을코디네이터 교육은 2009년 1회 진행되었고, 2012년에는 마을축제를 주제로 1회 진행됨

[표 7-21] 안산시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현황

구분	주요 대상	기간	형태	회수
마을 주민대학	마을 주민(초심자)	5강	강의형	상/하반기(2회)
마을 디자인대학	마을 주민(중급자), 전문가, 관심자	5주	스튜디오형	상반기(1회)
마을 코디네이터 교육	사업경험자, 마을 주민(상급자)	6강	참여형	격월(5회)

자료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를 추구하기 위해 2010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 특강과 마을기자단과 같은 동아리 정기모임 등을 통해 청소년마을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운영방식

- 마을 주민대학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운영되는데, 1회에 3개팀을 대상으로 함. 마을 디자인 대학은 연 1회 3개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운영됨. 마을 코디네이터교육은 격월로 연 5회를 계획하고 있음
- 마을 주민대학은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동아리 및 단체 15명 내외(주민자치위원회, 주민센터 행정공무원, 일반주민 등)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센터가 교육을 희망하는 마을의 동주민 센터나 커뮤니티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함. 마을 주민대학을 수료한 마을은 향후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됨. 마을 디자인대학은 주민자치위원회, 동주민센터, 동아리, 풀뿌리 주민조직 등 안산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마을 주민대학과 마을 디자인대학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등 기존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음. 마을 디자인대학은 5주에 걸쳐 총 30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 대상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마을 주민대학을 수료한 마을이 후속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마을 주민대학은 조별 활동과 과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주도형 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마을의 현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지원센터의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프로그램 완료 후 마을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마을 디자인대학은 지원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안산시를 기반으로 하는 한양대학교와 안산시건축사회, 안산의제21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마을 주민대학은 마을만들기를 공부하는 주민학습 프로그램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해 이해를 키우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장중심 내용으로 진행됨
- 마을 디자인대학은 건축학과 교수 및 건축사 등 전문가와 주민이 팀을 이뤄 작업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팀별 교육내용은 대상지와 주제에 따라 달라짐. 공모사업 및 중앙정부 지원사업 신청이나 구청 및 시청 사업으로 연계 등으로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장소를 대상으로 함
- 마을 코디네이터 교육은 주민 리더를 육성하고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갈등 조정 및 기획 및 평가 능력 제고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됨. 2012년에는 주민들의 실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주된 관심사인 마을축제를 주제로 마을축제의 방향과 실무진행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함

[표 7-22] 안산시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교육 내용

구분	마을 주민대학	마을 디자인대학	마을 코디네이터 교육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의 이해 - 동네 한 바퀴 - 마을보물 발굴 - 우수사례 답사 - 마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마을 열기 및 현장 조사 - 특강 및 팀별 스튜디오 작업 - 발표회 및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와 상상력 - 갈등조정/민주시민교육 - 우수사례 답사 - 사업아이템 기획 및 평가

자료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3) 광주시 복구

■ 추진현황

- 광주시 복구는 '앞서가는 마을 사람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을만들기 강좌(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와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음¹⁸⁾
- 2012년을 기준으로 마을만들기 강좌는 196회 진행하여 13,953명이 참여하였고, 주민자치학교는 12회 진행하여 4,750명이 참여함

■ 운영방식

- 마을만들기 강좌는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 '함께하는 자치강좌'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26개동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임.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통장, 자생단체 회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며, 마을만들기 위원회, 광주YMCA, 전남대법률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 주민자치학교는 광주시 복구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며, 26개동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일반 주민 등이 대상임

18) 이외에도 자치사례 발표,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 발표회 등을 실시하는 평생학습 주민축제와 마을만들기 활성화 전략,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연구 등을 주제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동별 순회교육인 마을만들기 강좌는 권역별 특성과 마을 자원을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표 7-23] 광주시 복구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 교육 내용

구분	교육 내용
1강	주민자치센터와 마을만들기
2강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연구
3강	무엇을 함께 할까?
4강	식물지식과 화훼 가꾸기
5강	아름답고 표정 있는 마을만들기
6강	우리 마을 풍경 찾아내기

자료 : 광주시 복구청 홈페이지

- 주민자치학교는 소양교육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현장의 마을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초청 강연, 우수사례 발표, 레크레이션 등으로 진행됨

[표 7-24] 광주시 복구 2012년 주민자치학교 교육 내용

구분	교육 내용
소양교육 분야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평생학습 분야	평생학습도시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정
마을만들기 분야	제11회 전국주민자치회박람회 우수사례(임동, 일곡동, 두암3동) 발표

자료 : 광주시 복구청 홈페이지

(4) 시사점

■ 공모사업 연계 및 사업 실행을 통한 참여 유도

- 수원시는 마을르네상스 학교에 참여하는 주민주체들이 수료 이후에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응모하면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받지 않고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 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주민모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마을르네상스 학교를 통해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안산시도 마을 주민대학을 이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심사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함. 또한 마을 디자인대학은 처음부터 사업 실행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후에는 안산시 공모사업 및 중앙정부 지원사업 응모, 구청 및 시청 관련 부서와의 연계 등을 통해 실천사업으로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교육에 참여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마을 현황 및 주민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 수원시의 마을르네상스 학교, 안산시의 마을 주민대학, 광주시 복구의 마을만들기 강좌 모두 직접 대상이 되는 마을로 찾아가 마을의 현황 및 주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안산시는 마을 주민대학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마을 디자인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역량을 고려하여 단계별 교육을 시도하고 있음, 마을 주민대학을 통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

해와 우리 마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마을 의제를 발굴한 뒤에 마을 디자인대학을 통해 마을 의제를 특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천사업으로 만들어 내고자 함. 또한 마을만들기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코디네이터 교육을 시도하고 있음

■ **동별 순회교육을 통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보편적 인식 확대**

- 광주시 북구는 마을만들기 강좌를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26개동을 대상으로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6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고 있음. 2009년부터 매년 순회교육을 실시하다보니 2012년 기준으로 196회를 진행하여 13,953명이 참여함. 마을만들기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동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냄

3)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평가

(1) 성과

■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의 결합을 통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 향상**

- 도시아카데미와 찾아가는 마을학교 모두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론 및 활동사례에 대한 교육을 강의 형태로 진행하면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스튜디오 형태도 함께 병행하고 있음
-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결합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을만들기의 의미와 가치, 방향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음

■ **참여형 방식을 통한 적극적 의견 제시 및 창의적 접근 가능**

- 스튜디오 형태는 교육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특별한 해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팀 구성원들이 대상지의 문제와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제안하는 형태임
- 대상지의 특성과 참여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일반적인 해법이 아니라 대상지에 대한 이해와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제시됨

■ **마을주민 대상 맞춤형 교육 효과 확인(공감대 형성 및 주민조직화 등)**

- 찾아가는 마을학교의 경우 특정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주민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이해가 높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임
-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마을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도 해보고, 진지하게 마을의 미래상도 논의하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됨. 또한 마을만들기는 주민 개인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야 함을 깨닫게 됨

■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 증가와 후속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 확인

-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기본적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일회적인 교육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고자 하는 욕구를 확인하게 됨
-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에 참여한 이들은 향후에 마을만들기의 추진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면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이외의 다른 마을의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활동가로서 성장할 가능성도 있음

(2) 한계

■ 참여자의 교육 수요 및 경험에 대한 고려 부족

- 참여자들이 다양하다보니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고 교육 주제에 대한 욕구도 다르게 나타남. 참여자의 교육 수요 및 경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다보니 일부 참여자는 교육 내용의 수준이 너무 낮게 느껴지고 반대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주민의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짐
- 이는 결국에는 교육 과정을 끝까지 수료하는 참여자의 수를 감소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구 단위 홍보와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참여 범위 제한

- 2012년도 상반기 도시아카데미까지는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참여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주민뿐만 아니라 구의원이나 직능단체 회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 주민역량강화가 필요한 마을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전달체계 속에서만 홍보를 했기 때문에 행정과의 관계가 부족한 주민들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또한 구청에서 교육을 실시하다보니 구청과의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들은 시간을 내어 참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청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음

■ 마을에 기반하지 않은 접근으로 인한 주체 형성 및 실행력 부족

- 찾아가는 마을학교 이외에는 자신의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대상지가 선정되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향후 마을만들기 활동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나타남.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해당 지역의 마을만들기 주체가 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도시아카데미 수료 이후 후속 활동 연계에 대한 고려 부족

- 도시아카데미 참여자들의 평가 내용을 보면, 향후 추가 교육에 대한 욕구가 확인되지만 2단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한 적은 없음. 또한 교육을 통해 학습된 내용을 실천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한계가 나타남

4)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 첫째, 마을만들기 교육 수요를 고려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둘째, 동주민센터를 기반으로 한 마을만들기 일반 교육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담당, 마을만들기 지원주체 양성은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식 추구
- 셋째, 교육 이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주민모임 구성, 성북구 자체 또는 외부 공모사업 신청, 마을활동가 파견 등으로 연계 등 구체적인 성과 도출

(2) 추진전략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인력 및 예산을 고려했을 때,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교육사업을 지원센터 차원에서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함
- 따라서 마을만들기 교실, 찾아가는 마을학교, 마을활동가 양성학교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마을만들기 교실은 참여형 학습을 통한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마을, 그룹별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만들기 실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마지막으로 마을활동가 양성학교는 전문교육 및 훈련을 통해 마을만들기 지원주체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별 운영주체, 교육대상, 운영방식, 교육의 주요내용 등은 다음과 같음



[그림 7-9]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사업 개선 방안

부록

주민설문지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번호

안녕하십니까?

(사)한국도시연구소는 성북구청으로부터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시는 설문지는 이러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 않으며,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답변은 향후 성북구가 추구하는 “주민이 주인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실현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월

(사)한국도시연구소

※ 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답 당 자 : 김윤이

- 전 화 : 02-738-4292

이메일 : kocer@chol.com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38번지 신문로빌딩 1006호 (우 110-06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고용상태	① 상용직 근로자	② 임시직 근로자	③ 일용직 근로자	④ 자활·공공근로	
	⑤ 자영업자	⑥ 실업자	⑦ 주부	⑧ 학생	
	⑨ 연로자(만65세 이상 무직)		⑩ 기타()		
거주동	① 성북동	② 삼선동	③ 동선동	④ 돈암1동	⑤ 돈암2동
	⑥ 안암동	⑦ 보문동	⑧ 정릉1동	⑨ 정릉2동	⑩ 정릉3동
	⑪ 정릉4동	⑫ 길음1동	⑬ 길음2동	⑭ 종암동	⑮ 월곡1동
	⑯ 월곡2동	⑰ 장위1동	⑱ 장위2동	⑲ 장위3동	⑳ 석관동
주택유형	① 아파트		②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		③ 오피스텔 ④ 기타
주택점유형태	① 자가 ② 임차(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거주 등)				
성북구 거주기간	()년	거주동 거주기간	()년		

마을만들기 활동내용과 활성화 방안

6. 마을만들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재생,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중요하 지 않음	중요하 지 않음	중요 함	매우 중요함
1) 물리적 재생 :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2) 경제적 재생 :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①	②	③	④
3) 사회적 재생 :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7. 물리적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 지 않음	필요 함	매우 필요함
1) 실태조사를 통한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방식 결정	①	②	③	④
2) 주민참여에 의한 종합적인 마을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3) 역사·문화·자연 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마을 조성	①	②	③	④
4)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기반시설 우선 정비	①	②	③	④
5) 주택 개량 및 소규모 공동 신축 지원을 통한 점진적 정비	①	②	③	④
6) 한옥 개보수 및 골목 정비를 통한 도시형한옥 보전	①	②	③	④
7)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공동시설 마련	①	②	③	④
8)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①	②	③	④

8. 경제적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 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전통시장 및 작은 가게 등 골목상권 활성화	①	②	③	④
2)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①	②	③	④
3) 지역 기업(사회적 기업 포함)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①	②	③	④
4) 마을 및 주민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①	②	③	④
5) 주민이 출자하는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①	②	③	④
6) 지역 기업의 지역사회 이익 환원 및 사회공헌 활성화	①	②	③	④
7) 영세자영업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상설창구 운영	①	②	③	④

9. 사회적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주민대표모임의 구성 및 안정적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2)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①	②	③	④
3)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의제 발굴 및 실천 지원	①	②	③	④
4) 마을협정 등을 통한 자발적 마을 운영 활성화	①	②	③	④
5)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등 세대간 통합 지원	①	②	③	④
6) 품앗이를 통한 돌봄·육아·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①	②	③	④
7) 마을 기반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10. 성북구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북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순위(____), 2순위(____)

- ① 마을만들기에 대한 홍보 및 맞춤형 교육 실시
- ② 소규모 마을 단위 주민리더 발굴 및 양성
- ③ 주민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모임 활동 지원
- ④ 마을을 기반으로 한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⑤ 유형별 시범마을 선정 및 지원을 통한 모델 개발
- ⑥ 마을 지원을 위한 마을활동가 육성 및 파견
- ⑦ 마을특성을 고려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속 추진
- ⑧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마을만들기 기금 조성
- ⑨ 기타(_____)

마을만들기 과제와 희망하는 마을상

[11·12·13번]은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앞으로 희망하는 마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에서 제시한 항목은 성북구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인터뷰>에 응해주신 주민분들과 성북구 20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개최한 <동별 마을만들기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신 주민분들이 주신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11.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에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순위(____), 2순위(____)

- ① 노후주택 개량 지원 및 방치된 공간 정비
- ②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깨끗한 골목환경 유지
- ③ 옥상녹화, 벽화그리기, 꽃길조성 등 골목경관 개선
- ④ 공용주차장 설치 및 골목길 불법 주차 단속 강화
- ⑤ 썸지공원, 놀이터, 휴게공간 등 소규모 쉼터 설치
- ⑥ CCTV, 보안등 등 치안 및 방범시설 설치
- ⑦ 산과 하천 등 자연자원 및 성곽과 문화재 등 역사자원 유지·관리
- ⑧ 주민교류를 위한 다목적 주민사랑방 설치
- ⑨ 동네공방,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문화여가시설 확충
- ⑩ 기타(_____)

12.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에서 공동체 형성 및 복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순위(____), 2순위(____)

- ① 반상회 등 정기적인 마을회의 개최
- ② 맞춤형 교육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 ③ 베틀시장, 녹색장터, 나눔장터 등 마을장터 정기 개최
- ④ 이웃간 교류를 위한 마을잔치 및 마을축제 개최
- ⑤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등 주민소통장치 설치 및 운영
- ⑥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 ⑦ 주민 간 갈등 조정 및 화합을 위한 전문가 파견
- ⑧ 기타(_____)

13. 앞으로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순위(____), 2순위(____)

- ①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참여하는 활력 있는 마을
- ② 나눔문화와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을
- ③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
- ④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산을 보호, 활용하여 발전하는 마을
- ⑤ 치안이 잘되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
- ⑥ 소규모 공동체가 많고 소통이 활발한 마을
- ⑦ 방문객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마을
- ⑧ 문화·여가시설 확보로 삶의 질이 높은 마을
- ⑨ 기타(_____)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